



평양 오야리 18~21·25호분 - 유물편  
TOMB NO.18~21·25 AT OYA-RI IN PYEONGYANG





평양 오야리 18~21·25호분 - 유물편  
TOMB NO.18~21·25 AT OYA-RI IN PYEONGYANG

2022



## 일러두기

1. 이 책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사업의 일환으로 1930년과 1937년에 조사한 평양 오야리 낙랑고분 출토품을 정리한 것이다.
2. 유물번호는 편의를 위해 일률적으로 부여한 것이며, 소장품번호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 등록번호를 따랐다. 소장품번호 중 '본관'은 조선총독부박물관의 등록번호로 현재 망실처리되거나 'K' 혹은 '고적'으로 등록된 것도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병기하였다.
3. 일부 유물명은 현재 통용되고 있거나 체계에 맞추어 새롭게 부여하였다.
4. 유물의 기본 계측 단위는 cm이다.
5. 유물 도면의 축소비율은 도면에 함께 표기하였으며, 유물 도판은 도면의 축척과 일치하지 않는다.
6. 유물의 사진은 '도판'으로, 도면은 '도면'으로 표기하고, 일제강점기 유리건판 사진이나 도면은 '참고도판', '참고도면'으로 구분하였다.
7. 인명, 지명 등 외래어 고유명사는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을 준용하여 표기하였다. 한자는 한글 옆에 표기하되 발음이 다른 한자는 ( )로 묶어 표시하였다. 한자 병기는 II장의 경우 유물번호마다, 그 외의 장은 가장 첫단어만 병기하고 이후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일제강점기 고적조사 보고서 및 자료의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필요시 병기하였다.

I. 머리말	12
II. 주요 유물	16
1. 18호분	23
2. 19호분	58
3. 20호분	160
4. 21호분	225
5. 25호분	252
6. 전傳 오야리 출토품	274
7. 참고품-오야리 22·23호분 출토품	309
III. 자연과학적 분석	322
1. 평양 오야리 19호분 출토 칠기 및 목관의 칠 도막 분석	324
2. 평양 오야리 19호분 출토 목관의 수종 분석	338
3. 평양 오야리 고분 출토 금속기 분석	342
4. 평양 오야리 고분 출토 구슬 분석	352
5. 평양 오야리 18·19호분 출토 식물 분석	370
6. 평양 오야리 19호분 출토 식물유존체 분석	376
IV. 맺음말	384
초록	390
참고문헌	394

## 표 목차

### II장

표 1. 평양 오야리 낙랑고분 출토품 목록	19
표 2. 오야리 22호분 및 23호분 출토 추정 유물 목록	309

### III장-1

표 1. 칠 도막 분석 대상	324
-----------------	-----

### III장-2

표 1. 수종 분석 대상	339
표 2. 평양 오야리 19호분 목관 조직의 광학현미경 사진	340

### III장-3

표 1. 평양 오야리 고분 출토 금속기 분석대상 및 위치	343
표 2. 엑스선형광분석 조건	345
표 3. 컴퓨터단층촬영 조건	345
표 4. 정량분석에 사용된 표준규격의 성분 조성	345
표 5. 평양 오야리 고분 출토 청동거울의 XRF 분석 결과	346
표 6. 평양 오야리 고분 출토 은제 장신구의 XRF 분석 결과	348
표 7. 평양 오야리 고분 출토 은제, 청동제 반지의 XRF 분석 결과	349

### III장-4

표 1. 분석 대상 평양 오야리 고분 출토 구슬	353
표 2. CT촬영 조건	360
표 3. XRF, SEM-EDS 분석 조건	360
표 4. 정량분석에 사용된 표준규격의 성분 조성	361
표 5. XRD 분석 조건	361
표 6. 평양 오야리 고분 출토 유리구슬의 성분 분석 결과	362
표 7. 평양 오야리 고분 출토 다면옥의 XRD 분석 결과	363

### III장-5

표 1. 분석대상 목록	371
표 2. 실(22)의 현미경 조직 확대 모습	372
표 3. 칠사의 현미경 조직 확대 모습	373
표 4. 엽음직물의 현미경 조직 확대 모습	374
표 5. 평전직물의 현미경 조직 확대 모습	374

### 3장-6

표 1. 오야리 19호분 출토 식물유존체	378
표 2. 오야리 19호분 출토 복숭아 핵의 크기	379
표 3. 낙랑고분 출토 식물유존체(안승모 2013 참조)	382

## 도판 목차

### II장

도판 1. 칠장방분(본관12373)	24
도판 2. 칠렴(본관12374, 左: 뚜껑, 右: 신부)	25
도판 2-1. 뚜껑의 내부	26
도판 3. 칠렴(본관12375)	27
도판 3-1. 칠렴 바닥에 쓰인 명문	28
도판 4. 칠렴(본관12375)	29
도판 4-1. 바닥 세부	29
도판 5. 칠배(본관12377)	30
도판 6. 칠기 저부편(본관12376)	33
도판 6-1. 내면 중앙권의 점열문	34
도판 7. 칠기편(본관12372)	35
도판 8. 칠장(본관12378)	36
도판 8-1. 칠장 끝 세부(左: 청동장대 삽입부, 右: 청동장대)	37
도판 9. 봉상칠기(본관12370)	38
도판 10. 봉상칠기(본관12368)	39
도판 11. 봉상칠기(본관12369)	40
도판 12. 죽제품(본관12371)	41
도판 12-1. ①의 직물 세부	41
도판 13. 목제뚜껑(본관12380)	42
도판 14. 청동분(본관12366)	44
도판 14-1. 구연부와 저부 바닥 세부	46
도판 14-2. 포수 세부	46
도판 15. 청동일산살꼭지(본관12362)	47
도판 16. 청동노기 고정쇠(본관12365)	49
도판 17. 청동포(본관12364)	50
도판 18. 철제차축두(본관12363)	51
도판 19. 토기편(본관12381)	52
도판 20. 원판형토제품(본관12367)	55
도판 21. 수정다면옥(본관12361)	56
도판 22. 실(본관12379)	57
도판 22-1. 실②의 세부	57
도판 23. 제1목관(본관12639, ① 뚜껑과 목관 내면, ② 우면, ③ 좌면)	59
도판 23-1. 장측판과 단측판 장부맞춤 세부	63
도판 23-2. 퇴칠 장식	63
도판 23-3. 단측면의 외면과 내면(左: 전면, 右: 후면)	64
도판 23-4. 장측면 내면(上: 우면, 下: 좌면)	65
도판 23-5. 바닥면 내면	65
도판 24. 제2목관(K63, ① 뚜껑과 목관 내면, ② 우면, ③ 좌면)	66
도판 24-1. 단측면의 외면과 내면(左: 전면, 右: 후면)	71
도판 24-2. 장측면 내면(上: 우면, 下: 좌면)	72

도판 24-3. 뚜껑 세부	72	도판 34-1. 문양 세부	116
도판 24-4. 금동사엽좌장식 (① 우면, ② 좌면, ③ 전면, ④ 후면, ⑤ 분리된 장식편)	74	도판 35. 칠배(본관12609)	117
도판 24-5. 금동물뱀이모양 장식 세부	76	도판 36. 칠작(본관12619)	118
도판 25. 제3목관(본관12639, ① 내면, ② 우면, ③ 좌면)	77	도판 36-1. 내면 세부	118
도판 25-1. 단측면의 외면과 내면(左: 전면, 右: 후면)	78	도판 37. 절입각부칠궤(본관12615)	119
도판 25-2. 장측면 내면(上: 우면, 下: 좌면)	81	도판 37-1. 상판	120
도판 25-3. 목판과 목판의 장부맞춤 (左: 전면의 바닥판, 右: 후면의 측판)	81	도판 37-2. 단각(左上: 외면, 右上: 내면) 및 부속구(下)	121
도판 25-4. 장측판과 단측판의 장부맞춤 세부	82	도판 37-3. 장각	121
도판 26. 제4목관(본관12639, ① 목관 내면과 뚜껑, ② 우면, ③ 좌면)	83	도판 37-4. 장각의 횡목 세부(左: 긴 횡목, 右: 짧은 횡목)	123
도판 26-1. 목판과 목판을 잇는 장부구멍	87	도판 38. 구장수(본관12616)	126
도판 26-2. 장측판과 단측판의 장부맞춤 세부	87	도판 39. 장대(본관12621)	128
도판 26-3. 단측면의 외면과 내면(左: 전면, 右: 후면)	88	도판 40. 칠기편(본관12617)	129
도판 26-4. 장측면 내면(上: 우면, 下: 좌면)	89	도판 41. 칠기편(본관12622)	130
도판 26-5. 바닥면 내면	89	도판 42. 칠기편(본관12611)	131
도판 27. 두씨작명마각부칠안(고적28499, 본관12604)	90	도판 43. 목용(본관12632)	132
도판 27-1. 두씨작명마각부칠안 ①의 세부 모습(左: 횡목의 마각 장부구멍, 右: 상판과 횡목에 박은 나무못)	91	도판 43-1. 부의 세부	134
도판 27-2. 두씨작명마각부칠안 ①의 세부 문양(左: 외구外區의 이중 문양대, 右: 주칠구의 물땀이 문양)	92	도판 44. 목마(본관12633)	135
도판 27-3. 두씨작명마각부칠안 ①의 세부 문양 (左: 내구의 이중 문양대, 右: 중앙의 반룡문)	92	도판 44-1. 목마 ①의 세부	138
도판 27-4. 두씨작명마각부칠안 ①의 세부 문양 (左: 테두리 사면, 右: 테두리 측면)	92	도판 45. 투조목기(① 고적29087, ② 본관12634)	140
도판 27-5. 두씨작명마각부칠안 ①의 명문 세부	93	도판 46. 호형목기(본관12631)	142
도판 27-6. 두씨작명마각부칠안 ②의 명문	94	도판 47. 목제빋(K147)	144
도판 27-7. 마각(본관12604)	95	도판 48. 화문대신수경(본관12627)	146
도판 27-8. 마각 세부(左: 앞면, 中: 측면, 右: 뒷면)	95	도판 48-1. RTI 이미지	148
도판 28. 칠반(① 본관12605, ② 본관12606)	97, 98	도판 49. 은제환(본관12628)	151
도판 28-1. 내부 바닥 문양 세부	100	도판 50. 석영혼입계 용(본관12637)	152
도판 28-2. 기벽 문양 세부	100	도판 50-1. 저부 바닥 세부(左: 내면, 右: 외면)	154
도판 28-3. 외면 바닥 문양 세부	100	도판 51. 직물(본관12626)	155
도판 28-4. 칠반 기벽 문양 비교(左: 칠반 ①, 右: 칠반 ②의 左上)	101	도판 52. 대모장식(본관12630)	157
도판 29. 칠반(① 본관12607, ② 본관12608)	102, 103	도판 53. 각종 씨앗(본관12623~12625)	158
도판 30. 칠반(본관12613)	106	도판 54. 목탄과 나무 조각(본관12636)	159
도판 30-1. 칠반 ①의 외면	108	도판 55. 칠갑(본관12641)	162
도판 31. 범평명칠완(본관12610)	109	도판 56. 칠안(본관12643)	164
도판 31-1. 문양 세부(左: 내면 바닥, 右上: 내면 기벽, 右下: 외면)	111	도판 57. 칠렴(본관12642)	165
도판 31-2. 명문 세부	111	도판 58. 칠배(고적29129)	166
도판 32. 칠완(본관12620)	112	도판 59. 은제원통형금구(본관12647, 左: 정면, 右: 윗면과 아랫면)	167
도판 33. 칠완(고적29085)	113	도판 60. 반지(①~⑥ 본관12648, ⑦~⑩ 본관12649)	168
도판 33-1. 저부 굽 단면	114	도판 61. 원저단경호(본관12651)	170
도판 34. 칠렴(본관12612)	115	도판 62. 원저단경호(본관12653)	172
		도판 63. 화분형토기(본관12652)	174
		도판 63-1. 내면의 포목흔	176
		도판 63-2. 내면의 원형틀흔	176
		도판 64. 유리소옥(본관12644, ①~③ 남색, ④ 흰색, ⑤ 암자색, ⑥ 녹색)	177
		도판 64-1. 녹색 유리소옥(左)과 암자색 유리소옥(右)	178



도판 65. 마노환옥과 유리소옥(본관12645)	180	도판 90. 은제반지(본관12676)	234
도판 66. 칠배(① 고적29090, ② 고적29092)	183	도판 91. 평저호(본관12684, ① 견부, ② 동체부, ③ 저부)	235
도판 67. 칠배(고적29101)	185	도판 91-1. 저부 내면 세부	237
도판 68. 칠편(본관12654)	186	도판 92. 평저호(본관12684, ① 구연부, ② 동체부, ③ 저부)	238
도판 69. 평저단경호(본관12656)	187	도판 93. 토기 구연부편(본관12684)	240
도판 69-1. 내부 바닥	189	도판 94. 석영혼입계 용(본관12683, ① 구연부, ② 동체부 및 저부)	241
도판 70. 원저단경호(본관12656)	190	도판 94-1. 저부 세부	243
도판 70-1. 구연부 내면의 승문타날흔	192	도판 95. 석영혼입계 용(본관12682, ① 구연부, ② 동체부)	244
도판 70-2. 저부 외면의 승문타날흔	192	도판 96. 석영혼입계 용(본관12682, ① 구연부, ② 구연 및 동체부)	246
도판 70-3. 저부 내면의 내박자흔	192	도판 97. 화분형토기(본관12685)	248
도판 71. 원저단경호(고적22558)	193	도판 98. 이당과 환옥(① 본관12677, ② 본관12678)	250
도판 72. 석영혼입계 용(본관12657)	195	도판 99. 연호문경(K347)	253
도판 72-1. 저부 외면의 승문타날흔	197	도판 99-1. 직물 세부	255
도판 73. 칠장방분(본관12663)	200	도판 100. 반룡경(K346)	256
도판 74. 칠렴(본관12658, ①·④ 뚜껑, ②·③ 측면 ⑤ 현자懸子)	201	도판 100-1. RTI 이미지	258
도판 74-1. 문양 세부	202	도판 101. 반지(① K349, ② K351, ③ 고적28392, ④ 고적28393)	259
도판 75. 칠배(본관12664)	203	도판 102. 평저장경호(고적18298, ① 구연부, ② 동체부, ③ 저부)	262
도판 75-1. 명문 세부	203	도판 102-1. 견부 문양	264
도판 76. 칠기편(본관12670)	204	도판 102-2. 저부 내면 바닥 세부	264
도판 77. 은제반지(본관12669)	206	도판 103. 평저장경호(고적22674)	265
도판 78. 평저단경호(본관12673)	207	도판 103-1. 저부 내면 바닥 세부	267
도판 79. 원저단경호(본관12673)	209	도판 103-2. 견부 문양	267
도판 80. 원저단경호(본관12672)	211	도판 104. 평저단경호(고적22530)	268
도판 80-1. 구연 및 동체의 승문타날흔	213	도판 104-1. 외면 세부	270
도판 80-2. 구연 외면과 내면의 승문타날흔	213	도판 105. 이당과 부수식옥(① K348, ② K350)	271
도판 80-3. 내면 하단의 내박자흔	213	도판 106. 마노관옥과 환옥(고적28391, ①·② 관옥, ③ 환옥)	273
도판 80-4. 저부 외면의 승문타날흔	213	도판 107. 연호문경(본관11448)	275
도판 81. 원저단경호(본관12674)	214	도판 108. 연호문경(본관12071)	278
도판 81-1. 구연 내면의 승문타날흔	216	도판 109. 명대경(본관13092)	281
도판 81-2. 저부 외면의 승문타날흔	216	도판 110. 박국경(본관13128)	284
도판 81-3. 저부 내면의 내박자흔	216	도판 111. 청동일산살꼭지(① 본관13096, 그 외 본관13093)	286
도판 82. 화분형토기(본관12671)	217	도판 112. 청동옹각(본관13097)	288
도판 82-1. 내면의 포목흔	219	도판 113. 포수(본관13098)	289
도판 83. 유리소옥(본관12660)	220	도판 114. 청동검파두식(본관13015)	290
도판 83-1. 유리소옥 파편	221	도판 115. 칠반장식금동테(본관13099)	291
도판 84. 구슬(본관12668, ① 유리양형옥, ② 마노다면옥, ③ 마노가지형옥)	222	도판 116. 은제팔찌(본관11449)	292
도판 85. 고동의 아가미뚜껑(본관12665)	224	도판 117. 은제반지(본관11450)	294
도판 86. 영평십사년명칠배(본관12680)	226	도판 118. 평저단경호(본관10414)	295
도판 86-1. 명문 세부	227	도판 119. 평저단경호(본관12386)	297
도판 87. 칠배(본관12681)	229	도판 119-1. 내부 바닥 세부	298
도판 87-1. 명문 세부(①, ②, ③)	230	도판 120. 평저장경호(본관13095)	299
도판 88. 칠기편(고적29093)	231	도판 120-1. 견부 문양	301
도판 89. 와권문경(본관12675)	232	도판 120-2. 경부 내면 세부	301
		도판 121. 완(본관11451)	302

도판 121-1. 내면	304	도판 27. 제1목관 바탕층 골분의 SEM-EDS 분석 결과	
도판 122. 토기편(①·④ 본관9627, ②·③·⑤ 본관9628)	305	[(a): SEM image(×50), (b): EDS spectrum]	332
도판 123. 기와편(① 본관9631, ②·③ 본관9632)	307	도판 28. 제1목관 옷칠층의 SEM-EDS 분석 결과	
		[(a): SEM image(×200), (b): EDS spectrum]	332
<b>III장-1</b>		도판 29. 제1목관 중간층의 SEM-EDS 분석 결과	
도판 1. 칠반(28-①)의 반사광 관찰 결과(×100)	325	[(a): SEM image(×50), (b): EDS spectrum]	332
도판 2. 칠반(28-①)의 편광 관찰 결과(×100)	325	도판 30. 제2목관 뚜껑의 실체현미경 관찰 결과(×20)	333
도판 3. 칠반(28-①) 바탕층 토분의 SEM-EDS 분석 결과		도판 31. 제2목관 뚜껑의 실체현미경 관찰 결과(×50)	333
[(a): SEM image(×100), (b): EDS spectrum]	325	도판 32. 제2목관 뚜껑의 투과광 관찰 결과(×50)	333
도판 4. 칠반(28-①) 옷칠층의 SEM-EDS 분석 결과		도판 33. 제2목관 뚜껑의 바탕층 골분의 SEM-EDS 분석 결과	
[(a): SEM image(×100), (b): EDS spectrum]	326	[(a): SEM image(×200), (b): EDS spectrum]	333
도판 5. 칠반(28-①) 문양의 XRF 분석 결과		도판 34. 제2목관 뚜껑의 바탕층 골분의 SEM-EDS 분석 결과	
[(a): XRF image, (b): XRF spectrum]	326	[(a): SEM image(×200), (b): EDS spectrum]	333
도판 6. 칠반(29-①)의 반사광 관찰 결과(×100)	327	도판 35. 제2목관 뚜껑의 황색 중간층의 SEM-EDS 분석 결과	
도판 7. 칠반(29-①)의 편광 관찰 결과(×100)	327	[(a): SEM image(×200), (b): EDS spectrum]	334
도판 8. 칠반(29-①) 바탕층 골분의 SEM-EDS 분석 결과		도판 36. 제2목관 뚜껑의 황색 중간층의 SEM-EDS 분석 결과	
[(a): SEM image(×100), (b): EDS spectrum]	327	[(a): SEM image(×200), (b): EDS spectrum]	334
도판 9. 칠반(29-①) 바탕층 토분의 SEM-EDS 분석 결과		도판 37. 제2목관 측면의 실체현미경 관찰 결과(×20)	334
[(a): SEM image(×100), (b): EDS spectrum]	327	도판 38. 제2목관 측면의 실체현미경 관찰 결과(×50)	334
도판 10. 칠반(29-②)의 실체현미경 관찰 결과(×50)	328	도판 39. 제2목관 측면의 투과광 관찰 결과(×50)	334
도판 11. 칠반(29-②)의 편광 관찰 결과(×50)	328	도판 40. 제2목관 측면 바탕층 골분(흑색)의 SEM-EDS 분석 결과	
도판 12. 칠반(29-②) 중간층의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결과		[(a): SEM image(×200), (b): EDS spectrum]	335
[(a): 내면 중간층, (b): 외면 중간층]	328	도판 41. 제2목관 측면 바탕층 골분(갈색)의 SEM-EDS 분석 결과	
도판 13. 칠반(29-②) 바탕층 토분의 SEM-EDS 분석 결과		[(a): SEM image(×200), (b): EDS spectrum]	335
[(a): SEM image(×100), (b): EDS spectrum]	328	도판 42. 제2목관 측면 바탕층 골분(녹색)의 SEM-EDS 분석 결과	
도판 14. 칠반(29-②) 바탕층 토분의 SEM-EDS 분석 결과		[(a): SEM image(×200), (b): EDS spectrum]	335
[(a): SEM image(×100), (b): EDS spectrum]	329	도판 43. 제2목관 측면 옷칠층의 SEM-EDS 분석 결과	
도판 15. 칠반(29-②) 옷칠층의 SEM-EDS 분석 결과		[(a): SEM image(×200), (b): EDS spectrum]	335
[(a): SEM image(×300), (b): EDS spectrum]	329	도판 44. 제2목관 측면 황색 중간층의 SEM-EDS 분석 결과	
도판 16. 칠반(29-②) 중간층의 SEM-EDS 분석 결과		[(a): SEM image(×200), (b): EDS spectrum]	336
[(a): SEM image(×300), (b): EDS spectrum]	329		
도판 17. 범평명칠완의 투과광 관찰 결과(×50)	330	<b>III장-3</b>	
도판 18. 범평명칠완의 편광 관찰 결과(×50)	330	도판 1. 은제반지(77-②)의 표면 조사(×10)	350
도판 19. 범평명칠완의 반사광 관찰 결과(×50)	330	도판 2. 은제반지(77-②)의 표면 조사(×30)	350
도판 20. 범평명칠완 바탕층 골분의 SEM-EDS 분석 결과		도판 3. 은제반지(77-②)의 컴퓨터단층촬영	350
[(a): SEM image(×50), (b): EDS spectrum]	330	도판 4. 은제반지(77-②)의 측면	350
도판 21. 범평명칠완 옷칠층의 SEM-EDS 분석 결과			
[(a): SEM image(×200), (b): EDS spectrum]	330	<b>III장-4</b>	
도판 22. 범평명칠완 문양층의 SEM-EDS 분석 결과		도판 1. 분석대상 구슬의 세부번호	359
[(a): SEM image(×500), (b): EDS spectrum]	331	도판 2. 평양 오야리 고분 출토 유리옥의 기포방향으로 확인하는	
도판 23. 범평명칠완 중간층의 SEM-EDS 분석 결과		제작기법	365
[(a): SEM image(×500), (b): EDS spectrum]	331	도판 3. 평양 오야리 고분 출토 구슬의 나노CT 조사 이미지	366
도판 24. 제1목관의 실체현미경 관찰 결과(×15)	331	도판 4. 평양 오야리 고분 출토 유리구슬의 성분 조성상 분류	367
도판 25. 제1목관의 실체현미경 관찰 결과(×50)	331		
도판 26. 제1목관의 투과광 관찰 결과(×50)	331		

### III장-6

도판 1. 오야리 19호분 출토 식물유존체 유리건판 사진(건판10331)	376
도판 2. 식물유존체 출토 지점(붉은색 표시)	377
도판 3. 현생 매실과 복숭아 핵 (안승모 2015: 도 2 수정)	378
도판 4. 오야리 19호분 출토 복숭아 핵	378
도판 5. 한반도 유적 출토 복숭아 핵 크기 비교	379
도판 6. 오야리 19호분 출토 밤 과피	380
도판 7. 오야리 19호분 출토 산사나무 씨앗	381

## 도면 목차

도면 1. 칠기 저부편 ③(본관12376)	34
도면 2. 칠장(본관12378)	36
도면 3. 봉상칠기(본관12370)	38
도면 4. 봉상칠기(본관12368)	39
도면 5. 봉상칠기(본관12369)	40
도면 6. 목제뚜껑(본관12380)	43
도면 7. 청동분(본관12366)	45
도면 8. 청동일산살꼭지(본관12362)	48
도면 9. 청동노기 고정쇠(본관12365)	49
도면 10. 청동포(본관12364)	50
도면 11. 철제차축두(본관12363)	51
도면 12. 토기편(본관12381)	53
도면 13. 원판형토제품(본관12367)	55
도면 14. 수정다면옥(본관12361)	56
도면 15. 제1목관(본관12639)	61
도면 16. 제2목관(K63)	67
도면 17. 제3목관(본관12639)	79
도면 18. 제4목관(본관12639)	85
도면 19. 마각(본관12604)	96
도면 20. 칠반 ①(본관12605)	99
도면 21. 칠반 ①(본관12607)	104
도면 22. 칠반(본관12613)	107
도면 23. 범평명칠완(본관12610)	110
도면 24. 칠완(고적29085)	114
도면 25-1. 절입각부칠계의 상판	120
도면 25-2. 절입각부칠계의 단각과 장각	122
도면 26. 구장수(본관12616)	127
도면 27. 장대(본관12621)	128
도면 28. 목용(본관12632)	133
도면 29-1. 목마 ①(본관12633)	136
도면 29-2. 목마 ②(본관12633)	137
도면 30. 투조목기(① 고적29087)	141
도면 31. 호형목기(본관12631)	143
도면 32. 목제빗(K147)	144
도면 33. 화문대신수경(본관12627)	147
도면 34. 은제환(본관12628)	151
도면 35. 석영혼입계 용(본관12637)	153
도면 36. 대모장식(본관12630)	157
도면 37. 은제원통형금구(본관12647)	167
도면 38. 반지(①~⑥ 본관12648, ⑦~⑩ 본관12649)	169
도면 39. 원저단경호(본관12651)	171

도면 40. 원저단경호(본관12653)	173	도면 83. 은제팔찌(본관11449)	293
도면 41. 화분형토기(본관12652)	175	도면 84. 은제반지(본관11450)	294
도면 42. 유리소옥(본관12644, ①~③ 남색, ④ 흰색, ⑤ 암자색)	177	도면 85. 평저단경호(본관10414)	296
도면 43. 마노환옥과 유리소옥(본관12645)	180	도면 86. 평저단경호(본관12386)	298
도면 44. 평저단경호(본관12656)	188	도면 87. 평저장경호(본관13095)	300
도면 45. 원저단경호(본관12656)	191	도면 88. 완(본관11451)	303
도면 46. 원저단경호(고적22558)	194	도면 89. 토기편(①·④ 본관9627, ②·⑤ 본관9628)	306
도면 47. 석영혼입계 웅(본관12657)	196	도면 90. 기와편(① 본관9631, ②·③ 본관9632)	308
도면 48. 은제반지(본관12669)	206		
도면 49. 평저단경호(본관12673)	208		
도면 50. 원저단경호(본관12673)	210		
도면 51. 원저단경호(본관12672)	212		
도면 52. 원저단경호(본관12674)	215		
도면 53. 화분형토기(본관12671)	218		
도면 54. 유리소옥(본관12660)	220		
도면 55. 구슬(본관12668, ① 유리양형옥, ② 마노다면옥, ③ 마노가지형옥)	223		
도면 56. 와권문경(본관12675)	233		
도면 57. 은제반지(본관12676)	234		
도면 58. 평저호(본관12684)	236		
도면 59. 평저호(본관12684)	239		
도면 60. 토기 구연부편(본관12684)	240		
도면 61. 석영혼입계 웅(본관12683)	242		
도면 62. 석영혼입계 웅(본관12682)	245		
도면 63. 석영혼입계 웅(본관12682)	247		
도면 64. 화분형토기(본관12685)	249		
도면 65. 이당과 환옥(① 본관12677, ② 본관12678)	250		
도면 66. 연호문경(K347)	254		
도면 67. 반룡경(K346)	257		
도면 68. 반지(① K349, ② K351, ③ 고적28392, ④ 고적28393)	260		
도면 69. 평저장경호(고적18298)	263		
도면 70. 평저장경호(고적22674)	266		
도면 71. 평저단경호(고적22530)	269		
도면 72. 이당과 부수식옥(① K348, ② K350)	272		
도면 73. 마노관옥과 환옥(고적28391, ①·② 관옥, ③ 환옥)	273		
도면 74. 연호문경(본관11448)	276		
도면 75. 연호문경(본관12071)	279		
도면 76. 명대경(본관13092)	282		
도면 77. 박국경(본관13128)	285		
도면 78. 청동일산살꼭지(① 본관13096, ②·③ 본관13093)	287		
도면 79. 청동웅각(본관13097)	288		
도면 80. 포수(본관13098)	289		
도면 81. 청동검파두식(본관13015)	290		
도면 82. 칠반장식금동테(본관13099)	291		

## 참고도판 목차

참고도판 1. 18호분 목곽과 목관(건판10245)	23	참고도판 31. 피장자의 목 부근에서 발견된 구슬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 (건판10338)	181
참고도판 2. 칠장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건판10252)	36	참고도판 32. 치아편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건판10341 중)	181
참고도판 3. 철제차축두의 일제강점기촬영 사진(건판32599)	51	참고도판 33. 떡갈나무 잎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건판10340)	181
참고도판 4. 19호분 내부 전경(건판9642)	58	참고도판 34. 목곽 내 북쪽 토기 출토 모습(건판9655)	182
참고도판 5. 제1목관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 (건판10254, 10262, 10264~10266)	60	참고도판 35. 목곽 내 북쪽 칠반 출토 모습(건판9656)	182
참고도판 6. 제2목관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 (건판10267, 10268, 10270~10272)	69	참고도판 36. 칠반 ①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건판10344)	184
참고도판 7. 금동사엽좌장식(우면)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 (건판17167)	73	참고도판 37. 칠배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건판10345)	185
참고도판 8. 큰 금동병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건판10275)	75	참고도판 38. 제3곽 목관과 목곽 사이 부장공간의 유물 출토 모습 (건판9662)	198
참고도판 9. 제3목관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건판10278, 10279)	78	참고도판 39. 칠렴 출토 모습(건판32593)	202
참고도판 10. 제4목관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 (건판10280, 10281, 10283~10285)	84	참고도판 40. 칠렴(左 현자, 右 저부)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 (건판10353)	202
참고도판 11. 두씨작명마각부칠안 ①의 일제강점기 촬영사진 (左: 건판17156, 右: 건판17157)	91	참고도판 41. 측면(건판10358)	205
참고도판 12. 일제강점기에 촬영한 두씨작명마각부칠안 ①의 명문 (보고서 도판 51)	93	참고도판 42. 바닥판과 명문 세부(건판10357)	205
참고도판 13. 일제강점기에 촬영한 두씨작명마각부칠안 ②의 명문 (건판10296)	94	참고도판 43. 칠렴 안 유리소옥의 출토 모습(건판10355)	221
참고도판 14. 복원한 절입각부칠계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 (건판34906)	124	참고도판 44. 유리소옥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건판10356)	221
참고도판 15. 일제강점기에 제작한 칠계 복원품 (건판12056~12061)	125	참고도판 45. 목관 내에서 출토된 구슬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 (건판10361)	223
참고도판 16. 투조목기 ①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건판10325)	141	참고도판 46. 제3곽에서 출토된 고동의 아가미뚜껑과 떡갈나무 잎, 씨앗(보고서 도판 108-(2), (3))	224
참고도판 17. 용도불명목기(본판12635, 건판10329)	145	참고도판 47. 21호분에서 출토된 씨앗(건판26876)	251
참고도판 18. 목봉(건판10323)	145	참고도판 48. 평저장경호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 (보고서 도판 115)	267
참고도판 19. 화문대신수경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건판10318)	149	참고도판 49. 오야리 채토장 출토 동경 관련 우메하라 고고자료	274
참고도판 20. 석영혼입계 웅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건판32579)	154	참고도판 50. 연호문경(우메하라 고고자료 261)	280
참고도판 21. 직물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건판10314~10316)	156	참고도판 51. 세지문경(건판26608)	310
참고도판 22. 19호분에 사용된 벽돌(건판32602)	159	참고도판 52. 세지문경의 문양 세부(건판26952)	311
참고도판 23. 제1곽 내 목관과 목곽 사이 부장공간의 유물 출토 모습 (건판9652)	160	참고도판 53. 박국경(건판26171)	312
참고도판 24. 칠갑과 유리소옥 출토 모습(건판10332)	163	참고도판 54. 박국경(우메하라 고고자료763)	313
참고도판 25. 칠갑 아래에서 씨앗이 출토되는 모습(건판10334)	163	참고도판 55. 동탁(건판26206)	314
참고도판 26. 칠갑에서 출토된 씨앗(건판10337 중)	163	참고도판 56. 칠설(건판26205)	316
참고도판 27. 은제원통형금구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 (건판10338 중)	167	참고도판 57. 동탁 ②(左: 건판26207, 右: 건판26603)	316
참고도판 28. 광구호(본판12650)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 (건판10342 중)	176	참고도판 58. 삿갓형동기(건판26202)	317
참고도판 29. 유리소옥과 대모제품 출토 모습(건판26867)	179	참고도판 59. 을자형동기(건판26167 중)	318
참고도판 30. 대모제품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건판10341 중)	179	참고도판 60. 칠기장식금동테(건판26167 중)	319
		참고도판 61. 화분형토기와 평저장경호(건판26211)	320



## 참고도면 목차

참고도면 1. 금동사엽좌장식(우면) 일제강점기 실측도(건판17177)	75
참고도면 2. 큰 금동병의 일제강점기 실측도(건판26971)	75
참고도면 3. 금동물땀이모양장식의 일제강점기 실측도(건판26862)	76
참고도면 4. 19호분 내 유물 출토 위치	91
참고도면 5. 칠반 ②의 출토 위치	105
참고도면 6. 일제강점기에 작성한 칠괘 복원도 (보고서 도판 70 재편집)	124
참고도면 7.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목용의 실측도와 단면도 (보고서 도판 78, 79)	134
참고도면 8. 투조목기 ①(고적29087)의 일제강점기 복원도 (보고서 제82도)	141
참고도면 9. 용도불명목기(본관12635) 일제강점기 실측도 (보고서 제35도 재편집)	145
참고도면 10. 제1곽 실측도(보고서 도판 86 재편집)	161
참고도면 11. 제1곽 목관 내 유물배치도(보고서 도판 89)	161
참고도면 12. 칠안의 일제강점기 실측도(건판34907)	164
참고도면 13. 유리소옥과 대모제품 출토 모습 실측도(보고서 제37도)	179
참고도면 14. 제2곽 실측도(보고서 도판 86 재편집)	182
참고도면 15. 제3곽 실측도(보고서 도판 86 재편집)	199
참고도면 16. 제3곽 목관 내 유물배치도(보고서 도판 103)	199
참고도면 17. 칠장방분 복원도(보고서 제40도)	200
참고도면 18. 칠립 뚜껑의 일제강점기 복원도(건판10352)	202
참고도면 19. 21호분 평면도(보고서 도판 111 재편집)	225
참고도면 20. 25호분 평면도(보고서 도판 112 재편집)	252
참고도면 21. 세지문경(건판26204)	310
참고도면 22. 박국경(건판26604)	312
참고도면 23. 동탁(우메하라 고고자료 2133, 2135)	315
참고도면 24. 철설(우메하라 고고자료 2132)	316
참고도면 25. 샷갓형동기(우메하라 고고자료 2156)	317

I

\_\_\_\_\_

머리말

# I. 머리말

기원전 108년 전한 무제에 의해 조선에 설치된 낙랑은 한반도와 중국을 연결하는 정치적 거점이자 교류의 중심지로 당시의 문화 변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때문에 학계에서는 낙랑에 대해 일찍부터 관심이 높았으나, 자료의 한계로 연구가 쉽지 않았다. 특히 남한 지역에서는 낙랑유적이 새롭게 발굴 조사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가 일제강점기에 실시된 고적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고적조사는 조사 기간이 짧고 조사 내용도 대부분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어 원하는 정보를 얻기 쉽지 않다. 또 사진이나 도면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당시의 기술적·환경적 한계로 정밀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중앙박물관은 일제강점기의 고적조사를 재조사하여 연구 성과를 공개하는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신라, 백제, 가야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낙랑 역시 그 세부 주제의 하나로 『봉산 양동리 전실묘』(국립중앙박물관 2001)가 처음 발간되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평양 오야리 18~21·25호분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일제강점기 자료를 재조사하여 보고서를 발간하는 네 번째 낙랑고분이다.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사업은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된 유물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조사 기록과 관련된 사진이나 문서도 중요한 조사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고적조사를 재조사한다는 것은 수천, 수백 년 전의 과거를 조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100여 년 전 일본인 학자들이 작성한 자료를 재발굴하는 작업도 병행해야함을 의미한다. 때문에 유물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일제강점기의 조사내용과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평양 오야리 낙랑고분에 대한 조사는 먼저 당시의 조사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일제강점기의 유리건판과 문서 등을 정리하여 2021년 『평양 오야리 18~21·25호분-유구편』을 발간하였다.

이어 발간하는 본 보고서에서는 평양 오야리 낙랑고분에서 어떠한 유물이 출토되었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 출토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당시 고적조사를 진행한 오야리 18~21·25호분은 물론 오야리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수집품 및 구입품도 일부 포함된다. 또 오야리 22·23호분 출토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지만 유리건판과 우메하라(梅原) 고고자료 일부를 활용하여 소개한다.

본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관내 많은 연구자들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일제강점기 조사 이후 제대로 보존처리 되지 못한 유물들에 대해 보존과학부의 긴밀한 협조와 지지로 보존처리와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유물들은 유물관리부가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기에 유물의 선별 및 대조 작업이 가능하였다. 또한 역사학, 보존과학, 고고학, 미술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의 조언과 관심으로 본 보고서가 발간될 수 있었다.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였지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 참여 분야 및 담당자

참여 분야	담당자
사업 기획 및 총괄	김상태(고고역사부장), 양성혁(고고역사부 학예연구관), 최정아(고고역사부 학예연구사)
유물 조사, 실측, 도면 제도 및 사업 진행	최정아(고고역사부 학예연구사), 정수빈(고고역사부 공무원), 정수진(고고역사부 공무원)
3D 스캔 및 도면 제도	(주)기록하는 사람들
원고작성	총괄 양성혁(고고역사부 학예연구관), 최정아(고고역사부 학예연구사)
	토기 이나경(국립춘천박물관 학예연구사)
	동경 이양수(국립청주박물관장)
	명문 이태희(어린이박물관과 학예연구관)
	과학적 분석 양석진(보존과학부 학예연구사), 박승원(보존과학부 학예연구사), 고수린(보존과학부 학예연구사), 김태하(보존과학부 공무원), 이희경(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강사)
과학적 조사 총괄	유혜선(보존과학부장)
목질기 보존처리 및 분석	양석진(보존과학부 학예연구사), 박영만(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학예연구관), 김태하(보존과학부 공무원)
직물 보존처리 및 분석	곽홍인(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사), 박승원(보존과학부 학예연구사), 황진영(전 보존과학부 공무원)
금속기 보존처리	김미도리(국립한글박물관 학예연구사), 김현정(국립춘천박물관 학예연구사), 최기은(보존과학부 학예연구사), 권미혜(보존과학부 공무원), 박지혜(보존과학부 공무원)
금속기 및 구슬 분석	노지현(국립부여박물관 학예연구사), 고수린(보존과학부 학예연구사), 박진호(보존과학부 공무원), 이수진(보존과학부 공무원)
토기 보존처리	황현성(보존과학부 학예연구사), 나아영(보존과학부 공무원)
식물유존체 분석	이희경(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강사)
자문	오영찬(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정인성(영남대학교 교수), 주경미(충남대학교 강사)
유물 사진 촬영	K-art studio
교정 및 교열	양성혁(고고역사부 학예연구관), 최정아(고고역사부 학예연구사), 정수빈(고고역사부 공무원), 정수진(고고역사부 공무원)
보고서 제작	(주)계문사



II

---

---

1. 18호분	23
2. 19호분	58
3. 20호분	160
4. 21호분	225
5. 25호분	252
6. 전傳 오야리 출토품	274
7. 참고품-오야리 22·23호분 출토품	309

## 주요 유물

## II. 주요 유물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평양 오야리 낙랑고분은 건설 공사로 고분 내부가 노출되면서 조사가 시작되었다. 때문에 이미 도굴이 되거나 공사로 파괴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출토품이 부장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야리 낙랑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은 중소형 낙랑고분의 매장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오야리 낙랑고분에서는 칠기, 목기, 청동기, 토기 등 다양한 재질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수량이 많은 것은 칠기이다. 칠기는 나무, 천, 토기, 가죽, 금속 등 여러 가지 바탕 재료에 옷칠을 더하여 만든 기물이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색이나 질감은 비슷할 수 있지만, 바탕 재료에 따라 제작방식은 물론 기물의 특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바탕 재료는 칠기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오야리 낙랑고분에서 출토된 칠기의 바탕 대부분은 나무이며, 천을 덧바르거나 천만 이용한 것도 확인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바탕 재료가 나무인 것은 목심칠기木心漆器, 천인 것은 협저칠기夾紵漆器라 하고, 나무에 천을 덧바른 것은 목심저피칠기木心苧被漆器로 구분하였다.

옷칠은 부식을 방지하고, 방습, 방충, 접착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물건을 ‘장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옷칠에 다른 성분을 섞으면 흑색, 적색, 황색, 백색 등 다양한 색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이를 물감처럼 이용해 단순하고 반복적인 문양뿐만 아니라 회화까지 그려낼 수 있다.

칠기 장식은 표면의 바탕색 칠부터 시작된다. 흑색과 적색은 중국 고대 칠기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색으로 한대에도 바탕색으로 사용되었다(傅舉有 1997: 27). 오야리 낙랑고분 출토 칠기 역시 내외면을 흑칠 혹은 주칠하였다. 그런데 바탕으로 사용된 흑칠은 엄격한 의미에서 흑색이라 하기 어려운 것이 많은데, 이는 바탕칠에 사용되는 흑칠 대부분이 생칠을 여러 번 교반하여 만든 정제칠이기 때문에 바르는 횟수에 따라 갈색, 흑갈색 등 다양한 색을 띠기 때문이다. 또한 발굴 후 산화로 색이 달라진 예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칠기의 바탕색을 세분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판단하여 한대 칠기의 통념에 따라 크게 흑칠과 주칠로 구분하였다.

칠기의 문양에는 보다 다양한 색이 사용되었다. 가장 많이 사용된 색으로는 흑색, 적색, 황색, 백색 등이 있으며, 여기에 올리브색, 회황색, 적갈색 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시나 변색의 가능성이 있으나 발굴 당시 보고서를 참고하여 옷칠색을 표현하였다.

금속기의 출토 수량은 적다. 18호분에서는 청동분, 일산살꼭지, 노기 고정쇠 등이 출토되었으나 그 외의 고분에서는 반지와 같은 장신구 정도만 확인되었다. 구슬은 20호분에서 다수 출토되었고, 토기는 석영혼입계 웅, 화분형토기, 단경호, 장경호 등이 부장되었다. 전실묘인 25호분에서는 목칠기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반지, 토기, 동경 등이 출토되었다.

한편, 도굴된 22호 및 23호분 출토품으로 추정되는 유물 일부가 일제강점기 보고서<sup>1</sup>에 실려있는데, 실물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중요한 유물이 포함되어 본 보고서에 함께 실었다. 또 오야리 출토품으로 구입 및 수집된 유물 역시 함께 수록하여 오야리 일대에서 출토된 낙랑 유물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리하면, 이번에 보고되는 유물은 총 123건 259점이며, 실물이 없는 경우 참고품으로 별도로 언급하였다. 유구별 출토 양상은 [표 1]과 같다.

<sup>1</sup> 일제강점기 평양 오야리 낙랑고분의 조사 보고서는 18~21호분 조사에 관한 『昭和五年度古蹟調査報告 第一冊』(1935년)과 25호분 조사에 관한 『昭和十二年度古蹟調査報告』(1938년)가 있다. 본문 중 일제강점기의 고적조사 보고서를 지칭할 때는 ‘보고서’라 간략히 적었다.

표 1. 평양 오아리 낙랑고분 출토품 목록

\* 보고서번호 : 일제강점기 보고서와의 비교를 위해 해당 유물의 설명이 실린 보고서 번호를 넣었다. 번호 표기는 『평양 오아리 18~21·25호분-유구편』(국립중앙박물관 2021)에 실린 번역본을 기준으로 한다.

유구	종류	유물 번호	소장품번호	유물명	보고서 유물명	수량	보고서 수량	보고서 번호*	비고
18호분	목칠기	1	본관12373	칠장방분漆長方盆	漆長方盆殘缺	1	1	칠기 ①	
		2	본관12374	칠렴漆奩	漆奩殘缺	1	1	칠기 ②	
		3	본관12375	칠렴漆奩	漆奩殘缺	1	1	칠기 ③	
		4	본관12375	칠렴漆奩	漆奩殘缺	1	1	칠기 ③	
		5	본관12377	칠배漆杯	漆杯殘缺	6	7	칠기 ⑤	
		6	본관12376	칠기저부편漆器底部片	漆盤殘缺	3	3	칠기 ④	
		7	본관12372	칠기편漆器片	漆器殘缺	1	1	칠기 ⑥	
		8	본관12378	칠장漆杖	漆杖殘缺	1	1	칠기 ⑧	
		9	본관12370	봉상칠기棒狀漆器	漆杆殘缺	일괄	일괄	칠기 ⑦	
		10	본관12368	봉상칠기棒狀漆器	漆杆殘缺	1	1	칠기 ⑨	
		11	본관12369	봉상칠기棒狀漆器	漆杆殘缺	1	1	칠기 ⑩	
		12	본관12371	죽제품竹製品	竹杆殘缺	3	4	칠기 ⑪	
		13	본관12380	목제뚜껑(木蓋)	木製蓋	3	3	목기 ①	
	금속기	14	본관12366	청동분靑銅盆	銅製容器殘缺	1	1	동기 ①	
		15	본관12362	청동일산살꼭지(靑銅蓋弓帽)	銅製弓檠頭	5	5	동기 ②	
		16	본관12365	청동노기 고정쇠(靑銅弩機鍵)	靑銅製弩機栓	1	1	동기 ③	
		17	본관12364	청동포靑銅泡	靑銅製飾鈕	1	1	동기 ④	
		18	본관12363	철제차축두鐵製車軸頭	鐵製車軸頭	1	1	동기 ⑤	
	토기 및 토제품	19	본관12381	토기편土器片	陶甕殘缺	4	3	도기 ①	
		20	본관12367	원판형토제품圓板形土製品	素燒圓板破片	1	1	도기 ②	
	구슬	21	본관12361	수정다면옥水晶多面玉	水晶切子玉	3	3	복식품 ①	
	기타	22	본관12379	실(絲)	絹殘片	1	1	직물(布帛)류	
19호분	목관	23	본관12639	제1목관	第一木棺	1	1	-	
		24	K63 (본관12638)	제2목관	第二木棺	1	1	-	
		25	본관12639	제3목관	第三木棺	1	1	-	
		26	본관12639	제4목관	第四木棺	1	1	-	
	목칠기	27	본관12604, 고적28499	두씨작명마각부칠안 杜氏作銘馬脚附漆案	杜氏作漆繪馬脚案殘缺	2	2	칠기 ①	
		28	본관12605, 본관12606	칠반漆盤	漆繪盤殘缺	5	5	칠기 ②	
		29	본관12607, 본관12608	칠반漆盤	漆盤	2	2	칠기 ③	
		30	본관12613	칠반漆盤	漆盤殘缺	2	2	칠기 ④	
		31	본관12610	범평명칠완范平銘漆盃	范平銘漆繪盃殘缺	1	1	칠기 ⑥	
		32	본관12620	칠완漆盃	漆盃殘缺	1	1	칠기 ⑤	
		33	고적29085 (본관12614)	칠완漆盃	漆盃殘缺	1	1	칠기 ⑦	
		34	본관12612	칠렴漆奩	漆奩殘缺	1	1	칠기 ⑨	
		35	본관12609	칠배漆杯	漆杯殘缺	4	4	칠기 ⑬	

유구	종류	유물 번호	소장품번호	유물명	보고서 유물명	수량	보고서 수량	보고서 번호*	비고
19호분	목칠기	36	본관12619	칠작漆勺	漆勺殘缺	1	1	칠기 ⑪	
		37	본관12615	절입각부칠궤折込脚付漆几	折込脚付漆几	1	1	칠기 ⑫	
		38	본관12616	구장수鳩杖首	木禽	1	1	칠기 ⑭	
		39	본관12621	장대杖鐲	杖鐲	1	1	칠기 ⑰	
		40	본관12617	칠기편漆器片	漆杆缺殘	2	2	칠기 ⑯-1, 2	
		41	본관12622	칠기편漆器片	漆器殘缺	1	1	칠기 ⑫	
		42	본관12611	칠기편漆器片	漆器殘缺	1	1	칠기 ⑧	
		43	본관12632	목옹木俑	木製人物像	1	1	목기 및 잡품 ③	
		44	본관12633	목마木馬	木馬殘缺	2	2	목기 및 잡품 ⑤	
		45	본관12634 고적29087	투조목기透彫木器	透彫木器	2	2	목기 및 잡품 ④	
		46	본관12631	호형목기弧形木器	木器殘缺	1	1	목기 및 잡품 ①	
		47	K147 (본관12629)	목제빗(木製櫛)	木製櫛	1	1	복식품 ⑤	
		참고	본관12635	용도불명목기用途不明木器	用途不明木器	-	1	목기 및 잡품 ⑥	망실
		참고	본관12618	목봉木棒	木棒	-	1	목기 및 잡품 ②	망실
	금속기	48	본관12627	화문대신수경畫文帶神獸鏡	半圓方格帶神獸鏡	1	1	복식품 ②	
		49	본관12628	은제환銀製環	銀製環	1	1	복식품 ④	
20호분 제1곽	토기	50	본관12637	석영혼입계 옥石英混入系甕	陶甕	1	1	도기 ①	
	기타	51	본관12626	직물織物	絹殘缺	일괄	1	복식품 ①	
		52	본관12630	대모장식玳瑁裝飾	玳瑁	1	1	복식품 ③	
		53	본관12623 ~본관12625	각종 씨앗(種子)	桃核, 栗子, 不明種子	24	24	목기 및 잡품 ⑦	
		54	본관12636	목탄과 나무조각(木炭, 木屑)	木炭, 木屑	일괄	일괄	-	
		참고	본관12640	전돌(埴)	埴	-	4	-	망실
	칠기	55	본관12641	칠갑漆匣	漆匣殘缺	1	1	칠기 ①	
		56	본관12643	칠안漆案	漆繪案殘缺	1	1	칠기 ②	
		57	본관12642	칠렴漆奩	漆奩殘缺	1	1	칠기 ④	
		58	고적29129	칠배漆杯	漆杯殘缺	1	2	칠기 ⑤	
		참고	-	칠기편漆器片	漆器殘缺	-	1	칠기 ③	망실
	금속기	59	본관12647	은제원통형금구銀製圓筒形金具	銀製筒形金具	1	2	복식품 및 잡품 ③	
		60	본관12648, 본관12649	반지(指輪)	指輪	6	6	복식품 및 잡품 ④	
	토기	61	본관12651	원저단경호圓底短頸壺	陶壺	1	1	도기 ②	
		62	본관12653	원저단경호圓底短頸壺	陶甕	1	1	도기 ②	
		63	본관12652	화분형토기花盆形土器	陶盆	1	1	도기 ③	
		참고	본관12650	호壺	廣口壺, 陶壺	-	1	도기 ①	망실
	구슬	64	본관12644	유리소옥瑠璃小玉	瑠璃小玉	일괄	일괄	복식품 및 잡품 ①	보고서 수량 451점, 현재 수량 350점 이상
		65	본관12645	마노환옥과 유리소옥 (瑪瑙丸玉, 瑠璃小玉)	佩玉	18	19	복식품 및 잡품 ②	



유구	종류	유물 번호	소장품번호	유물명	보고서 유물명	수량	보고서 수량	보고서 번호*	비고
20호분 제1곽	구슬	참고	본관12646	구슬(玉)	佩玉	-	55	복식품 및 잡품 ③	망실
	기타	참고	-	치아齒牙	齒牙殘缺	-	7	복식품 및 잡품 ⑤	망실
		참고	-	떡갈나무 잎편	櫟の葉殘片	-	1	복식품 및 잡품 ⑥	망실
20호분 제2곽	칠기	66	고적29090, 고적29092	칠반漆盤	漆盤	2	2	칠기 기타 ②	
		67	고적29101	칠배漆杯	漆杯殘缺	1	4	칠기 기타 ④	
		68	본관12654	칠편漆片	漆片	1	1	칠기 기타 ⑤	
		참고	-	칠기편漆器片	漆器殘缺	-	2	칠기 기타 ①, ③	망실
	토기	69	본관12656	평저단경호平底短頸壺	陶壺	1	1	도기 ①	
		70	본관12656	원저단경호圓底短頸壺	陶壺	1	1	도기 ②	
		71	고적22558	원저단경호圓底短頸壺	陶壺	1	1	도기 ④	
		72	본관12657	석영혼입계 瓮石英混入系甕	陶甕	1	1	도기 ⑤	
		참고	-	호편壺片	陶壺破片	-	1	도기 ③	망실
	기타	참고	-	떡갈나무 잎편	櫟の葉殘片	-	1	칠기 기타 ⑥	망실
20호분 제3곽	칠기	73	본관12663	칠장방반漆長方盆	漆長方盆殘缺	1	1	칠기 및 잡품 ①	
		74	본관12658	칠렴漆奩	漆奩殘缺	1	1	칠기 및 잡품 ②	
		75	본관12664	칠배漆杯	漆杯殘缺	9	9	칠기 및 잡품 ⑥	
		76	본관12670	칠기편漆器片	漆盤殘缺	1	1	칠기 및 잡품 ④	
		참고	본관12661	칠렴漆奩	漆奩殘缺	-	1	칠기 및 잡품 ③	망실
		참고	본관12662	칠기편漆器片	漆器殘缺	-	1	칠기 및 잡품 ⑤	망실
	금속기	77	본관12669	은제반지(銀製指輪)	銀製指輪	4	4	복식품 ①	
	토기	78	본관12673	평저단경호平底短頸壺	陶壺	1	1	도기 ①	
		79	본관12673	원저단경호圓底短頸壺	陶壺	1	1	도기 ①	
		80	본관12672	원저단경호圓底短頸壺	陶壺	1	1	도기 ②	
		81	본관12674	원저단경호圓底短頸壺	陶甕殘缺	1	1	도기 ④	
		82	본관12671	화분형토기花盆形土器	陶盆	1	1	도기 ③	
	구슬	83	본관12660	유리소옥瑠璃小玉	玻璃小玉	일괄	일괄	칠기 및 잡품 ①	보고서 수량 389점 이상, 현재 수량 306점
		84	본관12668	구슬(玉)	破璃羊形佩	1	1	복식품 ②	
					瑪瑙茄子形佩	1	1		
					瑪瑙切子玉	1	1		
		참고	본관12666~ 본관12668	구슬(玉)	佩玉	-	31	복식품 ②, ③, ④	84번의 3점 제외 망실
	기타	85	본관12665	고동 아가미뚜껑(蠔殼蓋)	赤螺の介殼	1	1	칠기 및 잡품 ⑦	
		참고	-	떡갈나무 잎 잔편 및 박의 씨앗	櫟の葉殘片及瓜の種子	-	1	칠기 및 잡품 ⑦	망실
		참고	-	치아齒牙	齒牙	-	9	칠기 및 잡품 ⑧	망실

유구	종류	유물 번호	소장품번호	유물명	보고서 유물명	수량	보고서 수량	보고서 번호*	비고
21호분	칠기	86	본관12680	영평십사년명칠배 永平十四年銘漆杯	永平十四年在銘漆杯	1	1	칠기 ①	
		87	본관12681	칠배漆杯	漆杯殘缺	4	6	칠기 ②	
		88	고적29093	칠기편漆器片	漆盤殘缺	1	2	칠기 ③	
	금속기	89	본관12675	와권문경渦圈文鏡	四乳唐草文鏡	1	1	복식품 및 잡품 ④	
		90	본관12676	은제반지(銀製指輪)	銀製指輪	1	1	복식품 및 잡품 ①	
	구슬	91	본관12684	평저호平底壺	陶壺破片	1	2	도기 ③	
		92	본관12684	평저호平底壺	陶壺破片	1		도기 ③	
		93	본관12684	토기 구연부편土器口緣部片	陶壺破片	1		도기 ③	
		94	본관12683	석영혼입계 옥石英混入系甕	陶甕殘缺	1	1	도기 ②	
		95	본관12682	석영혼입계 옥石英混入系甕	陶甕殘缺	1	1	도기 ①	
		96	본관12682	석영혼입계 옥石英混入系甕	陶甕殘缺	1	1	도기 ①	
		97	본관12685	화분형토기花盆形土器	陶盆殘缺	1	1	도기 ④	
	구슬	98	본관12677, 본관12678	유리이당과 환옥(耳瑠, 丸玉)	玻璃製耳瑠, 玻璃製丸玉	2	2	복식품 및 잡품 ②	
	기타	참고	본관12679	씨앗(種子)	蓖麻の種子	-	2	복식품 및 잡품 ⑤	망실
25호분	금속기	99	K347	연호문경連弧文鏡	內行花文鏡	1	1	표 5	
		100	K346	반룡경盤龍鏡	王氏作盤龍鏡	1	1	표 6	
		101	K349-K351, 고적28392 고적28393	반지指輪	指環	11	11	표11~15	
	토기	102	고적18298	평저장경호平底長頸壺	黝黑色壺	1	1	표 2	
		103	고적22674	평저장경호平底長頸壺	黝黑色壺	1	1	표 4	
		104	고적22530	평저장경호平底長頸壺	黝黑色壺	1	1	표 3	
		참고	고적22531	옹甕	灰白色大甕	-	1	표 1	망실
	구슬	105	K348, K350	유리이당과 부수식옥 (耳瑠 附隨飾玉)	耳瑠及附隨飾玉	6	6	표 7, 8	
		106	고적28391	마노관옥과 환옥(管玉, 丸玉)	管玉, 丸玉	3	3	표 9, 10	
전傳 오야리 출토품	금속기	107	본관11448	연호문경連弧文鏡	-	1	-	-	
		108	본관12071	연호문경連弧文鏡	-	1	-	-	
		109	본관13092	명대경銘帶鏡	-	1	-	-	
		110	본관13128	박국경博局鏡	-	1	-	-	
		111	본관13093, 본관13096	청동일산살꼭지(靑銅蓋弓帽)	-	11	-	-	
		112	본관13097	청동웅각靑銅熊脚	-	1	-	-	
		113	본관13098	포수鋪首	-	2	-	-	
		114	본관13015	청동검파두식靑銅劍把頭飾	-	1	-	-	
		115	본관13099	칠반장식금동테漆盤裝飾金銅釦	-	1	-	-	
		116	본관11449	은제팔씨銀製腕輪	-	3	-	-	
		117	본관11450	은제반지銀製指輪	-	1	-	-	
	토기 및 토제품	118	본관10414	평저단경호平底短頸壺	-	1	-	--	
		119	본관12386	평저단경호平底短頸壺	-	1	-		

유구	종류	유물 번호	소장품번호	유물명	보고서 유물명	수량	보고서 수량	보고서 번호*	비고
전傳 오아리 출도품	토기 및 토제품	120	본관13095	평저장경호平底長頸壺	-	1	-	-	
		121	본관11451	완甃	-	1	-	-	
		122	본관9627, 본관9628	토기편土器片	-	5	-	-	
		123	본관9631, 본관9632	기와편(瓦片)	-	3	-	-	
참고품- 오아리 22·23 호분 출도품	금속기	참고1	-	세지문경細地文鏡	細線地文虯龍鏡殘缺	-	9	-	
		참고2	-	박국경博局鏡	細線四神鏡殘缺	-	9	-	
		참고3	-	동탁銅鐸	銅鐸	-	4	-	
		참고4	-	삿갓형동기(笠形銅器)	笠頭筒形銅製品	-	2	-	
		참고5	-	을자형동기乙字形銅器	管形銅製品殘缺	-	1	-	
		참고6	-	권총형동기拳銃形銅器	柄頭樣銅製品殘缺	-	1	-	
		참고7	-	칠기장식금동테(漆器裝飾金銅釘)	金銅覆輪殘缺	-	2	-	
	토기	참고8	-	화분형토기花盆形土器	陶盆	-	1	-	
		참고9	-	평저장경호平底長頸壺	陶壺	-	1	-	

## 1. 18호분

18호분은 1930년 콘프로덕션 사택 공사 중 우연히 발견된 낙랑고분으로, 조사 당시 이미 도굴된 상태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가야모토(槿本)와 노모리(野守)가 현장을 시찰하였을 때에는 목곽의 바닥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재가 이미 묘광 밖으로 이동되었고, 도굴로 인해 유물의 출토 상황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 다행인 것은 도굴 즉시 평양경찰서에서 일부 유물을 회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굴 전 목격된 노기 등의 유물 일부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장품 전체의 양상을 알기는 어렵다.

보고서에 수록된 유물은 평양경찰서에서 되찾은 것과 추후 조사를 통해 수습한 것으로 칠기, 목기, 청동기, 토기, 구슬 등 총 22건 42점이다. 유물별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참고도판 1. 18호분 목곽과 목관(건판10245)

## 1) 목칠기

1.

칠장방분<sup>2</sup>

漆長方盆

-

소장품 번호 : 본관12373

(左上) 잔존길이 10.0cm



도판 1. 칠장방분(본관12373)

편평한 나무에 칠을 바른 칠장방분이다. 나무 바탕에 바로 옷칠을 바른 목심칠기로, 두께 0.4~0.8cm이다. 흑칠과 주칠이 확인되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앞면은 가장자리에 흑칠을 바르고, 그 안쪽으로 주칠대朱漆帶와 흑칠대를 돌렸으며, 가운데는 주칠을 했다고 한다. 또 뒷면은 흑칠을 하고 아무런 문양을 넣지 않은 것으로, 20호분 제3곽에서 출토된 칠장방분(73)과 같은 것(참고도면 17)이라고 한다.

<sup>2</sup> 편평한 쟁반형 칠기를 일본에서는 윗이라 하나, 중국에서는 長方盤(盤) 혹은 平盤이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 칠반漆盤은 기벽이 위로 올라온 원형 접시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어, 분명한 구분을 위해 이 글에서는 원보고서의 용례를 따라 분윗으로 표기하였다.

2.

칠럼

漆奩

-

소장품 번호 : 본관12374

지름 19.8cm



도판 2. 칠럼(본관12374, 左: 뚜껑, 右: 신부)



도판 2-1. 두껍의 내부

원형 칠럼으로, 두껍과 신부 측면 일부만 남아있다. 윗면은 두께 0.8cm 내외의 목판 2매를 잇대어 붙이고, 가장자리에 두께 0.3cm의 얇은 나무판을 돌린 곡물曲物(마게모노) 기법으로 드림부를 만들었다. 윗면은 가운데가 약간 볼록한 형태이며, 가장자리 너비 0.5cm 가량을 약간 낮게 깎았다. 내면 중앙에는 지름 11.0cm, 너비 0.4cm의 둥근 선이 돌아가는데, 물레를 이용해 형태를 제작하며 생긴 흔적으로 보인다(도판 2-1). 신부는 대부분 결실되어 얇은 측면편만 남아있다. 두껍의 드림부와 마찬가지로 역시 얇은 나무판을 휘어 만든 것으로 두께 0.3~0.5cm이다.

신부의 측면에서 천의 흔적이 확인되어 목심저피칠기로 분류할 수 있다. 외면 흑칠, 내면 주칠하였으나 대부분이 벗겨져 더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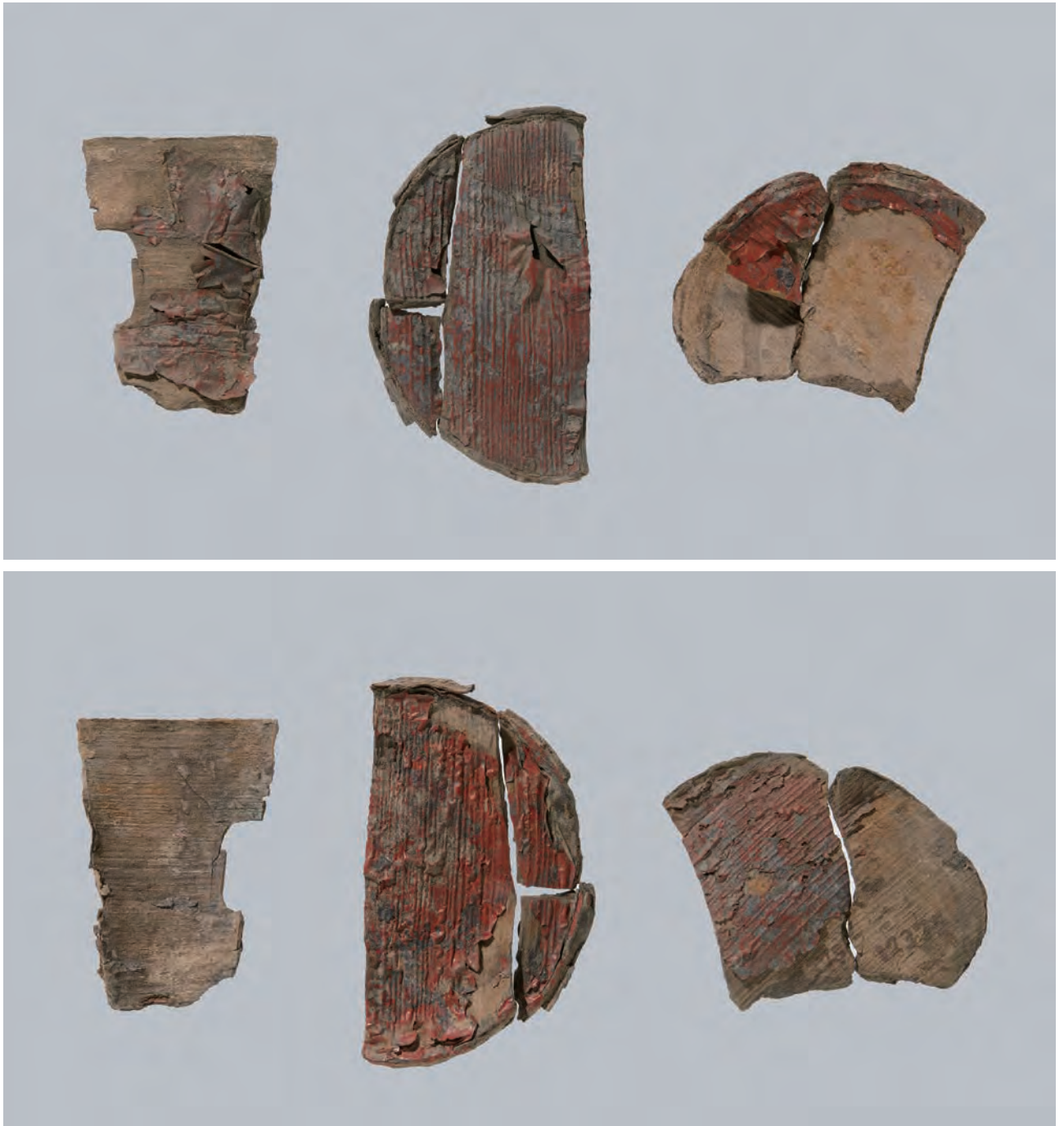
칠럼

漆奩

-

소장품 번호 : 본관12375

저부 지름 11.0cm



도판 3. 칠럼(본관12375)



도판 3-1. 칠럼 바닥에 쓰인 명문

원형 칠럼으로 저부와 신부 등 일부만 남아있다. 저부의 지름은 11.0cm, 두께 0.3cm 내외이다. 동근 바닥판의 가장자리에 얇은 목재를 휘어 붙인 곡물曲物기법으로 측면을 만들었다. 나무 바탕에 칠을 바른 목심칠기로, 내외면에 주칠을 발랐으나 칠의 잔존 상태가 좋지 않다. 바닥 내면 중앙에 흑칠로 쓰인 명문이 확인되나 절반가량 결실되어 어떤 글자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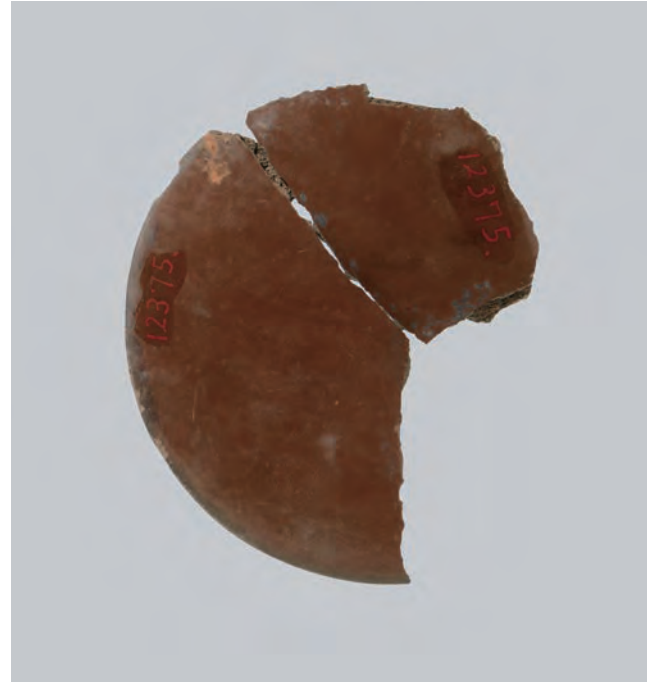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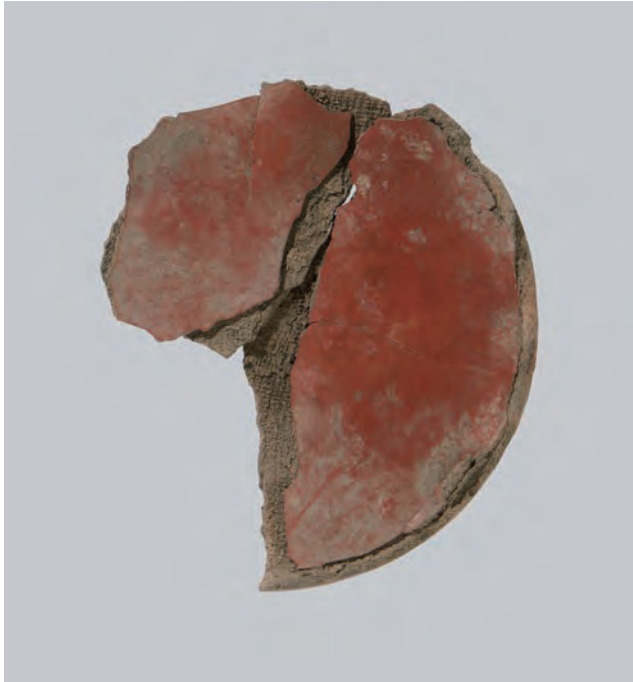
칠럼

漆奩

-

소장품 번호 : 본관12375

저부 지름 10.2cm



도판 4. 칠럼(본관12375)



도판 4-1. 바닥 세부

원형 칠럼의 저부이다. 두께 0.4cm의  
협저칠기로 일부 깨지고 결실되었으나  
표면이 매끈할 정도로 칠이 매우 잘  
남아있다. 내면 주칠, 외면 흑칠을 하였다.  
바닥 외면에서는 물방울 혹은 호선의  
문양 같은 것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보고서에서는 이를 모조毛彫 흔적이라  
하였으나 원래 그렸던 문양에 흑칠을 덮어  
지운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5.

칠배

漆杯

-

소장품 번호 : 본관12377

① 잔존길이 16.6cm



도판 5. 칠배(본관12377)

① ②



도판 5. 칠배(본관12377)

칠배편으로 크기나 제작 방식이 다양한 여러 개체가 섞여 있다. 보고서에는 18호분 출토 칠배의 수량을 7개체로 보고하였는데, 귀(④)를 기준으로 최소 6개체가 확인된다. 이 가운데 비교적 보존 상태가 좋고 문양이나 색 등이 분명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은 잔존길이는 16.6cm, 타원형의 저부 바닥 크기는 9.0×3.6cm이다. 목심칠기로, 목심이 심하게 갈라졌고 칠 박락이 심하다. 내면은 가운데를 주칠하고 주변은 흑칠하였으며 외면은 흑칠하였다. 내면 가장자리에는 황칠로 선을 1줄 돌리고 그 아래에 거치문을 그렸다. 외면은 칠 대부분이 박락되어 전체 양상을 알 수 없으나 일부 주칠로 그린 문양이 확인된다.

②는 목심칠기로 잔존길이 10.7cm, 높이 4.3cm, 저부 바닥 너비 4.8 cm이다. 내외면 모두 흑칠하였다. 바닥 및 기벽의 두께가 0.3~0.5cm 내외로 목심칠기로는 비교적 얇게 만들어졌다.

③은 협저제 칠배 구연부이다. 잔존길이(左) 4.0cm이며, 두께 0.2cm 내외로 매우 얇다. 내외면 흑칠하였는데, 외면의 색이 더 진해 그 경계가 구연 안쪽에서 선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외면 구연 바로 아래에는 황침선 2줄을 긋고 사이에 주칠로 2줄의 점열문을 찍어 장식하였다.

④는 칠배의 귀 부분으로 크게 문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양이 있는 것은 흑색의 바탕칠 위에 주칠로 테두리 선을 그리고 내부를 능형으로 구획하여 동심원을 그린 것, 일정 간격으로 침선을 그어 장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후자는 귀의 측면에서 ③과 동일한 문양이 확인되고, 침선으로 문양을 새긴 점으로 보아 동일 개체로 보이며, 최소 2개체 이상 부장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6.

칠기 저부편

漆器底部片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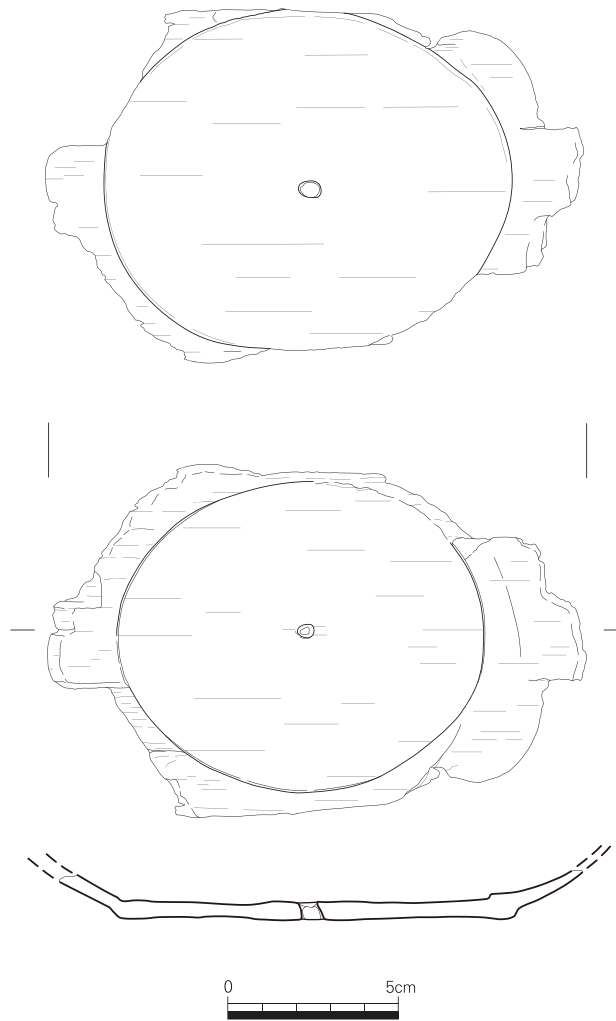
소장품 번호 : 본관12376

③ 잔존길이 15.7cm



도판 6. 칠기 저부편(본관12376)

① ② ③



도면 1. 철기 저부편 ③(본관12376)

18호분에서는 철기 저부편 3점이 출토되었다. 이 중 ①과 ②는 같은 형태이고, ③은 다른 기종으로 보인다.

①은 내면 중앙권의 지름 8.2cm·굽 지름 8.8cm, ②는 내면 중앙권의 지름 8.2cm·굽 지름 8.4cm이며, 높이 0.3cm, 너비 0.8cm의 낮은 굽이 달려있다. 목심철기로 현재 목심의 갈라짐이 심해 보존상태가 좋지 않다. 외면은 흑칠을 하였고, 내면은 중앙권을 흑칠하고 그 둘레는 주칠하였다. 내면 중앙권 가장자리와 굽 안쪽을 따라 칠을 작게 찍은 점열문이 확인되나, 그 외는 무문양이다.

③은 철이 박리되어 목심만 남아있다. 내면 바닥은 10.8×9.0cm의 타원형으로 얇게 깎았고, 외면에는 크기 11.6×10.0cm, 높이 0.2cm의 낮은 타원형 평굽이 달려있다. 바닥 중앙에 뚫린 지름 0.5cm의 구멍은 목심을 물레로 제작하며 생긴 흔적으로 보인다.

보고서에는 이 철기 저부 3점이 모두 칠반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칠반과는 바닥의 형태가 다르다. 특히 ①과 ②는 얇은 굽이 달려 있어 완이나 함으로 추정된다.



도판 6-1. 내면 중앙권의 점열문

7.

칠기편

漆器片

-

소장품 번호 : 본관12372

(右) 잔존길이 13.0cm



도판 7. 칠기편(본관12372)

얇은 나무 바탕을 가죽 혹은 펠트류로 추정되는 것으로 감싸고 표면을 흑칠하였다. 현재 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얇고 편평한 형태이다. 보고서에서는 칠답漆沓일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 원래 어떤 칠기였는지 분명히 알 수 없다.

8.

칠장

漆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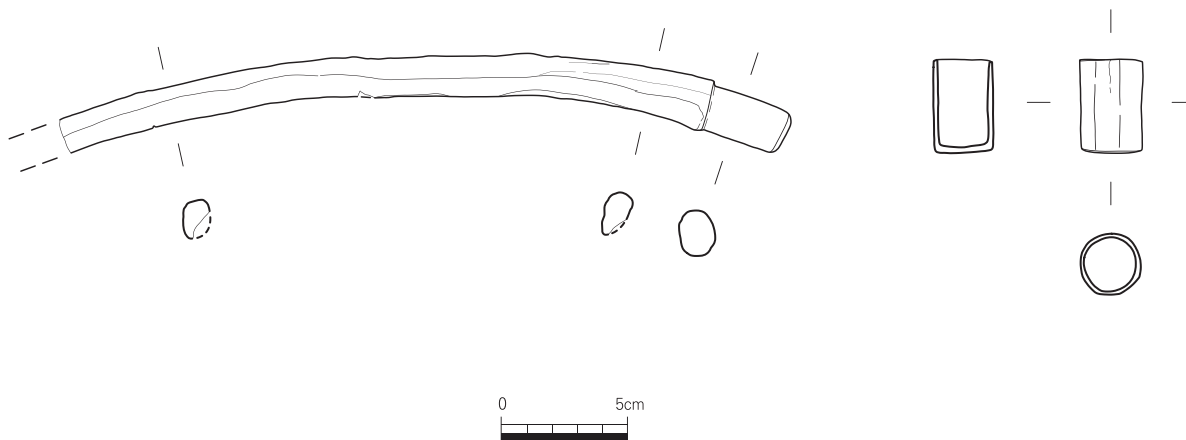
-

소장품 번호 : 본관12378

잔존길이 28.8cm



도판 8. 칠장(본관12378)



도면 2. 칠장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건판10252)



참고도판 2. 칠장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건판10252)





도판 8-1. 칠장 끝 세부(左: 청동장대 삽입부, 右: 청동장대)

긴 봉상의 목재에 흑칠을 하고 한쪽 끝에 청동장대靑銅杖鐵를 끼웠다. 발견 당시 잔존길이는 108.0cm였으며 다섯 조각으로 부러져 있었으나, 현재는 그보다 짧고 단면도 수축·변형되어 최대 너비 1.5cm 내외이다. 청동장대는 길이 3.5cm, 단면 지름 2.3cm, 두께 0.2cm이다. 보고서에는 비단을 여러 겹 감아 청동장대를 고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 비단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9.

봉상칠기

棒狀漆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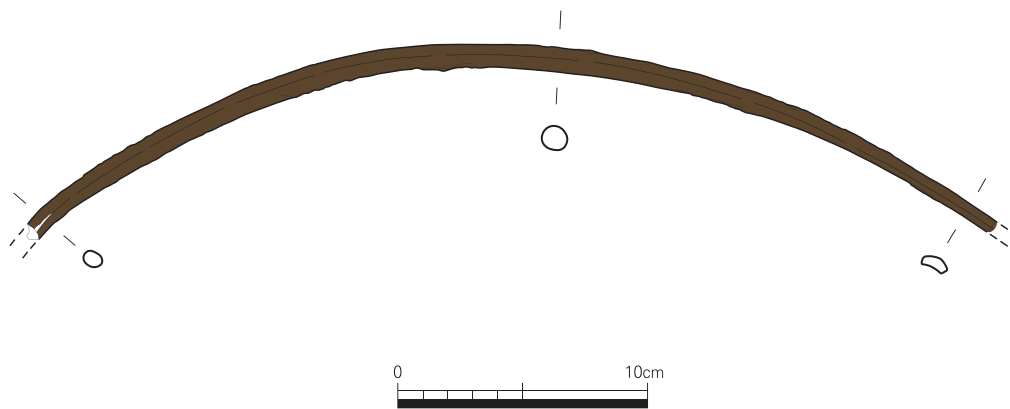
-

소장품 번호 : 본관12370

(上) 잔존길이 41.0cm



도판 9. 봉상칠기(본관12370)



도면 3. 봉상칠기(본관12370)

단면 원형의 봉상칠기로 부러진 편이 수십 점 출토되었다. 지름은 약 0.8cm이며, 현재 가장 긴 것은 잔존길이 41.0cm 내외이다. 얇은 나뭇가지의 표면을 다듬고 끝부분은 약간 뾰족하게 깎았다. 표면은 모두 흑칠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일산살(蓋弓櫟)로 추정하였다.

10.

봉상칠기

棒狀漆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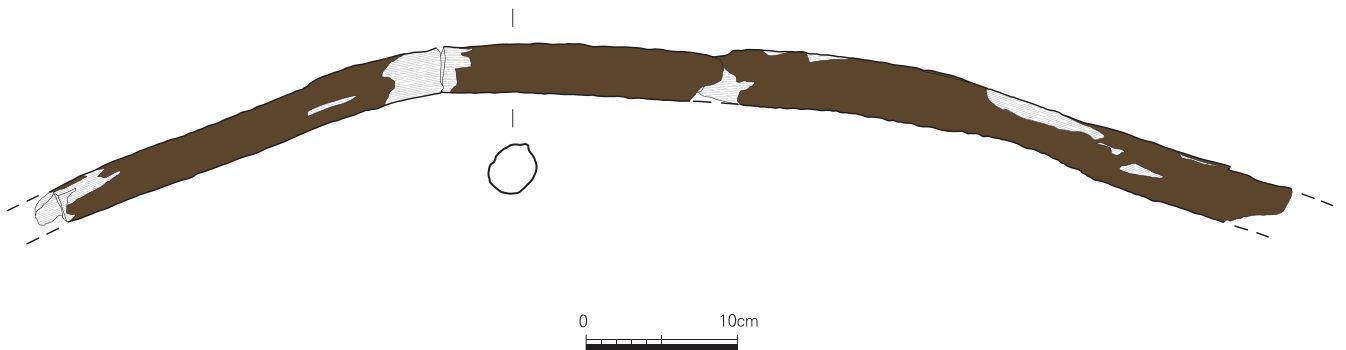
-

소장품 번호 : 본관12368

잔존길이 82.6cm



도판 10. 봉상칠기(본관12368)



도면 4. 봉상칠기(본관12368)

3조각으로 부러져 발견된 것을 복원한 것으로 양 끝이 결실되었다. 단면은 원형 내지는 타원형으로 지름 2.8~3.2cm이다. 목재 위에 바로 흑칠을 바른 것으로, 보고서에서는 일산대의 파편으로 추정하였다.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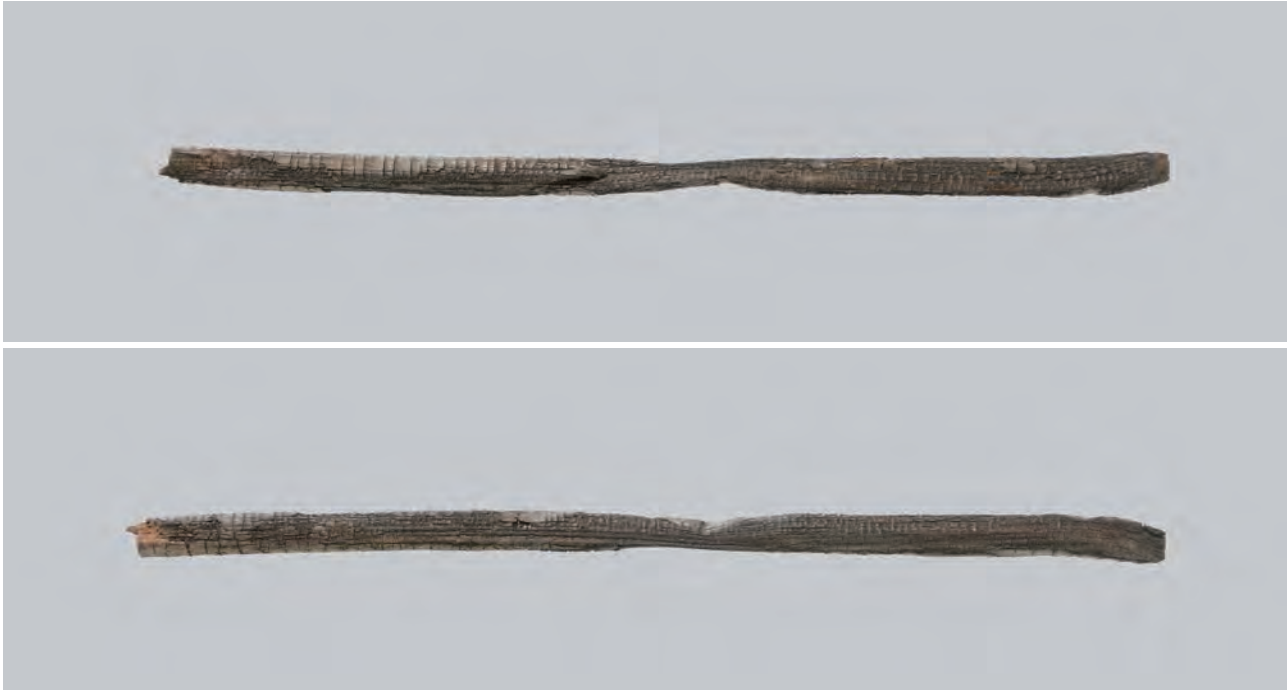
봉상칠기

棒狀漆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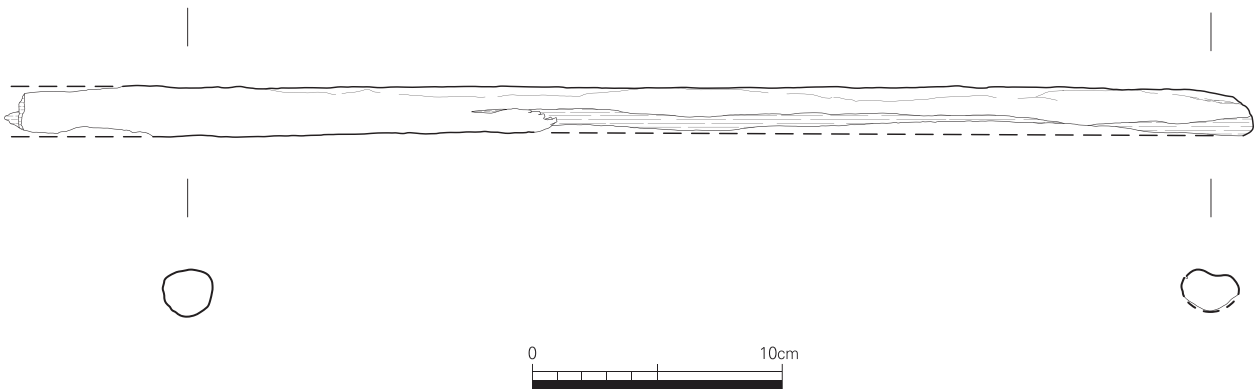
-

소장품 번호 : 본관12369

잔존길이 49.4cm



도판 11. 봉상칠기(본관12369)



도면 5. 봉상칠기(본관12369)

단면 원형의 봉상칠기로 단면 지름 1.8cm 내외이다. 표면 열화로 잔균열이 심하고 한쪽 끝이 결실되었다. 발견 당시에도 칠은 대부분 박리되어 있었으나 원래 흑칠하였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12.

죽제품

竹製品

-

소장품 번호 : 본관12371

① 잔존길이 10.5cm



도판 12. 죽제품(본관12371)

①  
②  
③

대나무로 만들어졌으나 원래의 형태를 알 수 없다. ①은 단면 지름 1.2cm의 원형으로 봉상으로 추정된다. 표면에서 평견직물의 흔적이 확인되었다(도판 12-1). ②와 ③은 대나무를 세로로 쪼갠 편으로 다른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도판 12-1. ①의 직물 세부

13.

목제뚜껑

木蓋

-

소장품 번호 : 본관12380

① 길이 27.4~28.0cm



도판 13. 목제뚜껑(본관12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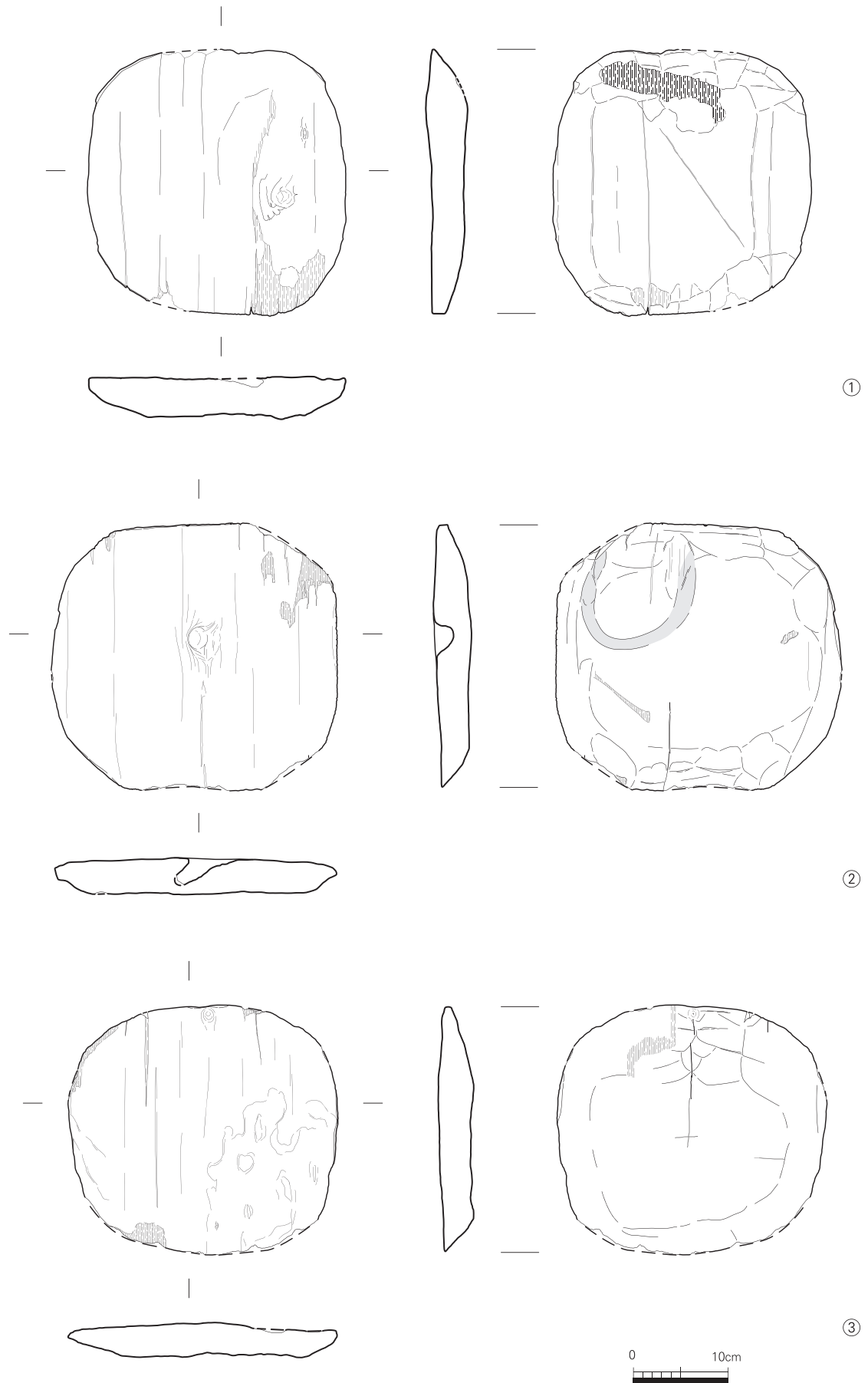
① ② ③

길이 30cm 내외의 목제뚜껑으로 평면 형태는 원형에 가깝다. 윗면은 편평하고, 아랫면은 가장자리 3~5cm를 경사지도록 깎아 단면 사다리꼴이다. ②는 윗면 중앙에 움이 빠지면서 손잡이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아랫면에는 폭 1.7cm 가량 띠 모양으로 둥글게 눌린 자국도 확인된다.

① 길이 27.4~28.0cm, 두께 4.0cm

② 길이 27.8~30.3cm, 두께 3.8cm

③ 길이 25.9~28.4cm, 두께 3.7cm



도면 6. 목제뚜껑(본관12380)



## 2) 금속기

14.

청동분

靑銅盆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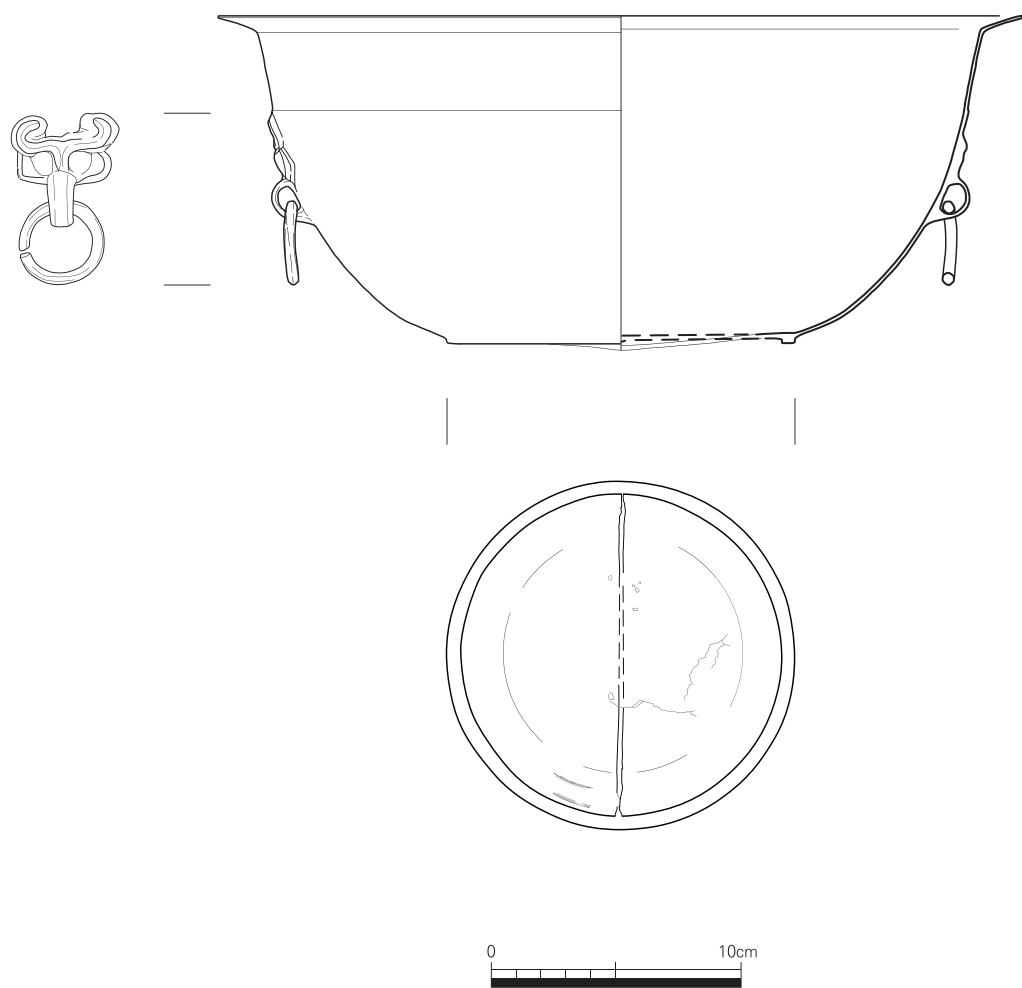
소장품 번호 : 본관12366

추정높이 13.3cm, 구경 31.9cm, 저경 13.8cm



도판 14. 청동분(본관12366)





도면 7. 청동분(본관12366)



도판 14-1. 구연부와 저부 바닥 세부

위로 올라갈수록 벌어지는 청동용기로 구연부터 저부까지 남아있으나 접합되지 않아 도상 복원하였다. 바닥에는 너비 0.5cm, 높이 0.2cm의 낮은 굽이 달려있으며, 바닥 가운데에 주조선이 지나가는데, 일부 깨지면서 현재는 중심부가 약간 가라앉은 상태이다(도판 14-1). 구연은 1.7cm 가량 꺾어 외반하였다.

동체 중앙에는 고부조로 동물머리모양의 손잡이인 포수鋪首를 주조하였다. 포수는 정면을 바라보는 동물의 머리에 고리가 달린 것으로, 악귀를 막기 위한 도철문과 관련이 있다. 커다란 두 눈과 위로 둥글게 말린 귀 등 표현이 매우 간략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입은 반원형의 고리를 표면과 수직으로 붙여 가장 튀어나와 있으며, 여기에 청동 원형고리는 별도로 제작하여 결합하였다. 반원형고리는 길이 2.2cm, 폭 1.0cm이고, 원형고리는 지름 3.4cm, 단면 지름 0.5cm이다. 포수 위로 단이 지며 선이 1줄 돌아간다.

전체적으로 표면을 마연한 흔적이 잘 남아있으며, 주조시 발생한 기포로 인해 표면 곳곳에서 작은 구멍이 확인된다.



도판 14-2. 포수 세부

15.

청동일산살꼭지

青銅蓋弓帽

-

소장품 번호 : 본관12362

① 길이 6.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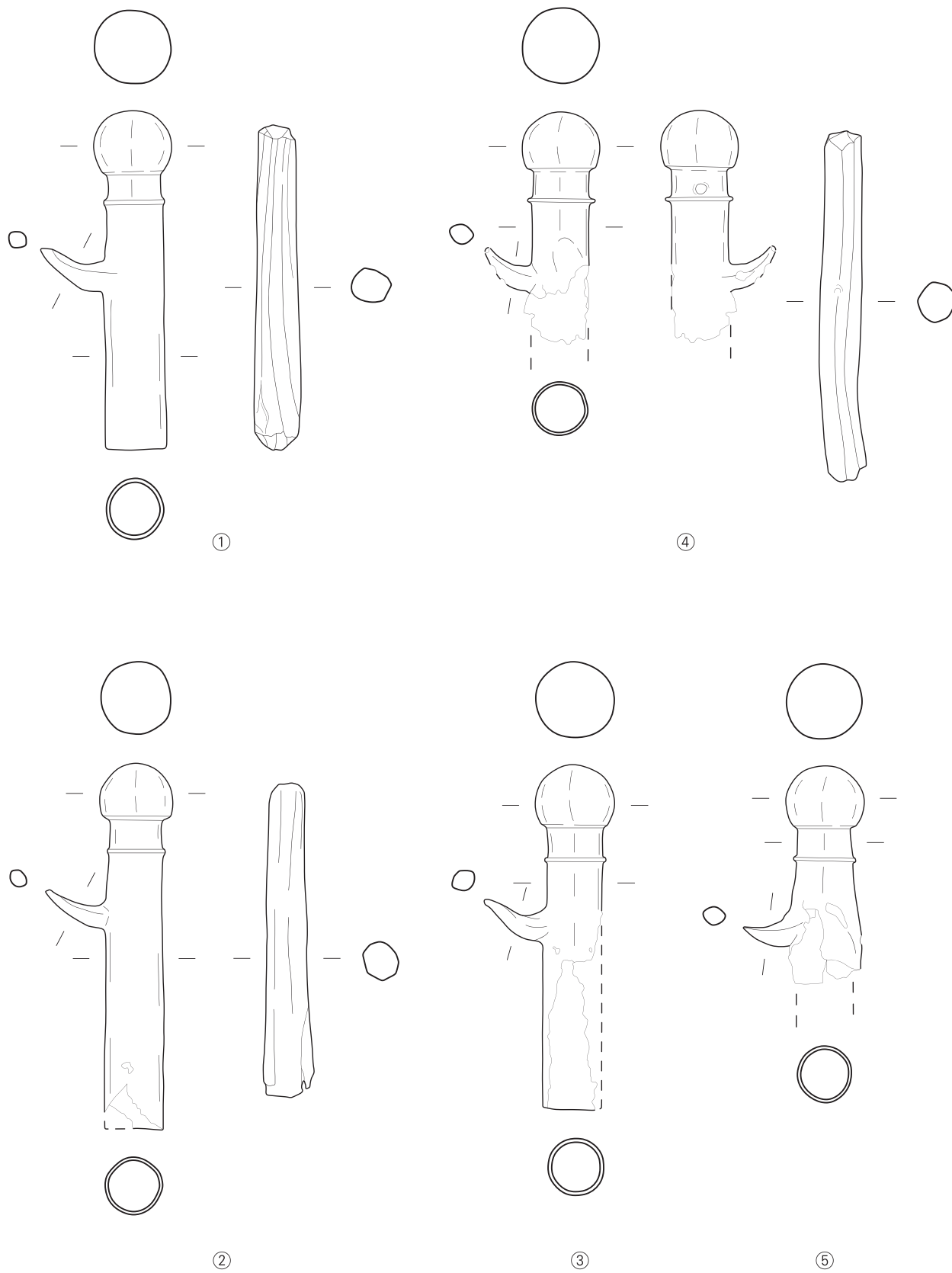


도판 15. 청동일산살꼭지(본관12362)

① ② ③ ④ ⑤

위에는 원형 장식이, 아래에는 속이 빈 원통형의 몸체가 달렸으며, 몸 가운데에 뾰족한 갈고리가 붙어 있는 일산살꼭지이다. 낙랑고분에서 종종 발견되는 유물이나 약간씩 형태가 다르다. 18호분 출토품은 석암리 9호분 출토품에 비해 원형 장식의 꼭대기 부분이 둥글고, 전체 길이는 더 짧으며, 원형 장식 아래에는 철선凸線 1줄만 돌아가는 등 장식이 최소화된 간략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 ① 길이 6.2cm, 신부 단면지름 1.0cm
- ② 길이 6.7cm, 신부 단면지름 1.0cm
- ③ 길이 6.2cm, 신부 단면지름 1.0cm
- ④ 잔존길이 4.2cm, 신부 단면지름 1.0cm
- ⑤ 잔존길이 4.0cm



도면 8. 청동일산살꼭지(본관12362)

16.

청동노기 고정쇠

靑銅弩機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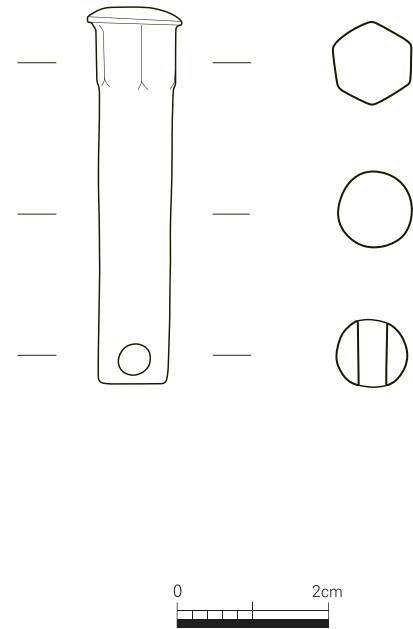
-

소장품 번호 : 본관12365

길이 5.0cm, 지름 1.0cm



도판 16. 청동노기 고정쇠(본관12365)



도면 9. 청동노기 고정쇠(본관12365)

18호분이 도굴된 후 조선총독부에서 현장 조사시 목곽의 동남쪽 구석에서 발견한 노기의 고정쇠이다. 한쪽 끝에 달린 원형 머리는 두께가 얇고 가운데가 볼록하게 튀어나왔다. 머리 바로 아래는 단면 육각형이고, 그 이하는 원형이다. 끝에는 지름 0.4cm의 원형 구멍이 뚫려있다.

노기는 활, 노비弩臂와 함께 원거리용 발사장치인 쇠뇌의 한 부분으로, 시위를 걸고 방아쇠를 당기는 등 쇠뇌 작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고정쇠는 현도懸刀, 망산望山, 아牙, 구심鉤心 등 주요 부속구를 노기의 몸체에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18호분에 노기가 부장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17.

청동포

青銅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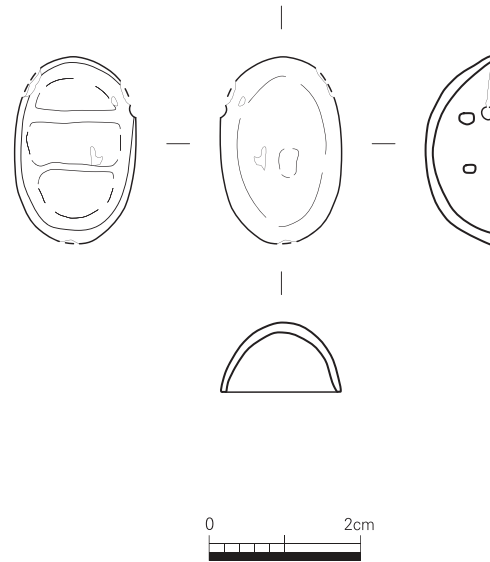
-

소장품 번호 : 본관12364

길이 2.5cm, 너비 1.6cm, 높이 0.9cm



도판 17. 청동포(본관12364)



도면 10. 청동포(본관12364)

마구를 연결하는 끈에 달아 장식하였던 것이다. 평면 타원형, 단면 반원형이며 내부는 비어있고 안쪽에 얇은 청동봉 2개가 달려있다. 석암리 9호분에서는 금동포 151점이 발견되었는데, 그중 가죽끈과 금동포가 굽은 실로 고정된 것이 남아있어 사용 방법을 알 수 있다. 이 청동포는 석암리 9호분 출토 금동포에 비해 청동봉의 위치가 더 안쪽에 달려있고 단면은 원형으로 제작되는 등의 차이점이 확인된다.

18.

철제차축두

鐵製車軸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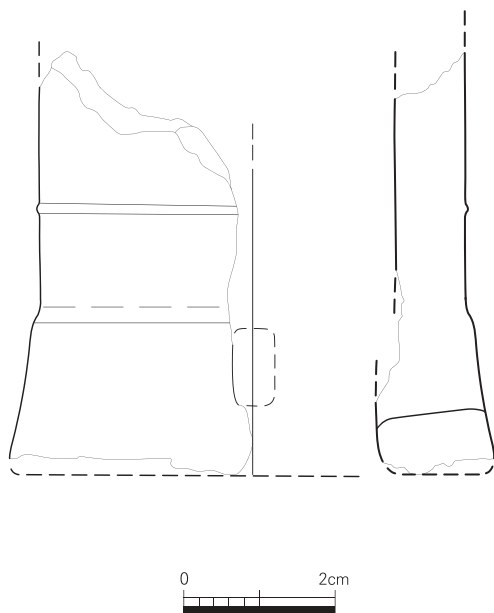
-

소장품 번호 : 본관12363

(左) 잔존길이 4.0cm



도판 18. 철제차축두(본관12363)



도면 11. 철제차축두(본관12363)

주조로 제작된 철제차축두로 현재는 잘게 부스러져 형태를 알아보기 쉽지 않으나 조사 당시에는 완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차축을 끼우는 부분에는 너비 약 2cm 가량 단이 돌아가고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약간 좁아지며 막대를 꽂을 수 있는 길이 1cm 가량의 구멍이 뚫려있다. 철선이 1줄 돌아가는 것도 관찰된다. 표면은 금속성 광택이 도는 흑색을 띠는데 흑연을 표면에 발랐기 때문이라고 한다.



참고도판 3. 철제차축두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건판32599)



### 3) 토기 및 토제품

19.

토기편

土器片

-

소장품 번호 : 본관12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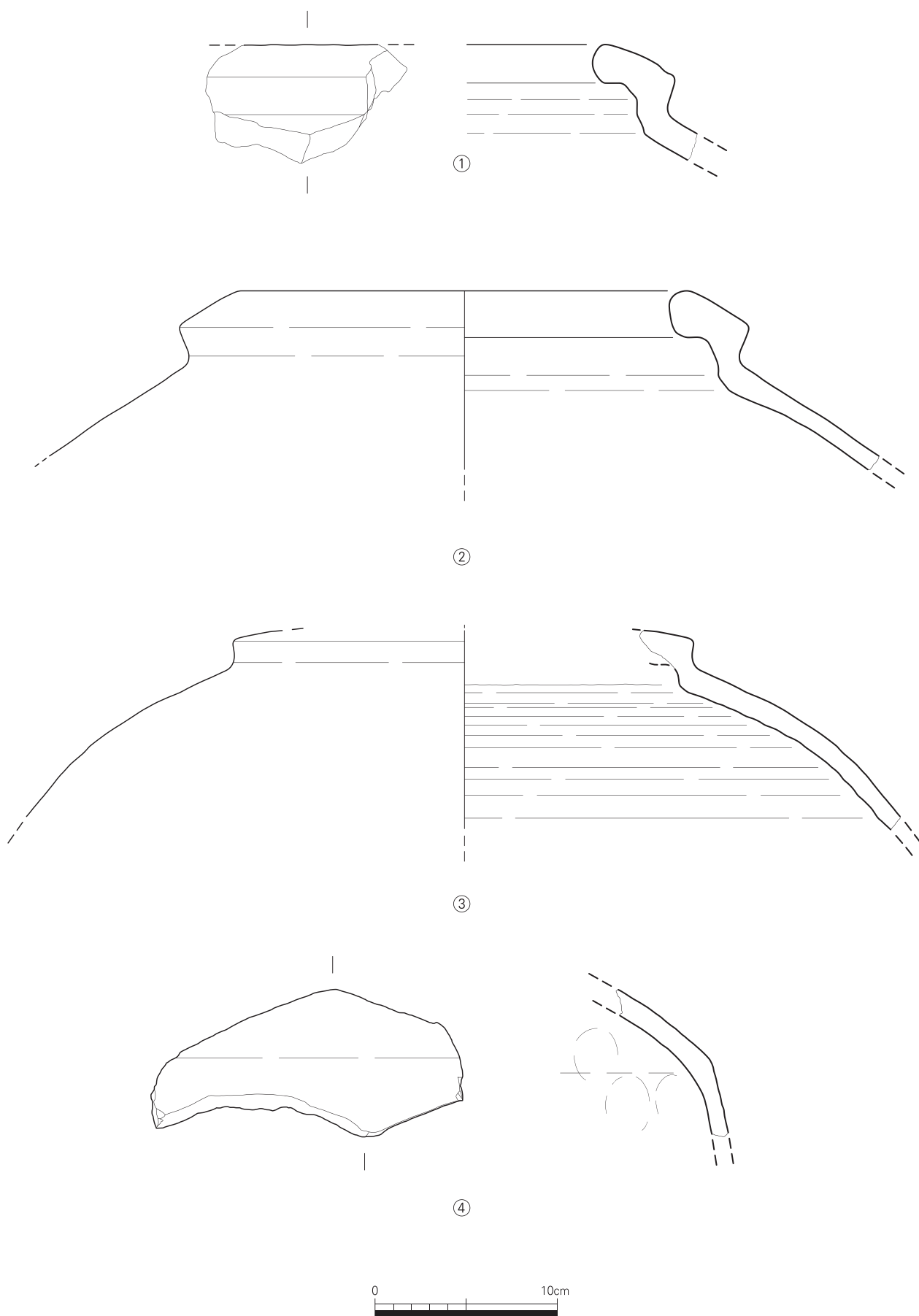
② 잔존높이 9.7cm



도판 19. 토기편(본관12381)

①  
② ③  
—  
④





도면 12. 토기편(본관12381)

석영혼입계 옹 구연부편 3점과 타날문토기 견부편 1점이다. 석영혼입계 옹은 모두 구연부 단면 형태가 ‘S’자를 띤 내만구연 옹이다. 동체부 대부분이 결실되었으나, 구연부와 동체부 상단의 형태로 볼 때 경부 없이 바로 팽만도가 큰 구형球形의 동체로 이어지는 기형이다. 색조는 ① 내·외면 회백색, ② 내·외면 회황색, 속심 적황색, ③ 내·외면 회황색, 속심 적갈색이며, 석영혼입계 태토로 제작되었다. 3점 모두 표면 박리가 심한데, ①과 ②는 구연부와 동체부가 이어지는 부분에 희미하게 회전물손질흔이 남아 있다. ②의 동체부 상부 내면에는 지두흔과 박자흔이 희미하게 확인되며, ③ 동체부 내면에는 회전물손질에 의한 요철면이 남아 있다.

④는 대형 타날문단경호의 견부~동체부편으로 추정된다. 현재 내·외면, 속심 모두 회색인데, 내·외면에 일부 남은 흔적으로 볼 때 원래의 표면 색조는 흑색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석·사립이 거의 섞이지 않은 니질계 태토이다. 견부와 동체부는 선명한 단을 이루며 꺾인다. 외면은 승문타날하였는데, 전체를 종방향으로 타날한 후 견부 꺾기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동체부에만 사선 방향의 승문타날을 추가하였다.

20.

원판형토제품

圓板形土製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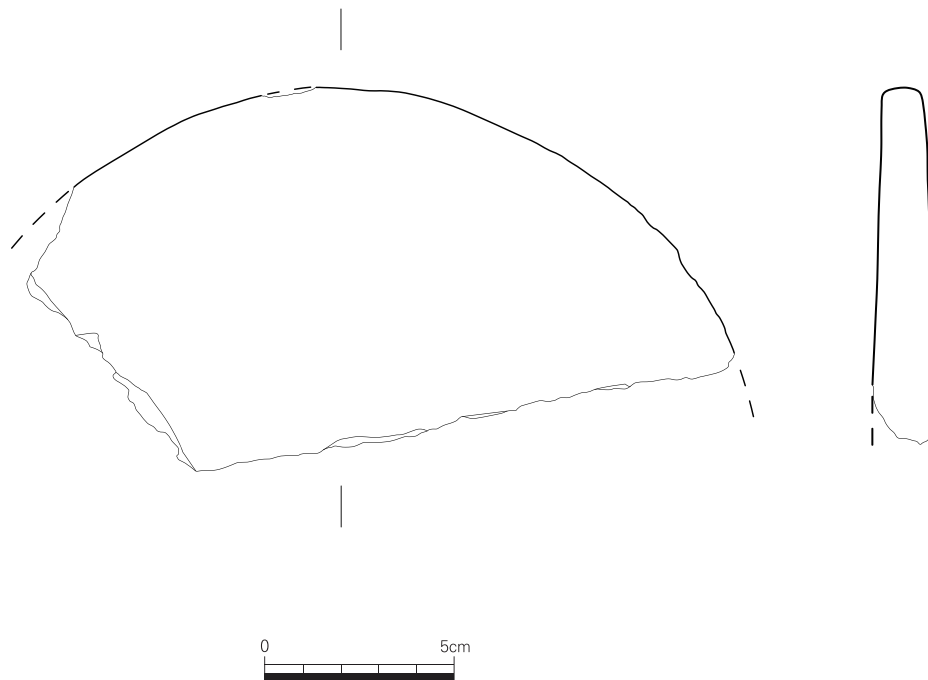
-

소장품 번호 : 본관12367

추정지름 22.5cm



도판 20. 원판형토제품(본관12367)



도면 13. 원판형토제품(본관12367)

편평한 토제품의 일부로 평면 원형으로 추정되며, 복원 지름은 22.5cm이다. 두께는 가장자리가 1.0cm, 중심부가 1.5cm로 가운데로 갈수록 두꺼워진다.

#### 4) 구슬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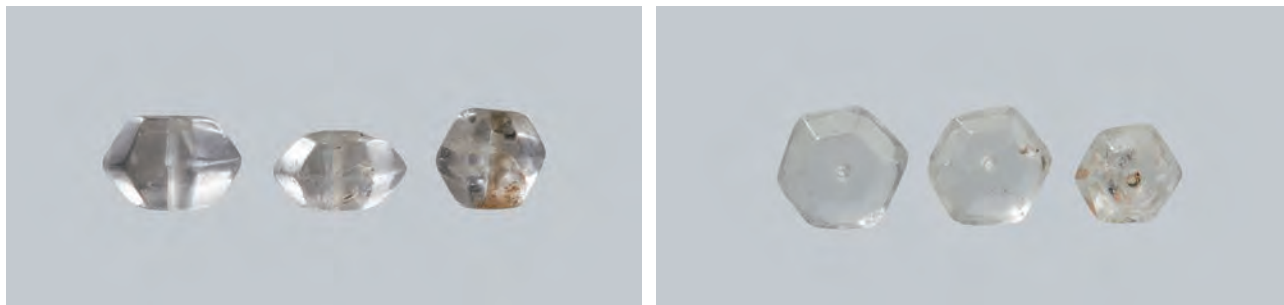
수정다면옥

水晶多面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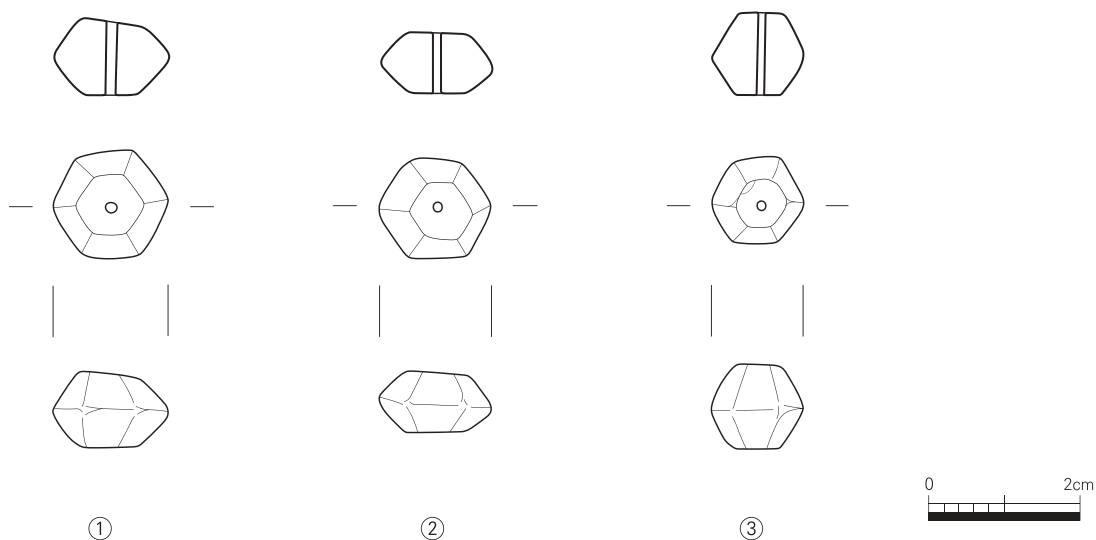
소장품 번호 : 본관12361

① 높이 1.0cm



도판 21. 수정다면옥(본관12361)

① ② ③



도면 14. 수정다면옥(본관12361)

수정으로 제작한 단면 육각형의 다면옥이다. 주판알처럼 위아래의 면이 편평하며, 가운데가 가장 넓다. 중심부에 지름 0.1~0.15cm의 긴 구멍을 뚫었는데, 모두 양 방향에서 뚫은 것으로 보인다. ①은 깨진 곳 없이 투명하나, ②와 ③에서는 내부 균열이 확인되며 특히 ③은 불투명한 결정도 섞여있다.

① 높이 1.0cm, 최대너비 1.5cm

② 높이 0.8cm, 최대너비 1.5cm

③ 높이 1.1cm, 최대너비 1.1cm

## 5) 기타

22.

실

絲

-

소장품 번호 : 본관123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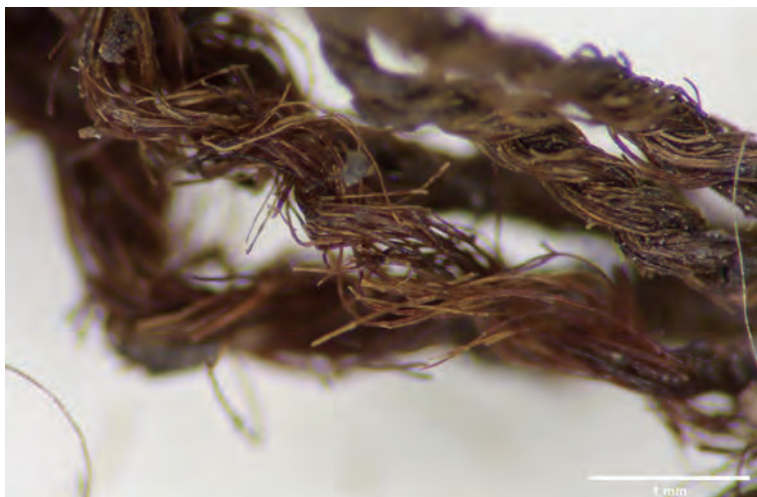
② 잔존길이 3.7cm



도판 22. 실(본관12379)

① ②

18호분에서 흑색의 비단과 실의 잔편이 수습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현재는 꼬임이 있는 실 잔편만 남아있다. 분석에 의하면 실의 색상은 황색, 홍색, 갈색 등이 확인되었으며, 실의 꼬임은 오른쪽 꼬임이라고 한다.



도판 22-1. 실 ②의 세부

## 2. 19호분

19호분은 1930년 콘프로덕션 사택 기초공사 중 발견되었다. 주민들에 의하면 원래 봉토가 있었다고 하나 조사 당시에는 남아있지 않았고, 내부도 이미 도굴된 상태였다.

19호분은 목곽 주변에 벽돌로 벽을 쌓고, 목곽 안에 내곽을 만든 이중곽 구조이다. 총 4개의 목관이 확인되었는데, 제1목관~제3목관은 내곽 안에, 제4목관은 밖에 위치한다. 목관의 장축은 남북이며, 두향은 북쪽에 두었다. 목관과 목곽 북벽 사이를 부장공간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나 도굴로 남아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제1목관의 뚜껑 위에서 구장수(38)가 출토되었고, 목관 내외에서 두씨작명마각부칠안(27)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2목관 내 피장자의 머리 부근에서 두개골편과 직물편(51)이 출토되었다. 제3목관 안의 피장자 머리 쪽에는 대모장식(52)이 있었고, 목관 아래 북쪽 끝에서는 화문대신수경(48)·복숭아 씨앗·밤(53)·칠배 등을 올려둔 두씨작명마각부칠안(27)이 확인되었다. 제4목관 뚜껑 위 가운데에서 목용(43)이, 아래에서 목마의 신부 2개체(44)와 칠반 1점(28)이 출토되었고, 목곽 남벽에 접해 절입각부칠괘(37)가 놓여 있었다.

19호분 출토품은 총 35건 74점이나 현재 확인되지 않는 용도불명목기, 목봉, 전돌을 제외하면 남아있는 것은 32건 68점이다.



참고도판 4. 19호분 내부 전경(건판9642)



## 1) 목관

23.

제1목관

第一木棺

-

소장품 번호 : 본관12639

(목관) 길이 210.0cm, 너비 64.5~69.0cm, 높이 61.8~66.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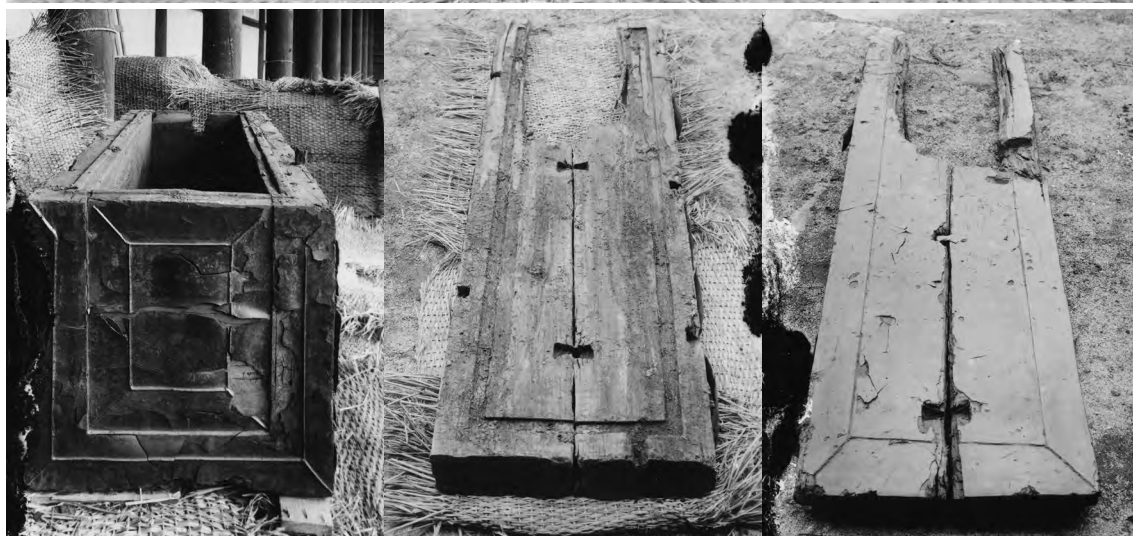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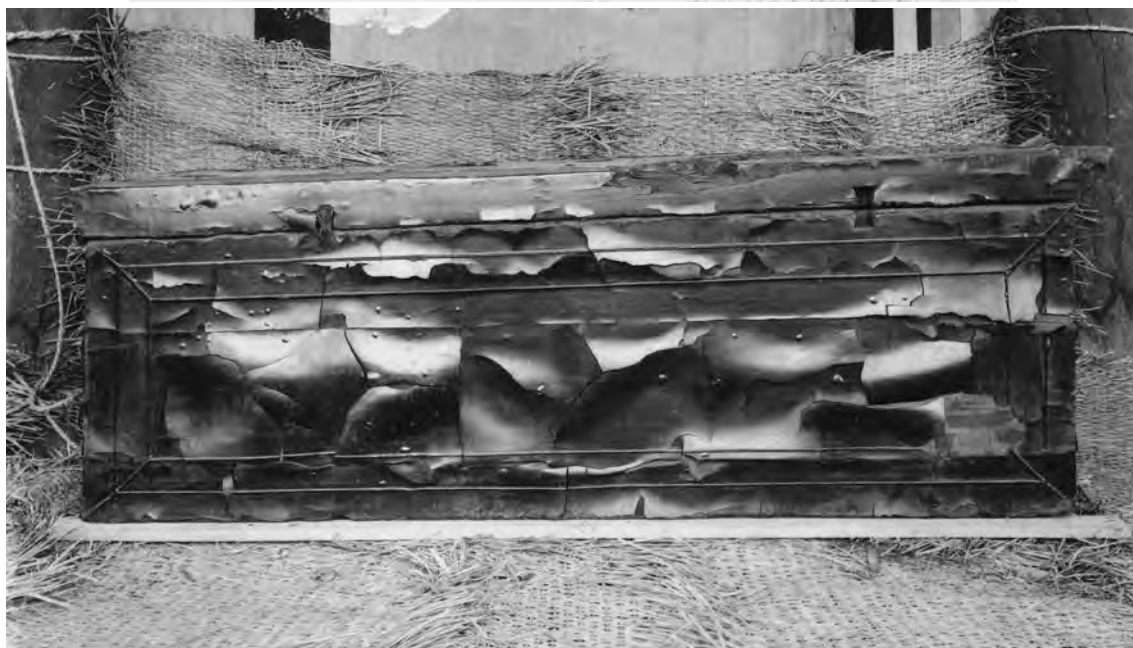
(뚜껑) 길이 225.0cm, 너비 63.9~66.0cm, 두께 11.0~12.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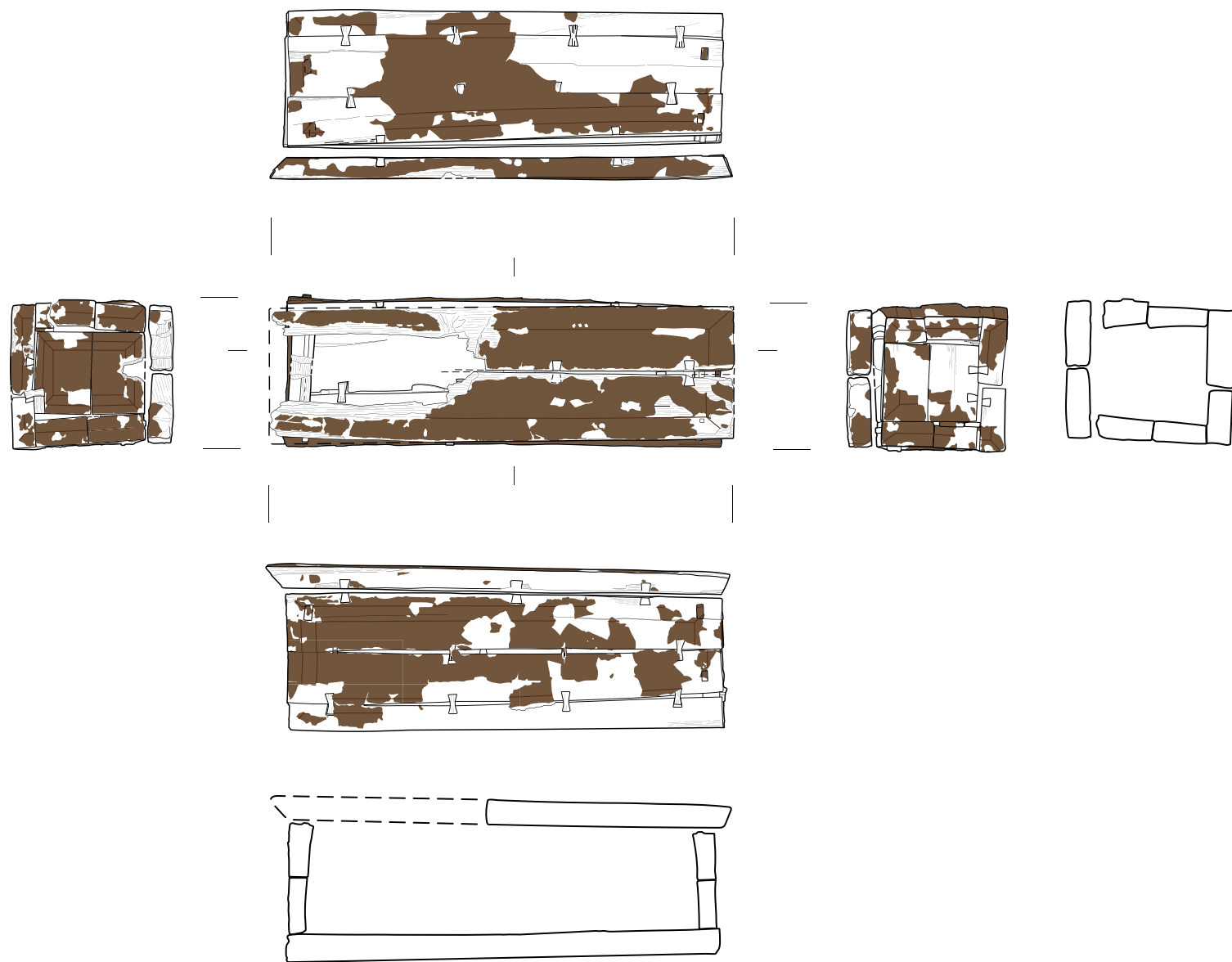
도판 23. 제1목관(본관12639, ① 뚜껑과 목관 내면, ② 우면, ③ 좌면)

①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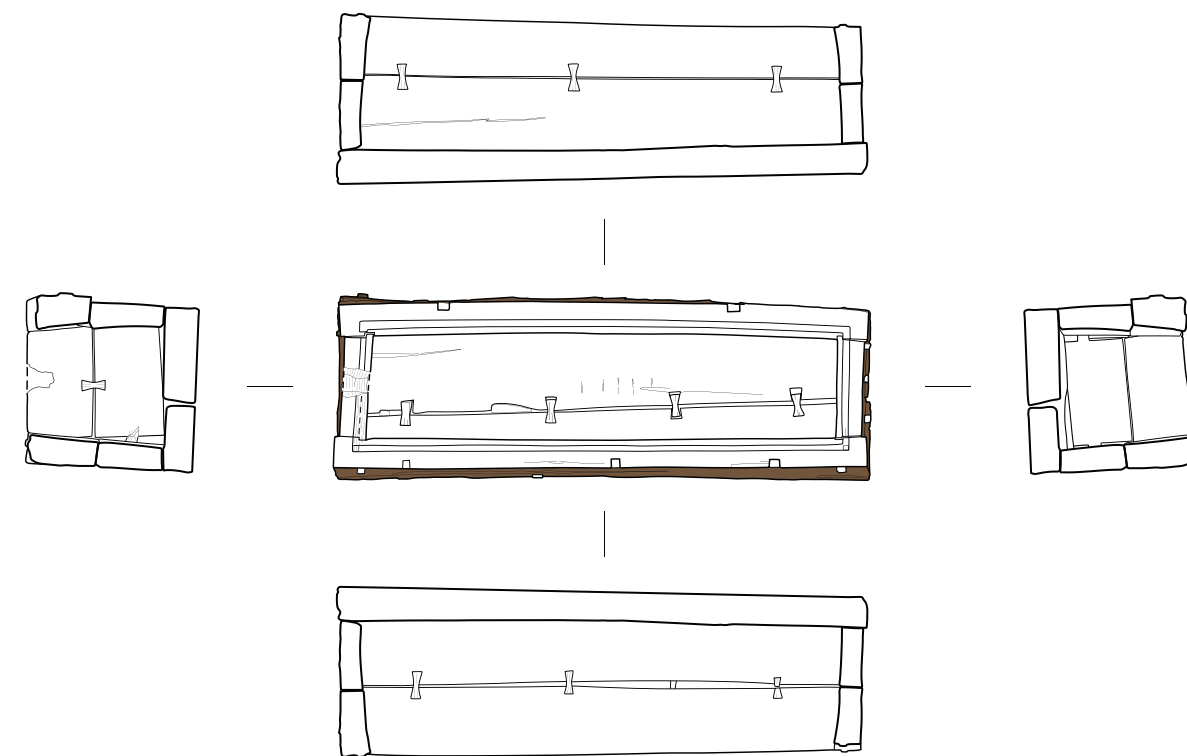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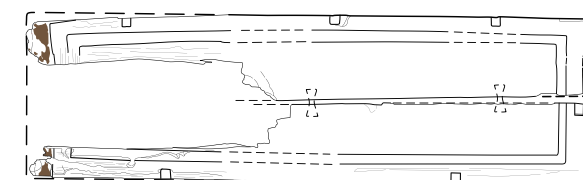
참고도판 5. 제1목관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건판10254, 10262, 10264~10266)



외면 및 단면도



목관 내면도



뚜껑 내면도



목곽 내 가장 동쪽에 위치한 목판이다. 도굴로 인해 피장자의 머리 쪽 뚜껑이 파괴되었으며, 현재는 목판 사이가 조금씩 벌어지거나 뒤틀려 있고 외면의 칠이 상당히 박락되어 있다.

목판의 크기는 길이 210.0cm, 전면 너비 69.0cm·높이 66.0cm, 후면 너비 64.5cm·높이 61.8cm<sup>3</sup>로 뒤로 갈수록 약간 좁아지고 낮아진다.<sup>4</sup> 바닥면은 두께 11.0cm 내외의 목판 2장을 이어 붙이고 그 사이를 4개의 나비장으로 연결하였다(도판 23-5). 목판의 측면은 2장의 목판을 바닥판 위에 올려 만들었다. 측면 위쪽 목판이 아래쪽 목판보다 두꺼워 내면이 약간 안으로 기울어지는 형태이다. 목판 사이에는 내외면에 나비장을 넣었는데,



도판 23-1. 장측판과 단측판 장부맞춤 세부

장측면에는 내면 3개(도판 23-4), 외면 4개를(도판 23), 단측면에는 내면에만 1개를 넣거나 아예 넣지 않았다(도판 23-3). 측판과 바닥판 사이에도 외면에 나비장을 박아 넣었는데, 장측면에 4개, 단측면에 2개씩 보인다(도판 23, 23-3). 장측판과 단측판은 장부를 이용해 조립하였다. 즉 단측판의 내면에 접하여 단면 장방형(3.0×4.8cm)의 장부를 위아래 2개씩 양쪽에 만들어, 장측판의 장부구멍에 끼워 고정된 것이다(도판 23-1).

뚜껑의 크기는 길이 225.0cm, 전면 추정너비 66.0cm, 후면 너비 63.9cm, 두께 11.0~12.0cm 이다.<sup>5</sup> 뚜껑은 목판과 너비는 거의 동일하나 더 길게 만들어 단측면이 안으로 경사지게 만들었다. 바닥과 마찬가지로 목판 2장을 붙이고 그 사이에 나비장을 끼웠는데, 윗면에는 4개, 아랫면에는 3개를 넣은 것으로 보인다.

목판과 뚜껑의 접합면은 요철로 깎았다. 즉 목판 측면의 윗부분은凸자형으로, 뚜껑 내면은凹자형으로 깎아서 서로 물리게 만들었다. 목판과 뚜껑 사이는 칠을 발라 접착하였을 것이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또 목판과 뚜껑 측면 사이에는 나비장을 넣었는데, 우면은 3개, 좌면은 2개가 확인된다.

목판의 외면에는 전체적으로 흑칠을 바르고, 퇴칠堆漆로 장식하였다. 퇴칠은 칠의 끈적이는 특성을 이용해 칠을 쌓아 입체감 있게 장식하는 수법이다. 퇴칠 장식은 두께 0.3cm 내외로, 측면에는 이중으로, 뚜껑에는 단독으로 장방형을 그리고 모서리는 사선으로 연결하였다(도판 23-2).



도판 23-2. 퇴칠 장식

3 보고서의 목판 크기: 길이 211.5cm, 전면 너비 68.2cm·높이 66.7cm, 후면 너비 63.3cm·높이 60.6cm

4 목관 기술시 피장자의 머리가 있는 단측면을 전면前面, 반대쪽을 후면後面으로 하고, 피장자의 오른쪽 장측면은 우면右面, 왼쪽 장측면을 좌면左面으로 표기한다.

5 보고서의 뚜껑 크기: 길이 228.5cm, 전면 너비 68.5cm, 후면 너비 63.6cm, 두께 12.1cm





도판 23-3. 단측면의 외면과 내면(左: 전면, 右: 후면)



도판 23-4. 장측면 내면(上: 우면, 下: 좌면)



도판 23-5. 바닥면 내면



24.

제2목관

第二木棺

-

소장품 번호 : K63(본관12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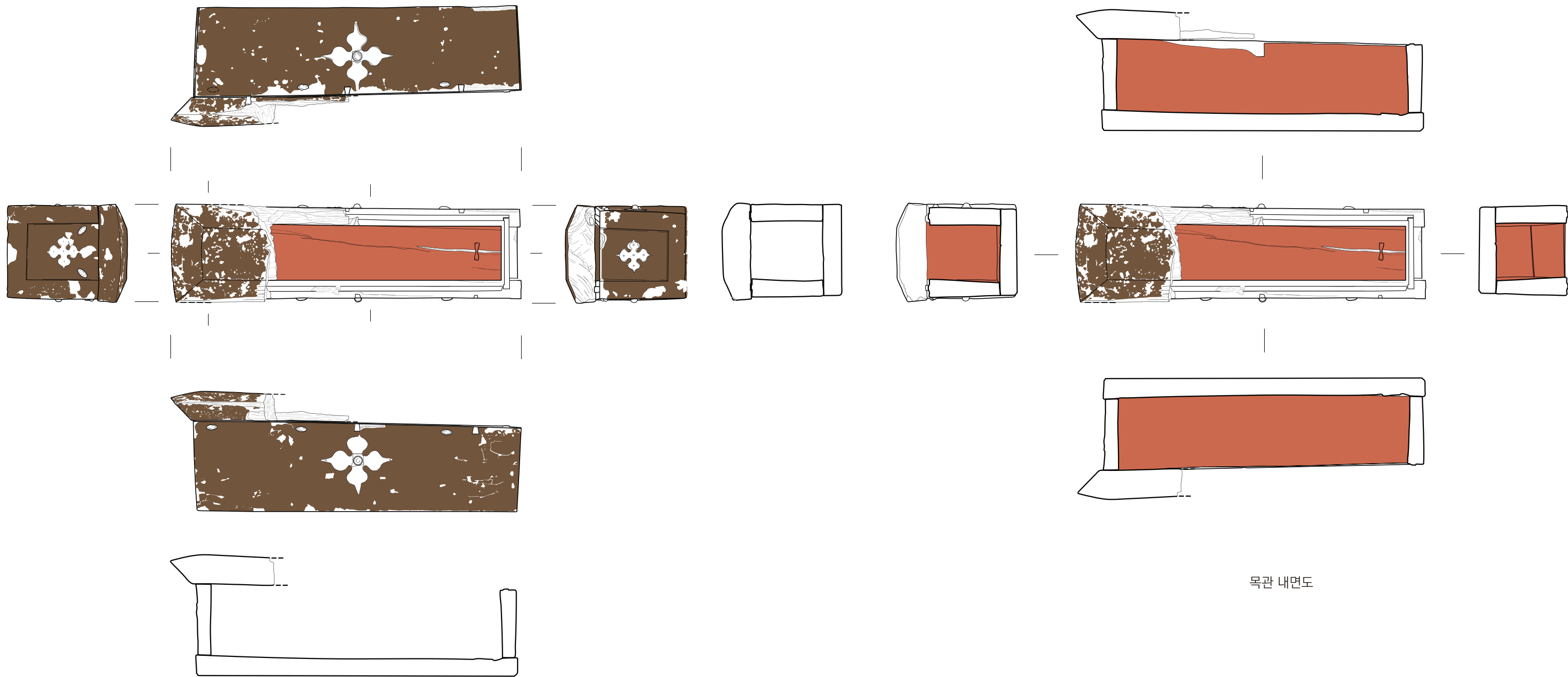
(목관) 길이 250.2cm, 너비 67.8~72.0cm, 높이 66.3~69.0cm

(뚜껑) 길이 134.7cm, 너비 75.9cm



도판 24. 제2목관(K63, ① 뚜껑과 목관 내면, ② 우면, ③ 좌면)

①  
②  
③



외면 및 단면도

목관 내면도



도면 16. 제2목관(K63)





참고도판 6. 제2목관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건판10267, 10268, 10270~10272)

제2목관은 내곽의 중앙에 위치한다. 목관에 뚜껑이 덮인 채 발견되었으나, 도굴에 의해 3/4가량 결실되었다.

목관은 길이 250.2cm, 전면 너비 72.0cm·높이 69.0cm, 후면 너비 67.8cm·높이 66.3cm이다<sup>6</sup>. 제1목관과 마찬가지로 앞에서 뒤로 갈수록 좁아지고 높이도 낮아진다. 목관의 두께는 바닥면이 13.5cm, 측면이 12.0~13.0cm 내외로 바닥면을 좀 더 두꺼운 목재로 만들었다.

제2목관은 다른 목관에 비해 뒤틀리거나 벌어짐이 거의 없고, 내외면에 칠을 두껍게 발랐기 때문에 목관의 맞춤 기법이나 나비장의 위치 등 세부적인 제작 방식의 관찰이 쉽지 않다. 보고서에 의하면 바닥면과 네 측면은 각각 목판 1장으로 만든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현재 내면으로 수평하게 칠이 갈라진 흔적들이 상당히 관찰되고 있어 2장으로 제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바닥면은 대각선으로 길게 갈라져 있는데 여기에 나비장을 하나 박은 것으로 보아 제작 당시 이미 목판이 벌어지기 시작해 보강한 것으로 추정된다. 측면의 두께는 위쪽이 아래쪽보다 두꺼워 안쪽으로 약간 경사져있다.

뚜껑은 도굴 당시 대부분 파괴되어 머리 쪽 일부만 남아있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은 길이 134.7cm, 너비 75.9cm이고, 중심부 두께는 22.0~23.0cm로 목관에 비해 두꺼운 목재를 이용하였다. 뚜껑은 하나의 목판으로 만들었으며 윗면 가운데는 편평하지만 주변은 경사지게 깎았다. 끝은 호상(弧狀)으로 약간 둥근 형태이다. 장측면은 아래쪽을 약간 안으로 들어 깎았으며, 단측면은 윗면과 아랫면의 길이가 15.0cm이상 벌어질 정도로 윗면을 길게 만들었다.

목관과 뚜껑의 접합면에는 제1목관과 마찬가지로 너비 4.0cm의 요철을 내어 서로 물리게 하였다. 또 접합면에 남아있는 칠 흔적을 통해 칠을 접착제로 사용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목관과 뚜껑의 장측면 사이에는 한 면당 나비장을 3개씩 박아 넣었으나 뚜껑이 결실되면서 일부는 구멍만 남아있다. 뚜껑에 남아있는 도끼 자국을 통해 도굴시 목관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남아있는 뚜껑과 목관은 현재도 분리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강력하게 접착되었다.

목관과 뚜껑 모두 외면은 흑칠을 하고 내면은 주칠을 발랐다. 특히 옷칠층 아래로 두꺼운 바탕칠층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여러 차례 바탕을 반복하여 발랐음을 추정할 수 있다. 제2목관이 다른 목관에 비해 칠이 잘 남아있고 뒤틀림이 적은 것은 여러 가지 제작 공정상의 차이 때문일 것인데, 바탕칠층을 두껍게 바른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6 보고서 크기: 길이 250.6cm, 전면 너비 73.0cm·높이 70.3cm, 후면 너비 68.2cm·높이 68.2cm



도판 24-1. 단측면의 외면과 내면(左: 전면, 右: 후면)





도판 24-2. 장측면 내면(上: 우면, 下: 좌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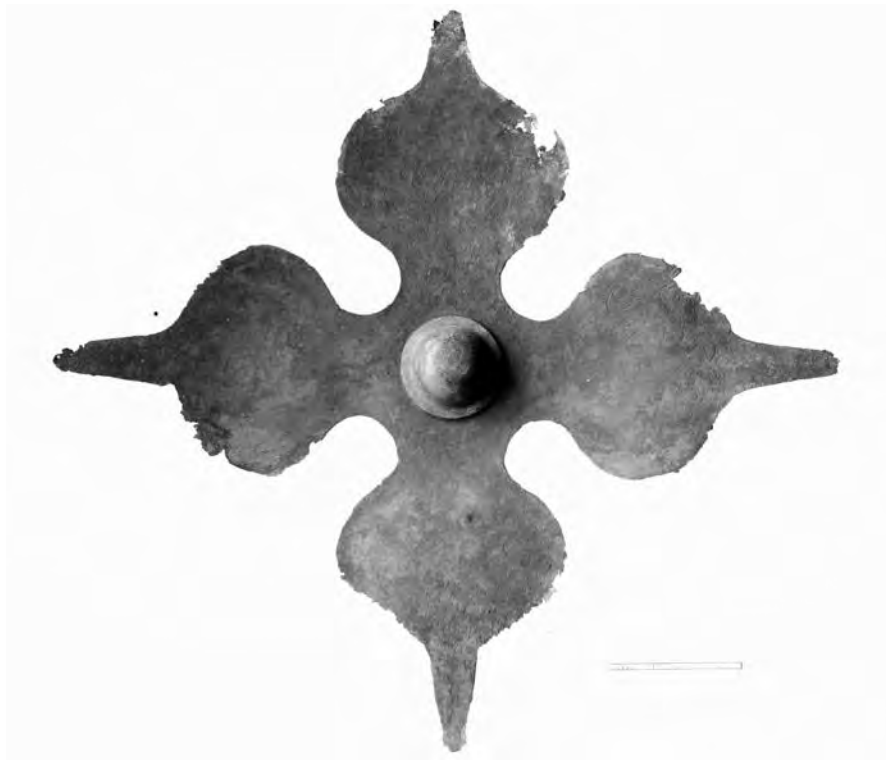


도판 24-3. 뚜껑 세부

칠을 바른 후에는 네 측면에 금동사엽좌장식(金銅四葉座裝飾)과 금동물맴이모양장식(金銅鼓豆蟲形)을 붙여 표면을 장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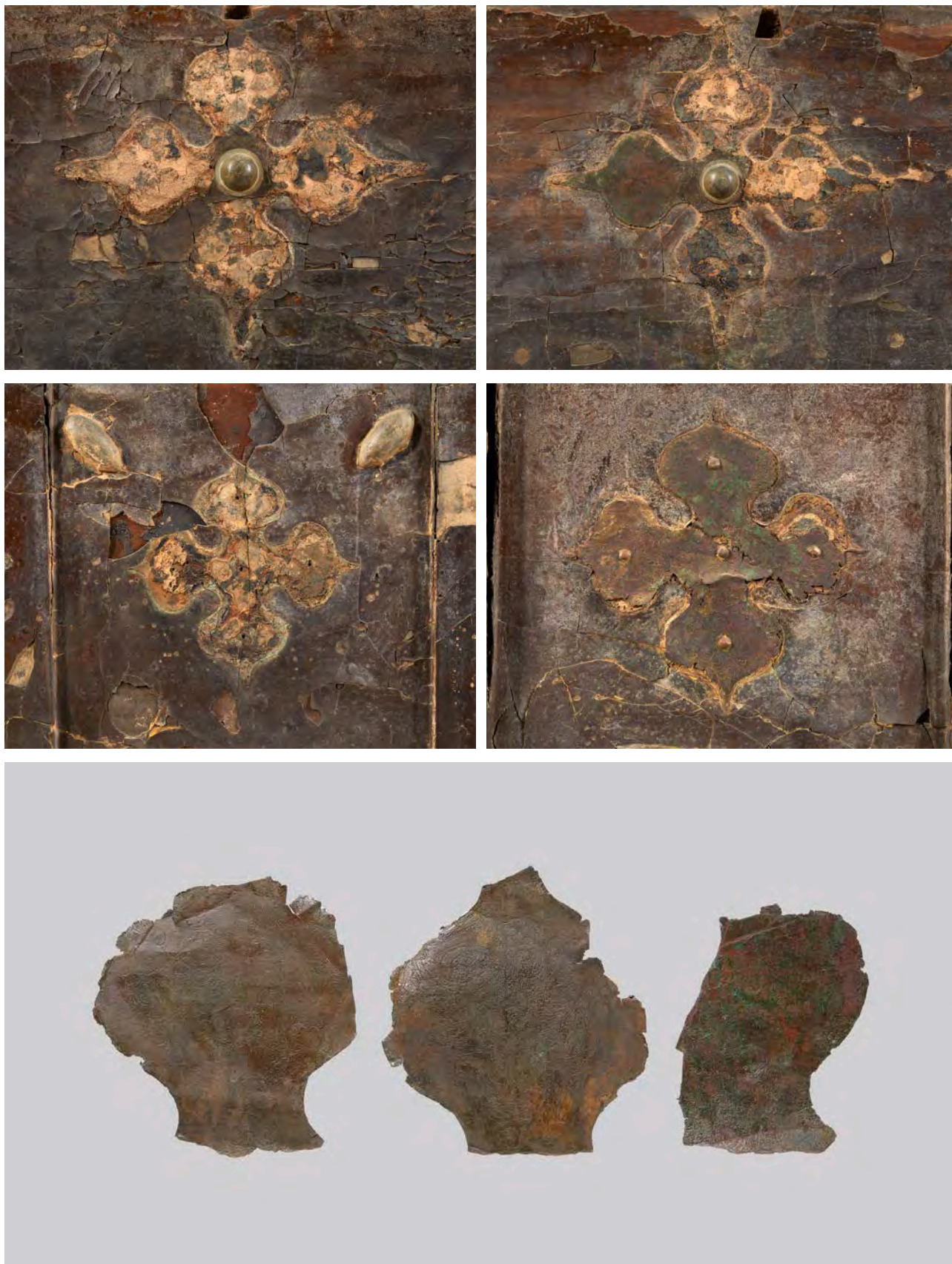
금동사엽좌장식은 네 측면의 중앙에 부착하였다. 현재 후면의 장식은 대부분 남아있지만, 그 외는 중앙 일부만 남아있거나 아예 결실되었다(도판 24-4). 보고서에는 모든 면의 금동사엽좌장식이 잘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조사 이후 결실된 것으로 보인다. 장측면의 금동사엽좌장식은 좌우 길이 55.0cm, 상하 길이 52.0cm 내외이고, 단측면의 금동사엽좌장식은 좌우 길이 26.0cm, 상하 길이 27.0cm 내외로 크기의 차이가 분명하다.

장측면의 금동사엽좌장식은 얇은 금동판을 잘라 형태를 만들고 표면에 사신도를 새겼다. 보고서에 의하면 장측면의 금동사엽좌장식 테두리에는 거치문이 돌아가고, 그 안에는 상엽(上葉) 봉황·하엽(下葉) 현무·좌엽(左葉) 백호·우엽(右葉) 청룡을 주문양으로 하며, 사이사이에 금조(禽鳥)나 신수(神獸)·신인(神人) 등을 넣고 구름당초문(雲唐草文)을 채워넣었다고 기술되어 있다(참고도면 1). 이 장식은 생칠을 발라 목관에 접착하고, 네 앞의 끝에는 작은 금동병(지름 1.0cm)을, 중앙에는 큰 금동병(지름 7.0cm)을 박아 고정하였다. 중앙의 금동병도 테두리를 거치문으로 장식하고 반원형의 표면에 매우 정교한 용 문양을 새겨 넣었다(참고도판 8, 참고도면 2). 단측면의 금동사엽좌장식은 장측면의 것에 비해 크기가 작을 뿐만 아니라 앞의 끝이 짧아 다소 넓적한 느낌을 준다. 테두리에는 거치문을 돌리고 그 안은 구름당초문을 새겼다. 목관에 붙이기 위해 생칠을 바르고 지름 1.0cm의 작은 금동병을 네 앞의 중앙과 장식의 한 가운데에 박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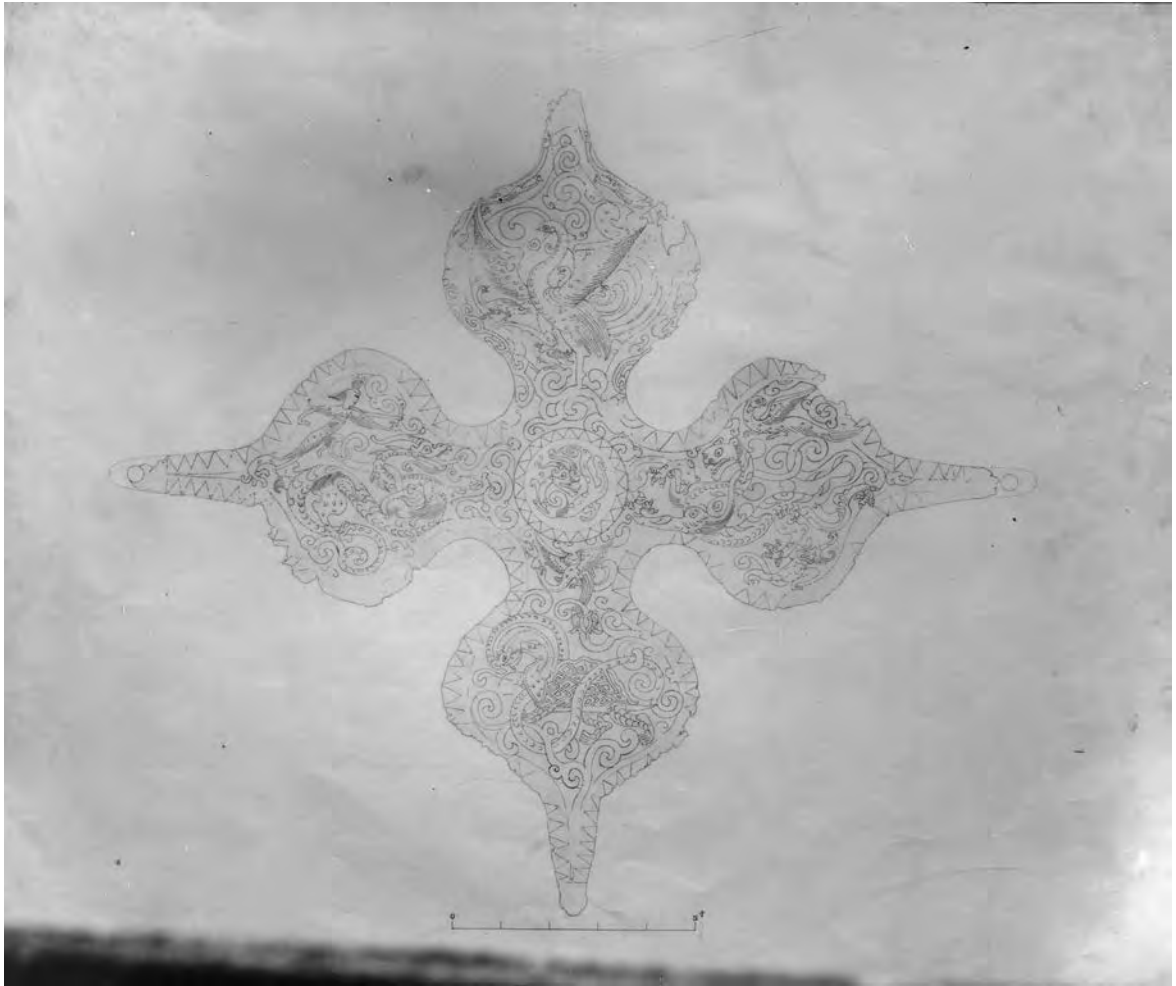
참고도판 7. 금동사엽좌장식(우면)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건판17167)





도판 24-4. 금동사엽좌장식(① 우면, ② 좌면, ③ 전면, ④ 후면, ⑤ 분리된 장식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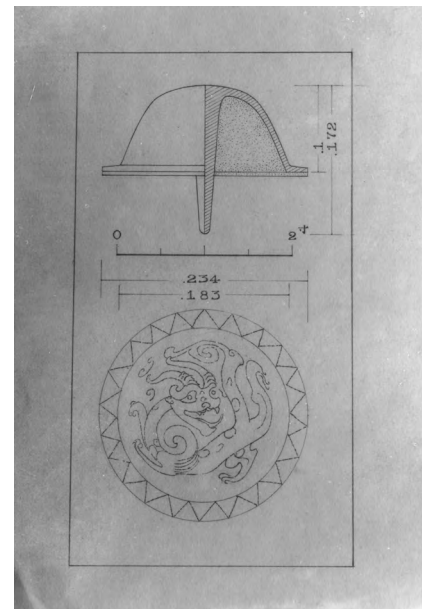
① | ②  
③ | ④  
⑤



참고도면 1. 금동사엽좌장식(우면) 일제강점기 실측도(건판17177)



참고도판 8. 큰 금동병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건판10275)



참고도면 2. 큰 금동병의 일제강점기 실측도(건판26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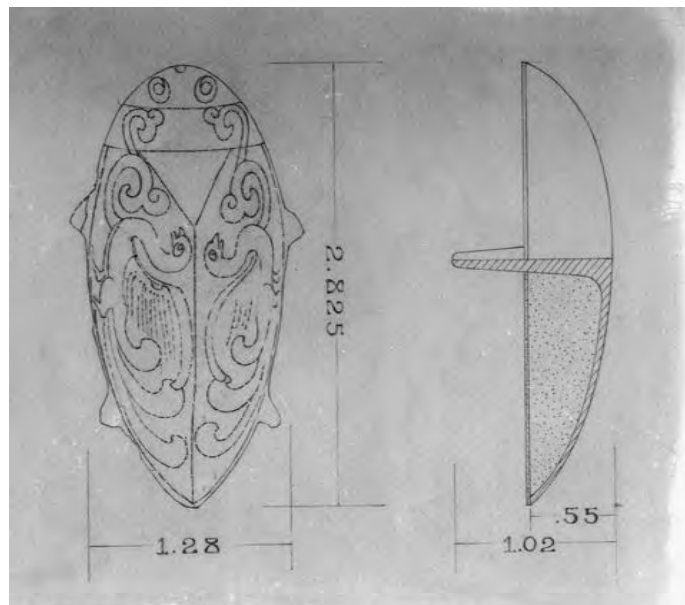


도판 24-5. 금동물맴이모양 장식 세부

금동물맴이모양장식은 길이 8.2cm, 너비 3.8cm이며 앞이 뒤보다 다소 넓은 타원형이고 가장자리에 네 개의 짧은 돌기가 달려있다. 볼록한 표면에는 물맴이의 형태가 새겨져 있으며, 딱지날개에는 두 마리의 새가 표현되어 있다(참고도면 3). 뒷면에는 장식을 박을 수 있도록 긴 못과 같은 것이 달려있다. 목관 장측면에는 뚜껑 바로 아래에 3개가 수평하게, 전면에는 위쪽 모서리에 사선방향으로 2개가 붙어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장식의 빈 곳에 바탕칠(鏽)을 채우고 생칠을 발라 목관에 붙였다고 한다.

물맴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다. 하지만 19호분에서 출토된 두씨작명마각부칠안(27)에도 물맴이가 네 모서리에 사선 방향으로 그려져 있음이 확인되었다. 때문에 피장자의 사후 안녕을 기원하거나 장례 의식과 관련된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제2목관은 19호분의 목관 중 가장 크고 정교하게 제작되었으며, 외면은 물론 내면까지 칠을 두껍게 바른 후 곳곳에 금동장식을 붙여 매우 화려하게 장식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이 목관은 19호분의 주관主棺일 것이며 가장 중요한 신분의 피장자가 매장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참고도면 3. 금동물맴이모양장식의 일체강점기 실측도(건판26862)

25.

제3목관

第三木棺

-

소장품 번호 : 본관12639

길이 207.3cm, 너비 65.4~72.0cm, 높이 67.8~72.0cm



도판 25. 제3목관(본관12639, ① 내면, ② 우면, ③ 좌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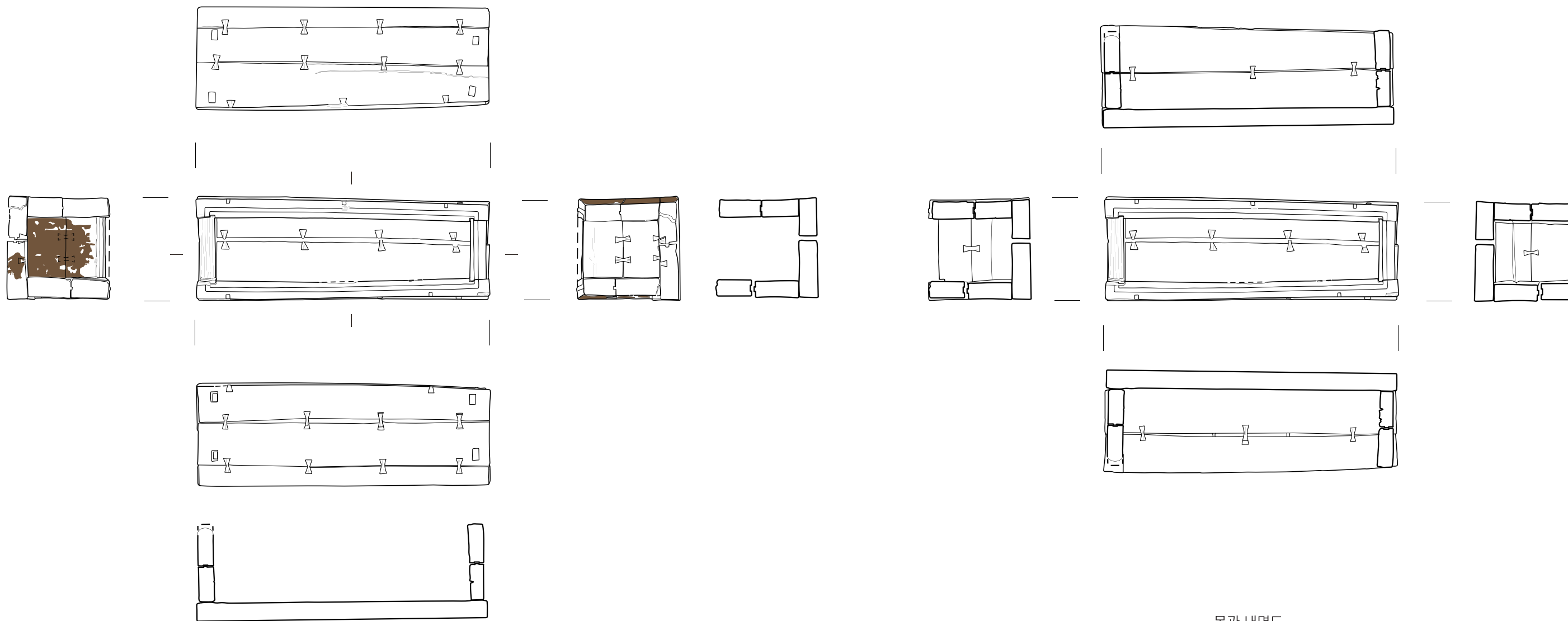




참고도판 9. 제3목관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건판10278, 10279)



도판 25-1. 단측면의 외면과 내면(左 전면, 右 후면)



외면 및 단면도

목관 내면도



도면 17. 제3목관(본관12639)





도판 25-2. 장측면 내면(上: 우면, 下: 좌면)



도판 25-3. 목판과 목판의 장부맞춤(左: 전면의 바닥판, 右: 후면의 측판)

내곽 안 서쪽에 위치한 목관이다. 조사 당시에는 뚜껑이 남아있었으나 현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목관의 크기는 길이 207.3cm, 전면 너비 및 높이 72.0cm, 후면 너비 65.4cm·높이 67.8cm로<sup>7</sup> 뒤로 갈수록 약간 좁아지고 높이도 낮아진다. 바닥면은 두께 13.0cm 내외의 목판 2장을 이어 붙이고 그 사이에 나비장 4개를 박아 넣었다. 측면은 2장의 목판을 바닥판 위에 올려 만들었는데, 위아래 두께가 비슷하거나 위가 약간 두껍다. 목판과 목판을 접합하기 위해 장측면의 외면에는 위아래 각각 나비장 4개, 내면에는 나비장 3개를 넣었다(도판 25, 25-2). 단측면의 경우 외면에는 위아래 각각 나비장 2개, 내면에는 1개가 확인된다(도판 25-1). 또 목판의 접합면을 요철로 깎아 서로 물리게 한 장부맞춤도 확인할 수 있었다(도판 25-3). 장측판과 단측판을 접합하기 위해서는 단측판 내면에 장부를 만들어 장측판의 장부구멍에 끼워 고정하였다(도판 25-4).

보고서에 의하면 뚜껑의 크기는 234.2cm, 앞쪽 너비 68.8cm·두께 15.2cm, 뒤쪽 너비 66.1cm·두께 14.2cm이라고 한다. 윗면이 아랫면보다 길고 앞을 뒤보다 넓고 두껍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참고도판 9).

목관의 측면 윗부분이凸자형으로 깎인 것으로 보아 다른 목관과 마찬가지로 목관과 뚜껑의 접합면을 요철로 깎아 서로 물리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목관과 뚜껑의 장측면 사이에는 나비장을 넣어 고정하였는데, 현재는 나비장 구멍만 우면 2개, 좌면 3개가 남아있다.

목관의 외면에는 전체적으로 흑칠을 발랐을 것이나 박락이 심해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도판 25-4. 장측판과 단측판의 장부맞춤 세부

7 보고서의 목관 크기: 길이 206.6cm, 전면 너비 71.8cm·높이 73.9cm, 후면 너비 67.9cm·높이 67.6cm



26.

제4목관

第四木棺

-

소장품 번호 : 본관12639

(목관) 길이 214.2cm, 너비 61.8~67.5cm, 높이 60.0~60.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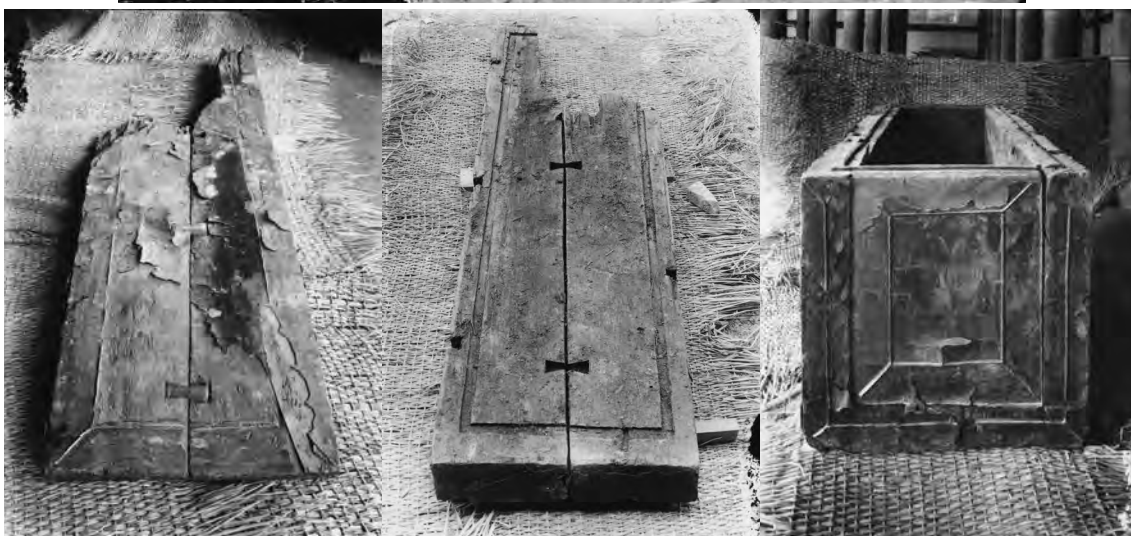
(뚜껑) 길이 231.3cm, 두께 11.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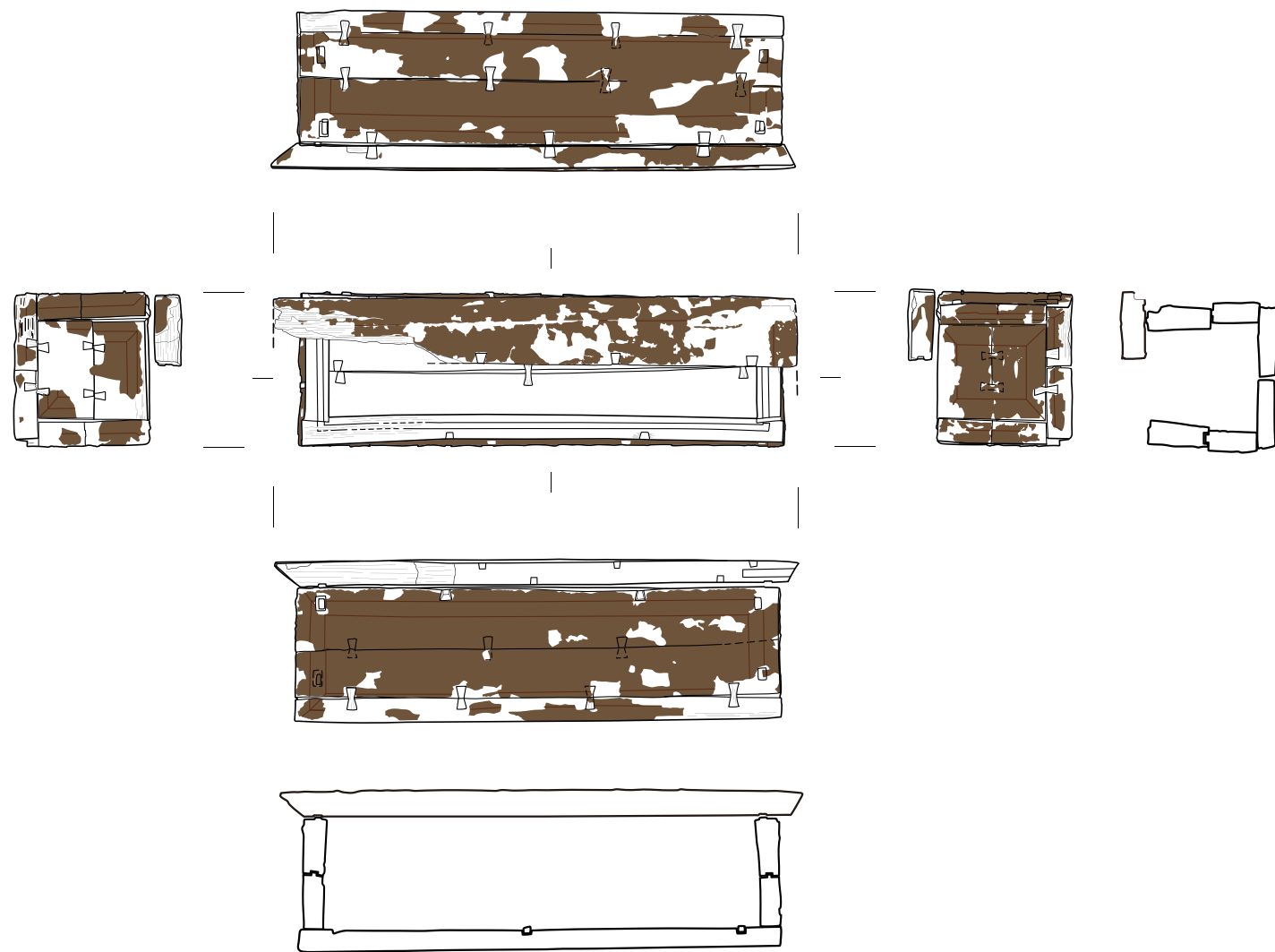
도판 26. 제4목관(본관12639, ① 목관 내면과 뚜껑, ② 우면, ③ 좌면)

①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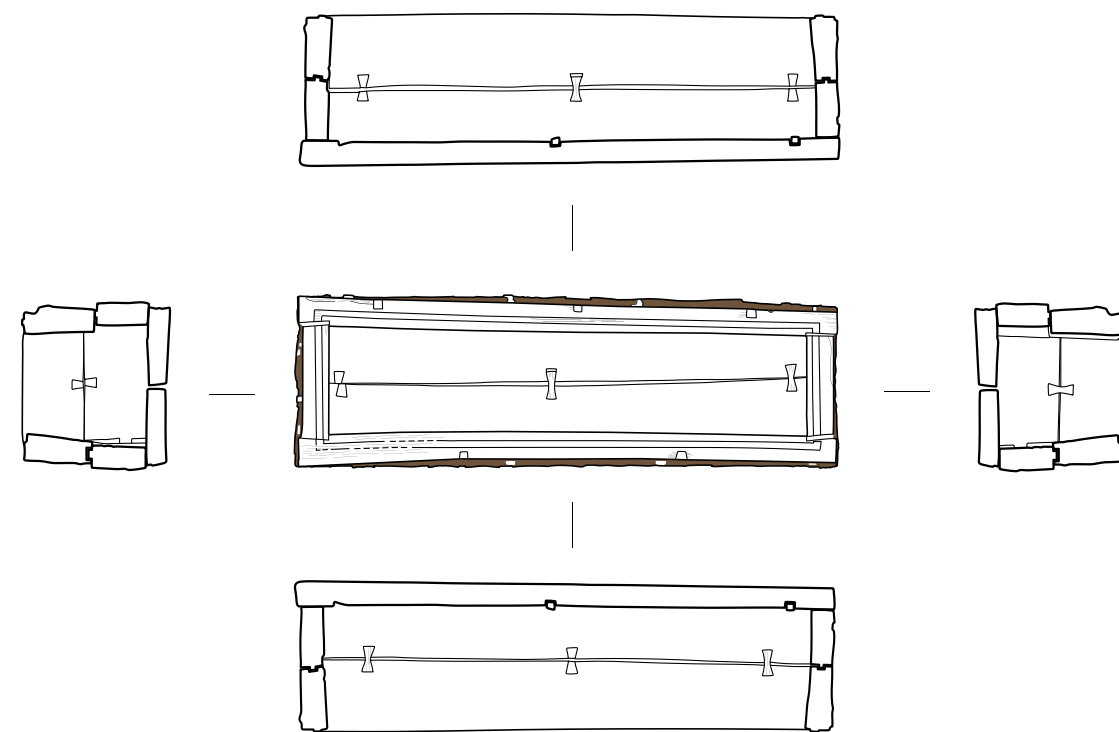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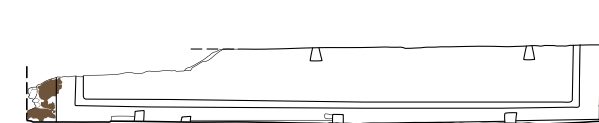
참고도판 10. 제4목관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건판10280, 10281, 10283~10285)



외면 및 단면도



목관 내면도



뚜껑 내면도



목관의 서벽 가까이에서 발견된 목관이다. 보고서에서는 제4목관이 위치한 지점을 서실西室이라 명명해 내곽이 있는 동실東室과 구분하였다. 현재는 뚜껑 절반만 남아있고, 목관 사이가 벌어지거나 다소 뒤틀려있다.

목관의 크기는 길이 214.2cm, 전면 너비 67.5cm·높이 60.0cm, 후면 너비 61.8cm·높이 60.3cm이다<sup>8</sup>. 바닥면은 두께 9.0cm 내외의 목판 2장을 이어 붙이고 그 사이에 나비장 3개를 박아 넣었다(도판 26-5). 측면은 2장의 목판을 바닥면 위에 올려 만들었는데, 위쪽이 두꺼워 안으로 약간 기울어져있다. 외면의 경우 목판과 목판, 측판과 바닥판 사이에 장측면은 각각 나비장 4개, 단측면은 각각 2개를 넣었다. 내면은 목판과 목판 사이에만 나비장을 넣었는데, 장측면 3개, 단측면 1개가 확인된다(도판 26, 26-3). 또 장측판과 단측판을 연결하기 위해 단측판 양쪽으로 장부를 만들어 장측판의 장부구멍에 끼워 결구하였다(도판 26-2).



도판 26-1. 목판과 목판을 잇는 장부구멍



도판 26-2. 장측판과 단측판의 장부맞춤 세부

뚜껑은 길이 231.3cm, 두께 11.7cm 내외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앞쪽의 너비는 67.3cm, 뒷쪽의 너비는 61.8cm로, 윗면이 아랫면보다 길고 앞을 뒤보다 약간 넓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참고도판 10). 목판 2개를 이어 만들었는데, 현재는 오른쪽 목판이 결실되었다. 목판 사이의 접합면을 살펴보면 후면에서 약 22.0cm 가량 길고 수평하게 판 흔적이 확인되는데(도판 26-1), 이는 목판과 목판의 장부맞춤에 의한 장부구멍으로 목판 접합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흔적이다. 또 뚜껑의 윗면과 아랫면에도 나비장을 넣었는데, 윗면은 4개, 아랫면은 3개를 넣었던 것으로 보인다.

목판과 뚜껑의 접합면은 요철로 깎아 서로 물리게 만들었고, 칠을 발라 목판과 뚜껑을 접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 목판과 뚜껑의 장측면 사이에는 나비장을 넣었으나 모두 결실되어 나비장 구멍만 우면 2개, 좌면 3개가 남아있다.

목관의 외면에는 전체적으로 흑칠을 바르고, 퇴칠堆漆로 장식하였다. 네 측면에는 이중으로, 뚜껑에는 단독으로 장방형을 그리고 모서리는 사선으로 연결하였다. 제4목관은 전체적인 형태와 제작방식, 표면 장식 등의 수법이 제1목관과 매우 유사하다.

8 보고서의 목관 크기: 길이 214.5cm, 전면 너비 66.7cm·높이 61.2cm, 후면 너비 61.2cm·높이 58.8cm





도판 26-3. 단측면의 외면과 내면(左 전면, 右 후면)



도판 26-4. 장측면 내면(上: 우면, 下: 좌면)



도판 26-5. 바닥면 내면



## 2) 목칠기

27.

두씨작명마각부칠안

杜氏作銘馬脚附漆案

-

소장품 번호 : 고적28499, 본관12604

잔존길이 45.5cm, 잔존너비 70.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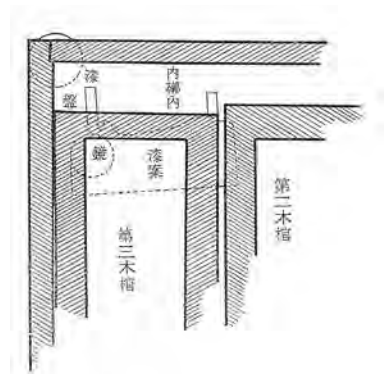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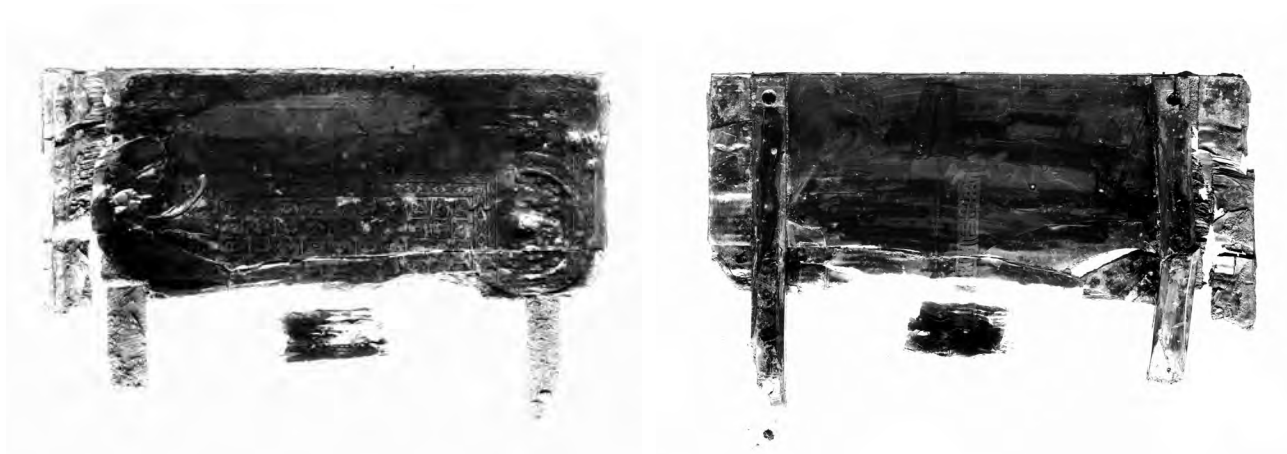
도판 27. 두씨작명마각부칠안(고적28499, 본관12604)



19호분에서는 두씨작명마각부칠안 2점이 출토되었다. ①은 제3목관 북쪽 끝 아래에서 발견되었는데(참고도면 4), 원래 제3목관과 내곽 북벽 사이의 빈 곳에 부장되었던 것이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 당시 상판 절반 이상이 남아있었으나, 급격히 변형되어 당시 이미 표면이 심하게 갈라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중앙의 문양대가 결실되었고, 뒷면의 문자가 쓰인 칠막도 탈락되었다. ②는 제1목관의 뚜껑 및 관 내외 곳곳에서 출토되었다.



참고도면 4. 19호분 내 유물 출토 위치



참고도판 11. 두씨작명마각부칠안 ①의 일제강점기 촬영사진(左: 건판17156, 右: 건판17157)

①은 장방형 상판 뒷면에 횡목 2매를 붙이고, 각각의 횡목에 마각을 2개씩 끼워 만들었다.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상판은 길이 45.5cm, 너비 70.0cm, 두께 0.8cm 내외이다. 테두리는 상판보다 1.0cm 가량 두껍다.

횡목은 평면 장방형이며, 끝은 아래쪽이 좁아지도록 사선으로 잘랐다. 길이는 상판과 같고, 너비 4.7cm, 두께 1.6cm이다. 횡목 양 끝에는 지름 1.9cm의 둥근 장부구멍을 뚫어 마각의 장부를 끼울 수 있도록 하였다(도판 27-1 左). 또 상판과 횡목을 고정하기 위해 모서리 부근에 나무못을 박았다(도판 27-1 右).



도판 27-1. 두씨작명마각부칠안 ①의 세부 모습(左: 횡목의 마각 장부구멍, 右: 상판과 횡목에 박은 나무못)

상판의 앞면에는 주칠을 바르고, 뒷면 및 테두리·횡목은 흑칠을 하였다. 상판의 앞면은 여러 개의 문양대로 구분되어 있으며 여기에 다양한 문양이 그려져 있다. 먼저 가장자리에는 흑칠선과 황칠선으로 그려진 이중 문양대가 있으며, 외대外帶 너비 2.8cm, 내대內帶 너비 1.2cm이다. 외대에는 운문雲紋 사이에 일정간격으로 영수靈獸가 배치되어 있는데, 황칠과 녹칠로 바탕을 채우고 흑칠로 외곽선을 그렸다. 내대에는 작은 능문이 이어지는데, 흑색의 능문 안에 황색의 능문을 그리고 중앙에 흑색 점을 찍었으며 능문 사이나 빈 여백에도 녹칠과 황칠로 문양을 그려 넣었다(도판 27-2 左).



도판 27-2. 두씨작명마각부칠안 ①의 세부 문양(左: 외구外區의 이중 문양대, 右: 주칠구의 물맴이 문양)



도판 27-3. 두씨작명마각부칠안 ①의 세부 문양(左: 내구의 이중 문양대, 右: 중앙의 반룡문)



도판 27-4. 두씨작명마각부칠안 ①의 세부 문양(左: 테두리 사면, 右: 테두리 측면)

이중 문양대 안쪽으로는 폭 8.4~8.8cm의 주칠구朱漆區가 넓게 돌아가며, 여기에는 네 모서리에 그린 물맴이<sup>9</sup> 외에는 문양이 그려져 있지 않다. 물맴이는 흑칠로 둥근 몸을 그리고 황칠로 눈과 네 다리, 더듬이 등 세부를 그렸는데, 밖에서 안을 향해 네 다리를 뒤로 길게 뻗고 헤엄치는 듯한 모습이다(도판 27-2 右).

주칠구 안쪽으로 다시 이중 문양대가 돌아간다. 외대는 너비 1.1cm로 외구의 내대와 동일한 능문이 돌아간다. 내대는 폭 1.7cm이며, 흑칠과 황칠을 이용해 큰 능문을 연속으로 그리고 빈 여백에는 보고서에서 일종의 ‘화문花紋’이라 표현한 여러 가지 문양을 뾰뾰이 채워넣었다(도판 27-3 左).

가장 안쪽에는 주칠과 흑칠 등을 이용해 5단 11열로 장방형의 칸을 구획하고, 그 안에 마주보는 반룡문을 연이어 그렸다. 용의 머리는 흑칠과 황칠로 표정까지 자세하게 그렸으나 몸은 선으로 간략하게 표현하였다(도판 27-3 右).

상판의 테두리는 상판보다 1.0cm 가량 두꺼워 안에서 밖으로 비스듬히 높아지는데, 여기에는 흑칠 바탕에 주칠로 여러 겹의 호선이 겹쳐진 반원형의 파문波文을 그렸다(도판 27-4 左). 테두리 측면은 흑칠 바탕에 두꺼운 주칠선으로 문양대를 만들고, 그 안에 능문을 이어 그렸으며, 능문 안에 2개의 와문을 배치하고 주칠선을 따라 점을 찍었다(도판 27-4 右).

상판의 뒷면 중앙에는 “杜氏作周布牢堅”이라는 명문이 쓰여있다. ‘杜[氏]’와 ‘作周布牢’, ‘堅’로 분리되어 있으며, ‘氏’는 상단만 확인된다. ‘杜氏’는 일종의 동성 가족으로 이루어진 공장의 소유자이자 제작자 집단으로 오늘날의 상표처럼 통용되었다고 판단된다. 한대 청동거울 명문 중에도 ‘杜氏作’을 볼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周布’를 ‘넉리 퍼진다’로 해석했다. ‘牢堅’은 ‘견뢰堅牢(견고하기)’를 기원하다’로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길상어로 해석하지만, 명문의 맥락을 볼 때 본 뜻에서 전하여 의례용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판 27-5. 두씨작명마각부칠안 ①의 명문 세부



참고도판 12. 일제강점기에 촬영한 두씨작명마각부칠안 ①의 명문(보고서 도판 51)

9 보고서에서는 이 문양을 물맴이(鼓豆蟲)라 기술하였다. 그러나 물맴이는 주로 앞발이 발달하였고, 수면 위를 유영하기 때문에 도상과는 다소 다르게 보인다. 뒤로 다리를 뻗고 헤엄치는 모습으로 볼 때 물방개 혹은 물맴이과일 가능성이 있으나, 일단 이 글에서는 원보고서를 따라 물맴이로 기술한다.



②는 19호분 곳곳에서 확인된 칠안편 중 하나이다. 앞면에서는 주칠구 일부와 능문이 그려진 이중문양대와 반룡문이 확인되고, 뒷면에서는 흑칠 바탕에 주칠로 ‘杜氏作[周]’와 ‘[堅]’가 쓰여있는 것으로 보아, ①과 동일한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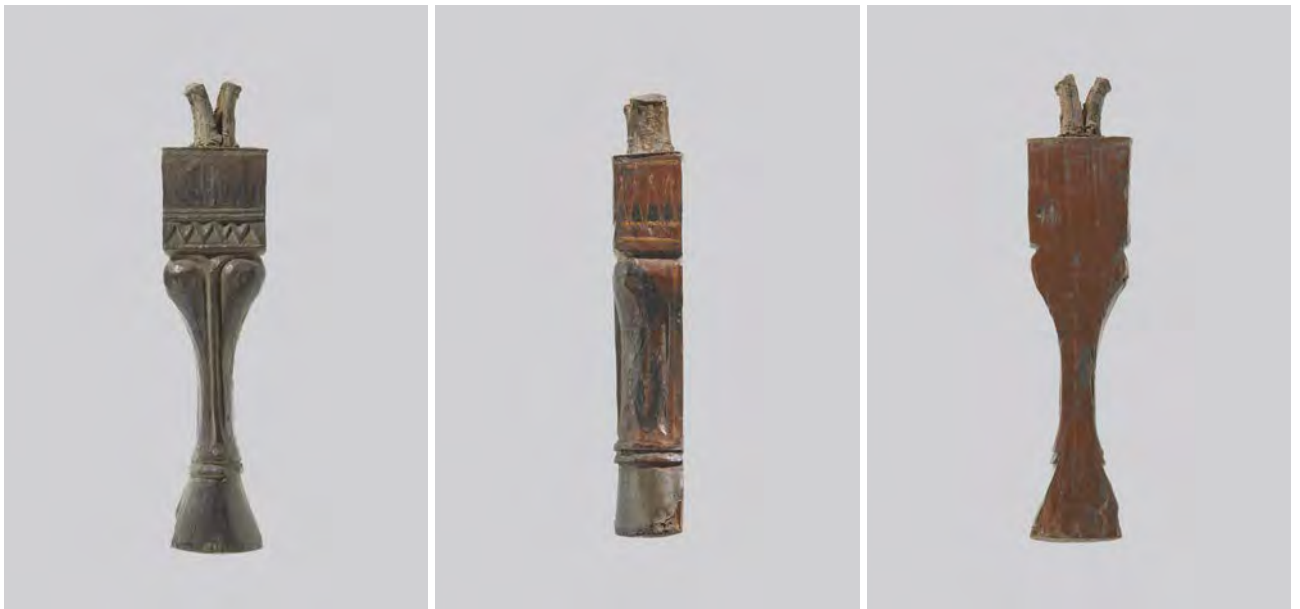
도판 27-6. 두씨작명마각부칠안 ②의 명문



참고도판 13. 일제강점기에 촬영한 두씨작명마각부칠안 ②의 명문(건판10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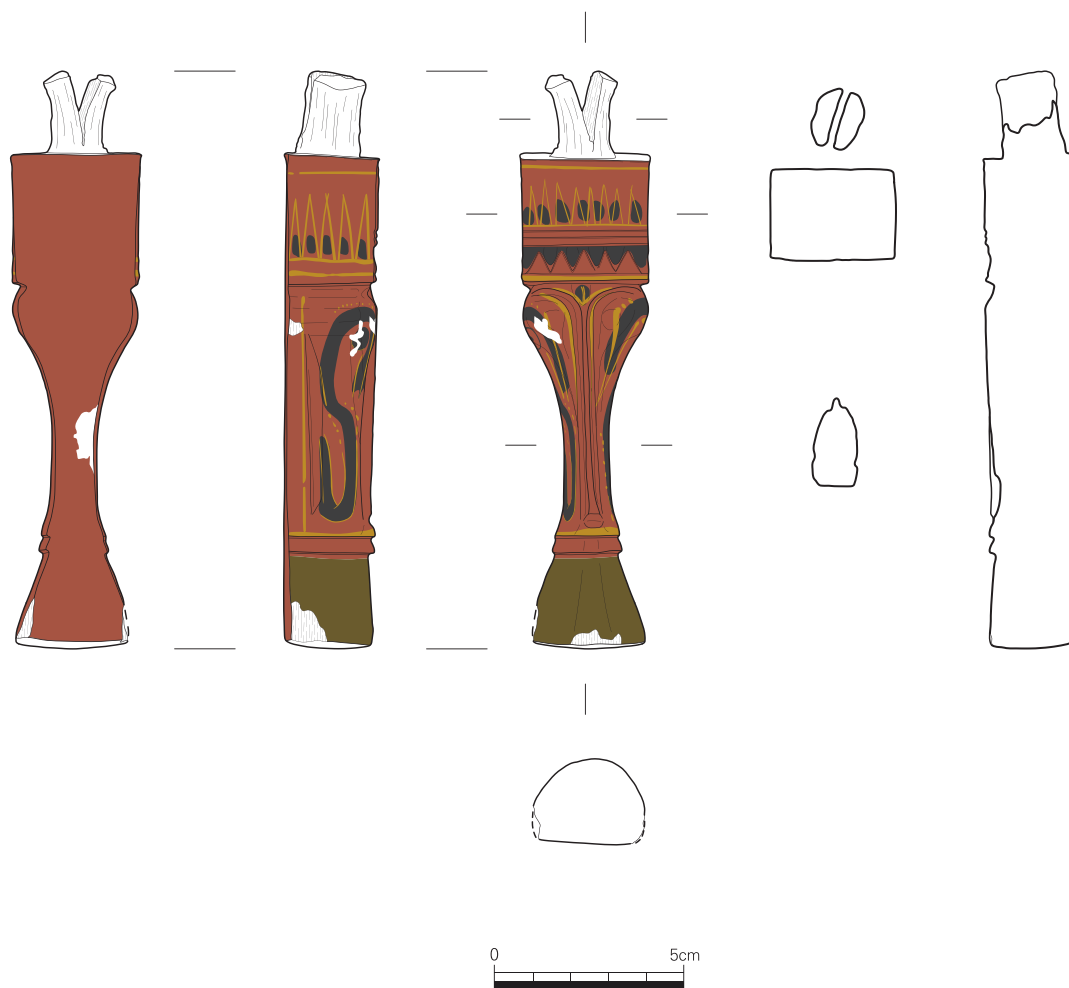


도판 27-7. 마각(본관12604)



도판 27-8. 마각 세부(左: 앞면, 中: 측면, 右: 뒷면)





도면 19. 마각(본관12604)

마각은 총 5점이 확인되었다. 길이 15.0cm 내외로, 바탕은 주철을 하고, 흑철과 황철을 이용해 문양을 그렸다. 상단에는 중앙 아래에 횡침선 2줄을 새기고 그 아래에 거치문을 조각하였다. 횡침선 위나 양 측면은 흑철과 황철로 거치문 등을 그려 장식하였다. 마각의 중앙은 하트형으로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고 하단은 말굽 형태이다. 전체적으로 곡선을 이루어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양 측면은 흑철로 두껍게 S자를 그리고 황철로 보조선과 점을 넣었다. 말굽 부분은 약간 녹색이 도는 어두운 철을 하였다. 이처럼 마각의 앞면과 양 측면은 입체적이고 여러 색의 철을 이용해 화려하게 장식하였으나, 뒷면은 편평하고 문양이나 장식 없이 주철만 하였다. 상단 위에는 횡목의 장부구멍에 끼울 수 있는 단면 원형의 장부(길이 2.2cm)를 만들었다.

칠안은 복숭아나 밤, 거울 같은 공물을 칠기에 넣어 올려놓기 위한 용도로 낙랑고분에 종종 부장되었다. 주로 목관과 목곽의 사이 혹은 목관 내 부장 공간에서 발견되어 부장품 매장과 관련된 의례나 규범을 엿볼 수 있다.

28.

칠반

漆盤

-

소장품 번호 : 본관12605, 12606

① 지름 20.0cm, 높이 4.0cm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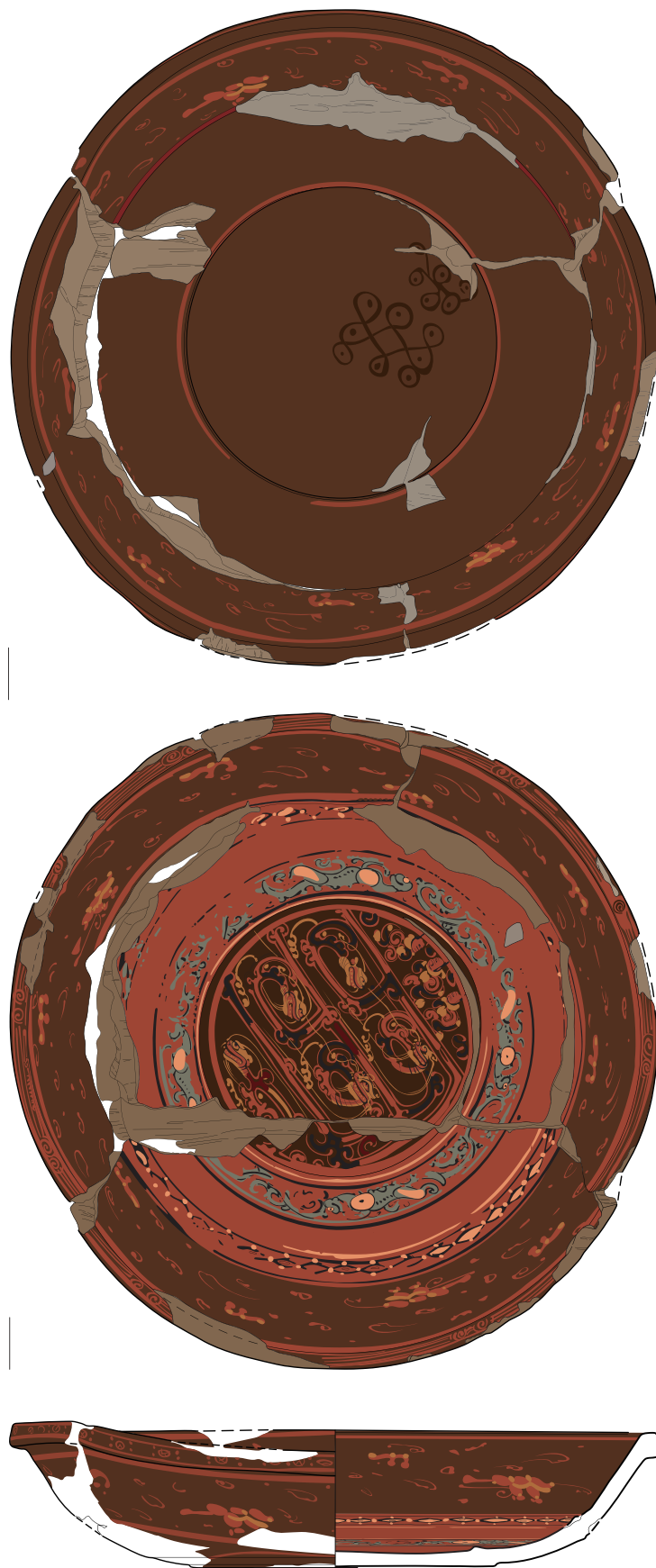
①

도판 28. 칠반(① 본관12605, ② 본관12606)



②

도판 28. 칠반(① 본관12605, ② 본관12606)



도면 20. 칠반 ①(본관12605)



19호분에서는 여러 종류의 칠반이 출토되었는데, 그중 문양이 그려진 것은 총 5개체로 동일한 기종으로 보인다.

①은 제4목관 북서쪽 모퉁이 아래에서 발견된 것으로, 원래는 제4목관과 목곽 북벽 사이에 부장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소 뒤틀려 있으나 지름 20.0cm, 높이 4.0cm 내외이고 기벽 두께는 0.4~0.5cm이다.

이 칠반은 목심저피칠기이며, 내면 중앙권에 흑칠, 그 바깥에는 주칠을 바르고 기벽과 외면은 흑칠을 하였다. 내외면에는 다양한 문양이 그려져 있는데, 먼저 내면 중앙권에는 주칠로 가장자리를 따라 둥근 원을 그리고 그 안을 네 개의 층으로 구획하였다. 가장 아래층에는 용 1마리가 왼쪽을 바라보고 있고 2·3층에는 용 2마리가 서로 마주보는 반룡문을 그렸다. 가장 윗층에서는 3명의 인물이 확인되는데 좌측의 인물은 오른쪽을, 그 외는 왼쪽을 바라보고 있다. 용과 인물의 얼굴은 흑칠과 황칠로 비교적 자세히 그려져 있어 표정까지 확인되나, 몸은 선으로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중앙권 밖의 주칠구는 흑칠과 황칠의 이중선을 그어 3단으로 구획하였다. 가장 안쪽 단에는 흑칠과 황칠 등으로 당초형 운문과 달리고 있는 듯한 영수靈獸를 교차로 배치하였다. 중앙단에는 문양이 없으며, 바깥 단에는 흑칠로 능문菱文을 이어 그리고 황칠로 점을 찍어 장식하였다(도판 28-1). 이러한 내면 문양의 구성이나 그림체는 두씨작명마각부칠안(27)과 매우 유사하다.

기벽 내외면에는 주칠로 위아래에 선을 돌리고 그 사이에 운문을 그려 넣었으며, 일정 간격으로 무언가를 타고 날아가는 듯한 2명의 인물과 짐승의 모습을 그렸다(도판 28-2). 구연 윗단에는 4줄의 주칠선 사이에 와문渦文을 배치하였고, 구연 외면에는 2줄의 주칠선 사이에 능문과 점열문을 그려넣었다.

저부 외면 바닥에는 흑칠로 선을 교차해 원과 비슷한 도형을 그리고, 그 안에 점을 찍은 문양이 있는데, 바닥 일부에만 남아있고, 정형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다른 문양처럼 칠반을 장식하기 위해 그린 것은 아닌 것 같다(도판 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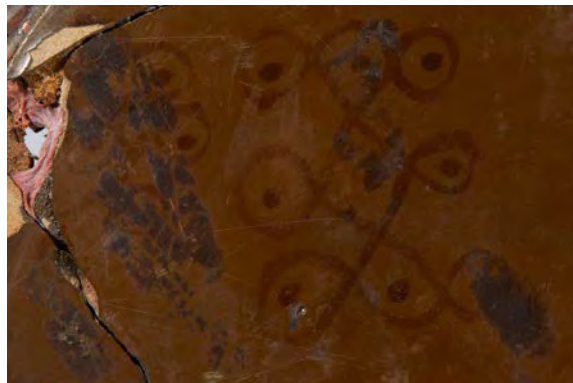
이 칠반에는 기벽이나 구연 곳곳에 운문이나 능문을 흑칠로 덮은 흔적이 남아있다. 칠기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재칠하여 장식을 새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칠반이 그러한 예로 보인다.



도판 28-1. 내부 바닥 문양 세부



도판 28-2. 기벽 문양 세부



도판 28-3. 외면 바닥 문양 세부

②는 ①과 거의 동일한 칠반편이다. 문양 구성은 유사하나 세부적으로 선의 색구성이 조금씩 다르고, 구연 외면에 능문과 점열문을 지우고 선만 1줄 넣은 것도 확인되었다. 기벽의 문양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편이 확인된다. 칠반 ② 중 가장 큰 편에는(도판 28-② 左上) 흑칠과 황칠을 이용해 길고 구불구불한 문양을 조밀하게 그렸고, 달리는 짐승에도 다리를 그려 넣어 더 활동감이 느껴진다. 칠의 투명도도 ①에 비해 더 높게 관찰된다. 이러한 차이는 이 칠반편이 ①과 달리 재칠을 하지 않은 원래의 문양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도판 28-4. 칠반 기벽 문양 비교(左: 칠반 ①, 右: 칠반 ②의 左上)

29.

칠반

漆盤

-

소장품 번호 : 본관12607, 12608

① 지름 22.6cm, 높이 3.5cm, ② 지름 26.4cm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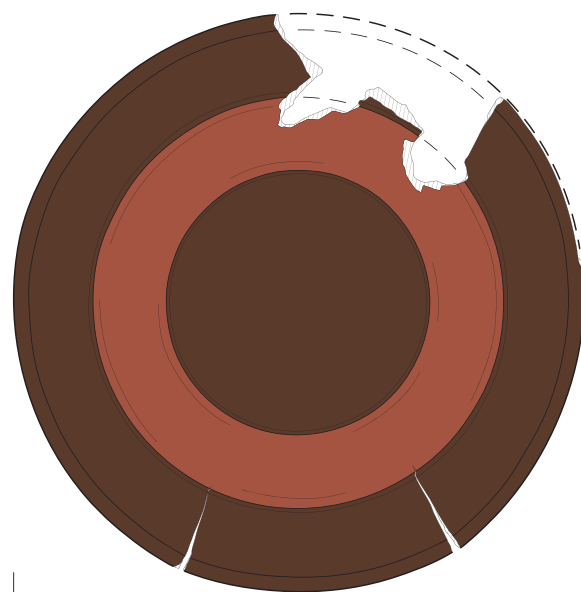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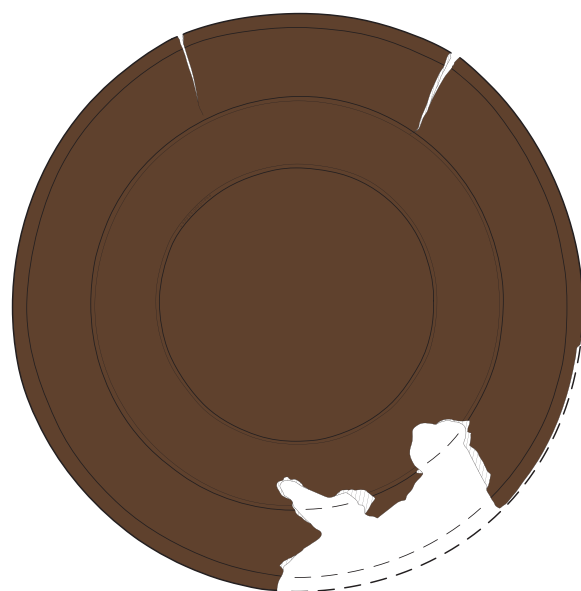
도판 29. 칠반(① 본관12607, ② 본관12608)



도판 29. 칠반(① 본관12607, ② 본관12608)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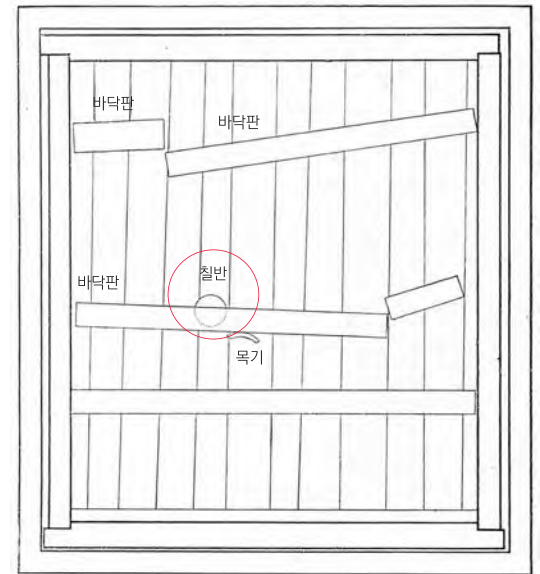
도면 21. 칠반 ①(본관12607)

19호분에서 출토된 무문양 칠반이다. ①은 기벽이 일부 깨져 결실되었으나 뒤틀림 없이 원형 그대로 발견되었다. 내곽의 북서쪽 모서리 아래에서 발견되었는데(참고도면 4), 원래 제4목판과 목곽 북벽 사이의 공간에 있었던 것이 유수에 의해 이동된 것으로 보인다.

①은 협저제이며, 기벽 두께는 0.2~0.3cm 정도로 얇다. 저부 중앙권의 지름은 내면 10.4cm, 외면 10.8cm 내외이다. 내면 중앙권은 흑칠을 하고 그 주위는 주칠을 발랐으며, 기벽과 외면은 흑칠하였다. 외면 중앙권 가장자리에 점을 찍은 장식이 일부만 남아있으나 그 외 문양은 없다. 발견 당시 칠반 안에 복숭아씨 3개, 밤 껍질 1개가 남아있었다고 한다.

②는 내곽 받침판(敷板)의 아래에서 발견되었다(참고도면 5). 저부 중앙권의 지름이 내면 9.8cm, 외면 10.0cm로

①보다 다소 작으나, 협저제이며 내면 중앙권 밖은 주칠하고 그 외는 모두 흑칠하여 ①과 거의 동일한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도면 5. 칠반 ②의 출토 위치

30.

칠반

漆盤

-

소장품 번호 : 본관12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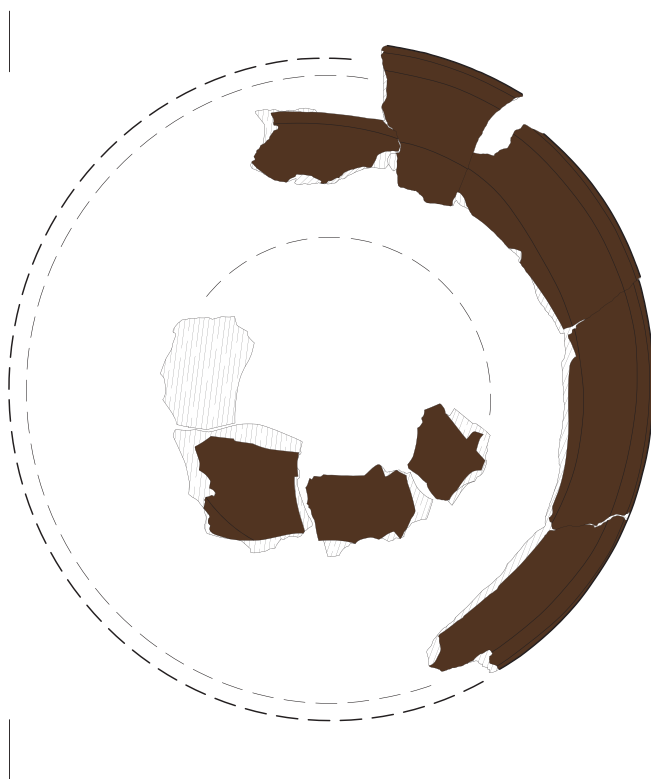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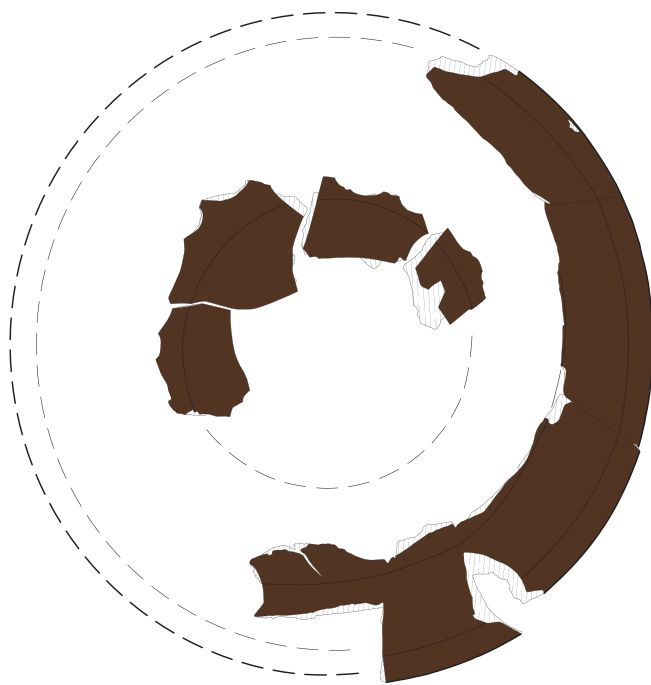
① 지름 26.4cm, 높이 4.0cm 내외

② 지름 19.6cm, 높이 3.2cm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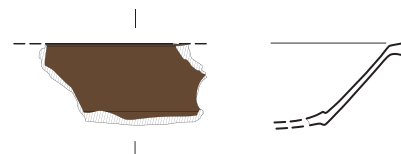


도판 30. 칠반(본관12613)

①  
-  
②



①



②



도면 22. 칠반(본관12613)



본관12613에는 내외면 모두 흑칠을 하였으나 크기가 다른 무문양 칠반 2개체가 등록되어 있다. 큰 것을 ①, 작은 것을 ②로 한다.

①은 목심저피제로 기벽 두께는 0.4~0.5cm이다. 내외면에 흑칠을 하였다. 일부 중앙권 밖의 칠이 벗겨지면서 그 아래 주칠이 드러난 것으로 보아, 원래 중앙권 밖은 주칠을 하였으나, 재칠을 하면서 전체를 흑칠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연부의 폭과 두께는 1.0cm 내외이다.

②는 목심저피제로 기벽 두께는 0.2~0.3cm이다. 내외면에 흑칠을 하였다. 구연부의 너비와 두께는 0.5cm이다. 형태나 색 등 전반적으로 ①과 유사하지만 더 얇고 작게 만든 칠반이다.



도판 30-1. 칠반 ①의 외면

31.

범평명칠완

范平銘漆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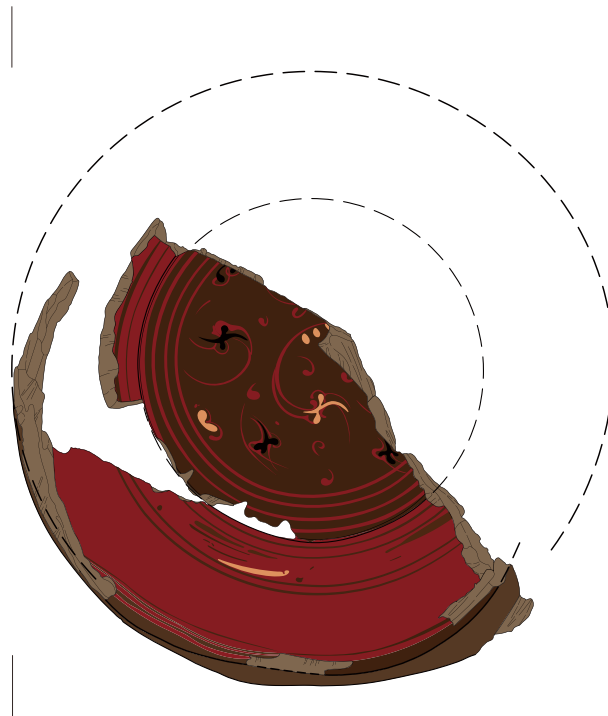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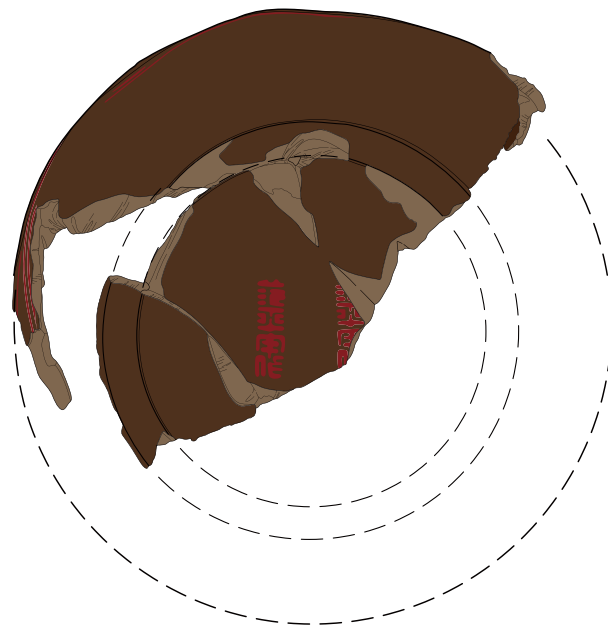
-

소장품 번호 : 본관12610

지름 16.0cm, 높이 6.5cm



도판 31. 범평명칠완(본관12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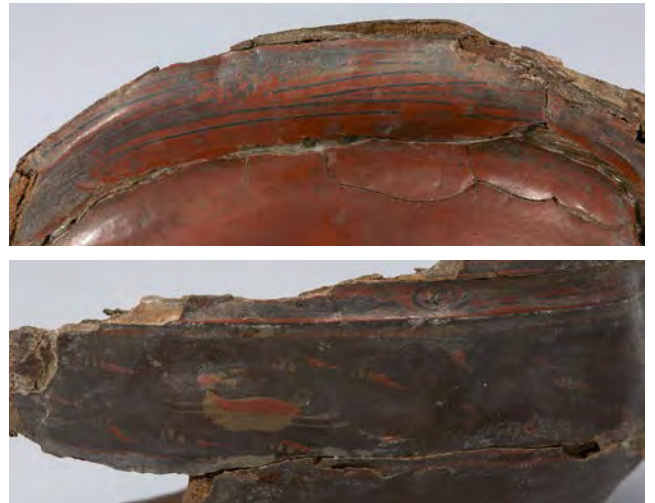


도면 23. 범평명칠완(본관12610)

칠완으로 뒤틀림이 심하고 여러 편으로 조각난 것을 복원하였다. 저부에는 지름 약 11.2cm 너비 0.9cm, 높이 0.5cm의 얇은 굽이 달려있다. 바탕은 저부 및 기벽 중간까지는 나무를 깎아 형태를 만들었고, 기벽 중간부터 구연까지는 나무를 휘어 접합한 곡물曲物 수법으로 제작하였다. 보고서에는 이 칠완의 제작에 천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기술하였으나, 곡물 수법이 사용된 윗부분은 나무 위에 천을 바르고 칠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즉 이 칠완은 목심칠기와 목심저피칠기의 제작 방식이 혼용되어 있다.



도판 31-1. 문양 세부(左: 내면 바닥, 右上: 내면 기벽, 右下: 외면)



내면 바닥은 흑칠하고, 기벽은 주칠을 발랐으며, 외면은 흑칠하였다. 내면 바닥 가장자리에는 4줄의 주칠선을 돌리고, 그 안에 주칠·황칠·흑칠로 유려하게 휘감은 운문을 그렸다. 주칠선 밖과 구연 아래에는 흑칠선을 2줄씩 위아래로 돌리고 그 사이에 흑칠과 황칠로 와문과 선을 그려 넣었다. 구연 윗단은 흑칠 바탕에 주칠선 2줄을 돌렸다. 구연 외면에는 폭 0.6cm 가량 주칠을 바르고 흑칠로 와문과 선을 그렸다. 그 아래에는 주칠선으로 폭 2.5cm 가량 문양대를 만들고 그 사이에 황칠과 주칠로 달리는 동물의 형상과 운문을 표현하였다. 이 문양대는 나무를 휘어붙인 부분과 대체로 일치한다.

외면 바닥에는 주칠로 ‘范平牢作’을 나란히 두 번 썼다<sup>10</sup>. ‘范平’은 제작자의 인명으로 추정된다. 동경 명문에 ‘(造)作牢’, ‘作牢大吉’ 등의 용례가 있는데<sup>11</sup> ‘牢作’은 ‘作牢’와 같은 뜻일 것이다. 장인의 성명을 기록한 칠기는 진나라 때부터 등장하였으며, 文, 介, 但, 忠, 李, 中, 士五咸, 士五軍, 士五皆, 小男子左, 小女子, 大女子等이 확인된다. 한대 칠기 중 승여乘輿[황실소용]용은 각 공정마다 담당 장인의 성명을 기록했다. 이외 성씨가 단독으로 기록된 예로는 章, 東, 朱, 李, 杜, 任 등이 보인다.



도판 31-2. 명문 세부

10 보고서에서는 范을 範으로 읽었다.

11 465 永平三年洗 “永平三年(60)四月造作牢”(容庚 1931: 631)

481 永初元年堂狼造作洗 “永初元年(107)堂狼造作牢”(容庚 1931: 631)

491 永建五年朱襪洗 “永建五年(130)朱襪造作牢”(容庚 1931: 632)

507 建安四年洗 “建安四年(199)六月造作牢大吉”(容庚 1931: 633)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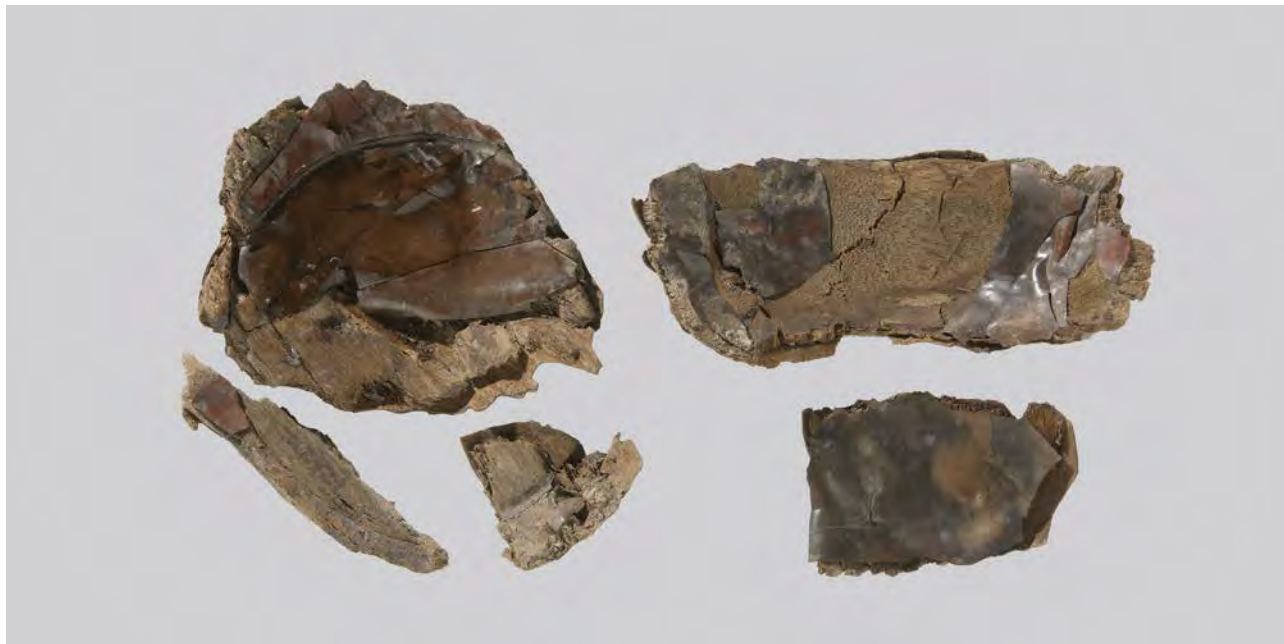
칠완

漆盃

-

소장품 번호 : 본관12620

(右上) 잔존길이 15.0cm



도판 32. 칠완(본관12620)

칠완으로 저부 및 신부 일부가 남아있다. 저부에는 얇은 굽이 달렸으며, 지름 14.0cm, 폭 1.2cm, 높이 0.5cm이다. 목심저피칠기로, 내면 바닥의 권 안은 흑칠하고, 밖은 주칠하였으며, 기벽 및 외면은 흑칠하였다. 굽 안쪽 가장자리를 따라 점을 찍어 장식하였다.

33.

칠완

漆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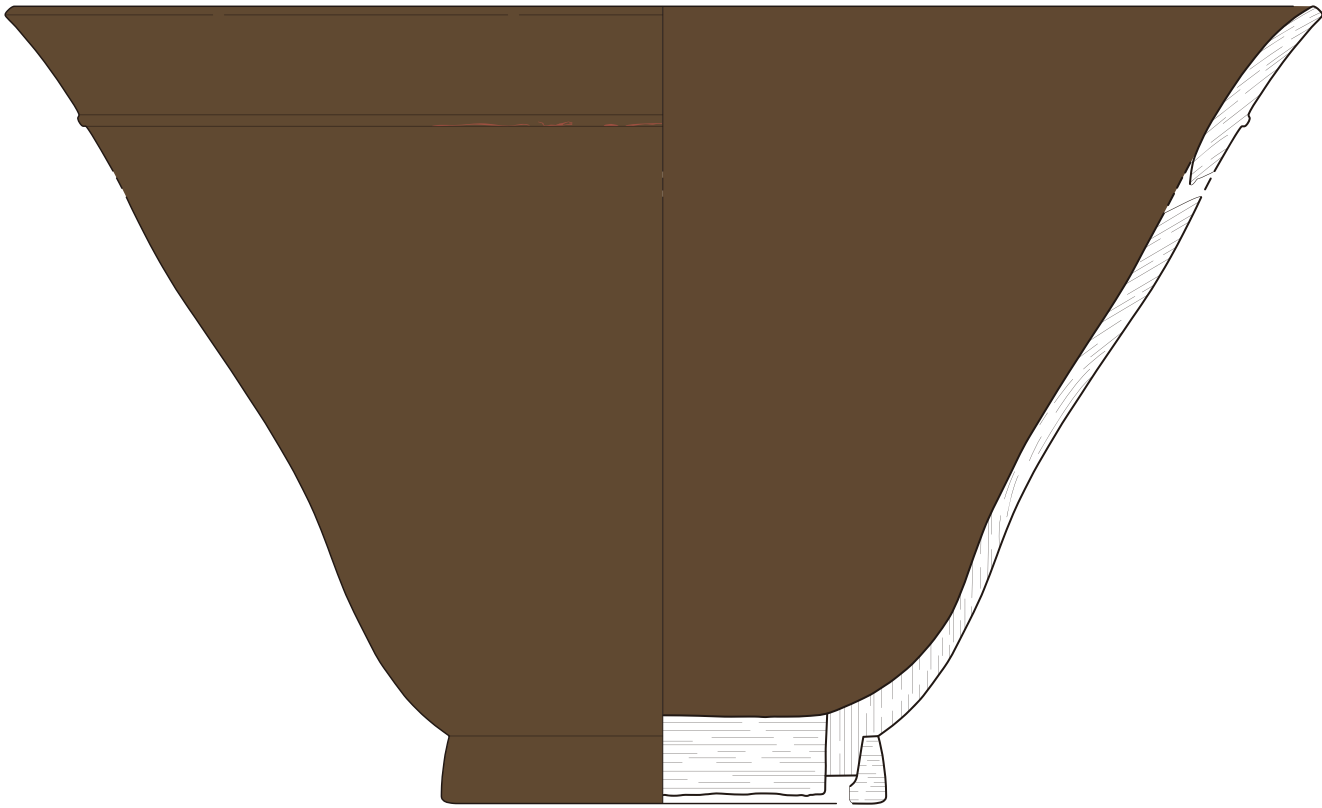
-

소장품 번호 : 고적29085

높이 21.2 cm, 추정구경 34.4cm



도판 33. 칠완(고적29085)



도면 24. 칠완(고적29085)



도판 33-1. 저부 굽 단면

물리도록 고안하였다. 구연 아래로 철대凸帶 1줄이 확인되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철대 위에 주선朱線을 돌렸다고 한다. 또 북부에 장식을 베풀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이와 연관된 주철 자국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제4목관과 북벽 사이에서 발견되었다. 저부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크게 벌어지는 완이다.

나무 바탕에 칠을 바른 목심칠기로, 보고서에서는 바탕칠(鏽止)을 하고 흑칠을 내외면에 바른 것으로 기술하였다. 나무를 깎아 전체 기형을 만들었는데, 바닥판은 별도로 만들어 끼워 넣었고, 굽도 따로 만들어 붙였다. 바닥판의 나뭇결은 수평하고, 가운데는 수직이며, 바깥 굽은 수평한 3중 구조로 나뭇결의 방향이 달라 서로 견고하게

34.

칠럼

漆奩

-

소장품 번호 : 본관12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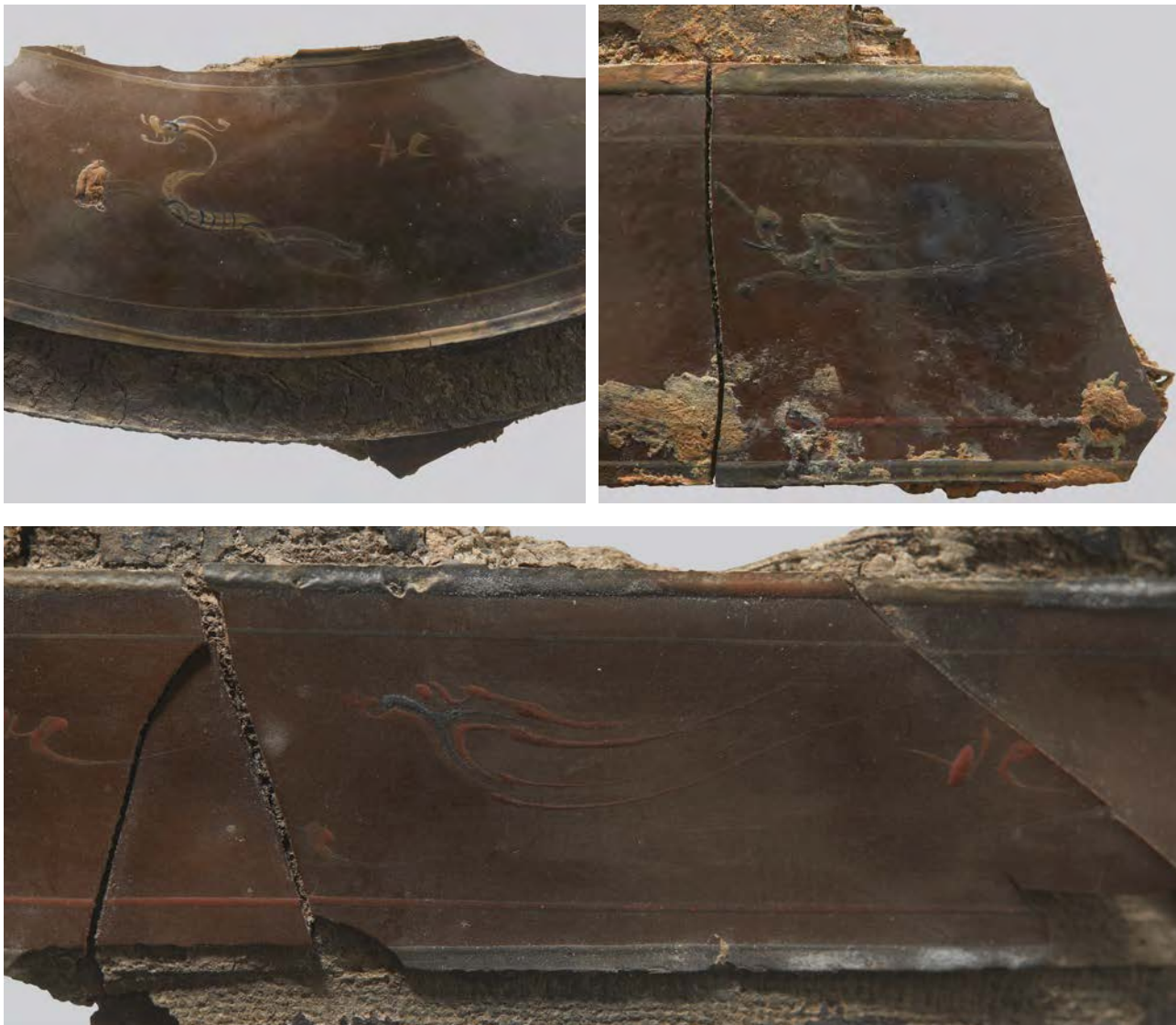
(上) 잔존길이 10.2cm



도판 34. 칠럼(본관12612)



칠림의 뚜껑과 동체부 일부가 남아있다. 목심저피제로 두께는 0.2~0.3cm 내외이고, 내외면에 흑칠을 하였다. 테두리나 몸체 중간에 금속대를 붙여 장식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확인되지 않고, 띠 모양의 칠만 남아있다. 동체부의 칠대 너비는 1.8cm이고, 뚜껑 상면은 그보다 넓은 2.6cm 내외이다. 칠대 위아래에 2줄의 주칠선을 그리고 그 사이에 구름과 용, 새 등을 얇은 필치로 부드럽게 그렸다.



도판 34-1. 문양 세부

35.

칠배

漆杯

-

소장품 번호 : 본관12609

② 잔존길이 7.2cm



도판 35. 칠배(본관12609)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잔존상태가 좋지 않으나 모두 칠배편이다. 보고서에 보고된 것은 총 4개체로, 문양이 있는 것은 제1목관 중앙에서 제2목관에 접해 발견되었고, 그 외는 제3목관의 아래 및 칠안 주변에서 출토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저부를 기준으로 4개체가 확인된다(⑥~⑨). 바닥이 잘 남아있는 ⑧의 크기는 5.5×2.8cm이며, 그 외도 유사한 것으로 보아 비교적 크기가 작은 칠배가 부장된 것으로 보인다. 천 사이에 얇은 목재가 확인되어 목심저피제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기벽 두께는 0.3~0.4cm로 얇다. 외면 흑칠·내면 주칠 혹은 내외면 흑칠하였으며, ⑤는 주칠로 문양을 그렸다. 보고서에는 내부 중앙에 흑칠 및 황칠로 웅건한 비어(飛魚)를 그린 칠배가 1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는 보이지 않는다.

36.

칠작

漆勺

-

소장품 번호 : 본관12619

높이 4.5cm



도판 36. 칠작(본관12619)

전체적으로 둥글고 안이 오목한 형태의 작은 칠기로 칠작의 일부로 추정되나 손잡이는 남아있지 않다. 아래쪽은 두께 0.5cm로 가장 두껍고 위로 올라갈수록 얇아진다. 목심칠기로, 내외면 흑칠을 한 것으로 보이거나 현재는 밝은 황토색을 띤다. 내면에는 붓이나 솔에 의한 자국이 잘 남아있다.



도판 36-1. 내면 세부



37.

절입각부칠궤

折込脚付漆几

-

소장품 번호 : 본관12615

(상판) 길이 71.1cm , 너비 15.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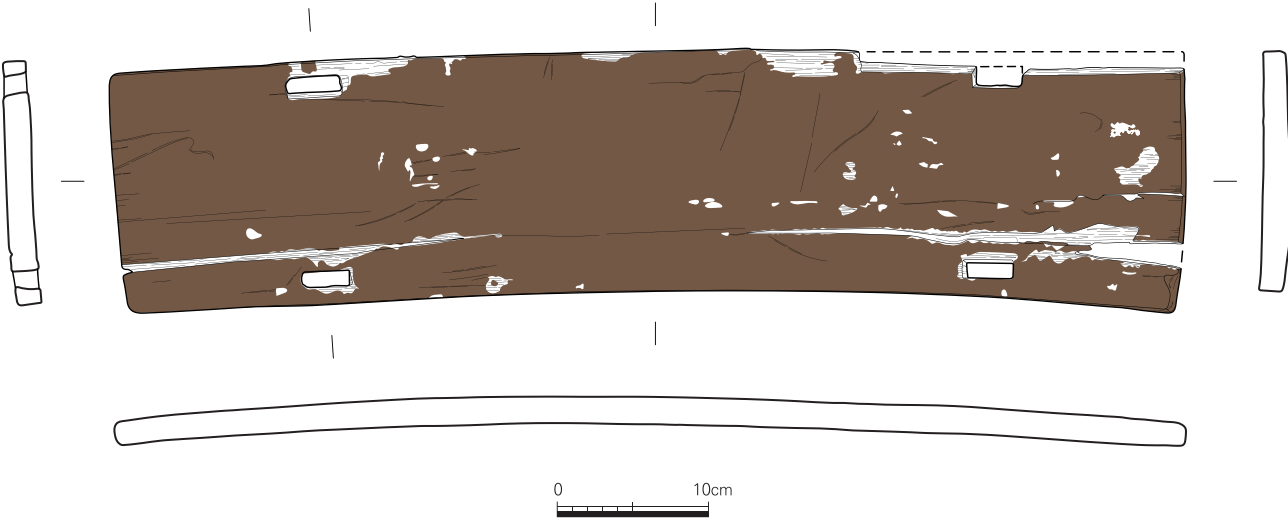


도판 37. 절입각부칠궤(본관12615)





도판 37-1. 상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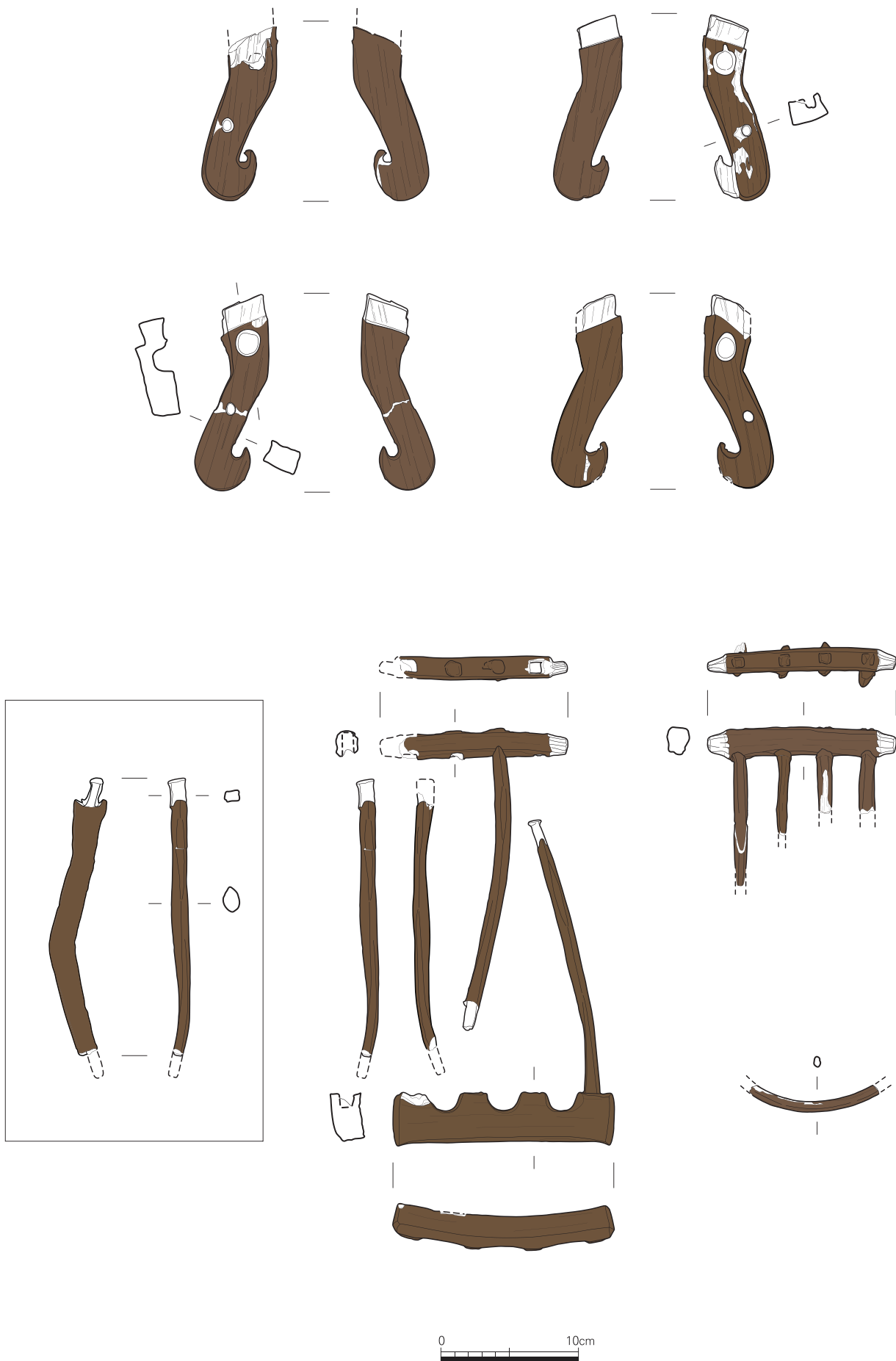
도면 25-1. 절입각부칠계의 상판



도판 37-2. 단각(左上: 외면, 右上: 내면) 및 부속구(下)



도판 37-3. 장각



도면 25-2. 철입각부칠계의 단각과 장각



도판 37-4. 장각의 횡목 세부(左: 긴 횡목, 右: 짧은 횡목)

제4목관이 있던 서실의 남벽에 접해 발견되었다. 장방형의 상판에 2종류의 다리가 달린 칠궤로 각 부분을 따로 만들어 조립 후 전체를 흑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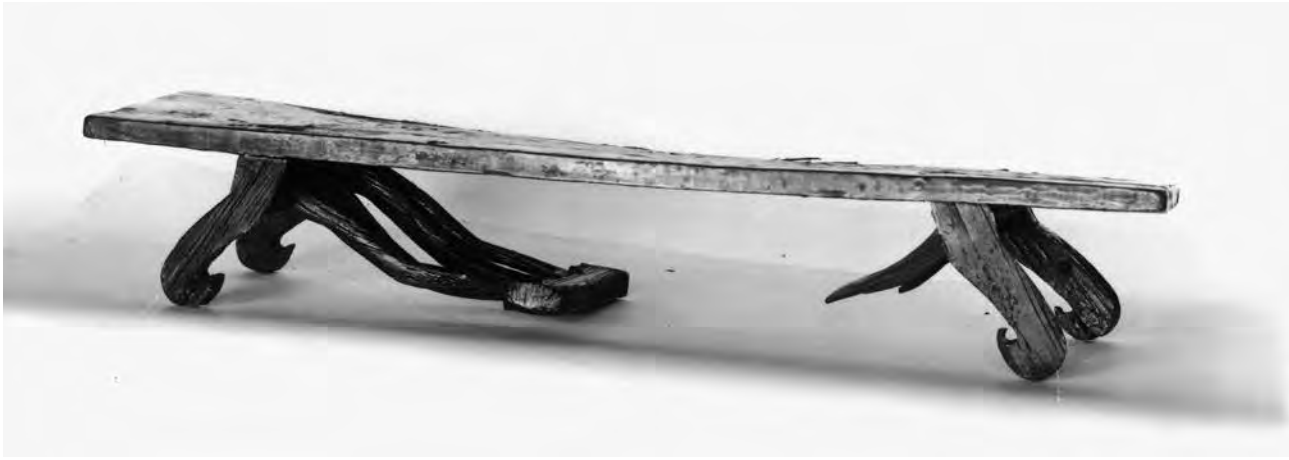
상판은 두께 1.8cm의 장방형으로 가운데가 약간 볼록하다. 긴 변에는 단각을 꽂을 수 있는 장방형의 장부구멍(3.3×1.2cm) 4개가 뚫려있다(도판 37-1).

단각은 4점 모두 확인되었다. 길이 14.0cm로, 아래로 갈수록 벌어지며 끝은 고사리 모양으로 부드럽게 휘어진다. 윗면에는 상판에 끼우는 장부가 있고, 다리 안쪽에는 원형의 장부구멍 2개가 확인되는데, 위쪽의 큰 것(지름 1.8cm)은 장각과 연결되고, 아래쪽 작은 것(지름 0.8cm)에는 단각을 연결하는 목봉을 끼웠다(도판 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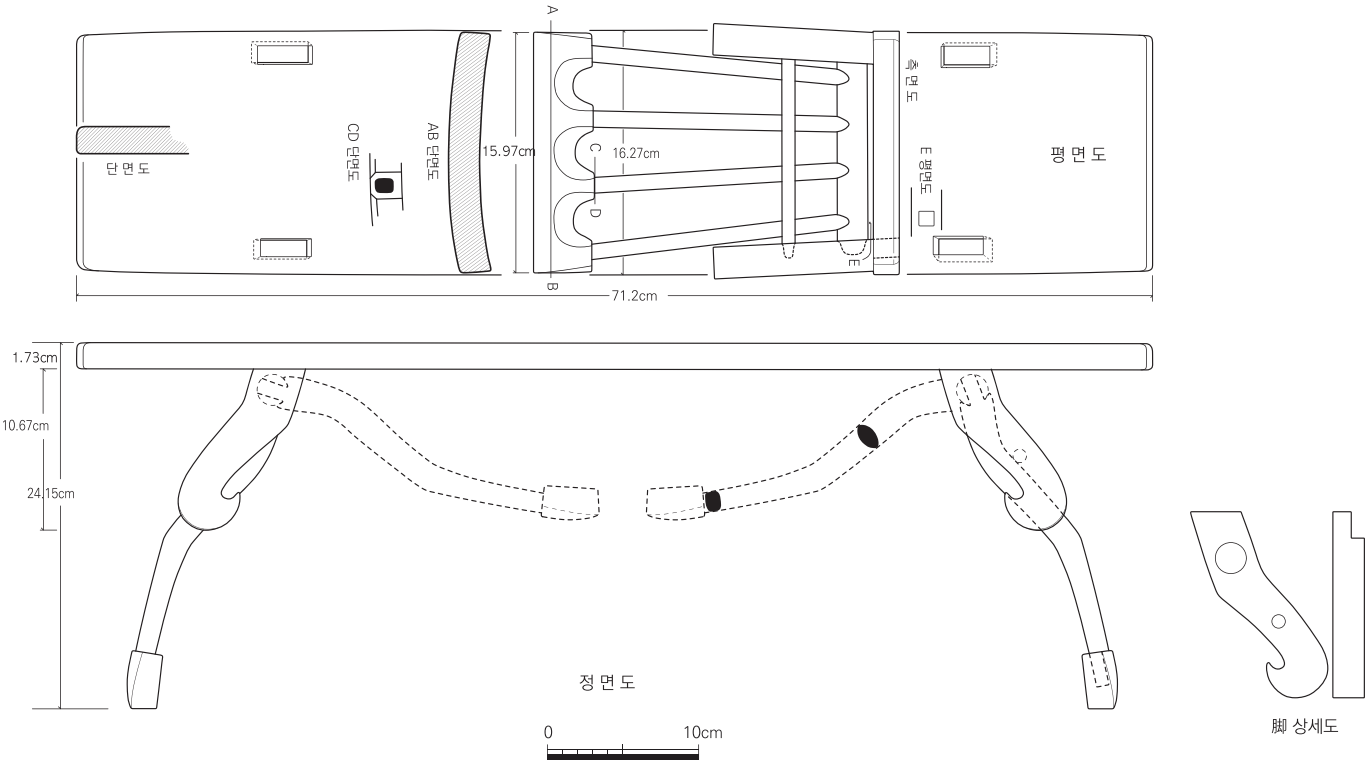
장각은 2개의 횡목에 4개의 긴 목봉을 삽입하여 만들었다(도판 37-3). 짧은 횡목은 길이 13.6cm로, 짧은 다리 안쪽의 큰 장부구멍에 끼울 수 있도록 양 끝을 다소 좁게 깎았다. 길이 16.0cm의 긴 횡목은 바닥에 닿는 부분으로 단면 장방형이고, 장부구멍 사이를 반원형으로 깎아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다. 횡목 사이에 끼우는 긴 목봉은 길이 20.5cm 내외이며 S자로 부드럽게 휘어지도록 깎았다. 양 끝에는 횡목에 꽂을 수 있도록 장부를 만들었는데, 짧은 횡목에 연결되는 부분은 양쪽을 깎아凸자형이고, 반대쪽은 한쪽만 단이진 ㄴ자형이다. 횡목과 목봉은 칠을 발라 고정하였다(도판 37-4). 짧은 횡목과 단각의 연결 부분은 회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장각을 안쪽으로 접으면 단각으로 지지할 수 있다. 현재는 목재의 변형이 심해 각 부분을 결합할 수 없으나, 조사 당시 전체를 조립한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있다(참고도판 14). 보고서에 의하면 단각으로 설 때의 높이는 10.7cm, 장각으로 설 때는 24.2cm라고 한다. 당시 제작한 칠궤 복원품의 사진을 참고하면 실제 형태와 사용 방법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참고도면 6, 참고도판 15).

19호분에서 출토된 칠궤는 복각 구조로 제작하여 필요에 따라 높이를 조절해 사용할 수 있으며, 별다른 장식이나 문양 없이 다리의 형태와 구조만으로도 우아하고 아름다운 곡선을 살린 뛰어난 예술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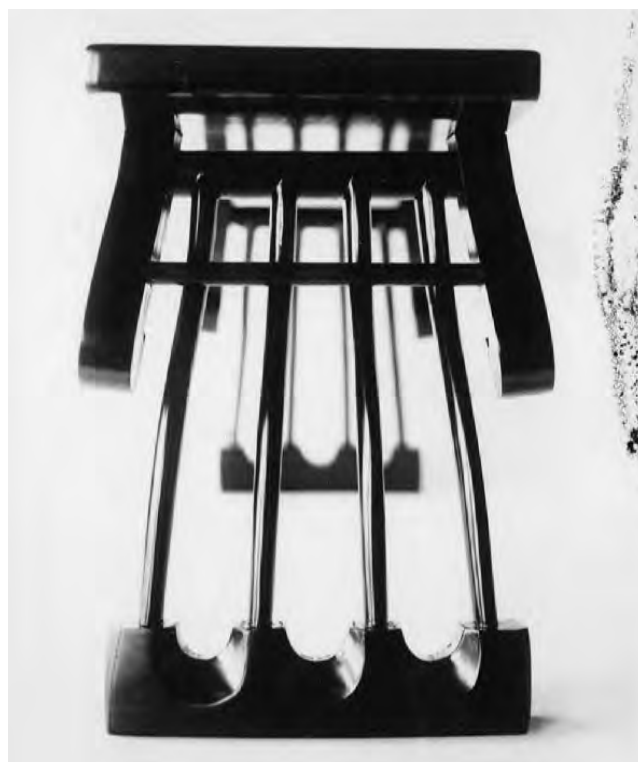




참고도판 14. 복원한 절입각부칠괘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건판34906)



참고도면 6. 일제강점기에 작성한 칠괘 복원도(보고서 도판 70 재편집)



참고도판 15. 일제강점기에 제작한 철계 복원품(건판12056~12061)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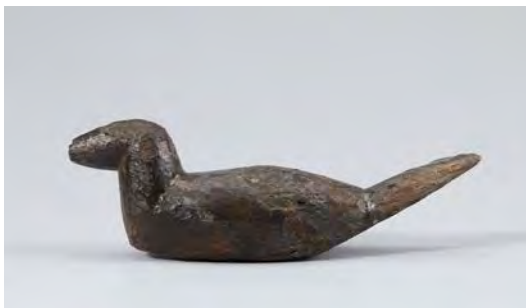
구장수

鳩杖首

-

소장품 번호 : 본관12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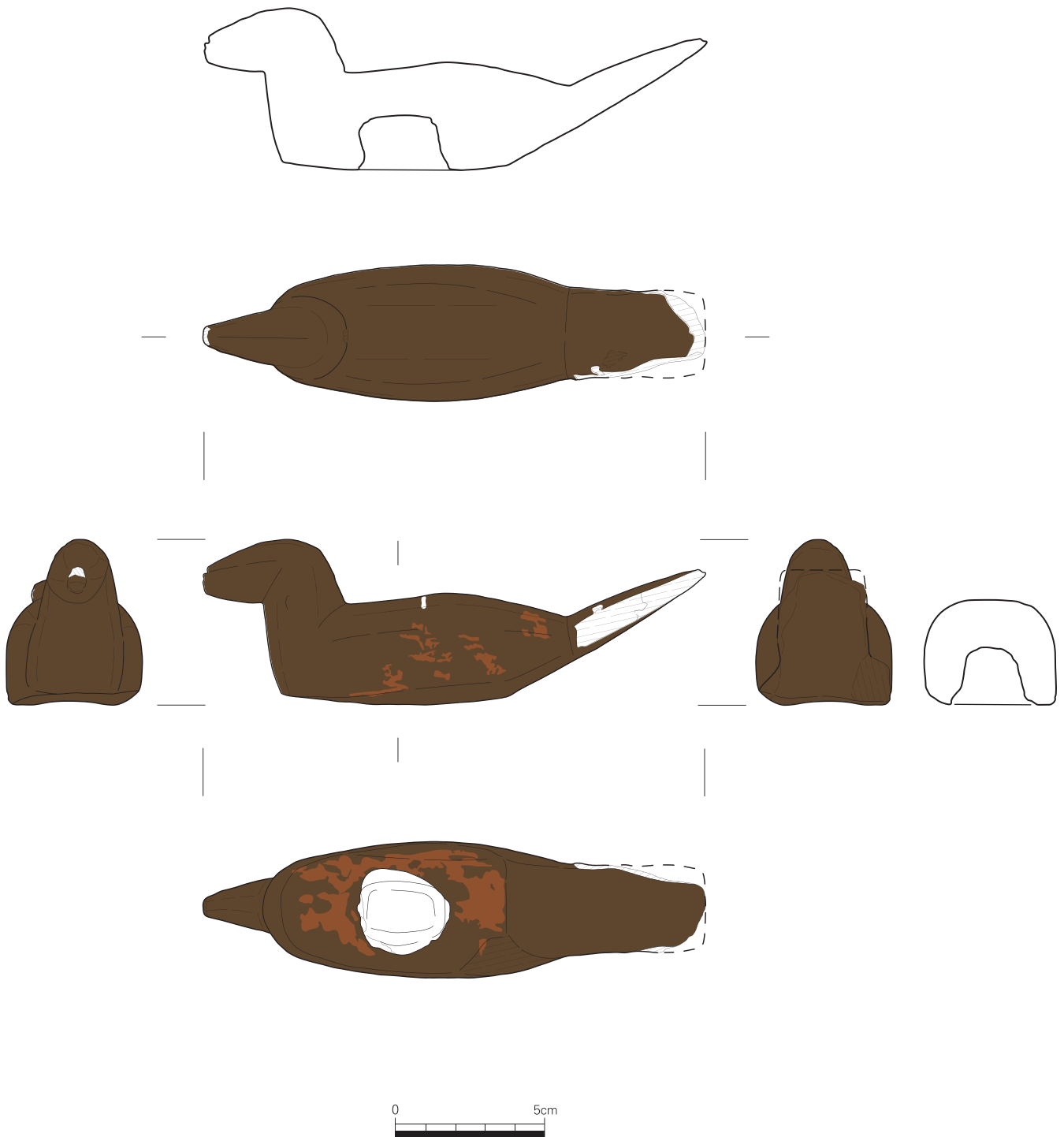
길이 17.0cm, 높이 5.5cm



도판 38. 구장수(본관12616)

제1목관 뚜껑 위에서 발견되었다. 나무를 깎아 형태를 만든 후 흑칠을 하였는데, 보고서에는 바탕칠(鑄留)을 하고 흑칠을 베푼 것으로 기술하였다. 바닥과 신부 일부에서 밝은 갈색의 칠도 확인된다. 작고 둥근 머리는 앞으로 갈수록 좁아지고, 몸은 타원형으로 둥글며, 꼬리는 위로 비스듬히 서 있다. 바닥에는 지팡이를 끼울 수 있도록 타원형 구멍( $2.8 \times 2.2\text{cm}$ , 깊이  $1.7\text{cm}$ )이 뚫려있다.

한나라에서는 70세가 되면 국가에서 왕장王杖 혹은 구장鳩杖을 지급하였으며, 이것이 있으면 세금면제와 같은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구장수는 당시의 노인 공경 풍조를 반영하는 자료이며, 19호분 피장자의 연령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도면 26. 구장수(본관12616)



39.

장대

杖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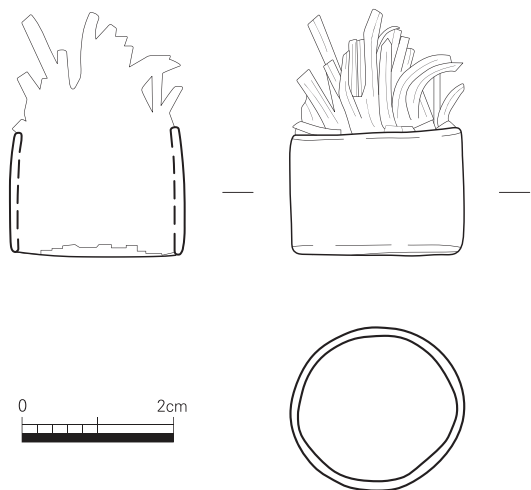
-

소장품 번호 : 본관12621

길이 1.6cm, 지름 2.3cm



도판 39. 장대(본관12621)



쪼갠 대나무를 감고 칠을 바른 후 위아래가  
푼린 청동금구를 끼운 것으로 지팡이와 같은  
긴 자루의 끝에 끼운 장대杖鐏로 보인다.  
보고서에는 흑칠을 바른 자루의 잔편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지금은 대부분 결실되어 금구  
안으로만 일부 남아있다.

도면 27. 장대(본관12621)

40.

칠기편

漆器片

-

소장품 번호 : 본관12617

② 잔존길이 4.0cm



도판 40. 칠기편(본관12617)

①  
②

제1목관과 내곽의 북판 사이에서 발견되었다. ①은 쪼갠 대나무를 묶은 것으로, 외면에 칠바탕을 두껍게 바르고 그 위에 주칠을 한 후 다시 흑칠을 하였다. ② 역시 쪼갠 대나무를 묶고 외면에 흑칠을 바른 단면 원형의 칠기편이다. 제작방법이나 재료, 형태로 볼 때 장대(39) 안에 끼운 자루일 가능성도 있다.

41.

칠기편

漆器片

-

소장품 번호 : 본관12622

잔존길이 7.6cm



도판 41. 칠기편(본관12622)

목심저피칠기로 전체 기형은 알 수 없다. 내면은 칠막이 박리되었고, 외면은 흑칠 후 주칠로 글자를 썼다. 보고서에서는 이를 “**大**”라고 보았으나 명확한 것은 가운데 글자뿐이다. 상단의 글자는 ‘造’의 일부로 추정된다. 가운데 글자는 미상이다. 하단의 글자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大’로 추정했으나 현재 윗부분만 남아있어 단언할 수 없다. “**大**”는 용기의 명칭으로 추정된다.

42.

칠기편

漆器片

-

소장품 번호 : 본관12611



도판 42. 칠기편(본관12611)

화문대신수경(48)을 감싸고 있던 칠기편으로 두씨작명마각부칠안(27) 위에 놓여있었다. 납작하게 바스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원형은 알 수 없으나 거울을 수납하는 칠렴일 가능성이 높다. 폭 1.3cm 가량의 초본류를 직교하도록 엮어 짚 바탕에 흑칠을 하였다. 출토 당시 밤 껍질 3개가 붙어있었다고 한다.



43.

목용

木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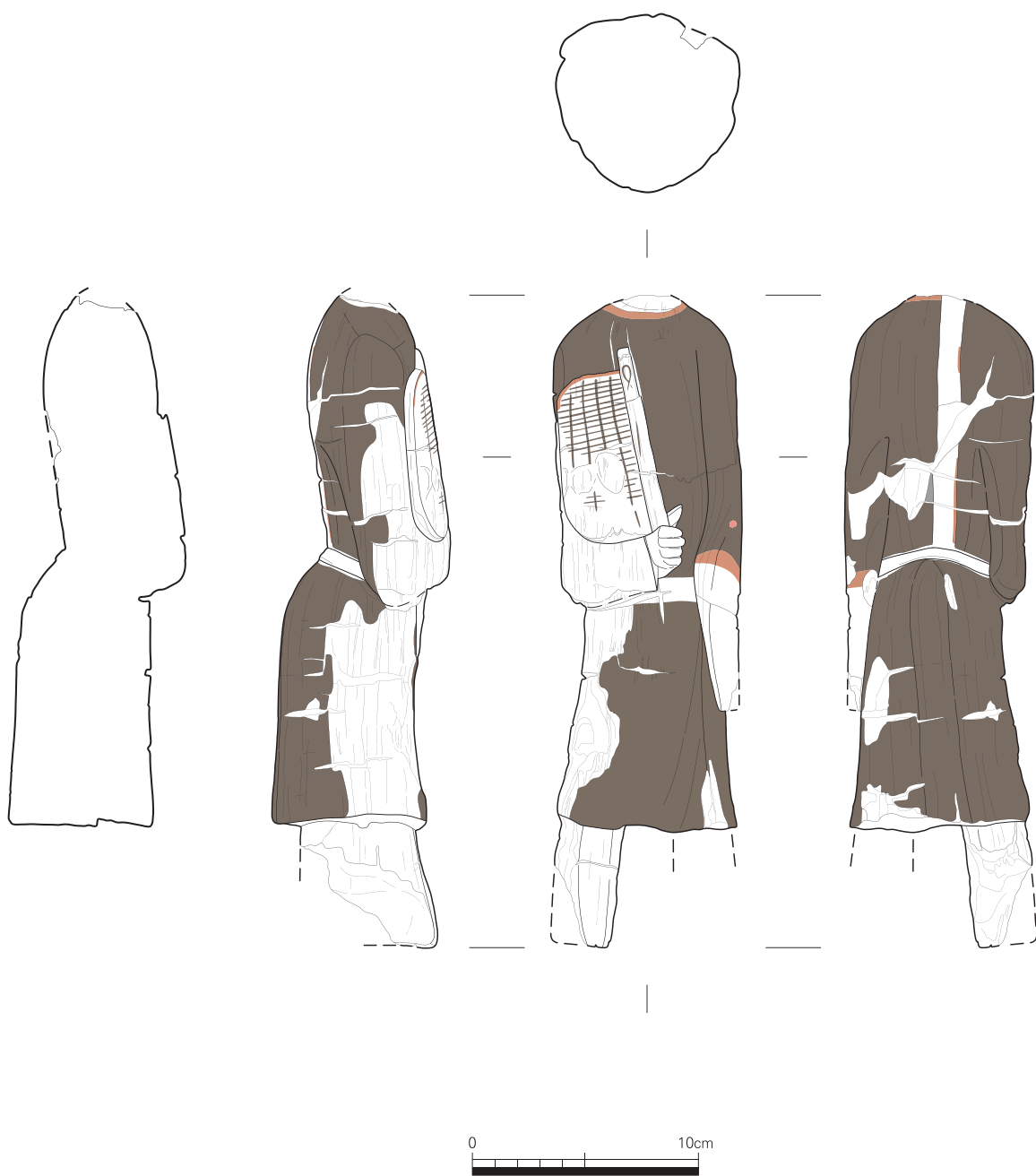
-

소장품 번호 : 본관126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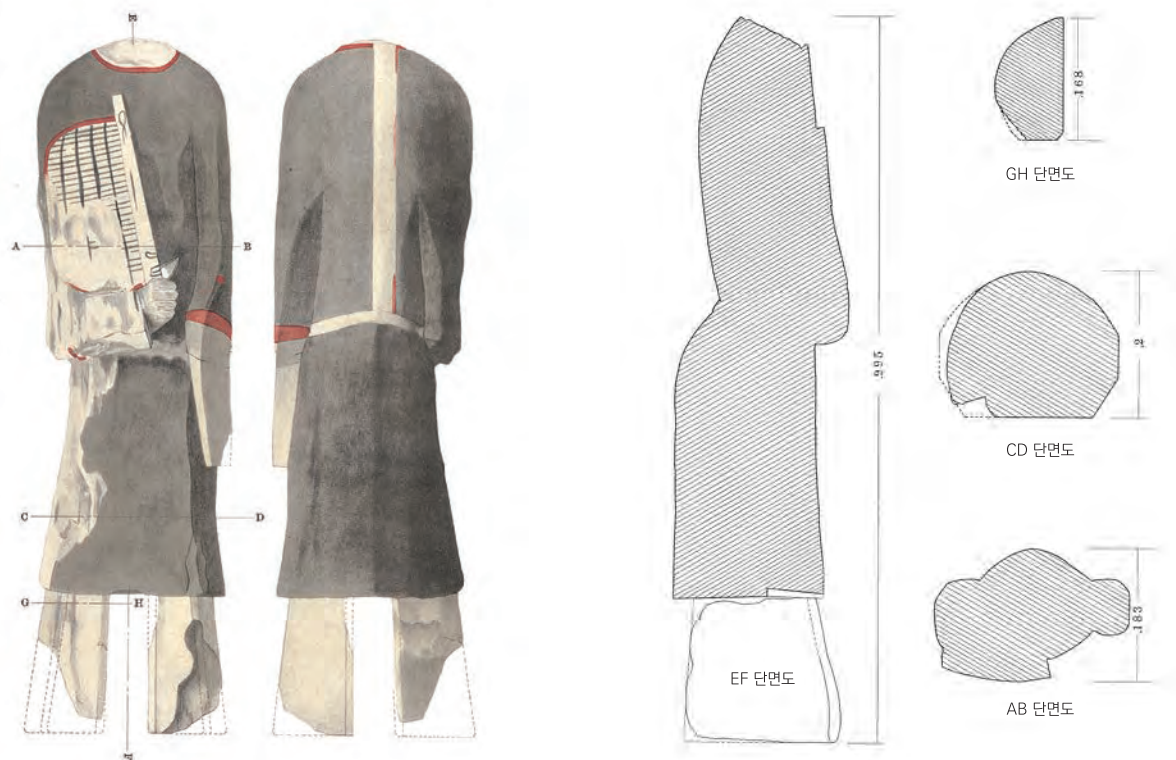
잔존길이 28.5cm



도판 43. 목용(본관12632)



도면 28. 목용(본관12632)



참고도면 7.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목용의 실측도와 단면도(보고서 도판 78, 79)

제4목관의 뚜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다. 잔존길이 28.5cm로, 발견 당시 이미 머리가 없었고, 현재는 왼쪽 다리도 결실되었다. 오른팔은 직각으로 구부려 손에 부符를 쥐고 있고, 왼팔은 아래로 늘어뜨렸으며, 배를 약간 내밀고 엉덩이를 뒤로 뻗어 서 있는 모습이다. 옷은 무릎 아래까지 길게 내려오며 소매도 길어 왼손이 보이지 않는다. 허리띠를 찬 모습으로 옷 전체는 흑색으로 칠하고 소매 끝이나 옷깃은 붉은색을 칠해 장식하였다. 등면 중앙의 수직선을 기준으로 약간 단차가 보이며, 오른쪽으로 폭 1.0cm 가량은 흑색을 칠하지 않았다. 보고서에는 손과 다리, 허리띠에 백토를 발랐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는 잘 보이지 않는다. 부의 넓은 면에는 흑색으로 수직·수평선을 그어 격자문을 그렸고 일부 끝부분에 붉은색으로 칠한 흔적이 확인된다(도판 43-2).



도판 43-1. 부의 세부

44.

목마

木馬

-

소장품 번호 : 본관12633

① 길이 62.7cm, 높이 49.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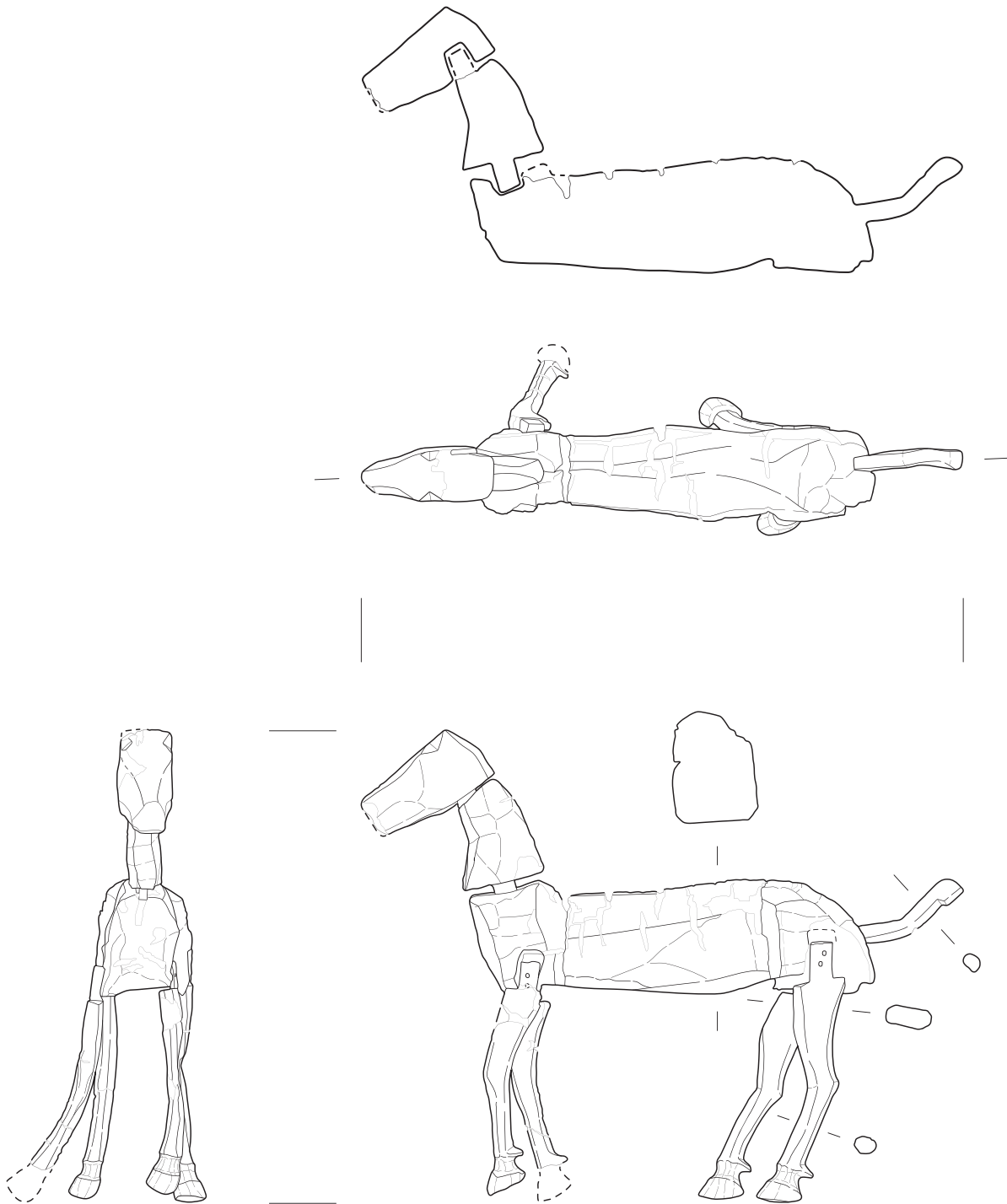
② 몸통 길이 42.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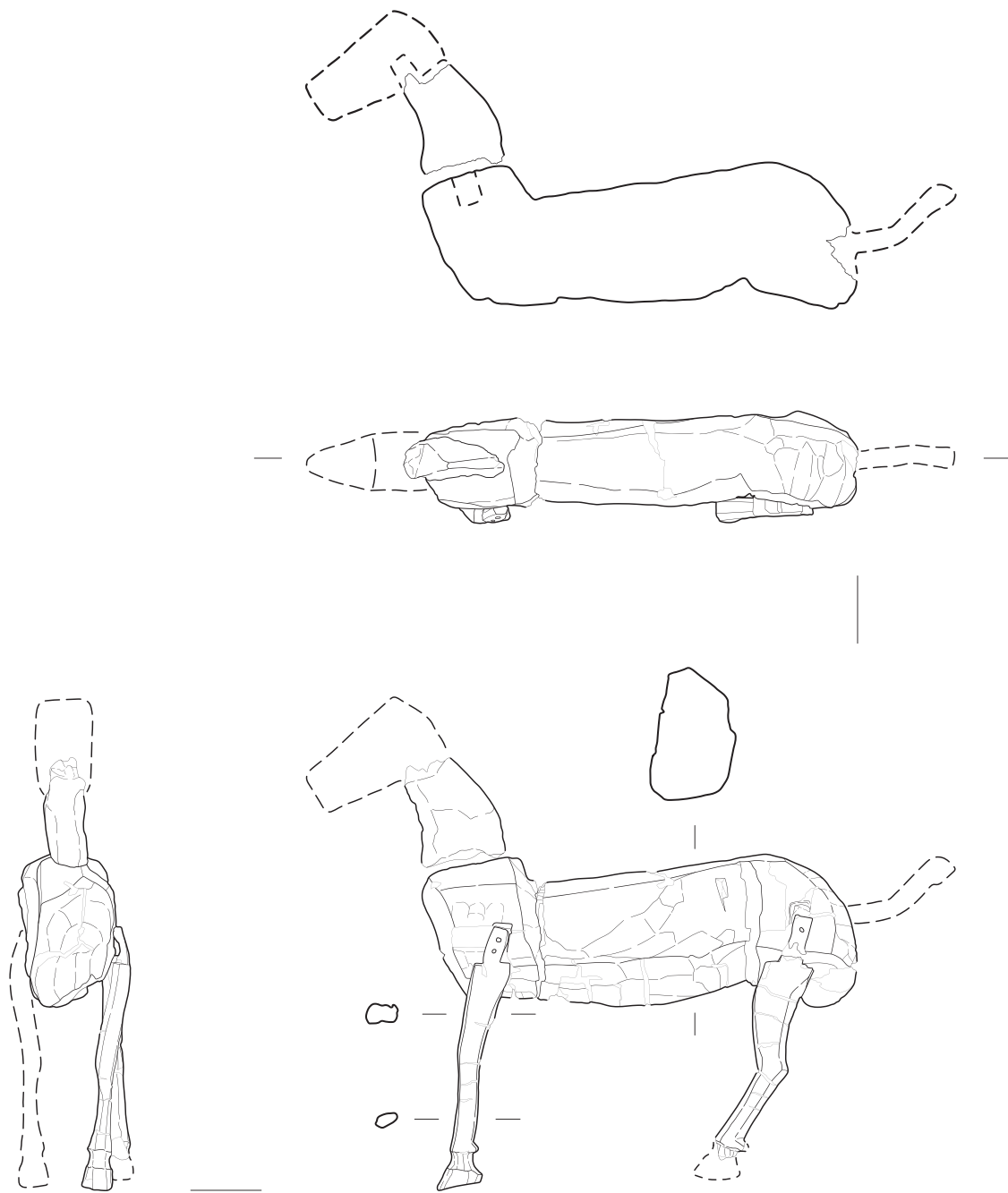
①  
-  
②

도판 44. 목마(본관12633)





도면 29-1. 목마 ①(본관12633)



②

0 10cm



도판 44-1. 목마 ①의 세부

제4목관 주변에서 2개체가 출토되었다. 몸은 목관 아래 복단에서, 머리·다리·꼬리 등은 목관과 목곽 북벽 사이 공간에서 발견되었다.

①은 오른쪽 앞발 말굽이 결실된 것을 제외하면 완형에 가깝다. 나무를 깎아 머리, 목, 몸, 다리, 꼬리를 각각 만든 후 조립하여 전체를 완성하였다. 긴 몸은 배가 약간 볼록하며, 앞쪽 위에 목을 끼울 수 있도록 장부구멍을 뚫었다. 목은 위로 갈수록 다소 좁아지는 형태로 위, 아래 모두 장부를 만들었다. 머리는 주둥이를 좁게 깎았고, 모서리를 좌우에서 비스듬하게 깎아 눈을 만들었으며, 아래쪽에 목을 끼울 수 있는 장부구멍이 있다. 엉덩이에도 구멍을 내어 끝이 살짝 말린 형태의 꼬리를 끼웠다. 다리는 윗면에凸자형의 결합부를 만들고, 몸통에 그만큼의 구멍을 내어 측면으로 끼운 후 나무못을 박았다. 다리의 하단에 먹을 바른 흔적이 있으며 보고서에는 머리에든 무언가를 그린 흔적이 있다고 하나 분명하지 않다.

② 역시 ①과 동일한 형태의 목마로 머리와 다리 2개, 꼬리가 결실되었다.

한대에는 무덤을 죽은 자의 생활공간으로 여겨 실생활의 모습을 본뜬 것들이 많이 부장되었다. 무사나 시녀의 모습을 한 인형(俑)이나 각종 동물, 집이나 창고 같은 건축물, 가구, 생활 용품 등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낙랑 고분에서도 이런 부장품이 종종 출토되고 있으며, 특히 남정리 116호분에서는 목마 6개체가 확인되었다. 오야리 19호분은 목용과 목마가 동시에 부장된 드문 예로 주목된다.



45.

투조목기

透彫木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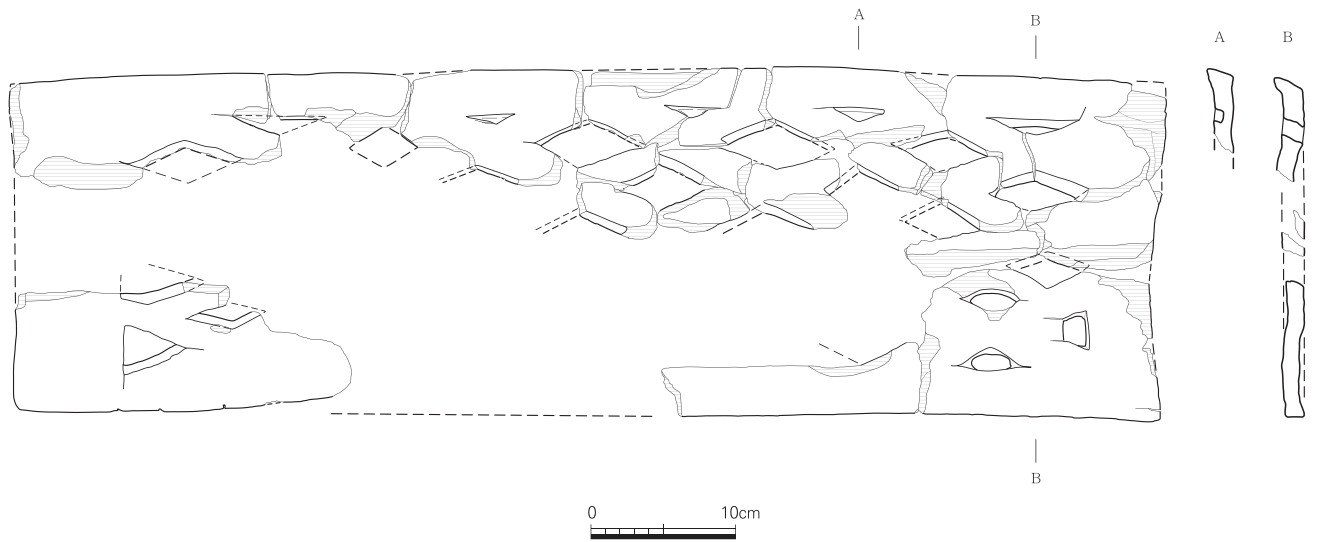
소장품 번호 : 고적29087, 본관12634

① 길이 80.0cm, 너비 23.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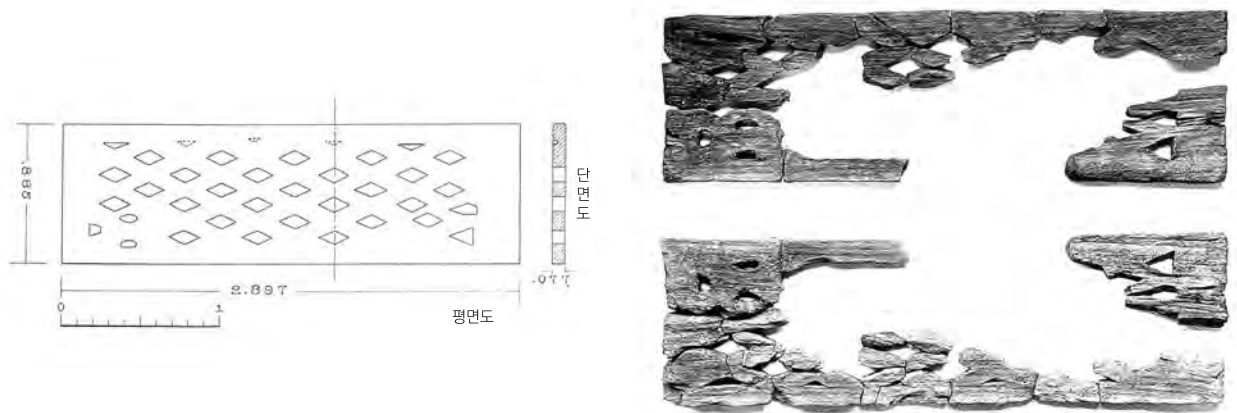


도판 45. 투조목기(① 고적29087, ② 본관12634)

①  
②



도면 30. 투조목기(① 고적29087)



참고도면 8. 투조목기 ①(고적29087)의 일제강점기 복원도(보고서 제82도) 참고도판 16. 투조목기 ①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건판10325)

장방형의 나무판에 능형 및 삼각형 구멍을 뚫은 목기이다. 보고서에는 제4목관이 위치한 서실의 동남쪽 모서리 가까이에서 수십 개의 편이 발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조사 결과 ①과 같은 장방형의 투조목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목재의 수축이 심하고 다소 뒤틀린 부분도 있으나, 전체 크기는 가로 80.0cm, 세로 23.5cm 두께 2.0cm 내외이다. 투공 대부분은 능형으로 서로 어긋나게 배치되어 있으며, 가장자리는 삼각형으로 뚫어 끝선을 맞추려 하였다. 투공은 비스듬히 뚫었으며, 절반만 뚫은 삼각형의 반투공도 3개 확인된다. 남아있는 편의 형태로 볼 때 최소 2개체 이상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6.

호형목기

弧形木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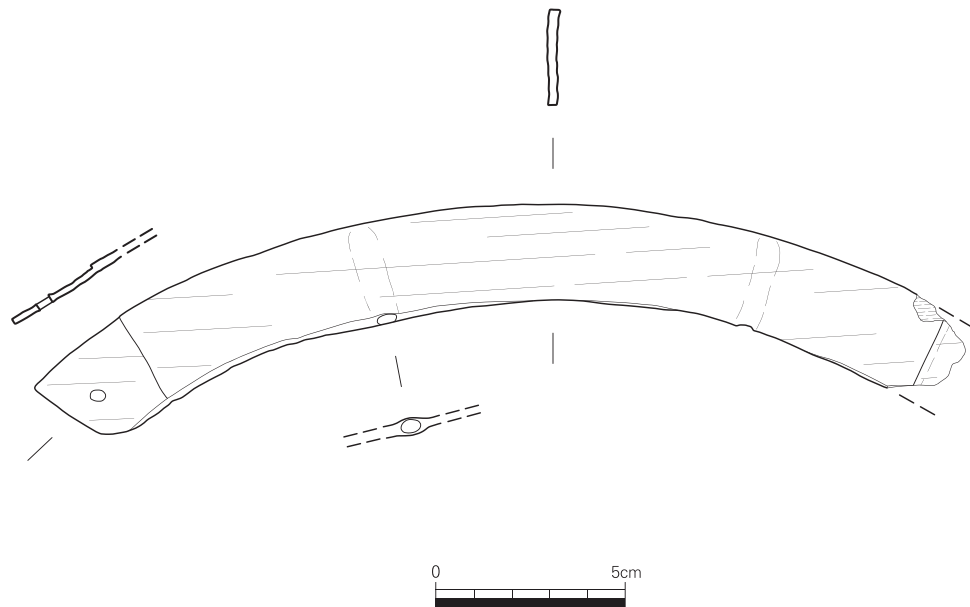
-

소장품 번호 : 본관12631

잔존길이 24.5cm, 너비 2.5cm



도판 46. 호형목기(본관12631)



도면 31. 호형목기(본관12631)

내곽 바닥 아래의 받침판(敷板) 가까이에서 발견된 호형목기이다(참고도면 5). 두께 0.2~0.3cm로 매우 얇은데, 양 끝을 2.5cm 가량 한단 낮게 깎고 원형 구멍을 내 다른 부품과 겹쳐 연결한 것으로 보인다. 또 목기의 1/3, 2/3 지점에는 안에서 밖으로 구멍을 낸 것도 확인된다. 보고서에서는 호형목기 여러 점을 연결하여 둥근 바퀴의 테를 만들고, 구멍에 봉을 삽입하여 모형차륜을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47.

목제빗

木製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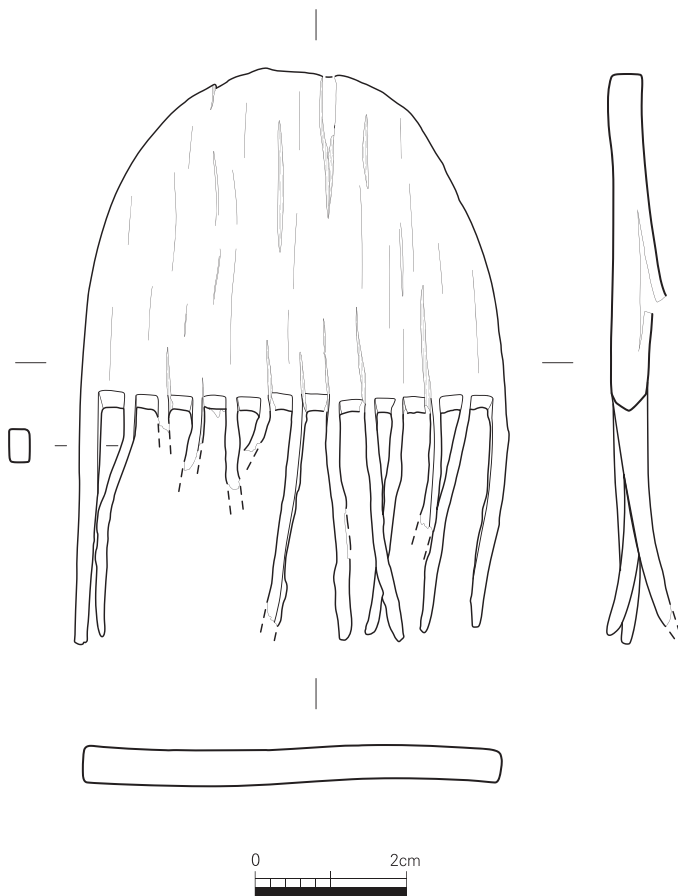
-

소장품 번호 : K147(본관12629)

길이 7.5cm, 너비 5.6cm



도판 47. 목제빗(K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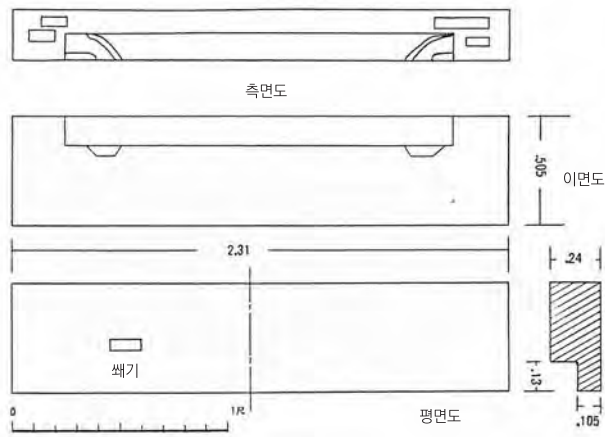


내곽의 서벽에서 약 91.0cm 떨어진 북벽에 접해 발견되었다. 위는 둥글고 아래에는 두께 0.2cm 내외의 빗살 13개가 있는데, 많이 휘어지고 일부 결실되었으나 8개는 비교적 잘 남아있다. 살이 성기고 문양 없이 간소하게 만들어진 이 빗은 정백리 127호(왕광묘) 등 낙랑 고분에서 종종 출토되는 형태이다.

도면 32. 목제빗(K147)



이 밖에도 19호분 출토품으로 보고된 목기로 용도불명목기(본관12635)와 목봉(본관12618)이 있으나 현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용도불명목기는 제4목관 아래 중앙에서 출토된 것으로 평면 장방형이다. 앞면은 편평하며 작은 썸기가 박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뒷면은 긴 변을 따라 두께 절반 가량을 파냈고, 측면에는 장방형의 장부구멍을 만들었다. 윗면의 크기는 70.0×16.7cm이고 두께는 7.3cm이다(참고도면 9, 참고도판 17). 목봉은 길이 190.0cm, 너비 2.1cm의 곧은 막대형으로 내곽 바닥 아래 목곽의 동벽 가까이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참고도판 18).



참고도면 9. 용도불명목기(본관12635) 일제강점기 실측도  
(보고서 제35도 재편집)



참고도판 17. 용도불명목기(본관12635, 건판10329)



참고도판 18. 목봉(건판10323)

### 3) 금속기

48.

화문대신수경

畫文帶神獸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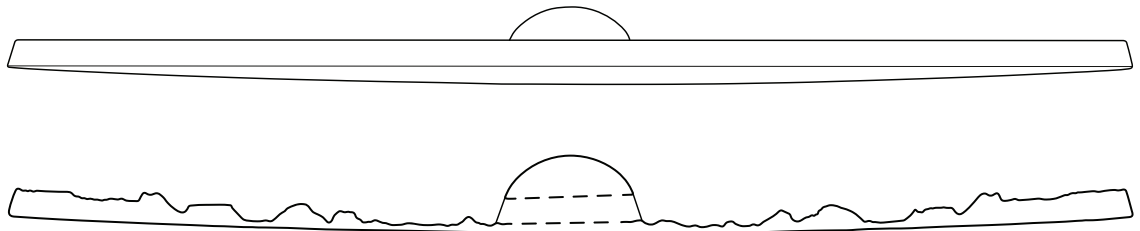
-

소장품 번호 : 본관12627

지름 18.6cm



도판 48. 화문대신수경(본관12627)



도면 33. 화문대신수경(본관12627)





도판 48-1. RTI 이미지

제3목관 아래 북쪽 끝 두씨작명마각부칠안(27) 위에서 표면을 위로한 채, 북송아씨, 밤, 칠배 등과 함께 출토되었다. 주변에서 칠기편(41)이 출토되는 상황으로 보아 거울을 수납하던 칠렴에 담겨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타원형의 뉴공이 뚫린 반구형의 뉴를 중심에 두고 유절중호문좌有節重弧文座를 돌렸다. 주문대에는 4개의 소유小乳를 사방에 두고 그 사이에 신수를 배치하였다. 가장 북쪽에는 거문고를 타고 있는 백아伯牙가 좌대 위에



참고도판 19. 화문대신수경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건판10318)

올라 앉아있고, 그 좌측에 연주에 귀 기울이고 있는 이가 종자기鍾子期이며, 우측에는 시자侍者 혹은 백아에게 거문고를 가르친 스승인 성련成蓮으로 보이는 이를 사뉴에서 연결된 좌대에 앉혀서 배치하였다. 둘 다 날개를 가져 선인仙人으로 표현되었다. 백아의 좌대에는 동물이 기어오르는 모습을 표현했다. 그리고 중앙 좌대의 양 옆에는 서수가 같은 곳을 바라보는 형상인데, 사뉴에서 연결된 좌대의 뒤쪽으로 큰 체구를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아 동쪽의 동왕부가 중앙 좌대 위에 앉아있다. 머리에는 삼산관三山冠을 쓰고 있으며 왼쪽 뺨에 부채와 같은 것이 표현되어 있으나 명확하지 않다. 동왕부의 좌우에는 서수가 바깥을 바라보는 형상인데 좌측 서수의 표현은 동왕부 발아래 표현된 우측 서수와 비슷한 형상이다. 마찬가지로 발아래 표현된 서수는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등에 돌기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이하게 이곳에만 중앙 좌대의 중앙에 서수 한 마리를 더 배치하였다.

남쪽에는 중국 신화의 삼황오제 중 황제黃帝를 배치하였다. 머리에는 상투관에 긴 비녀를 꽂았으며, 좌측에는 선인이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 공손하게 황제를 바라보고 있고, 우측에는 불 달린 서조瑞鳥가 앉아있다. 그 아래에는 두 마리의 서수瑞獸가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머리에 뿔이 2개씩 달려있다.

마지막 서쪽에는 가체 형태의 머리를 한 서왕모西王母가 배치되었다. 좌측에는 머리에 외뿔이 달린 서조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우측에는 귀가 길고 말과 같이 얼굴이 긴 서조가 바깥을 바라보고 있다. 그 아래에는 정면을 바라보는 서수 두 마리가 표현되어 있다. 사유四乳와 좌대 주위에는 운기문雲氣文이 표현되어 있다.

주문대主文帶의 바깥에는 반원방격대半圓方格帶가 있는데 먼저 무문無文의 반원은 주변에 꽃잎과 같은 5개의 문양으로 감싸고 있다. 정확한 반원은 아니다. 14개의 반원 사이에는 14개의 방격이 있는데, 방격대는 십자로 구획하여 명문을 새겨 넣었다. 방격의 바깥에도 꽃잎을 3개 표현했지만 면으로 표현한 반원과 달리 선으로 표현하였다.

방격대의 명문은 북쪽의 백아 발아래에서 시작과 끝이 확인되며, 아래와 같이 읽힌다.

吾作明鏡【鏡】[幽]涑三商周【彫】刻典祉 配像萬疆 天禽四守 銜持維剛 大吉其師 命長服者 敬奉賢良 曾年益壽 富貴昇始 [壽]如東王 公西王母 子孫番昌<sup>12</sup>

12 [ ] 안의 글자는 마멸, 【 】 안의 글자는 뜻글자이며, 붉은색 글자는 보고서 판독문을 보완하였다.



일제강점기 미판독 글자의 경우, 현재 禽, 銜, 剛, 其로 읽을 수 있으며, 父는 公으로 바로 잡았다. 商은 최근 岡으로 읽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자형으로 볼 때 본 경우는 岡으로 보기 어렵다. 글자를 보완한 후 명문을 번역하면 아래와 같다.

“오름가 만든 밝은 거울, 검게 불려 세 번을 다스리고 두루 새겨 복을 내린다. 만천하와 짝하고 하늘의 날짐승이 사방을 지켜 단단함과 대길을 품에 지녔도다. 선인은 목숨을 늘리니 따르는 자는 현량을 공경하며 받들라. 해마다 수명을 더하고 부귀가 막 드높아질 것이니 동왕공과 서왕모처럼 오래오래 살고 자손이 번창하리라.”<sup>13</sup>

방격대의 바깥부터 주연부인데, 삼각문으로 구획하였다. 주연에도 두 개의 문양대가 있다. 안쪽의 주연 문양대에는 해와 달을 표현하고 시계방향으로 선인과 서수가 돌아가게 표현되어 있는데, 천상의 별자리 등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연 외곽 문양대에는 와문渦文과 당초문唐草文이 결합된 복잡한 문양이 배치되었다.

이러한 신수경의 문양은 천상세계를 나타낸 것으로 여겨지며 백아가 거문고를 연주하여 서왕모와 동왕공으로 상징되는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는 도안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서왕모와 동왕공이 뉴를 중심으로 대치하여 배치되어 있어 대치식으로 구분되며, 문양의 특징으로 보아 중국 화북-동북계로 분류할 수 있다. 후한 말에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동거울	公	公	父	父
				
청동거울	其	其	청동거울	禽
				
청동거울	銜	剛	청동거울	銜
				

13 네글자씩 끊어 의미를 새겼을 것으로 추정하여 번역했으나 “其師命長”, “東王公”은 용례가 다수 보여 조정하여 번역했다.

49.

은제한

銀製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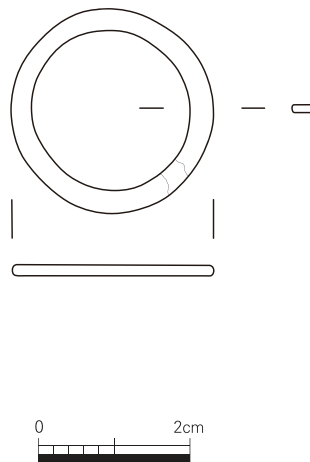
-

소장품 번호 : 본관12628

지름 2.7cm



도판 49. 은제한(본관12628)



도면 34. 은제한(본관12628)

제4목관과 목곽 북벽 사이에서 발견되었다. 너비 0.3cm, 두께 0.15cm로 얇고 납작한 형태이며 용도는 알 수 없다.

#### 4) 토기

50.

석영혼입계 웅

石英混入系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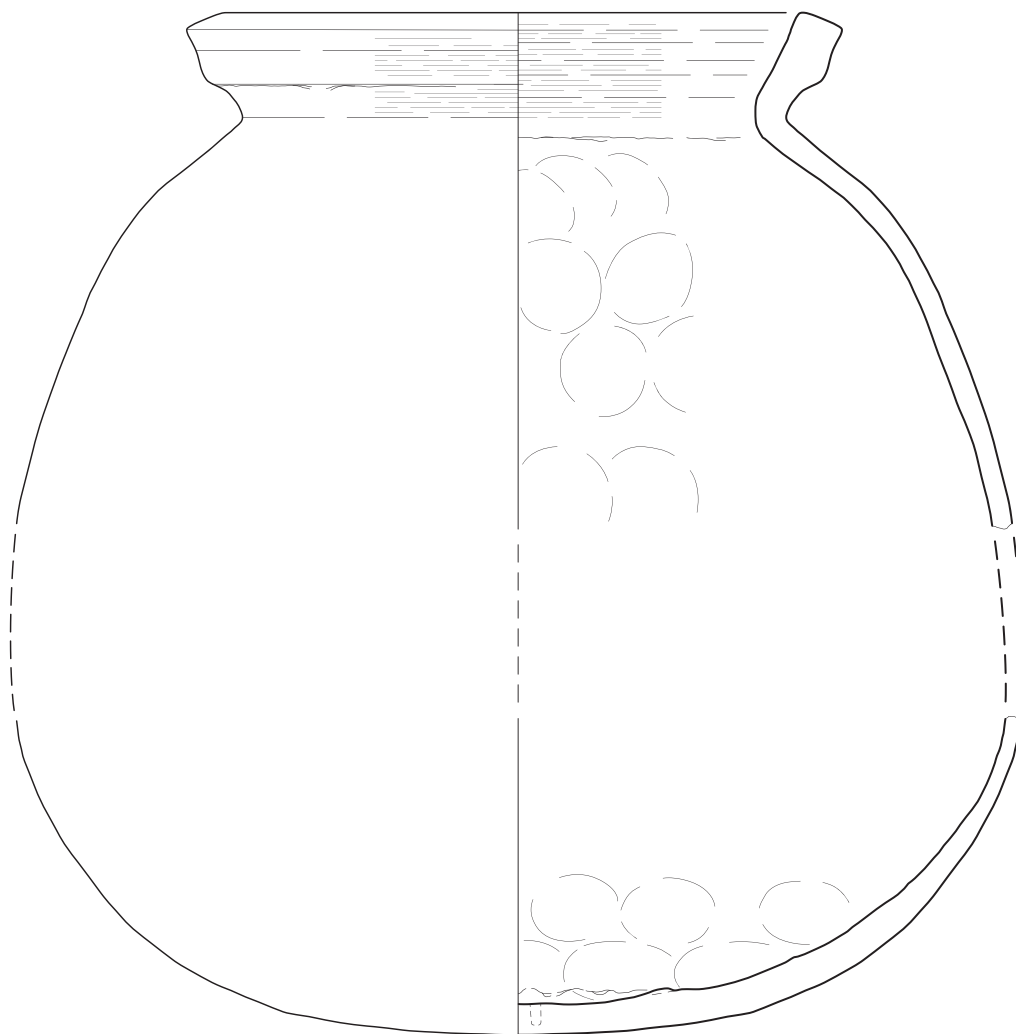
-

소장품 번호 : 본관12637

구경 23.1cm



도판 50. 석영혼입계 웅(본관12637)



도면 35. 석영혼입계 옹(본관12637)





도판 50-1. 저부 바닥 세부(左: 내면, 右: 외면)



참고도판 20. 석영혼입계 웅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건판32579)

중앙의 내면에는 점토가 밀린 흔적이 있으며, 외면에는 여러 방향으로 교차하는 승문타날흔이 남아 있다(도판 50-1).

제4목관과 목곽 북벽 사이 공간에서 확인된 석영혼입계 웅이다. 현재 동체부가 결실되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촬영한 유리건판 사진으로 전체적인 형태의 추정이 가능하다(참고도판 20). 추정 높이는 약 41.5cm이다. 내·외면 회백색 색조를 띠며, 석영혼입계 태토이다. 표면 박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경부 표면에 남은 흔적으로 볼 때 표면에 적갈색 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단면 장방형에 가까운 구연부는 짧게 외반한다. 구연부는 회전물손질하여 기형을 정면하였으며, 구연단부는 도구를 사용하여 편평하게 다듬었다. 구연부 아래로는 짧은 경부가 있으며, 구연부 점토띠 접합흔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경부에서 급격하게 꺾이며 팽만하는 동체부로 이어진다. 동체부 내면 전체에는 원형의 무문 내박자흔이 남아 있다. 바닥은 원저이지만, 외저면 중앙 부분만 편평하다. 저부

이 외에도 19호분에서는 소형 호 2개체, 대형 호 2개체와 화분형토기 구연부편이 출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는 확인할 수 없다.

## 5)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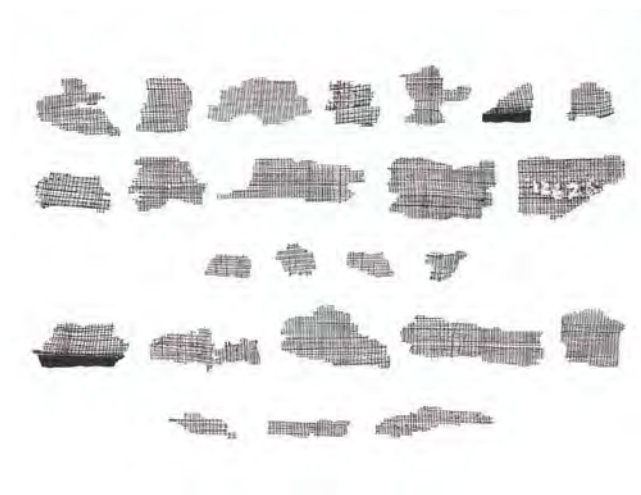
51.

직물

織物

-

소장품 번호 : 본관12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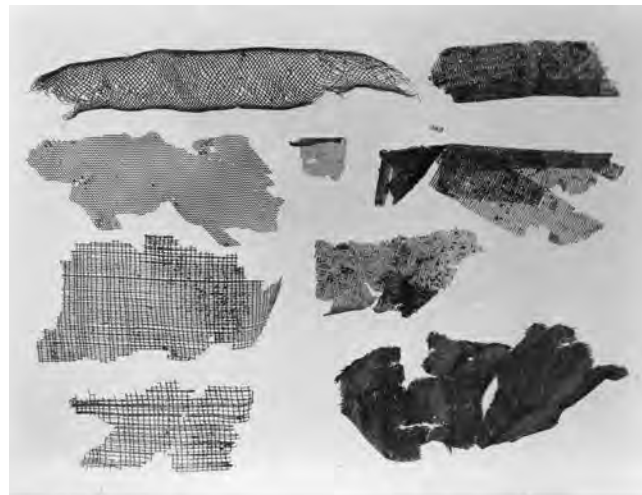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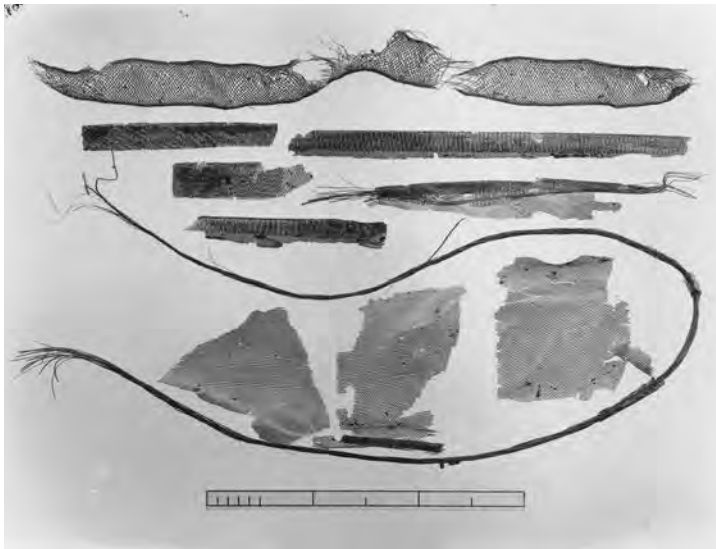
도판 51. 직물(본관12626)

①  
—  
② ③  
—  
④

제2목관 내 피장자의 머리에서 두개골 단편과 함께 출토되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여기에는 갈색을 띠는 평직 비단, 한쪽 끝을 접어 만 것에 새끼줄 모양으로 꼰 식물성 섬유를 넣은 것, 조잡한 평직의 흑견黑絹과 치밀한 평직의 비단이 겹쳐진 것, 오사모의 갓끈으로 보이는 갈색의 얇은 조대 등이 확인되었다고 한다(참고도판 21).

현재 남아있는 직물을 분석한 결과 칠사(①), 엮음 식물(②) 그리고 평견직물(③) 3종류가 확인되었다. 모두 단편으로 잘게 부서져서 원형을 알 수 없으나, 피장자 머리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관冠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죽제품(④)은 조잡한 평직의 흑견黑絹, 치밀한 평직의 비단이 붙은 직물과 함께 출토되었다. 평면 방향으로 한쪽 끝은 비스듬히 파 홈을 만들었고 반대쪽은 결실되었다. 직물의 형태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도판 21. 직물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건판10314~10316)

52.

대모장식

玳瑁裝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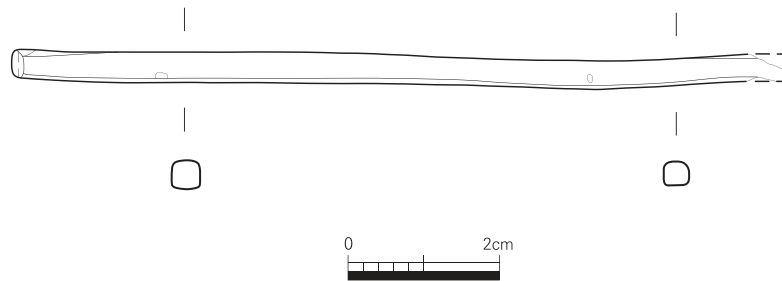
-

소장품 번호 : 본관12630

잔존길이 10.3cm



도판 52. 대모장식(본관12630)



도면 36. 대모장식(본관12630)

제3목관 내 피장자의 머리 부분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견되었다. 대모제이며, 단면 방형으로 가늘고 긴 형태이다. 한쪽 끝은 편평하게 깎아냈고, 반대쪽은 결실되었다. 나무테와 같이 보이는 대모 특유의 결이 표면에 드러나 장식 효과를 준다.

석암리 9호분에서는 피장자의 허리 부근에서 얇고 긴 대모장식이 출토된 바 있다. 윗부분에 구멍이 뚫리고 끝이 뾰족한 형태로 허리띠 장식이자 실용적 도구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유물은 단면이 정방형에 가까워 석암리 9호분의 대모장식보다 폭은 좁지만 두껍게 만들어졌다. 보고서에서는 출토 위치와 형태를 고려하여 비녀(簪)로 보고하였다.



53.

각종 씨앗

種子

-

소장품 번호 : 본관12623~12625



① | ②  
③

도판 53. 각종 씨앗(본관12623~12625)

19호분에서는 여러 종류의 씨앗이 출토되었다. 두씨작명마각부칠안(27-①) 위에서 복숭아씨 3점, 밤 6점, 미상의 씨앗 6점이 있었고, 이 칠안 위의 칠기편(42)에도 밤 3개가 붙어있었다. 또 칠안 부근에서 밤 1개, 칠반(29-①) 내부에서 밤 1개·복숭아씨 3개, 제4목관과 목곽 북벽 사이에서 밤 2개가 발견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씨앗은 복숭아씨 6점, 밤 12점, 산사나무 씨앗 7점이다. 산사나무 씨앗은 조사 당시 나팔꽃 씨로 추정하였던 것이다. 복숭아나 밤은 다른 낙랑고분에서도 종종 출토되었으나 산사나무는 처음 알려진 것으로 고대에도 식용 혹은 약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54.

목탄과 나무 조각

木炭, 木屑

-

소장품 번호 : 본관12636

(右下) 길이 20.0cm



도판 54. 목탄과 나무 조각(본관12636)

19호분은 목곽 밖으로 벽돌을 쌓아 목곽을 보호하였는데, 이 전벽과 목곽 사이에 나무 조각을 채우고, 네 모퉁이에는 목탄을 넣어 목곽의 부식을 방지하였다. 이때 사용한 나무 조각과 목탄 일부가 현재까지 남아 있다. 나무 조각은 나무결을 따라 얇게 켜낸 것으로 크기는 다양하다. 목탄은 나무의 가지를 그대로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분 축조에 목탄이 사용된 예는 낙랑의 다른 고분에서도 확인된다. 석암리 9호분에서는 묘광과 목곽 사이에 목탄과 돌을 섞어 채운 것으로 조사되어 낙랑 고분 축조시 흔히 사용되었던 재료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19호분의 전벽을 축조하기 위해 사용된 벽돌(본관12640)이 보고되었으나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 벽돌은 기하학적 문양이 찍혀있으나 문양면이 일정하지 않다고 한다(참고도판 22).



참고도판 22. 19호분에 사용된 벽돌  
(건판32602)

### 3. 20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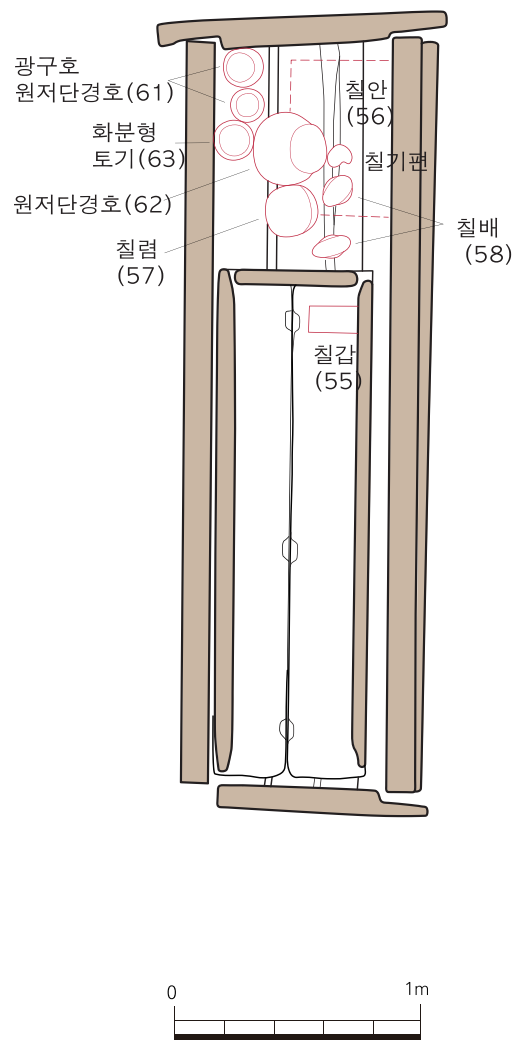
20호분은 19호분과 함께 콘프로덕션 사택 기초공사 중 발견되었다. 조사 당시 봉토는 남아있지 않았으나 길이 3m, 너비 1m 내외의 작은 목곽 3개가 나란히 놓인 상태로 확인되었다. 목곽 안에는 목관 1기가 목곽 남벽에 접하여 안치되었고, 목관과 북벽 사이의 빈 공간에는 부장품을 부장하였다. 또 목관 내에서는 피장자가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구슬, 반지 등의 장신구가 주로 출토되었다. 조사 당시 출토된 유물은 31건 1000점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720여 점 확인되고 있다.

#### ① 제1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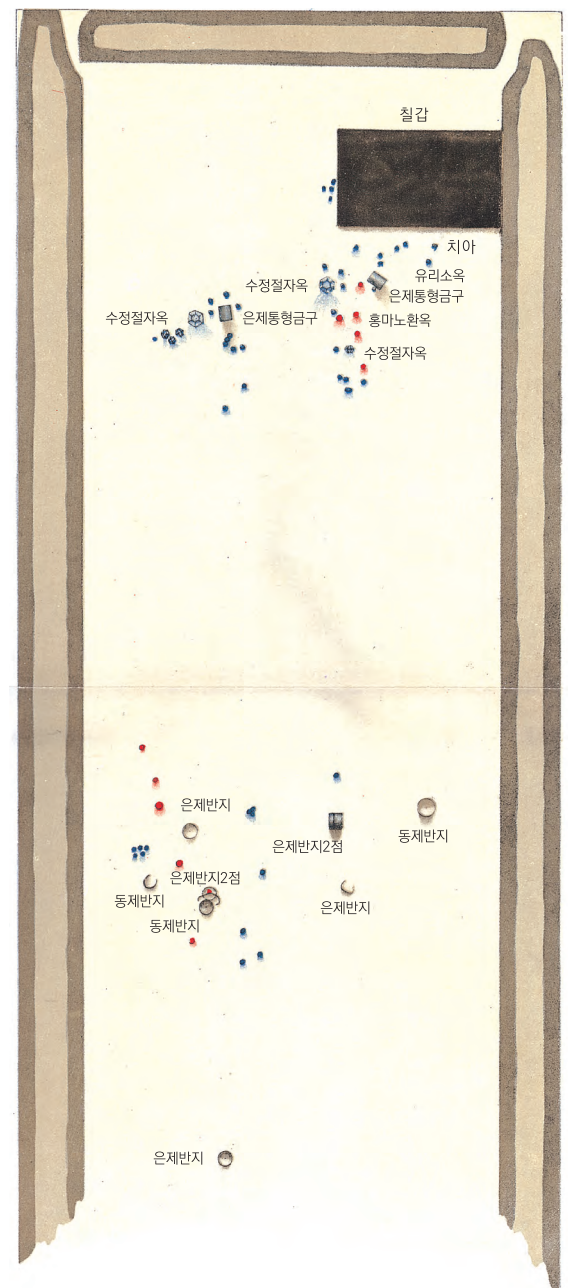
제1곽 목관 안에서는 피장자의 머리에 해당하는 곳에서 수정다면옥 9점, 마노다면옥 2점, 마노환옥 9점, 유리소옥 25점, 은제원통형금구 2점(59)이 출토되었다. 또 머리 왼쪽에 칠갑(55)이 있고 그 안에서 유리소옥 수십 점(64)과 씨앗이 발견되었다. 관 중앙부에서는 마노환옥 6점과 유리소옥 13점(65)이 확인되었다. 중앙 오른쪽에서는 은제반지 3점·동제반지 2점, 무릎 주변에서 은제반지 1점, 중앙 왼쪽에서 은제반지 3점·동제반지 1점이 발견되었다(60). 또, 목관과 목곽 북벽 사이의 부장공간에서는 화분형토기(63), 광구호, 원저단경호 2점(61, 62), 칠립(57), 칠배 2점(58), 칠안(56)이 출토되었다.



참고도판 23. 제1곽 내 목관과 목곽 사이 부장공간의 유물 출토 모습(건판9652)



참고도면 10. 제1곽 실측도(보고서 도판 86 재편집)



참고도면 11. 제1곽 목관 내 유물배치도(보고서 도판 89)



## 1) 칠기

55.

칠갑

漆匣

-

소장품 번호 : 본관126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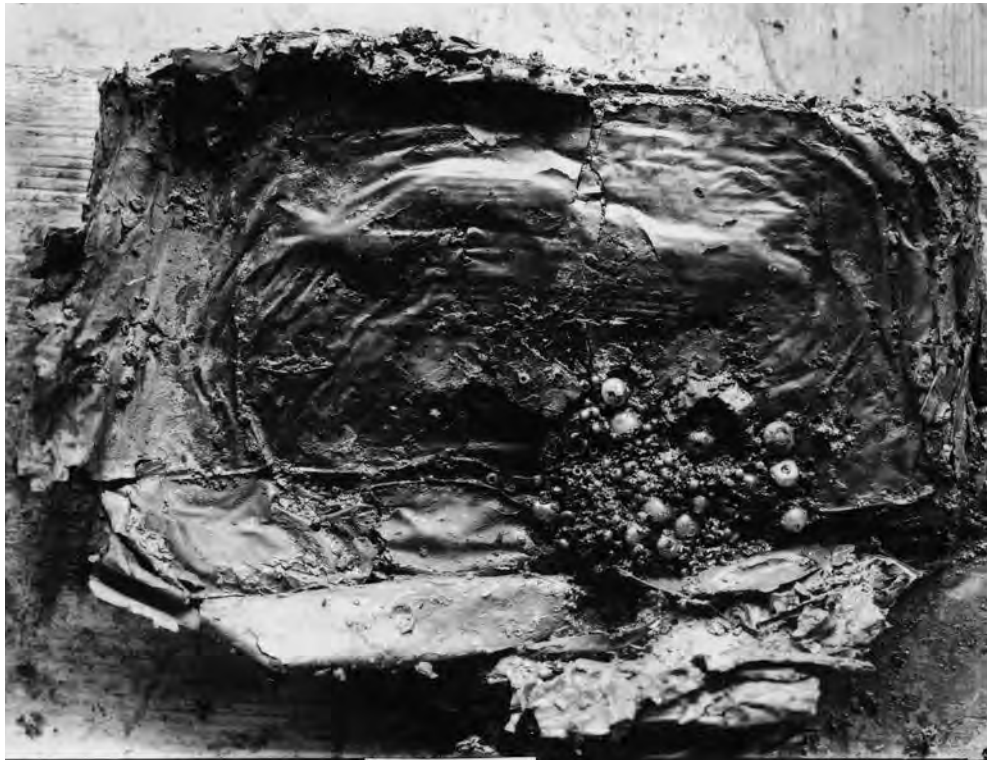
① 잔존길이 20.4cm, 너비 9.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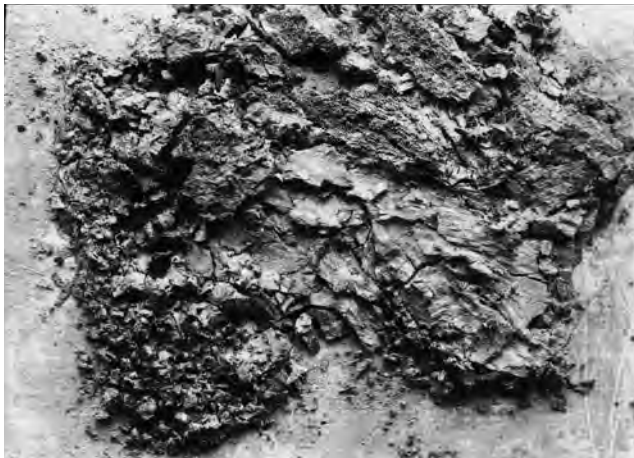
① ②  
③ ④

도판 55. 칠갑(본관12641)

목관 내 동북쪽 모서리 근처에서 발견된 것으로, 목심은 이미 부식된 채 장방형의 칠면 4장이 겹쳐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한쪽 면은 흑칠, 반대쪽은 주칠을 하였다. 2번째, 3번째 장 사이에서 다수의 유리소옥(64)과 함께 표면에 압형장식문이 있는 대모제품이 발견되었다. 또 4번째 장 아래에서 치아 4개분, 박(瓜)의 씨, 밤 같은 것이 출토되었다.



참고도판 24. 칠갑과 유리소옥 출토 모습(건판10332)



참고도판 25. 칠갑 아래에서 씨앗이 출토되는 모습(건판10334)



참고도판 26. 칠갑에서 출토된 씨앗(건판10337 중)

56.

칠안

漆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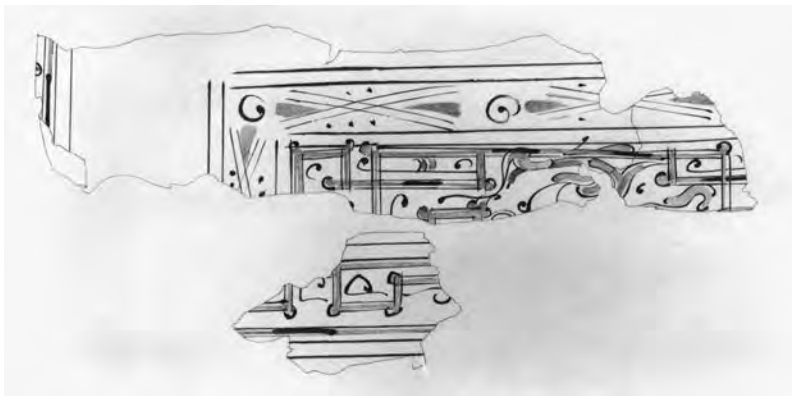
소장품 번호 : 본관12643

(上) 잔존길이 35.0cm



도판 56. 칠안(본관12643)

목관과 목곽 사이의 북쪽 공간 동북 모서리에서 발견된 칠안편으로 대부분 부식되어 일부만 수습되었다. 나무 바탕에 칠을 바른 것으로 앞면은 주칠, 뒷면은 흑칠을 발랐다. 앞면에는 흑·녹·주칠로 문양대를 구획하고 운문, 와문 등을 그렸다. 테두리는 상판에 비해 한 단 높게 만들어 흑칠과 주칠을 하고, 흑칠 위에 주칠로 3중의 동심원문과 삼각문 등을 교대로 배치하였다.



참고도면 12. 칠안의 일제강점기 실측도(건판34907)

57.

칠럼

漆奩

-

소장품 번호 : 본관12642

지름 18.2cm



도판 57. 칠럼(본관12642)

원형 칠럼의 바닥판으로 두께는 0.8cm이다. 목심칠기이며, 내외면 모두 주칠을 발랐다. 표면에 흑색의 붓자국과 같은 것이 일부 확인된다. 보고 당시에는 곡물(曲物) 수법으로 바닥판에 접합한 측면편이나 장식금구를 부착한 흔적이 있는 잔편도 출토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58.

칠배<sup>14</sup>

漆杯

-

소장품 번호 : 고적29129

잔존길이 15.8 cm



도판 58. 칠배(고적29129)

목관과 목곽 북벽 사이의 부장공간에서 출토된 칠배 2점 중 하나이다. 목심칠기이며, 내면 주칠, 외면 흑칠하였고 문양은 없다. 반파되었으나 바닥의 길이는 대략 9.0cm이다. 다른 한 점은 칠안 위에서 발견되었고 내면 주칠, 외면 흑칠을 한 것이라고 하나 현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sup>14</sup> 보고서에는 20호분 제1곽에서 2점이 수습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사진이나 도면이 실려있지 않다.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발굴품 목록-쇼와 5년 12월 노모리 켄 축탁 발굴조사](국립중앙박물관 2021: 37-41)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등록 유물은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쇼와 5년 12월 노모리 켄 축탁 조사 참고품 목록](국립중앙박물관 2021: 42-43)의 '이부칠 배 잔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墳 1, 梧野里, 參考', '第二十号墳第一椁 2'와 같은 기록이 남아있어 실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금속기

59.

은제원통형금구

銀製圓筒形金具

-

소장품 번호 : 본관126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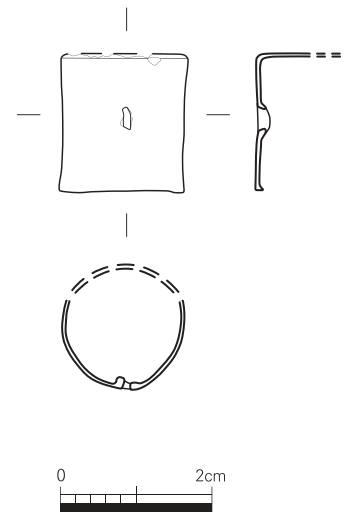
지름 1.7cm, 높이 1.8cm



도판 59. 은제원통형금구(본관12647, 左: 정면, 右: 뒷면과 아랫면)<sup>15</sup>

목관 내 북쪽 가까이에서 여러 점의 구슬과 출토되었다. 발굴 당시에는 2점이 확인되었으나(참고도판 27), 파손되어 분명한 것은 1점뿐이다.

두께 0.05cm의 얇은 은판을 접어 만든 것으로 한쪽은 막혀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몸통 중앙에 길이 0.2cm의 긴 구멍을 뚫었는데, 밖에서 안을 향해 날카로운 것으로 찔러 만들었다.



도면 37. 은제원통형금구(본관12647)



참고도판 27. 은제원통형금구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건판10338 중)

<sup>15</sup> 은제원통형금구의 안에 보이는 것은 흙이나 회를 이용해 만든 속심으로 금구의 형태 보존 혹은 모형품 제작 등을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고서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일제강점기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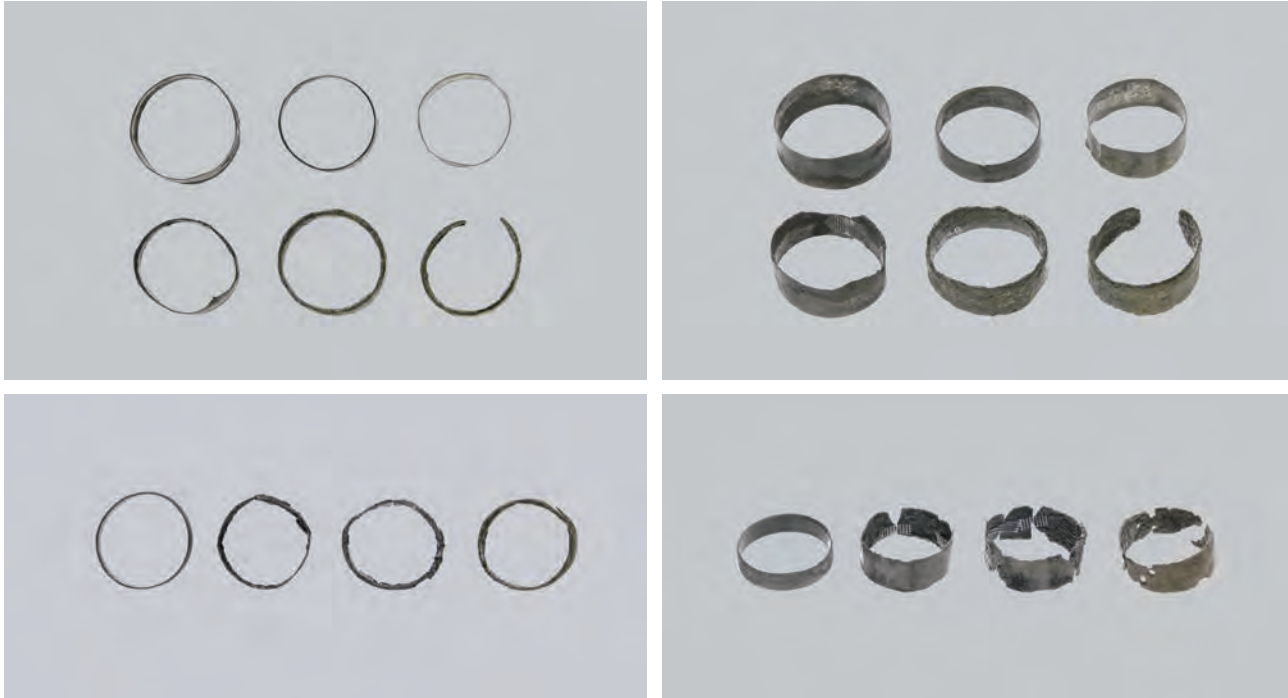
반지

指輪

-

소장품 번호 : 본관12648, 126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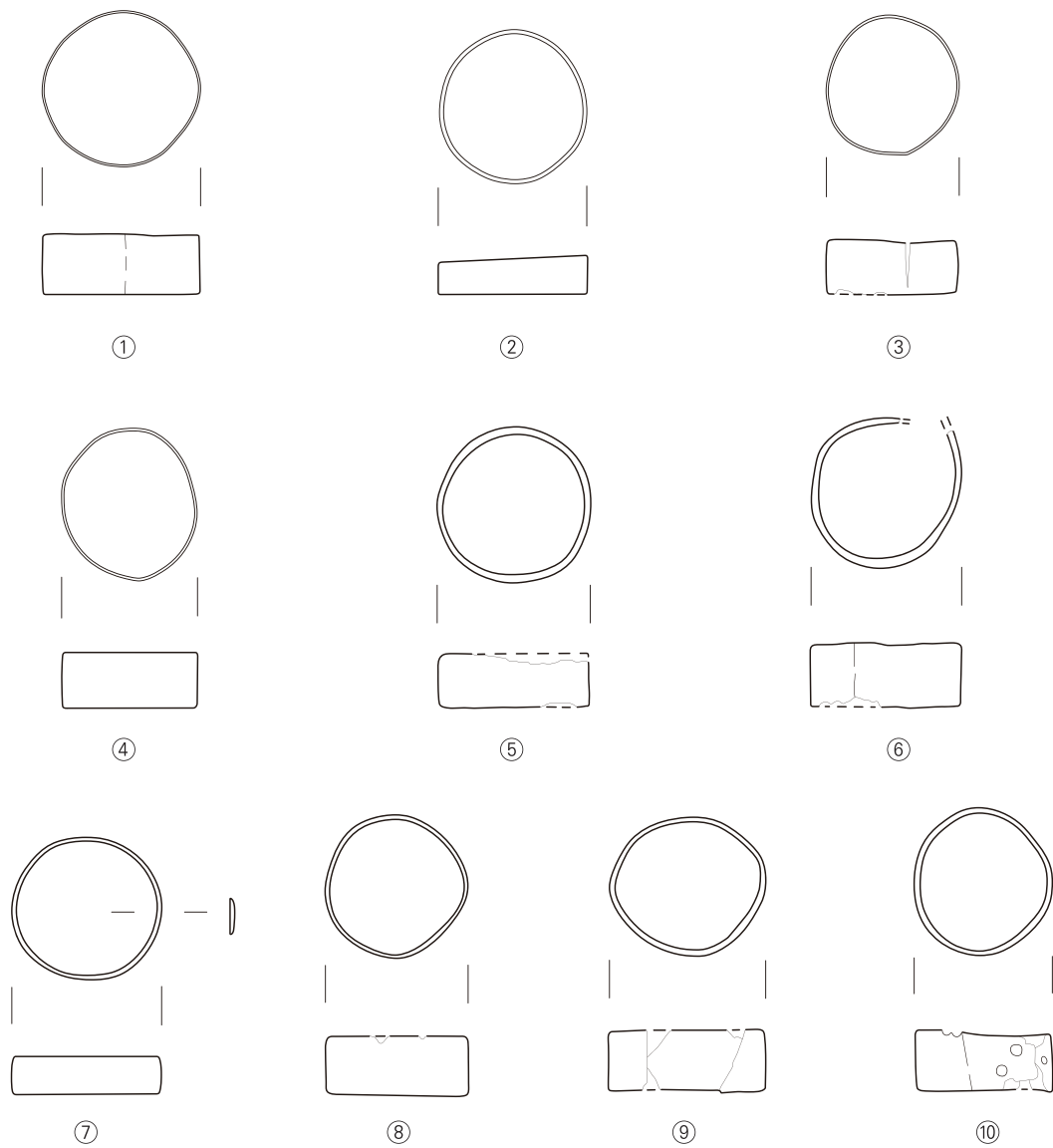
① 지름 2.1cm, 너비 0.8cm



도판 60. 반지(①~⑥ 본관12648, ⑦~⑩ 본관12649)

제1곽의 목관 안에서 총 10점의 반지가 출토되었다. 중앙부 오른쪽에서 은제반지 3점과 동제반지 2점, 무릎 주변에서 은제반지 1점, 중앙부 왼쪽에서 은제반지 3점과 동제반지 1점이 확인되어, 은제 7점(①~④, ⑦~⑨), 동제 3점(⑤, ⑥, ⑩)이다. 모두 내외면이 편평하고 얇게 만들어졌다. 각 유물의 출토지점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⑩은 중앙부 왼쪽에서 출토된 동근 구멍 여러 개를 뚫은 동제반지임을 알 수 있다. 중앙부 오른쪽 및 무릎 부근에서 출토된 반지는 ①~⑥(본관12648), 왼쪽에서 출토된 것은 ⑦~⑩(본관12649)으로 추정된다.

- ① 지름 2.1cm, 너비 0.8cm, 두께 0.03~0.04cm
- ② 지름 1.9cm, 너비 0.5cm, 두께 0.05cm
- ③ 지름 1.8cm, 너비 0.7cm, 두께 0.03~0.04cm
- ④ 지름 1.9cm, 너비 0.75cm, 두께 0.03~0.04cm
- ⑤ 지름 2.1cm, 너비 0.7cm, 두께 0.1~0.15cm
- ⑥ 지름 1.9cm, 너비 0.75cm, 두께 0.1cm
- ⑦ 지름 1.9cm, 너비 0.5cm, 두께 0.05cm
- ⑧ 지름 1.9cm, 너비 0.8cm, 두께 0.05cm
- ⑨ 지름 1.8cm, 너비 0.8cm, 두께 0.1cm
- ⑩ 지름 1.9cm, 너비 0.8cm, 두께 0.1cm



도면 38. 반지(①~⑥ 본관12648, ⑦~⑩ 본관12649)



### 3) 토기

61.

원저단경호

圓底短頸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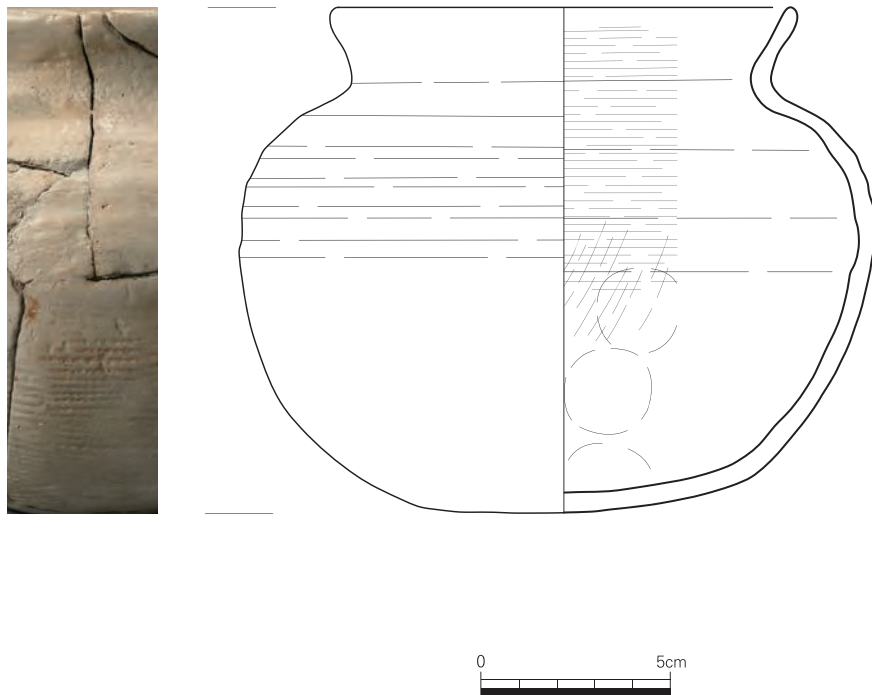
-

소장품 번호 : 본관12651

높이 13.3cm, 구경 12.3cm



도판 61. 원저단경호(본관12651)



도면 39. 원저단경호(본관12651)

목관과 목곽 사이의 북쪽 공간 서북 모서리에서 발견된 소형 원저단경호이다. 완형으로 복원되었다. 색조는 내·외면 명회색을 띠며, 태토는 정선된 니질 태토이다. 구연부는 짧게 외반하며, 동최대경은 동체부 중상위에 위치한다. 저부는 말각평저를 이루고 있다.

동최대경을 중심으로 아래·위의 정면기법에 차이가 있다. 구연부와 동체 상부에는 사선 방향의 1차 승문타날흔과 그 위로 회전물손질흔이 남아 있다. 구연부와 경부의 1차 승문타날은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 아랫부분은 왼쪽 아래 방향으로 타날된 것으로 보이지만 표면 박락으로 인해 확실하지 않다. 구연부 아래에서부터 동최대경까지는 회전물손질에 의한 요철면이 2단 정도 남아 있다. 동최대경 아랫부분은 원형의 무문 타날구로 기형을 조정한 후 그 위로 횡방향의 승문타날을 하였다. 저부 외면에도 동체부와 동일한 타날구를 이용하여 승문타날하였다. 동체부 내면에는 동최대경 위쪽으로만 회전물손질흔이 남아 있으며, 아래쪽에는 무문의 원형 내박자흔이 일부 남아 있다. 동체부와 저부가 이어지는 면에는 손누름흔이 남아 있다.

62.

원저단경호

圓底短頸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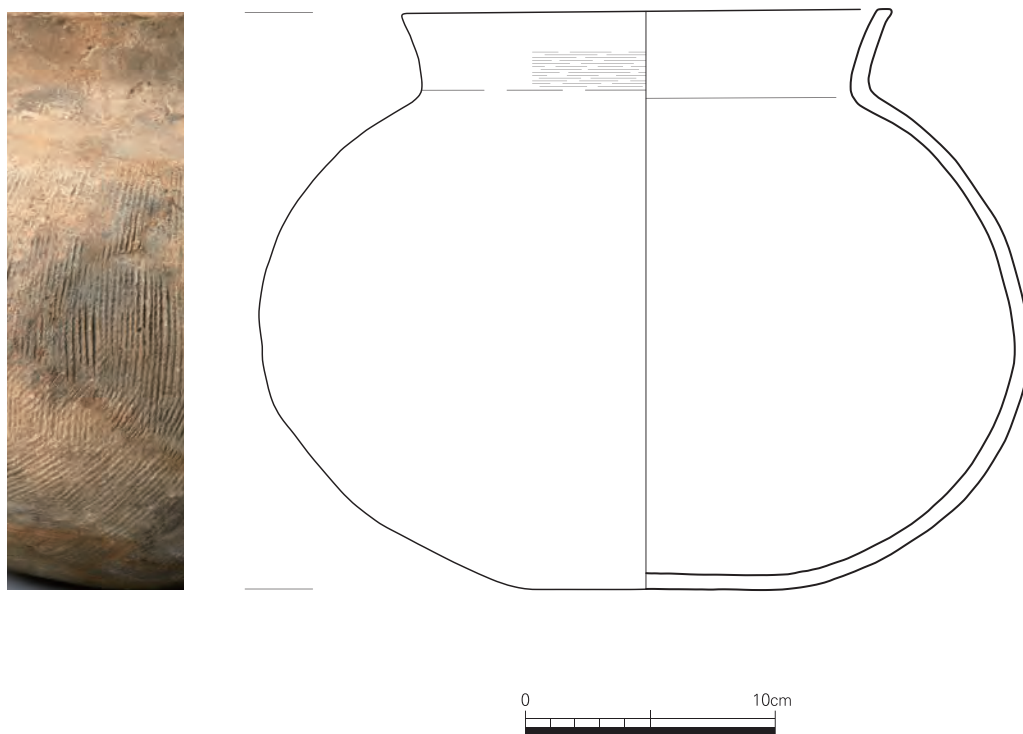
-

소장품 번호 : 본관12653

높이 22.8cm, 구경 19.5cm



도판 62. 원저단경호(본관12653)



도면 40. 원저단경호(본관12653)

목곽과 목관 사이의 북쪽 공간에서 출토된 대형 원저단경호이다. 유물 출토 상황을 촬영한 사진으로 볼 때(참고도판 23), 목곽 내 부장공간의 중앙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구연부는 직선적으로 짧게 외반하며, 구연단부는 편평하게 마무리되었다. 구연부 아래에서 급하게 꺾이며 부풀어오른 형태의 동체부가 이어진다. 동체부는 완전한 좌우대칭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동최대경은 동체 중위에서 하위로 조금 내려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내·외면 박리가 심하여 정확한 제작기법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구연부 외면에는 왼쪽으로 기울어진 사선방향으로 박리가 일정하게 확인되고, 1차 승문타날 흔적이 일부 확인되어 승문타날로 성형한 후 회전물손질로 기형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견부에는 약 4.0cm 너비의 무문양대가 있으며, 그 아래로는 전면을 승문타날하였다. 동체부 상위에서 동최대경까지는 수직 방향, 동최대경 아래로는 여러 방향으로 겹쳐진 승문타날이 남아 있다. 저부는 완전한 원저가 아닌 말각평저에 가깝다. 저부 바닥과 동체부 경계 부분의 타날문이 일부 눌린 것으로 볼 때 토기가 완전하게 굳기 전 바닥에 놓이면서 약간의 평저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63.

화분형토기

花盆形土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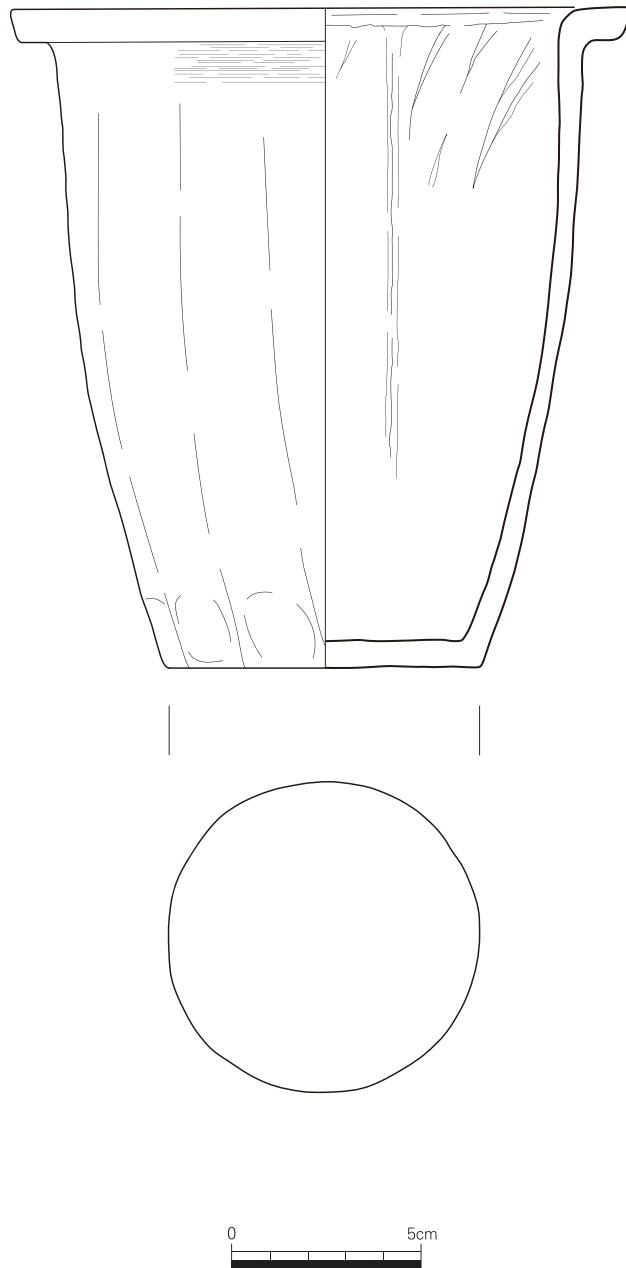
-

소장품 번호 : 본관12652

높이 17.5cm, 구경 16.2cm, 저경 8.2cm



도판 63. 화분형토기(본관12652)



도면 41. 화분형토기(본관12652)

목곽과 목관 사이 북쪽 공간에서 출토된 화분형토기로, 목곽 서쪽벽에 붙어서 정치된 상태로 놓여 있었다. 구연부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거의 완형으로 복원되었다. 내·외면 흑갈색 색조를 띠며, 활석혼입 태토로 제작되었다. 구연부는 직각에 가깝게 외반하는데, 내면에는 동체부에 구연부 점토띠를 붙였던 흔적이 남아 있다. 좌우대칭을 이룬 동체부는 직선에 가깝게 저부로 이어진다. 동체부와 저부 접합면은 각을 이루며 완전하게 꺾이고, 저부는 완전한 평저에 가까운 형태이다.

태토의 특성상 제작과정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지 않지만, 구연부는 점토띠를 부착한 후 회전물손질로 기형을 조정하였다. 동체부 내면 전체에는 포목흔이 남아 있으며, 울이 매우 가는 비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도판 63-1). 동체부 내면에는 상단에서 하단까지 세로 방향으로 태토가 좁게 밀려 나와 있다(도판 63-2). 돌출된 태토 위에도 포목흔이 남아 있는 것을 볼 때, 원형틀에 점토판을 붙인 후 두드려 기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원형틀의 접합면 사이로 태토가 밀려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돌출면은 동체부 전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가장 아랫부분은 결실되어 확실하지 않다. 또한 동체부는 세로 방향으로 3군데가 깨진 것을 복원했는데, 원형틀 접합면인 점토 돌출부와 함께 동체부를 거의 정확하게 4등분하고 있어, 최소 4장의 점토판을 원형틀에 붙여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동체부 외면 전체에는 약 3.5cm의 너비인 수직 방향의 정면흔이 남아 있다. 저부 내면에는 동체부와 저부 접합면이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 있으며, 손누름 자국도 있다. 또한 저부 내면에는 포목흔이 확인되지 않아 원형틀에서 동체부 형태를 제작한 후 저부 점토판을 붙였을 가능성도 있다.



도판 63-1. 내면의 포목흔



도판 63-2. 내면의 원형틀흔

이와 함께 소형 원저단경호 1점이 함께 출토되었으나(본관12650),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참고도판 28). 높이 10.5cm, 구경 12.8cm이다.



참고도판 28. 광구호(본관12650)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건판10342 중)

#### 4) 구슬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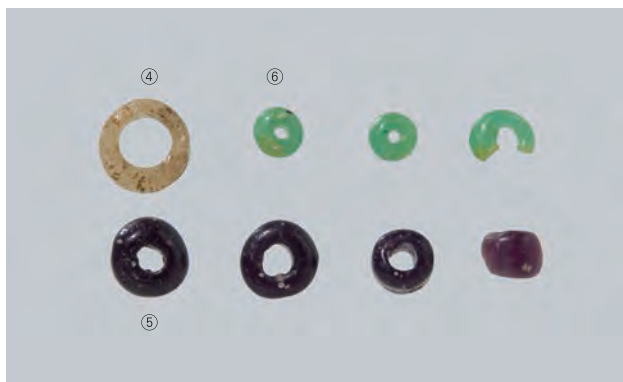
유리소옥

琉璃小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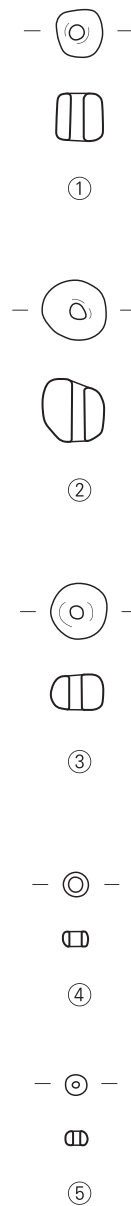
-

소장품 번호 : 본관12644

① 지름 0.6cm, 높이 0.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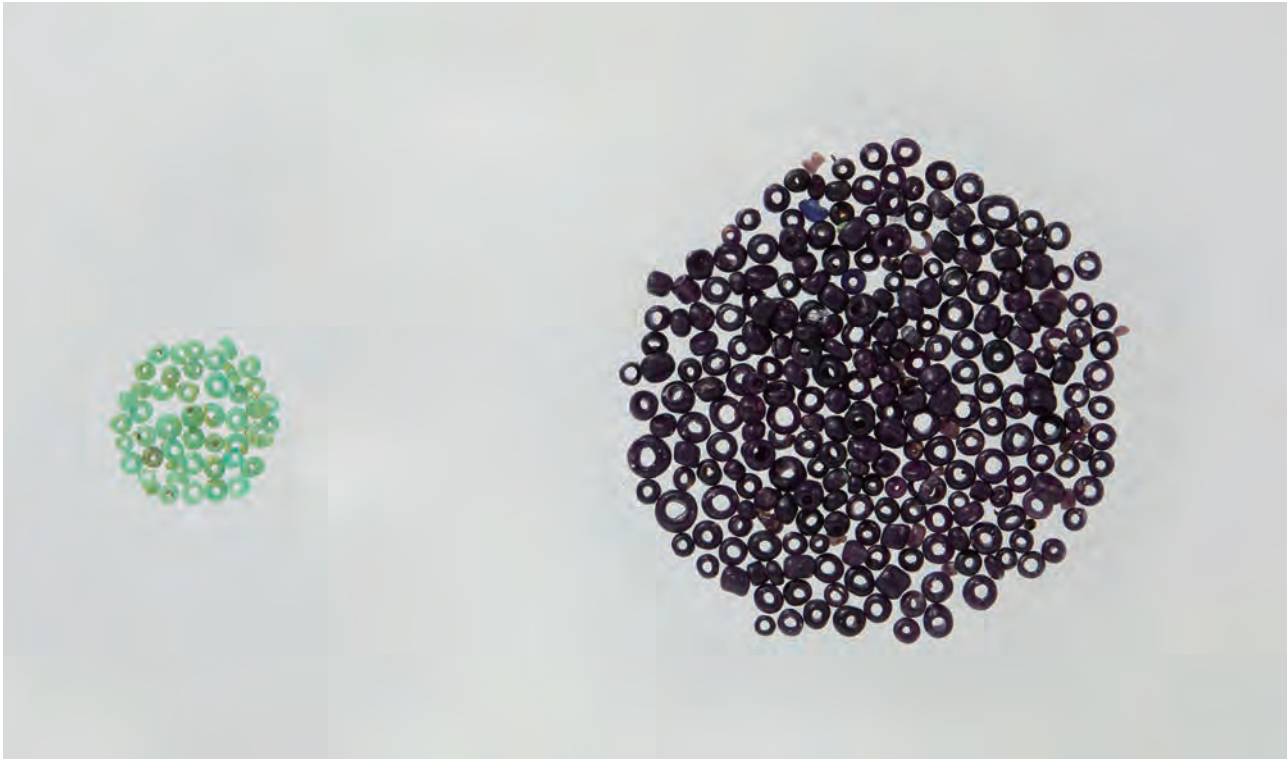


도판 64. 유리소옥(본관12644, ①~③ 남색, ④ 흰색, ⑤ 암자색, ⑥ 녹색)



도면 42. 유리소옥(본관12644, ①~③ 남색, ④ 흰색, ⑤ 암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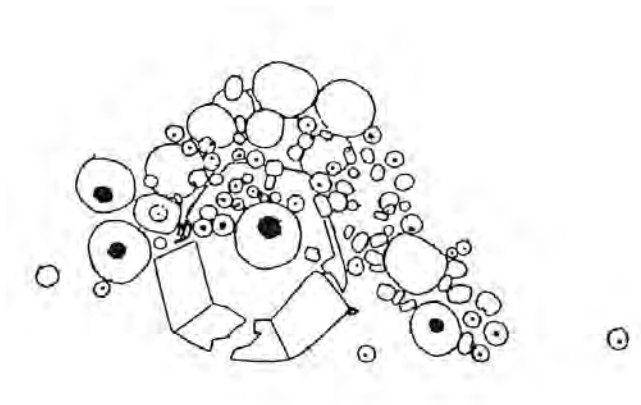




도판 64-1. 녹색 유리소옥(左)과 암자색 유리소옥(右)

목관 내 북쪽 끝 가까이에 위치한 칠갑(55)의 2번째 장과 3번째 장 사이에서 발견되었다. 남색 25점, 암자색 380점, 녹색 46점이라 보고되었으나, 현재 확인되는 것은 남색 39점, 암자색 270여 점, 녹색 40여 점 및 흰색 유리소옥 1점이다.

먼저 남색 유리소옥은 길이 0.4~0.8cm 내외로 다양하며 형태는 원형 혹은 원통형이다. 일부 유리 안에 길게 흰 선이 들어간 것도 보이며, 크기가 작을수록 색이 밝아져 파란색에 가깝다. 암자색의 유리소옥은 길이 0.1~0.4cm이며, 형태는 다소 납작한 원통형이 많다. 녹색 유리소옥은 길이 0.2cm 이하로 가장 작으며, 흰색 유리소옥은 지름 0.35cm, 길이 0.2cm로 암자색 및 녹색 유리소옥보다 큰 편이다. 유리를 길게 늘려 유리관의 형태로 만든 후 잘라 제작하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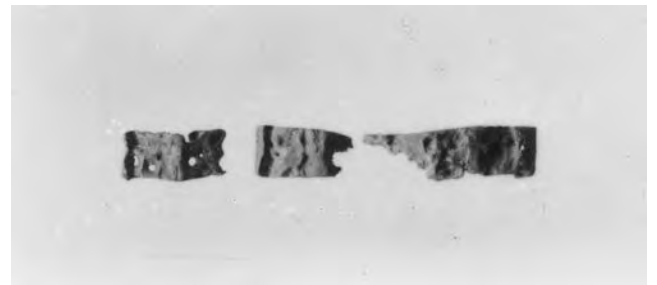


한편 보고서에는 유리소옥과 함께 표면에 압형장식문이 있는 대모제품이 발견되었다고 기록되어있다(참고도면 13, 참고도판 29). 이것은 길이 0.8cm, 높이 0.5cm, 두께 0.06cm의 육각형이며, 유리건판에 이 대모제품으로 추정되는 유물의 사진이 남아있다(참고도판 30).

참고도면 13. 유리소옥과 대모제품 출토 모습 실측도(보고서 제37도)



참고도판 29. 유리소옥과 대모제품 출토 모습(건판26867)



참고도판 30. 대모제품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건판10341 중)

65.

마노환옥과 유리소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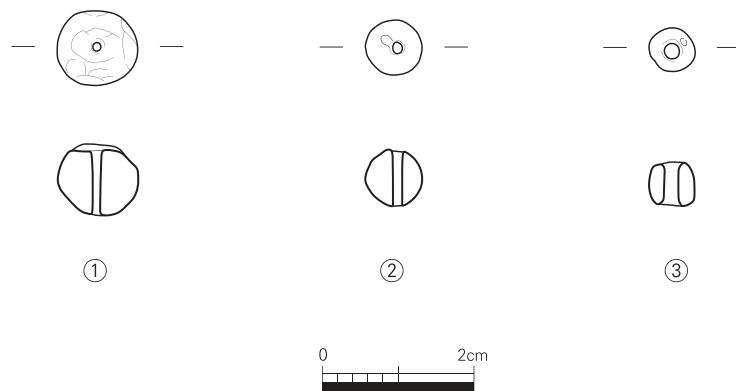
瑪瑙丸玉, 瑠璃小玉

소장품 번호 : 본관12645

① 지름 1.0cm, 높이 1.0cm



도판 65. 마노환옥과 유리소옥(본관126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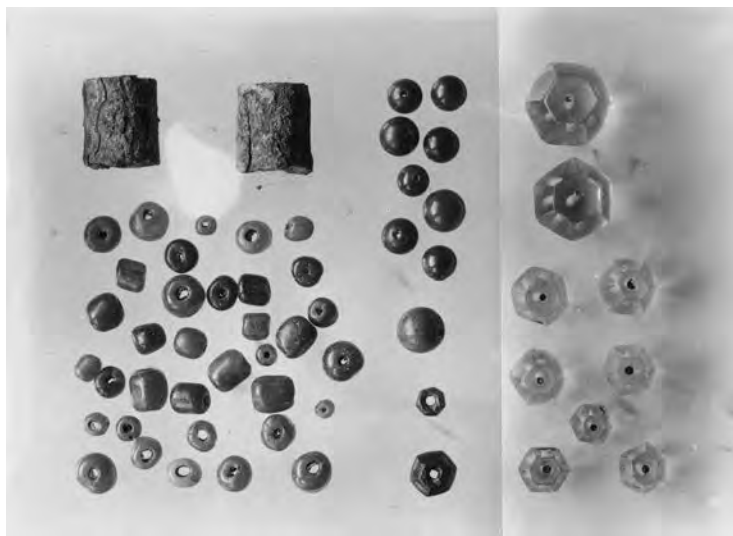


도면 43. 마노환옥과 유리소옥(본관12645)

목관 내 중앙부 오른쪽에 치우쳐 발견된 것으로 피장자의 손에 감은 것으로 보인다. 마노환옥과 유리소옥 2종류가 확인되었다.

마노환옥은 총 6점으로 5점은 붉은색이며, 1점은 붉은기가 도는 황색에 가깝다. ①은 가장 크기가 큰 것으로 지름 1.0cm이고, 그 외는 0.55~0.7cm 내외이다. 유리소옥은 남색을 띠고 위아래가 편평한 원통형이며, 길이는 0.3~0.6cm이다. 조사 당시에는 13점이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현재는 12점만 남아있다. 칠갑에서 출토된 남색 유리소옥(64)과 같은 종류이다.

이외에도 제1곽에서는 피장자의 목 부근으로 추정되는 목관 내 북쪽에서 수정다면옥 9점, 마노다면옥 2점, 마노환옥 9점, 유리환옥 35점이 출토되었다고 보고되었으나 현재는 확인되지 않는다(참고도판 31). 또 피장자의 머리 부근이나 칠갑(55) 잔편 아래에서 치아가 발견되었고(참고도판 32), 공물을 올려놓기 위한 떡갈나무 잎도 출토되었다(참고도판 33).



참고도판 31. 피장자의 목 부근에서 발견된 구슬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건판10338)



참고도판 32. 치아편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건판10341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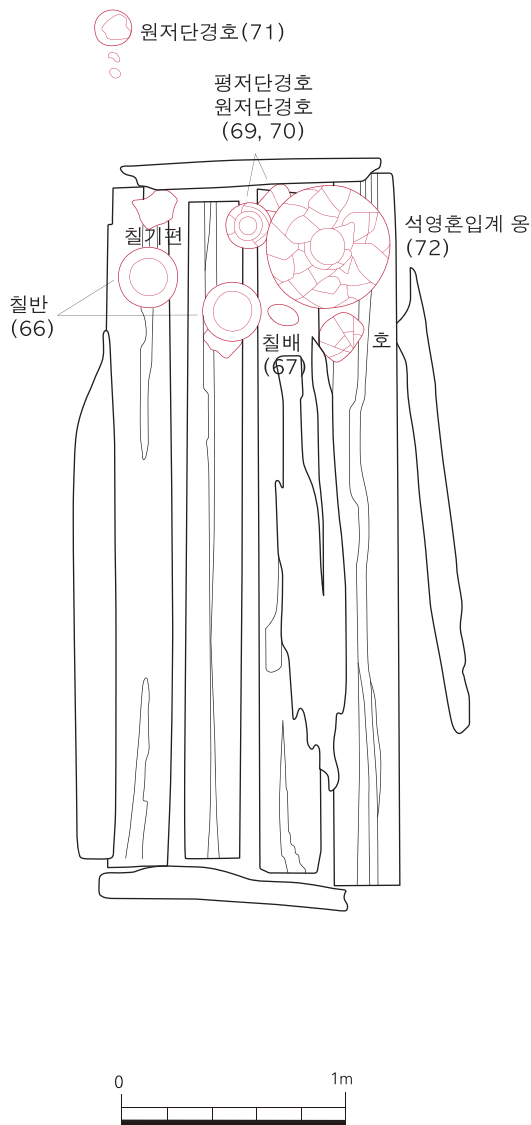


참고도판 33. 떡갈나무 잎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건판10340)



## ② 제2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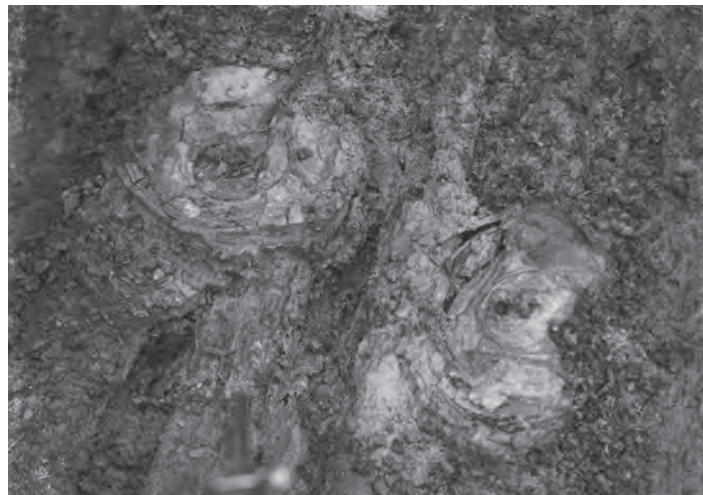
제2곽은 다른 두 목곽에 비해 약 40cm 가량 위에 묻혀 벽 대부분이 남아있지 않고, 유물의 보존 상태도 좋지 않다. 목관은 바닥판 일부만 남아있고, 유물 대부분은 목관과 목곽 북벽 사이의 부장 공간에서 확인되었다. 유물의 출토 위치를 살펴보면 동북쪽 모서리에 석영혼입계 옹(72)을 두었고, 이 옹의 서북쪽에 접해 평저단경호(69)와 원저단경호(70), 남쪽에 호와 칠배(67)를 놓았다(참고도판 34). 칠배의 서쪽에서는 칠반 2점(66)이 확인되었고(참고도판 35), 목곽 서북쪽 모서리에서는 칠분으로 추정되는 칠기편이 출토되었다. 한편 목곽 서북쪽 모서리에서 북으로 약 60cm 떨어진 지점에서도 원저단경호(71)가 출토되었는데, 제2곽 내에서 이동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도면 14. 제2곽 실측도(보고서 도판 86 재편집)



참고도판 34. 목곽 내 북쪽 토기 출토 모습(건판9655)



참고도판 35. 목곽 내 북쪽 칠반 출토 모습(건판9656)

## 1) 칠기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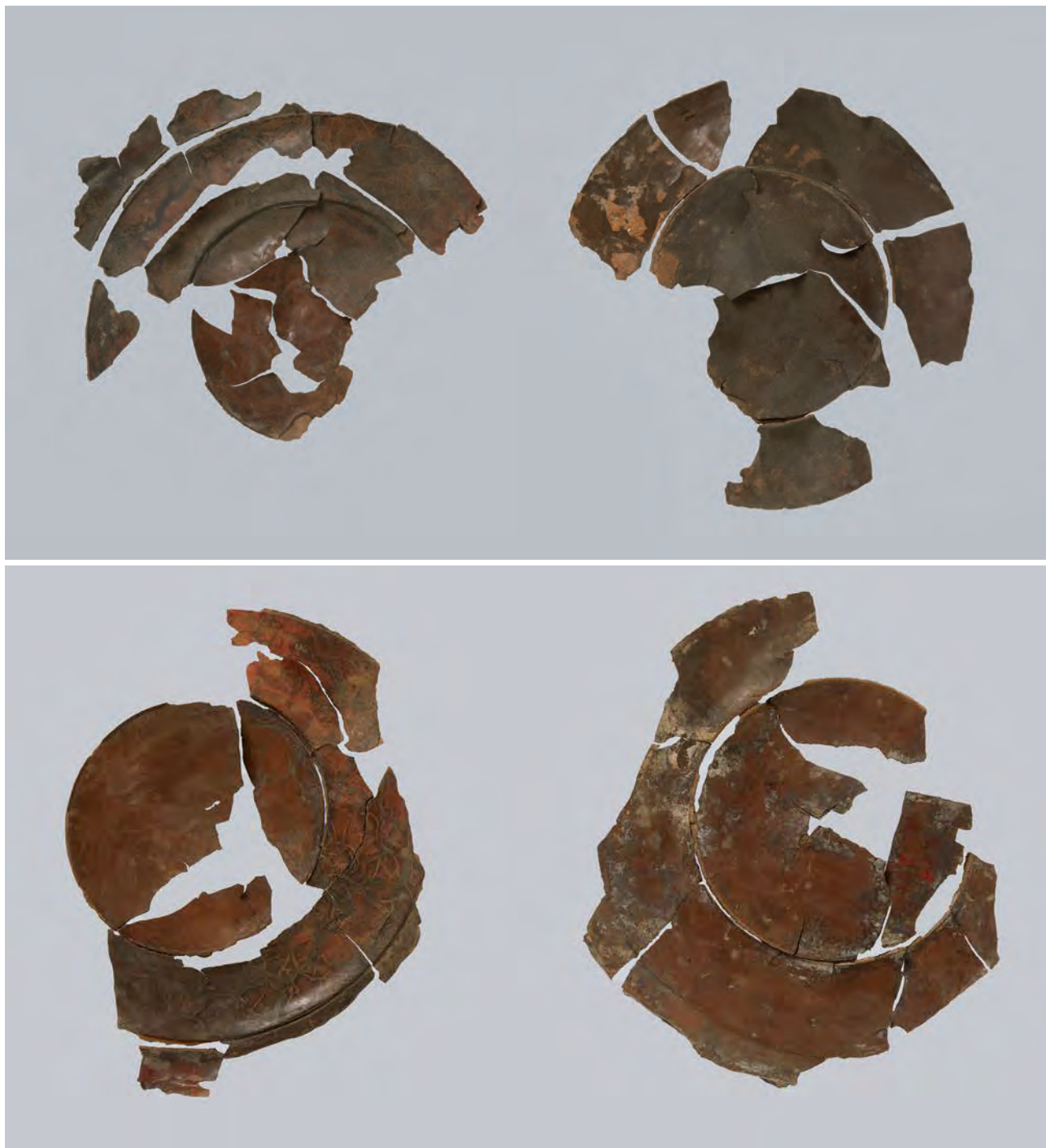
칠반

漆盤

-

소장품 번호 : 고적29090, 29092

① 左 잔존길이 19.0cm



도판 66. 칠반(① 고적29090, ② 고적29092)

①  
②

목곽 내 북쪽 부장공간에서 출토된 칠반 2점으로 보고서에서는 칠분의 위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조사 당시의 사진을 보면 납작하게 눌러 기벽이 떨어져있고, 칠도 여러 조각으로 분리된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참고도판 36). 현재는 속심이 완전히 부식되어 칠만 남아있고 내면과 외면도 분리되었다.

①, ②의 중앙권 지름은 내면 10.4~10.7cm, 외면 11.2~11.4cm이다. 보고서에서는 이 2점이 같은 형태와 크기의 목심저피제 칠반이며, 내면 중앙권에 흑칠을 바르고, 그 주변과 가장자리 내면에는 주칠을 베풀었으며, 가장자리 상면과 외면 전체에 흑칠을 바른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현재는 칠색의 변화가 심해 일부에서만 주칠이 확인된다.



참고도판 36. 칠반 ①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건판10344)

67.

칠배

漆杯

-

소장품 번호 : 고적29101

잔존길이 13.3cm



도판 67. 칠배(고적29101)

칠배의 저부편으로, 바닥의 크기는  $8.8 \times 4.1\text{cm}$ 이다. 보고서에는 4개체가 파손된 채 발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 남아있는 것은 도판의 1점과 칠 조각들뿐이다. 목심칠기로 내면에는 주칠, 외면에는 흑칠을 하였으며, 문양은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도판 37. 칠배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건판10345)



68.

칠편

漆片

-

소장품 번호 : 본관12654

잔존길이 1.8cm



도판 68. 칠편(본관12654)

본관12654로 등록된 칠 조각 중 하나로 명문이 쓰여져있다. 주칠 바탕에 흑칠로 명문을 적었는데 칠기의 기종은 알 수 없지만 뒷면에 남겨진 직물의 흔적으로 보아 목심저피제로 추정된다. 글자는 방형 구획 안에 ‘孫牢’라고 적었다. 보고서에서는 ‘孫’이 제작자의 성이며, ‘牢’는 견뢰堅牢를 기원하는 의미라고 적었으나 단언할 수 없다.

이외에도 제2곽에서는 칠분漆盆이나 칠렴漆盥으로 추정되는 칠기편이 출토되었으나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 2) 토기

69.

평저단경호

平底短頸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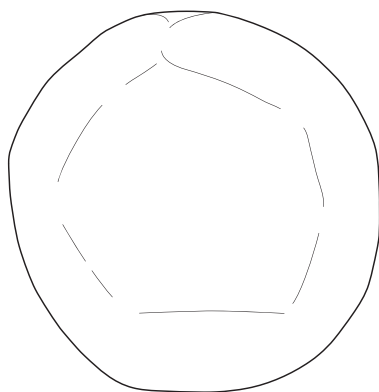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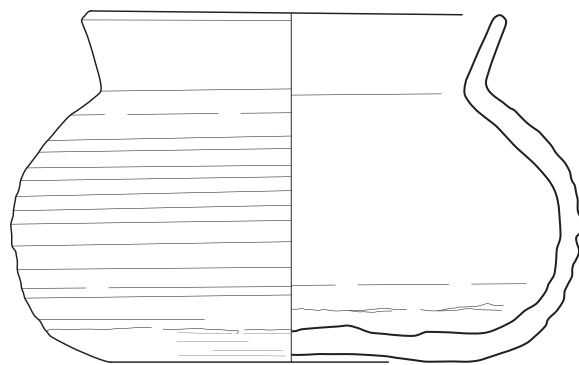
-

소장품 번호 : 본관12656

높이 9.2cm, 구경 10.8cm



도판 69. 평저단경호(본관12656)



도면 44. 평저단경호(본관12656)



도판 69-1. 내부 바닥

목곽과 목관 사이 북쪽 부장공간에서 출토된 평저단경호이다. 소형 원저단경호(70)와 북벽 중앙에 접하여 놓여 있었다. 구연부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게 복원되었다. 내·외면 모두 적갈색 색조를 띠며, 정선된 니질계 태토로 제작되었다. 구연부는 짧게 외반한다. 구경에 비해 기고가 낮아 납작하게 눌린 형태이며, 동최대경은 동체부 중위에 위치한다. 평저 저부는 중앙 부분이 살짝 들린 형태이다.

구연부 외면에는 왼쪽 아래 방향의 1차 승문타날흔이 희미하게 남아 있고, 그 위로 회전물손질흔이 남아 있다. 구연부 내면에서는 회전물손질흔만 확인된다. 동체부 내·외면은 모두 회전물손질에 의한 정면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외면 전체에는 강한 회전물손질에 의한 요철면이 잘 남아 있다. 동체부와 저부 경계 부분에는 접합면이 일부 확인되며, 깎기 조정하였다. 저부 외면의 중앙 부분에는 도구로 긁어 정면한 흔적이 남아 있으며, 내면에는 동심원상의 회전흔이 잘 남아 있다.

70.

원저단경호

圓底短頸壺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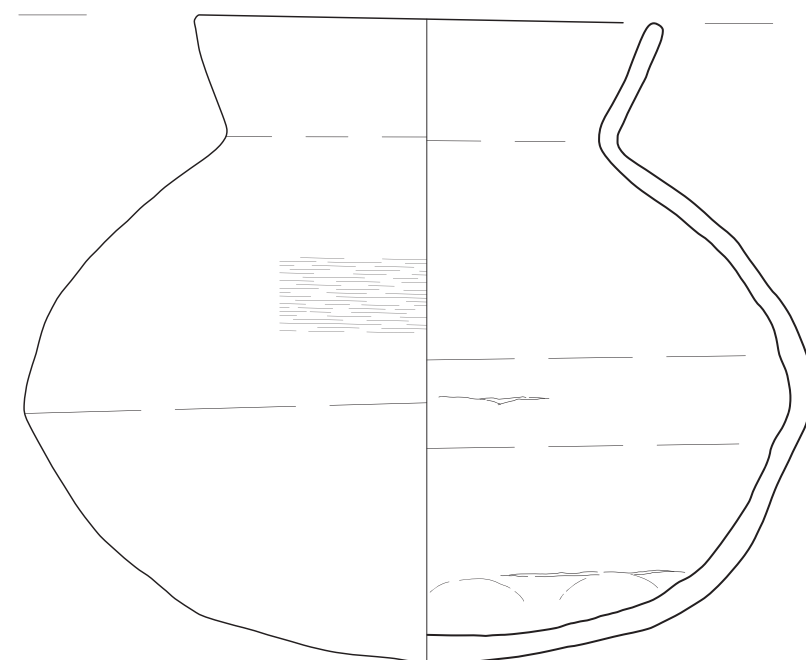
소장품 번호 : 본관12656

높이 17.0cm, 구경 12.0cm



도판 70. 원저단경호(본관12656)





도면 45. 원저단경호(본관12656)



도판 70-1. 구연부 내면의 승문타날흔



도판 70-2. 저부 외면의 승문타날흔



도판 70-3. 저부 내면의 내박자흔

목곽과 목관 사이 북쪽 부장 공간에서 출토된 완형의 소형 원저단경호이다. 내·외면 표면 박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현재는 대체로 황갈색 색조를 띤다. 그러나 저부 외면은 회황색, 내면은 흑회색을 띠고 있으며, 동체부 외면 일부에 남은 흔적으로 볼 때 내·외면 표면 색조는 흑회색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립이 소량 섞인 니질계 태토로 제작되었다. 구연부는 긴 편으로, 내만하며 구연단부로 이어진다. 동최대경은 동체부 중하위에 위치하며, 동체부 단면 형태는 종방향으로 살짝 눌린 편구형이다. 동체부와 저부 경계면은 약간 단을 이루며, 원저 저부로 이어진다.

구연부 외면에는 종방향, 내면에는 횡방향의 1차 승문타날흔이 잘 남아 있다(도판 70-1). 표면 박리가 심해 회전물손질흔은 확인하기 어렵다. 동최대경 바로 윗부분에도 종방향의 1차 승문타날흔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때, 구연부에서 이어지는 동체부 상단 외면에도 1차 승문타날흔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표면 박리로 남아 있지 않다. 동최대경을 중심으로 1차 승문타날을 지우며 정면한 평탄면이 1.0~1.5cm 너비로 남아 있다. 동최대경 아래 부분과 저부는 승문타날구로 정면하였으며, 사선 방향의 승문타날이 서로 교차하며 남아 있다(도판 70-2). 동체부 내면 역시 동최대경을 기준으로 위로는 회전물손질흔이, 저부 바닥면에는 목제 내박자흔이 남아 있다(도판 70-3).

71.

원저단경호

圓底短頸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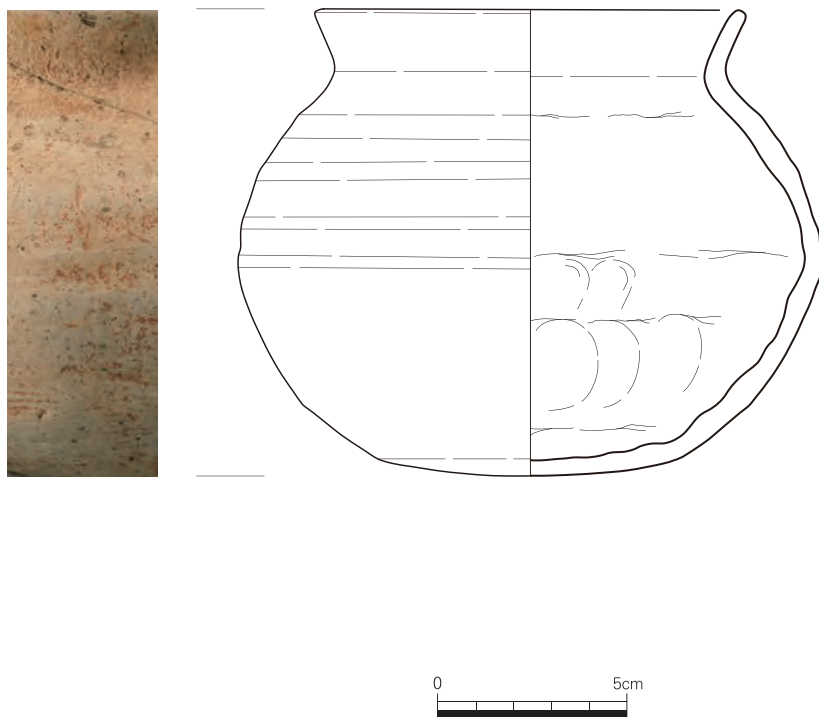
-

소장품 번호 : 고적22558

높이 12.3cm, 구경 11.0cm



도판 71. 원저단경호(고적22558)



도면 46. 원저단경호(고적22558)

목곽 서북쪽 모서리에서 북으로 약 60cm 떨어진 지점에서 출토된 소형 원저단경호로, 1/2가량 결실되었다. 내·외면, 속심 모두 회황색을 띠며, 정선된 니질 태토로 제작되었다. 짧은 구연부는 직선상으로 외반하며 동체부로 완만하게 이어진다. 동최대경은 동체부 중위에 위치하며, 저부는 원저이지만 중앙의 바닥면은 편평하다. 내·외면 표면 박리가 심하지만 대략적인 제작기법을 확인할 수 있다. 구연부와 동체부 상부에는 종방향의 1차 승문타날흔이 남아 있고, 동체부 상부는 1차 승문타날 이후 회전물손질 과정에서 요철면이 만들어졌다. 동최대경 아랫부분과 저부는 승문타날하였는데, 동체부는 횡방향에 가까운 사선 방향의 승문타날흔, 저부는 여러 방향의 승문타날이 교차하고 있다.



72.

석영혼입계 응

石英混入系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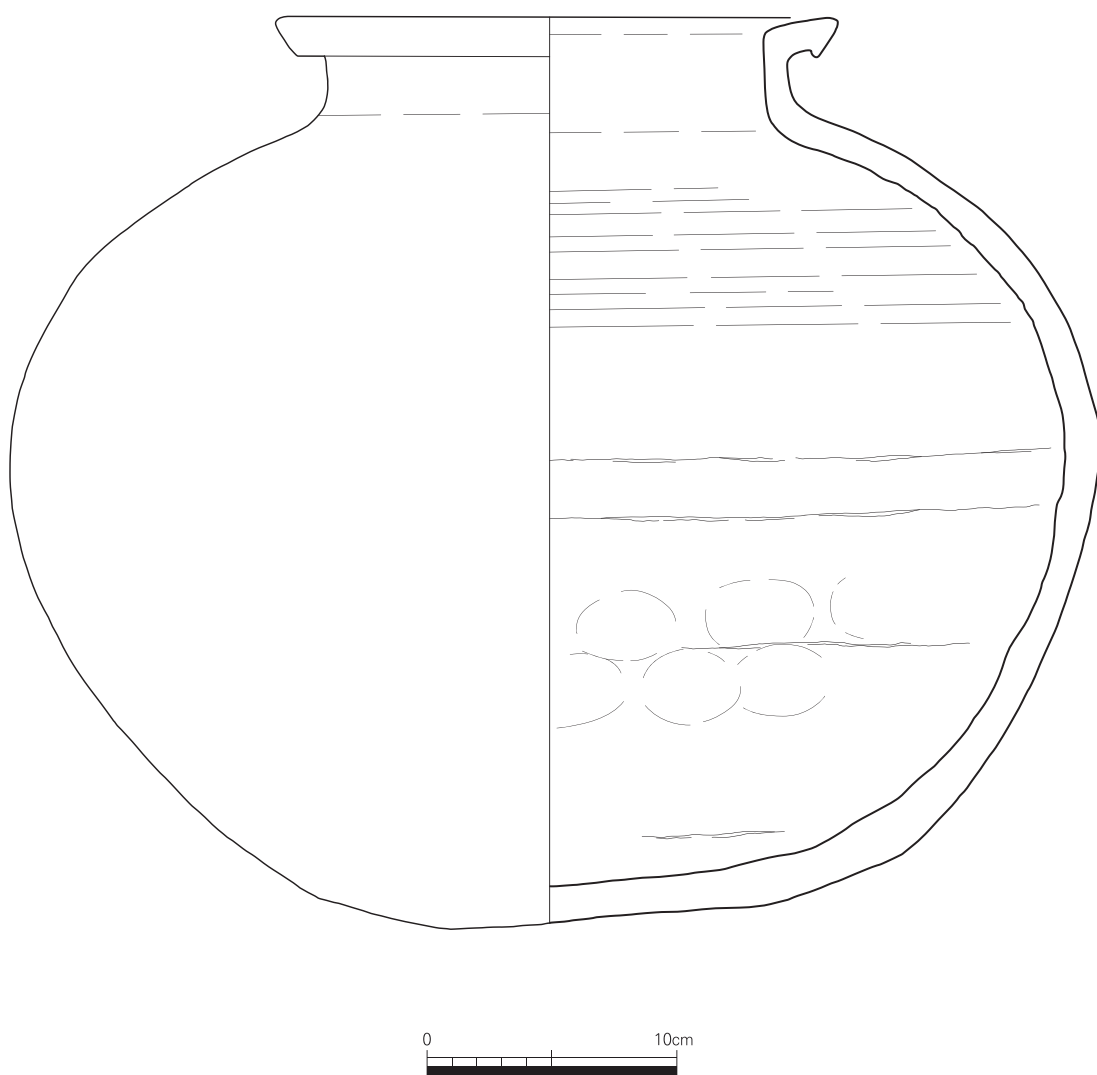
-

소장품 번호 : 본관12657

높이 36.0cm, 구경 22.2cm



도판 72. 석영혼입계 응(본관12657)



도면 47. 석영혼입계 웅(본관12657)



도판 72-1. 저부 외면의 승문타날흔

목곽과 목관 사이 북쪽 부장공간의 동북쪽 모서리에서 출토된 석영혼입계 옹이다.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으로 복원되었다. 색조는 내·외면 명황색이며, 동체부 아랫부분 일부는 회백색을 띤다. 동체부 중위와 저부 일부에는 철 부식물이 부착되어 있다. 태토는 사립이 포함된 석영혼입계 태토이다. 구연부는 밖으로 크게 꺾이며, 아래로 짧게 직립하는 경부로 이어진다. 동최대경은 동체부 중위에 위치하며, 그 아래로는 완만한 사선으로 저부로 이어진다. 저부는 원저이지만, 저부 중앙은 편평하여 말각평저에 가깝다.

표면 박리가 심해 구연부와 동체부 상부의 정면흔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동체부 내면 상부에 회전물손질로 인한 요철면이 뚜렷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볼 때 회전물손질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동체부 아랫부분의 외면에는 저부에서 약 13.0cm 높이까지 종방향의 승문타날흔이 남아 있다(참고도판 72-1). 이러한 승문타날흔은 동체부와 저부 경계면을 중심으로 단을 이룬 부분에 더 선명하게 남아 있다. 동체부 하단 내면에는 직경 3.0~4.0cm의 무문 내박자흔이 남아 있다. 저부 바닥면 중앙의 외면에는 승문타날이 아닌 동심원을 이루는 원형 선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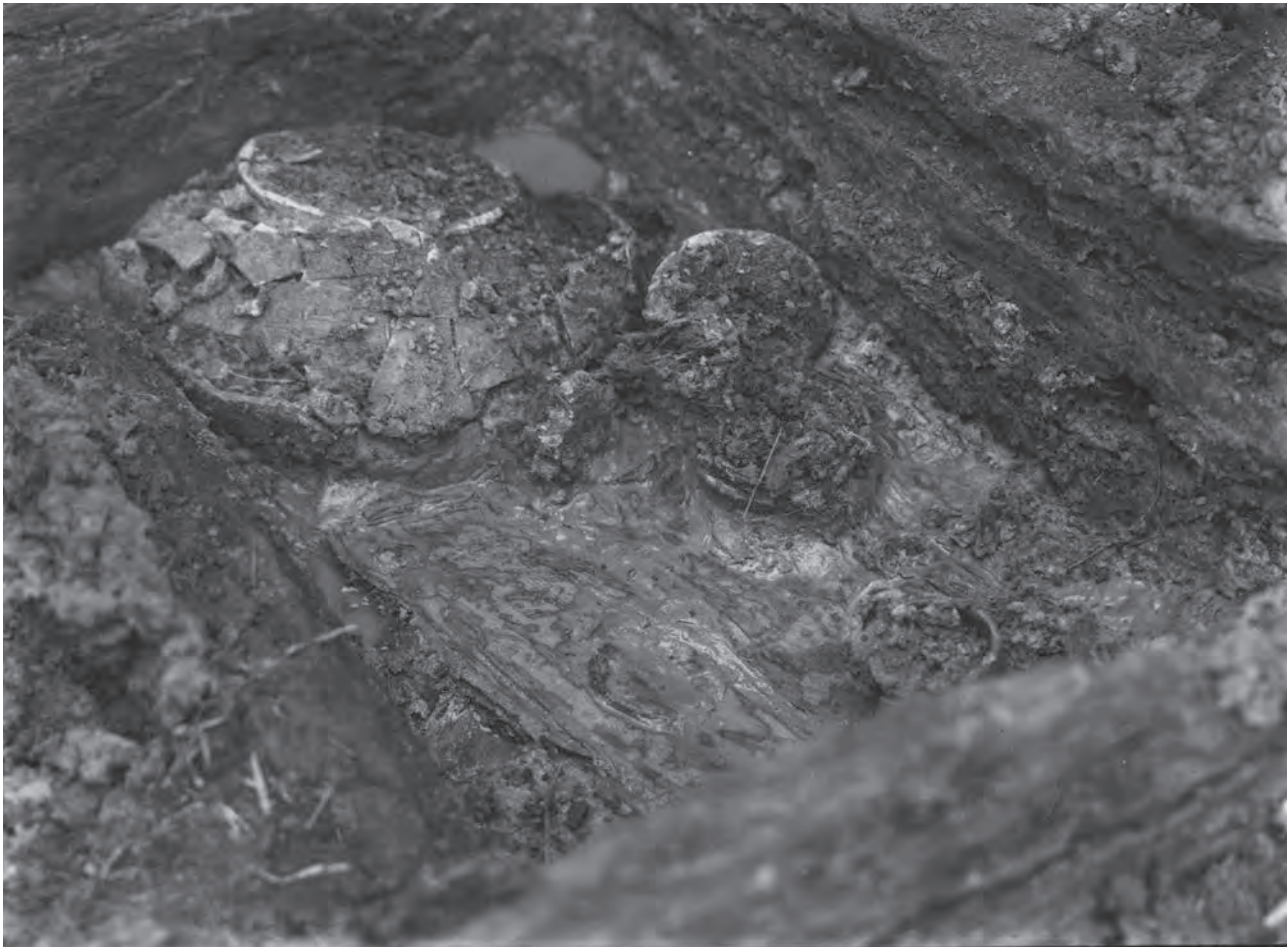
이외에도 제2곽에서는 회갈색을 띠고 외면에 타날문이 있는 호의 저부편이 출토되었다. 또, 철분으로 추정되는 철기편에 떡갈나무 잎이 몇 매 겹쳐진 채로 발견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 ③ 제3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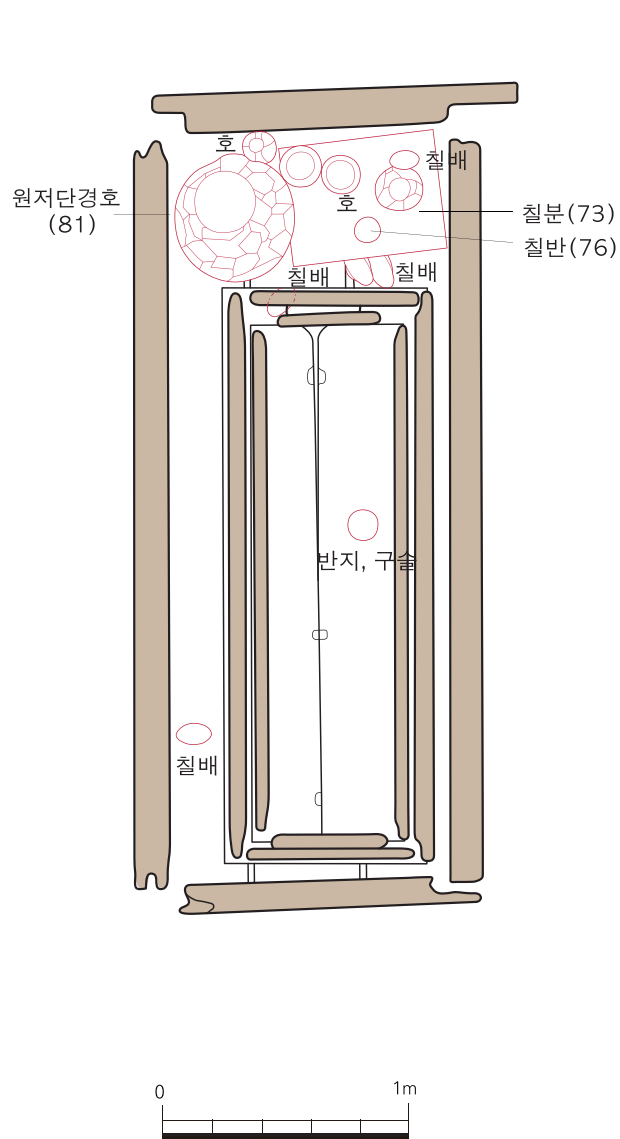
제3곽은 앞의 두 목곽과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하나 목관이 이중으로 안치되었다. 목관 안에서는 피장자의 머리 부근 및 중앙에서 구슬과 반지 등의 장신구가 다수 출토되었다. 먼저 머리 부근에서는 수정다면옥 5점, 홍마노환옥 5점, 마노다면옥 5점, 호박환옥 1점, 유리심엽형패옥(玻璃心葉形佩玉) 1점이 확인되었다. 중앙 왼쪽에는 칠립(74)이 있고 그 주변에 유리(玻璃)소옥 2점 이상·대모제조형패(瑇瑁製鳥形佩) 2점·대모제충형패(瑇瑁製虫形佩) 1점·대모제도자형패(瑇瑁製刀子形佩) 1점·대모제전형패(瑇瑁製錢形佩) 1점·마노환옥 1점·활석환 1점 등이 무리지어 있었다. 그리고 중앙에서는 유리양형옥(瑠璃羊形佩) 1점, 마노가지형옥(瑪瑙茄子形佩) 1점, 마노다면옥 1점(이상 84), 마노조옥(瑪瑙棗玉) 1점, 수정다면옥 1점, 호박다면옥 1점, 은제반지 4점(77)이 출토되었다.

목관과 목곽 북벽 사이의 부장공간에는 토기와 칠기가 확인되었다. 목곽 서벽 가까이에 원저단경호(81)를 두고 그 옆에 칠분(73)을 배치하였다. 칠분 위에는 호 3점, 칠반(76) 및 칠배를 두었다. 원저단경호와 목관 북벽 사이에 호가 있고, 목관 북벽에 칠배 2점을 나란히 놓았다. 이외에도 칠배는 목곽 서북모서리, 원저단경호 아래, 목관 아래, 목관과 목곽 서벽 사이 등 여러 지점에서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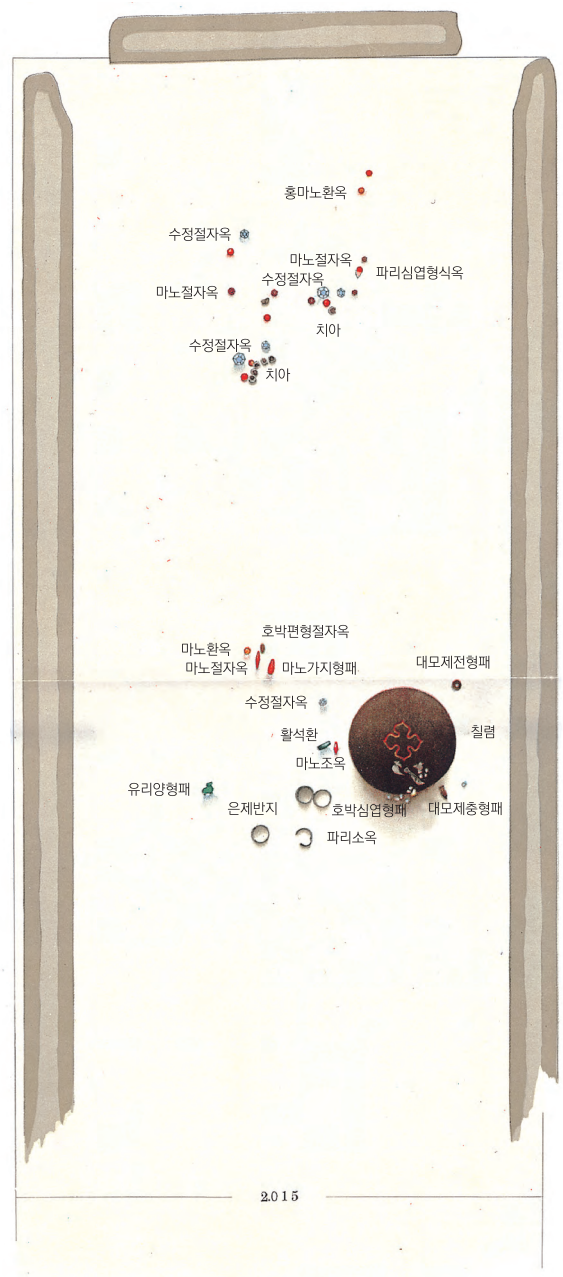


참고도판 38. 제3곽 목관과 목곽 사이 부장공간의 유물 출토 모습(건판9662)





참고도면 15. 제3곽 실측도(보고서 도판 86 재편집)



참고도면 16. 제3곽 목관 내 유물배치도(보고서 도판 103)

## 1) 칠기

73.

찰장방분

漆長方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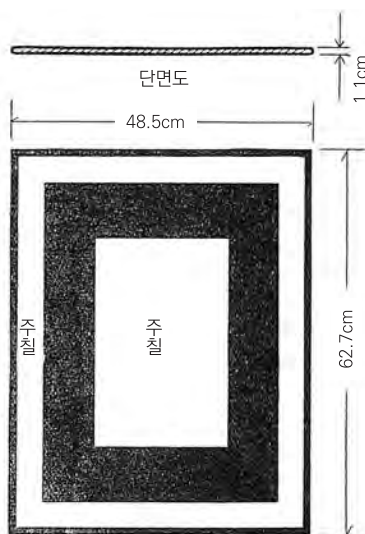
-

소장품 번호 : 본관12663

잔존길이 40.0cm



도판 73. 찰장방분(본관12663)



목관과 목곽 사이의 북쪽 공간에 부장한 것으로 파편만 확인되었다. 판상의 목재에 칠을 한 것으로, 현재 목재 바탕은 일부만 남아있고 대부분의 칠은 박락된 상태이다. 조사 당시 현장에서 그린 복원도에 의하면 전체 크기는  $62.7 \times 48.5\text{cm}$ , 두께는 1.1cm이다(참고도면 17). 앞면은 문양 없이 흑칠대와 주칠대를 번갈아 가며 돌렸고, 뒷면은 흑칠을 하였다.

참고도면 17. 찰장방분 복원도(보고서 제40도)

74.

칠럼

漆奩

-

소장품 번호 : 본관12658

⑥ 잔존길이 9.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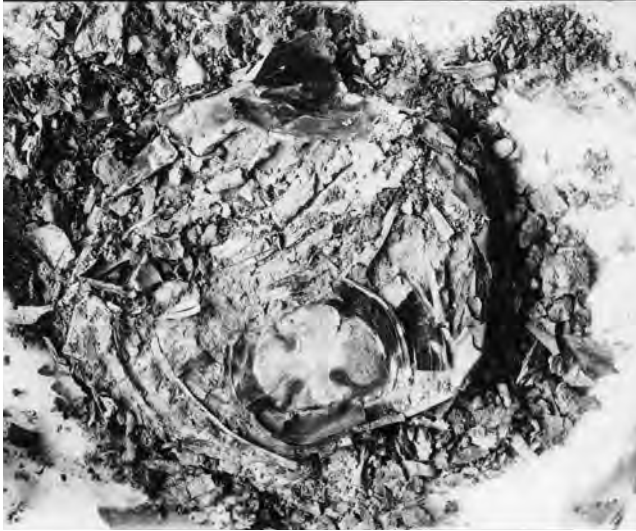
도판 74. 칠럼(본관12658, ①·④ 뚜껑, ②·③ 측면 ⑤ 현자懸子)

① ④ ⑤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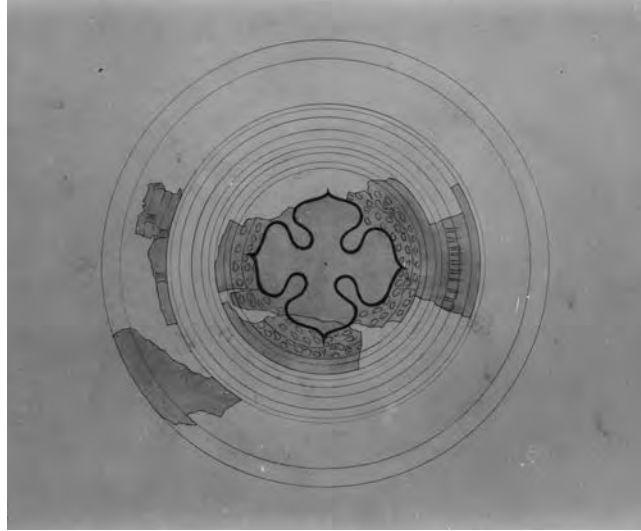
목관 내 중앙의 약간 왼쪽에서 여러 점의 구슬과 함께 발견되었다. 조사 당시에는 뚜껑과 측면편, 저부, 현판이 확인되었으나, 현재는 뚜껑과 측면편 일부, 현자만 남아있고, 목심 대부분이 부식되었다.

뚜껑(①·④)은 외면을 흑칠한 후 중앙에 사엽문장식을 붙이고 주칠로 외곽선을 따라 그렸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 장식은 떨어지고 직물만 일부 남아있다. 조사 당시의 복원도를 참고하면 사엽문장식 주변에는 일종의 조문藻文이라 표현한 타원을 뾰족하게 넣었고, 그 주변에 여러 겹의 선을 돌려 동심원을 그렸으며, 일부 동심원 사이에 침선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참고도면 18). 측면편(②·③) 역시 흑칠 바탕에 횡침선을 여러 개 긋고, 선 아래에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8자 문양과 타원을 그렸다(도판 74-1). 뚜껑과 신부에 그려진 문양은 동일한 패턴이며, 끝이 뾰족한 도구로 칠 표면을 긁어 모조毛彫로 문양을 새긴 후 붉은 색을 감입한 것으로 매우 세밀하고 정교하다.

뚜껑 아래에서 발견된 현자(⑤)는 내면 주칠, 외면 흑칠하였는데 보존 상태는 좋지 않다. 현자 아래, 저부 바닥에서는 수정다면옥 1점, 남색의 유리소옥 7점, 무색의 유리소옥 3점, 감색의 유리소옥 296점(이상 83)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 신부의 높이는 약 7.0cm이며, 바닥 내면은 주칠을 바르고, 외면은 흑칠 후 하부에 각선을 돌린 것으로 전해진다.



참고도판 39. 칠립 출토 모습(건판32593)



참고도면 18. 칠립 뚜껑의 일제강점기 복원도(건판10352)



참고도판 40. 칠립(左 현자, 右 저부)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건판10353)



도판 74-1. 문양 세부



75.

칠배

漆杯

-

소장품 번호 : 본관12664

① 잔존길이 14.8cm, 바닥크기 9.0×4.2cm



도판 75. 칠배(본관12664)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도판 75-1. 명문 세부

제3곽에서는 총 9점의 칠배가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바닥을 기준으로 9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두 목심제로, 내외면 주칠한 것이 4점, 내면 주칠·외면 흑칠한 것이 5점으로 추정된다. 바닥의 크기는 9.0×4.2cm(①), 8.5×3.8cm(③), 5.3×2.4cm(④)인 것까지 비교적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내외면 주칠한 이배 중 1점에서는 귀 뒤에 흑칠로 쓴 명문이 확인되었다(도판 75-1). 길이 1.1cm, 너비 0.7cm 가량의 장방형 곱을 구획하고, 그 안에 문자를 적었으나 어떤 글자인지 명확하지 않다.

76.

칠기편

漆器片

-

소장품 번호 : 본관12670

(下) 잔존길이 5.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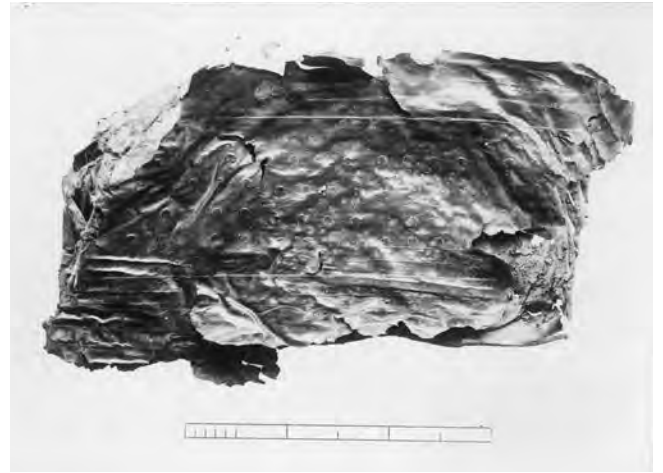


도판 76. 칠기편(본관12670)

칠반의 편으로 추정된다. 목심칠기로, 내외면에 주칠을 바르고 흑칠, 황칠로 문양을 그렸다. 문양의 형태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흑칠로 동심원을 돌리고 가장자리를 따라 황칠로 세선을 촘촘히 그려넣었다. 동심원 내부에도 흑칠의 가는 선과 흑칠과 황칠의 두꺼운 선으로 문양을 채워 넣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제3곽에서는 칠장방분(73)의 아래에서 원형 칠럼 1점이 더 출토되었으나 현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 칠럼은 높이 9.5cm로 신부가 비교적 양호했다고 한다. 원형 바닥판에 측면은 곡물曲物로 만들었으며, 바탕칠(鋪止)을 하고 안팎에 주칠을 발랐다. 측면은 3층으로 나누어 상층에는 흑칠로 여러 겹의 계선을 돌렸고, 가운데층은 황칠로 성문星紋을 4열 배치하였으며, 아래층도 여러 개의 흑칠선을 그렸다(참고도판 41). 또 바닥판의 중앙에는 흑칠로 장방형의 곁을 구획하고 그 안에 ‘李氏作’이라 적었다(참고도판 42). ‘氏’와 ‘作’은 ‘李’의 1/2 높이로 납작하게 붙여 써서 한 글자처럼 보인다. 보고서에서는 ‘李’를 제작자인지 소유자의 성인지 단언할 수 없지만 제작자에 무게를 두었다. 앞의 두씨와 마찬가지로 이씨 역시 일족으로 구성된 장인 집단이었을 것이다. 후한後漢의 청동거울에서도 ‘李氏作’ 명문을 찾아볼 수 있다.<sup>16</sup>

또 칠럼의 측면편으로 추정되는 주칠편도 출토되었다. 보고서에는 흑칠로 여러 층의 계선을 돌리고 그 안에 성문을 표현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어 위의 칠럼과 비슷한 편으로 추정된다.



참고도판 41. 측면(건판10358)



참고도판 42. 바닥판과 명문 세부(건판10357)



16 李氏作竟四夷服，多賀國家人民息，胡虜殄滅天下復，風雨時節五穀熟，長保二親得天力（廣西壯族自治區文物工作隊 1985：214）  
 (外)李氏作鏡四夷服，多賀國家人民息，胡虜殄滅天下復，風雨時節五穀熟，長保二親得天力，傳告后世樂。(內)宜子孫（洪湖革命歷史博物館 1987：1020）

## 2) 금속기

77.

은제반지

銀製指輪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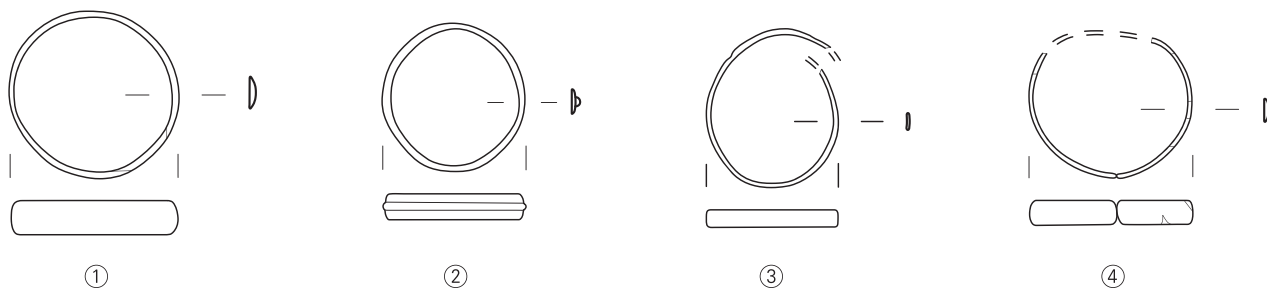
소장품 번호 : 본관12669

① 지름 2.2cm, 너비 0.5cm



도판 77. 은제반지(본관12669)

① ② ③ ④



도면 48. 은제반지(본관12669)

모두 목관 내 중앙에서 발견되었다. 은제로, 내면은 편평하고 외면은 약간 둥근 형태이다. ②는 외면 가운데에 너비 0.1cm의 금띠를 덧붙여 장식 효과를 주었다.



### 3) 토기

78.

평저단경호

平底短頸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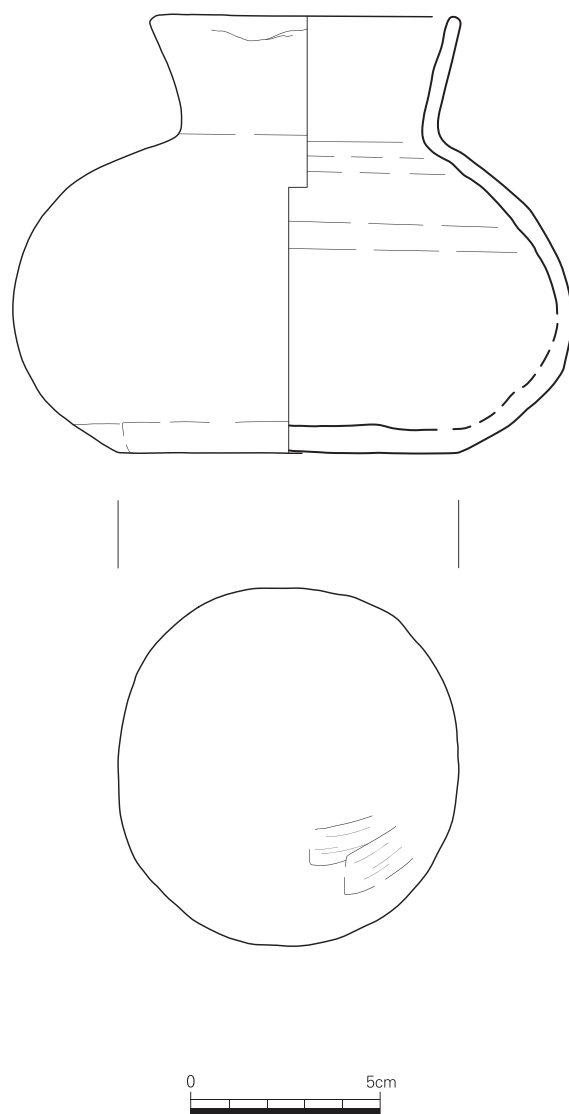
-

소장품 번호 : 본관12673

높이 11.6cm, 구경 8.0cm, 저경 9.2cm



도판 78. 평저단경호(본관12673)



도면 49. 평저단경호(본관12673)

목관과 목곽 사이의 북쪽 부장공간에서 출토된 평저단경호이다(참고도면 15). 내·외면 회색을 띠나 저부 외면의 색조로 볼 때 흑회색 색조였을 것으로 보인다. 정선된 니질계 태토로 제작되었다. 구연부 길이는 비교적 긴 편으로, 직선상으로 외반하며, 구연단부는 둥글게 처리되었다. 동체부는 아래로 눌린 편구형의 단면 형태를 띠며, 동최대경은 동체부 중하위에 위치한다.

표면 박리가 심해서 조정기법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나,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동체부 상위 내면에 회전물손질에 의한 요철면이 남아 있으며, 내저면에도 물손질에 의한 동심원상의 회전흔이 남아 있다. 동체부와 저부 접합면은 정지깎기 조정하였다. 저부 외면 역시 표면 박리가 심해 뚜렷한 제작흔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일부에서 도구로 긁어 정면한 흔적이 1.0~2.0cm 가량 남아 있다.

79.

원저단경호

圓底短頸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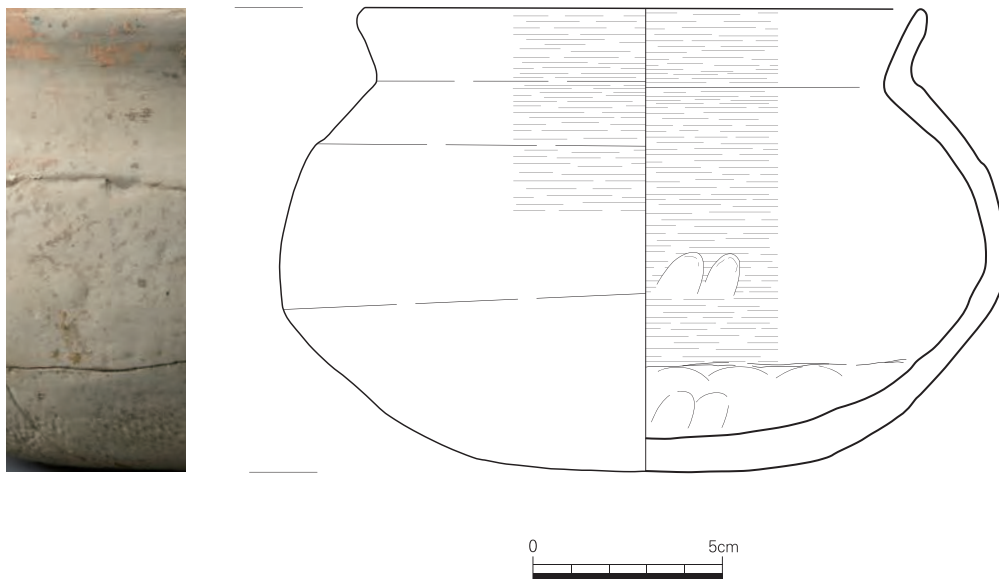
-

소장품 번호 : 본관12673

높이 12.2cm, 구경 14.8cm



도판 79. 원저단경호(본관12673)



도면 50. 원저단경호(본관12673)

목관과 목곽 사이 북쪽 부장공간에서 출토된 소형 원저단경호이다. 내·외면 모두 표면 박리가 심하고 현재는 내·외면 회백색을 띤다. 그러나 외저면 색조로 볼 때 원래의 내·외면 색조는 흑회색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선된 니질계 태토로 제작되었다. 짧게 외반하는 구연부 아래로 완만하게 꺾이며 동체부가 이어지고, 동최대경은 약간 아래로 처진 동중위에 위치한다.

구연부와 동체부 상부 외면에는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사선의 1차 승문타날흔이 남아 있으며, 구연부에서는 1차 승문타날흔 위로 강한 회전물손질흔이 확인된다. 구연부 내면에는 회전물손질흔 외에 1차 타날흔은 잘 관찰되지 않는다. 동최대경 위로 약 2.0~3.0cm 너비의 평탄면이 만들어졌으며, 그 위로 단을 이루고 내만하며 견부로 이어진다. 동체부 내면은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 정면이 이루어졌으며, 하위에서 저부 내면에는 원형 내박자흔과 지두흔이 남아 있다. 또한 동체부 하위와 저부 외면에는 승문타날이 이루어졌는데, 외저면 중앙의 승문타날흔은 눌러서 많이 지워졌다. 저부는 완전한 원형이 아닌 말각평저를 띠는데, 승문타날로 기형을 조정한 후 태토가 완전히 굳기 전 바닥에 정치하여 생긴 결과로 보인다.



80.

원저단경호

圓底短頸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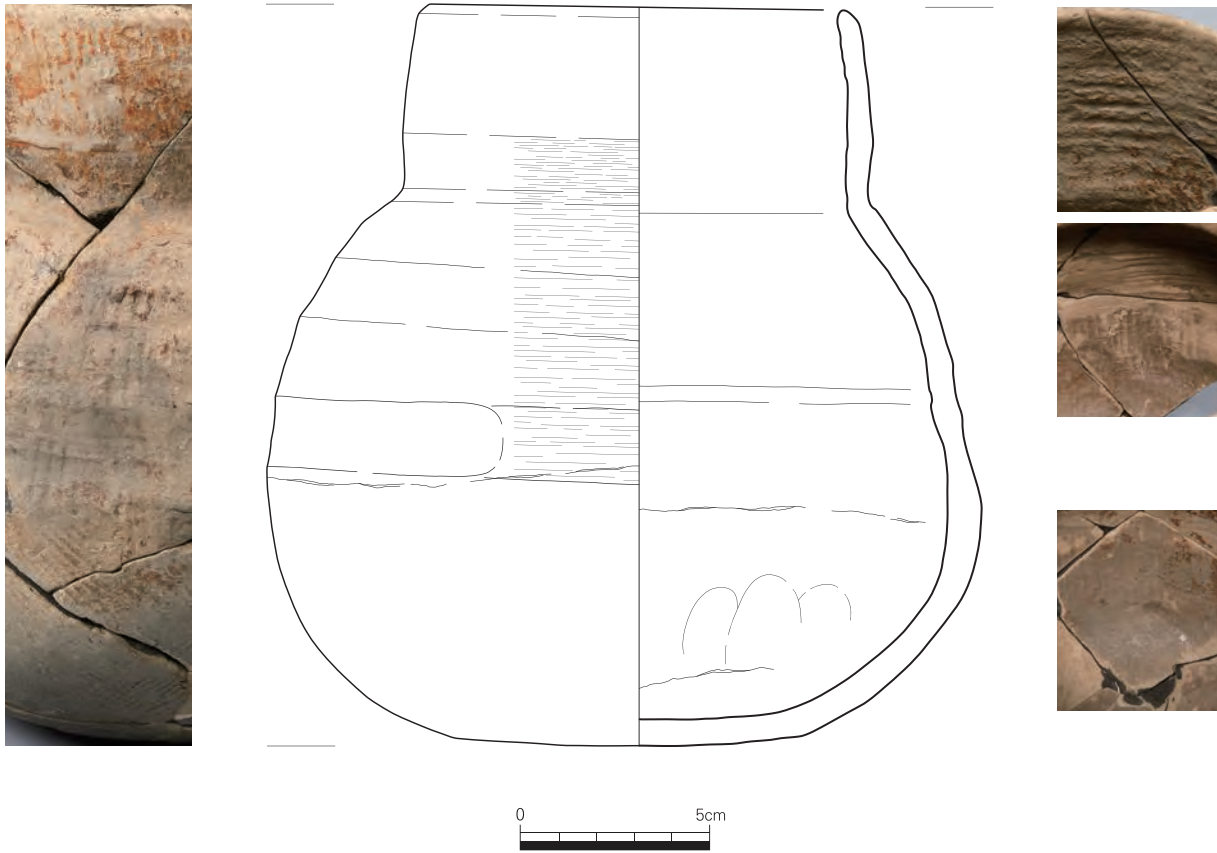
-

소장품 번호 : 본관12672

높이 19.6cm, 구경 11.0cm



도판 80. 원저단경호(본관12672)



도면 51. 원저단경호(본관12672)

목관과 목곽 사이 북쪽 부장공간에서 출토된 소형 원저단경호이다. 정선된 니질계 태토로 만들어졌으며, 색조는 내외면 회황색을 띤다. 구연부와 견부, 동체부 외면 일부에 남은 흔적으로 볼 때 토기 표면에 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구경에 비해 기고가 낮은 일반적인 소형 원저단경호와 는 기형에서 큰 차이가 있다. 비교적 긴 구연부는 불룩하게 벌어지며 올라가다가 구연단부로 가면서 다시 내만하며 오므라든다. 동체부 높이가 높아 동체부 단면형은 구형에 가깝다. 동최대경은 중하위에 위치하며, 중앙 바닥면이 편평한 원저로 이어진다.

내·외면 전체에 제작흔이 잘 남아 있다. 동최대경을 기준으로 제작기법에 차이가 있는데, 윗쪽은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 정면이 이루어졌고, 아래쪽은 승문타날하여 정면하였다. 구연부와 동체 상부에는 회전물손질흔 아래에 종방향의 1차 승문타날흔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도판 80-1). 구연부 외면에는 오른쪽 아래로 기울어진 사선 방향, 내면에는 횡방향의 1차 승문타날흔을 확인할 수 있다(도판 80-2). 동체부 중·상위의 수직방향 1차 승문타날흔은 회전물손질하여 기형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지워져 희미해졌다. 또한 외면은 물손질 과정에서 굴곡이 만들어졌으며, 동최대경 바로 윗부분이 너비 약 1.6cm로 가장 넓고 굴곡이 심하다. 동체부 중·상위 내면에는 횡방향의 평행타날이 이루어졌으며, 동최대경 아래쪽 내면에는 나이테가 선명한 목제 내박자흔이

종방향으로 잘 남아 있다(도판 80-3). 동최대경 내·외면에는 점토띠 접합흔이 있다. 동체부 하단과 저부 외면은 사선 방향으로 승문타날하였다(도판 80-4). 동체부 승문타날은 여러 방향으로 이루어졌지만, 대체로 왼쪽 아래 방향을 향하며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다. 그와 달리 저부는 수직 방향으로 겹쳐 타날하였다. 또한 외저면 경계 부분의 타날이 눌러 희미해진 것으로 볼 때, 타날 이후 태토가 완전히 굳기 전 바닥에 정치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도판 80-1. 구연 및 동체의 승문타날흔



도판 80-2. 구연 외면과 내면의 승문타날흔



도판 80-3. 내면 하단의 내박자흔



도판 80-4. 저부 외면의 승문타날흔



81.

원저단경호

圓底短頸壺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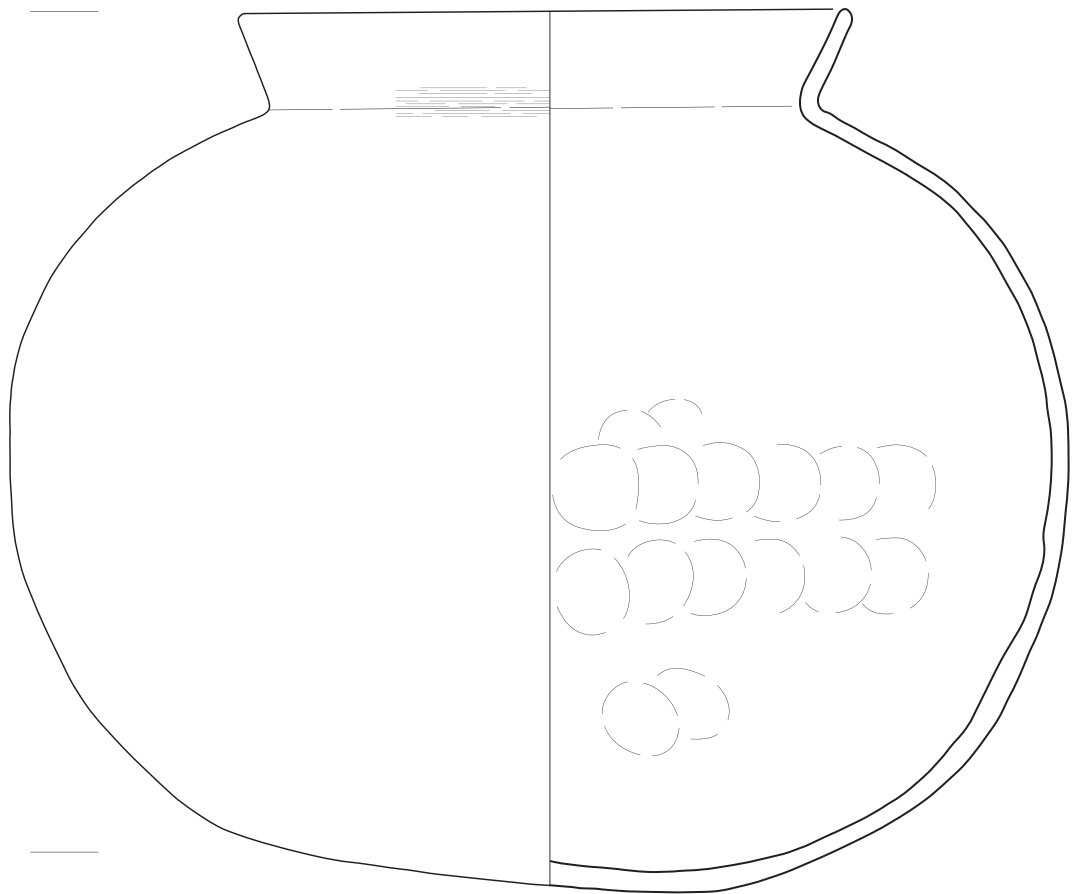
소장품 번호 : 본관12674

높이 34.8cm, 구경 23.7cm



도판 81. 원저단경호(본관12674)





도면 52. 원저단경호(본관12674)



도판 81-1. 구연 내면의 승문타날흔



도판 81-2. 저부 외면의 승문타날흔



도판 81-3. 저부 내면의 내박자흔

목곽과 목관 사이 북쪽 부장공간의 서쪽에 놓여 있었던 대형 원저단경호로, 완형으로 복원되었다. 내외면 회백색 색조를 띠고 있지만, 동체부와 저부에 부분적으로 남은 흔적으로 볼 때 표면의 원래 색조는 흑회색인 것으로 보인다. 정선된 니질계 태토로 제작되었다. 구연부는 짧게 외반하며, 편구형의 동체부로 이어진다. 동최대경은 동체부 중위에 위치하며, 둥근 저부로 이어진다. 저부 중앙 부분은 편평하게 눌렸다.

구연부와 견부 내·외면에는 1차 승문타날흔과 그 위로 회전물손질흔이 남아 있다. 외면에는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사선 방향의 1차 승문타날흔이 구연부에서 견부까지 이어지는데, 표면 박리가 심하여 정확하지는 않지만 견부는 구연부와 동일하게 1차 승문타날한 이후 회전물손질한 것으로 보인다. 구연부 내면의 1차 승문타날흔은 횡방향이다. 표면 박리가 심하여 1차 승문타날 이후 회전물손질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도판 81-1). 견부 바로 아래에서부터 동체부와 저부 전체에 승문타날하였다. 동체부에는 약 3×3cm 크기의 승문타날이 종방향과 횡방향으로 거의 겹쳐지지 않게 교차하고 있어 문양의 효과를 내고 있다. 동체부 하단에서 저부는 간격이 더 촘촘한 승문타날구로 시문하였다. 동체부 하단의 승문타날은 대체로 오른쪽 아래 방향을 향하고, 저부 바닥면은 서로 다른 방향의 승문타날이 교차하고 있다(도판 81-2). 동체부 내면에는 유문박자흔이 남아 있는데 상부에는 종방향으로, 아래에는 여러 방향으로 겹쳐진 박자흔이 내려면까지 이어진다(도판 81-3).

82.

화분형토기

花盆形土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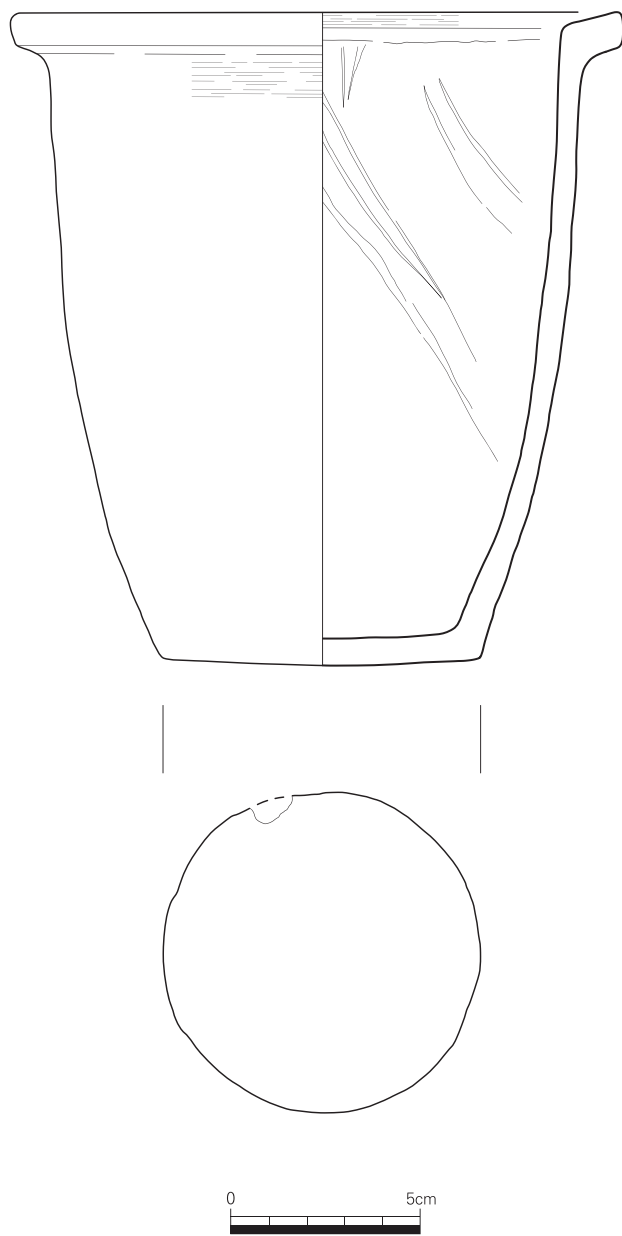
-

소장품 번호 : 본관12671

높이 17.2cm, 구경 15.8cm, 저경 8.4cm



도판 82. 화분형토기(본관12671)



도면 53. 화분형토기(본관12671)





도판 82-1. 내면의 포목흔

목관과 목곽 사이 북쪽 부장공간에서 출토된 화분형토기이다. 큰 흰색 사립 알갱이가 섞인 활석혼입계 태토이며, 내·외면 회색 색조를 띤다. 구연부는 직각에 가깝게 외반하며, 구연부 바로 아래쪽 내면에는 구연부 점토띠 접합흔이 남아 있다. 좌우대칭을 이룬 동체부는 부분적으로 굴곡은 있지만 직선에 가깝게 저부로 이어진다. 동체부와 저부 접합면은 각을 이루며 완전하게 꺾이고, 저부는 완전한 평저에 가까워 제1곽에서 출토된 화분형토기(63)와 기형이 거의 동일하다.

태토의 특성과 표면 박리로 제작과정의 흔적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구연부는 점토띠를 부착한 후 회전물손질하여 기형을 조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동체부 내면 전체에는 가는 올의 포목흔이 남아 있는데(도판 82-1), 특히 동체부 상부에 포가 많이 겹쳐져 있고, 저부 내면에도 포목흔이 남아 있어 원형틀을 거꾸로 놓고 포를 덮어씌워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단에서 하단까지 태토가 좁게 밀려 나와 돌출된 부분이 한 곳 있으며, 이는 한쪽 면이 떨어진 원형틀의 형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체부 외면에는 일정하지는 않지만 약 2.5~4.5cm 너비로 세로 방향으로 표면을 다듬은 흔적이 남아 있다. 저부와 동체부가 이어지는 외면은 확실한 경계면을 이루며 꺾여 있으나, 내면은 완만하게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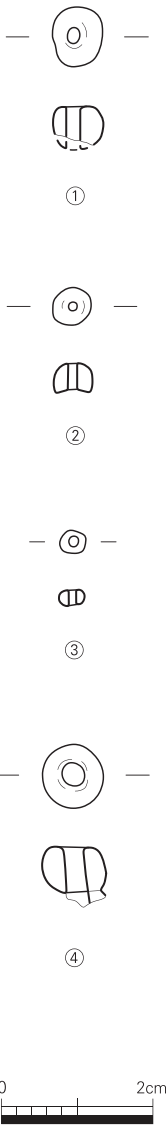
4) 구슬

83.  
유리소옥  
瑠璃小玉

소장품 번호 : 본관12660  
① 지름 0.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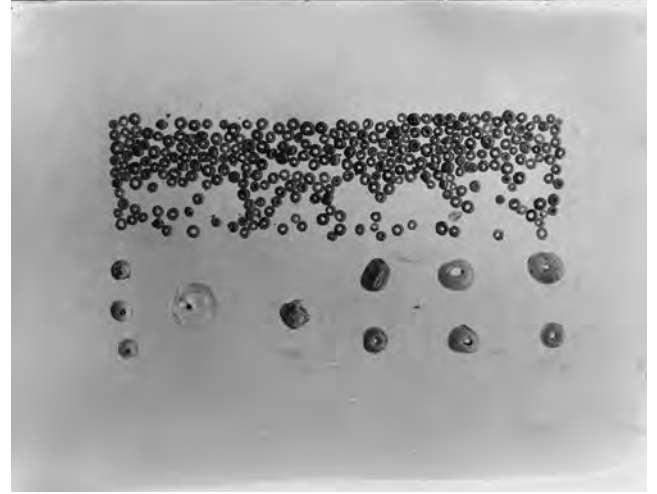
도판 83. 유리소옥(본관12660)



도면 54. 유리소옥(본관12660)



참고도판 43. 칠럼 안 유리소옥의 출토 모습(건판10355)



참고도판 44. 유리소옥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건판10356)

목관 중앙에 부장한 칠럼(74) 안 바닥에서 발견되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수정다면옥 1점, 남색 유리소옥 7점, 무색 유리소옥 3점, 암자색<sup>17</sup> 유리소옥 296점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현재 수정다면옥은 남아있지 않지만 남색 유리소옥 6점, 무색 유리소옥 2점, 암자색 유리소옥 381점 및 청색의 유리소옥 1점이 목걸이 형태로 꿰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남색 유리소옥 등의 파편도 다수 남아있다.<sup>18</sup>



도판 83-1. 유리소옥 파편

남색 유리소옥은 출토 구슬 중 가장 크기가 큰 것으로 지름 및 길이가 0.4~0.8cm 내외이며, 형태는 원형, 원통형 등 다양하다. 무색 유리소옥은 지름 0.5cm, 길이 0.3cm 내외이며 반투명하다. 암자색 유리소옥은 지름 및 길이가 0.2cm 내외의 매우 작은 구슬로, 작은 것은 0.1cm 이하인 것도 보인다. 색이 진한 것이 좀더 크며, 0.1cm 이하의 작은 것은 밝은 보라색을 띤다.

<sup>17</sup> 보고서에서는 감색紺色이라 하였으나 제1곽의 암자색 유리소옥(64)과 동일하다.

<sup>18</sup> 제3곽에서 출토된 유리소옥은 제1곽과 동일한 종류이다. 제1곽의 경우 남색 유리소옥은 보고수량보다 잔존수량이 많고, 암자색 유리소옥은 보고수량보다 잔존수량이 적다. 제3곽의 경우 암자색 유리소옥이 보고된 것보다 많고, 남색 유리소옥은 원형 수량이 비슷하나, 파편이 많이 확인된다. 흰색 유리소옥의 경우 제3곽에서 3점 출토되었다고 보고되었으나 1점이 부족하고, 제1곽에 보고되지 않은 1점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제1곽과 제3곽의 유리소옥이 섞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색		암자색		무색	
	보고 수량	잔존 수량	보고 수량	잔존 수량	보고 수량	잔존 수량
제1곽	25	39	380	270+	0	1
제3곽	7	6	296	381	3	2

84.

구슬

玉

-

소장품 번호 : 본관126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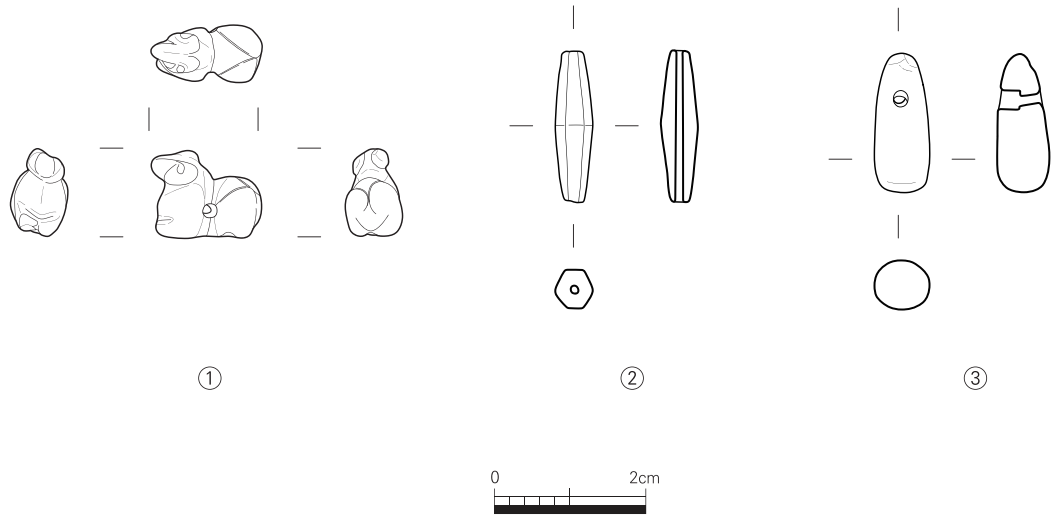
길이 ① 1.2cm, ② 2.0cm, ③ 1.8cm



①  
② ③

도판 84. 구슬(본관12668, ① 유리양형옥, ② 마노다면옥, ③ 마노가지형옥)





도면 55. 구슬(본관12668, ① 유리양형옥, ② 마노다면옥, ③ 마노가지형옥)

제3곽에서는 목관 내에서 수십 점의 다양한 구슬이 출토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이를 패옥(佩玉)이라 부르며 출토 위치에 따라 피장자의 오른손, 왼손, 목을 장식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것은 오른손 부근에서 출토된 유리양형옥, 마노다면옥, 마노가지형옥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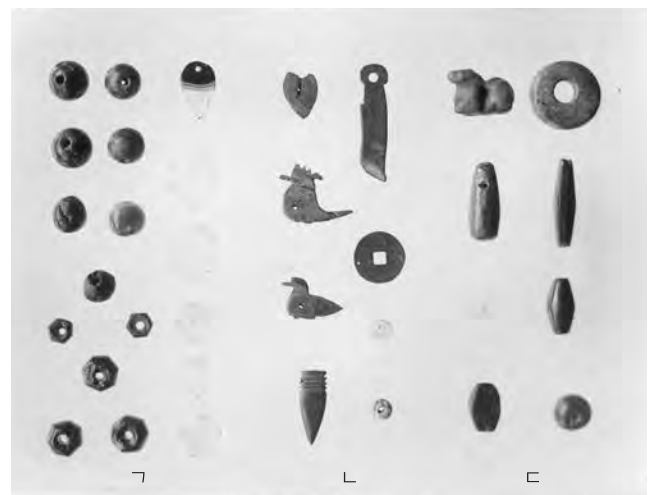
유리양형옥은 길이 1.2cm, 너비 1.5cm이고 청록색을 띤다. 측면을 관통하는 원형 구멍(지름 0.2cm)을 뚫었으며, 구멍 위아래로 홈이 있어 끈으로 묶었을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좌우가 다소 비대칭적이다.

마노다면옥은 길이 2.0cm, 최대너비 0.5cm이고 붉은색을 띤다. 매우 가늘고 긴 형태로 단면은 육각형이며 길게 관통하는 구멍을 양방향에서 뚫었다.

마노가지형옥은 길이 1.8cm, 최대너비 0.7cm이고 붉은색을 띤다. 위는 좁고 아래는 넓은 형태이다. 위쪽에 지름 0.1~0.2cm의 원형 구멍을 뚫었는데, 양방향에서 뚫어 구멍의 크기와 방향이 동일하지 않다.

이외에도 오른손 부근에서는 활석환, 마노조옥, 마노환옥, 수정다면옥, 호박편형다면옥이 1점씩 출토되었다고 보고되었다(참고도판 45-ㄷ).

한편 왼손 부근에서는 대모제도자형패 1점, 대모제전형패 1점, 유리소옥 2점, 호박심엽형패 1점, 대모제조형패 2점, 대모제충형패 1점이 출토되었다(참고도판 45-ㄴ). 또 목 부근에서는 유리심엽형식옥 1점, 수정다면옥 5점, 홍마노환옥 6점, 호박환옥 1점, 마노다면옥 5점이 발견되었으나 현재는 확인되지 않는다(참고도판 45-ㄱ).



참고도판 45. 목관 내에서 출토된 구슬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건판10361)

85.

고동의 아가미뚜껑

螺殼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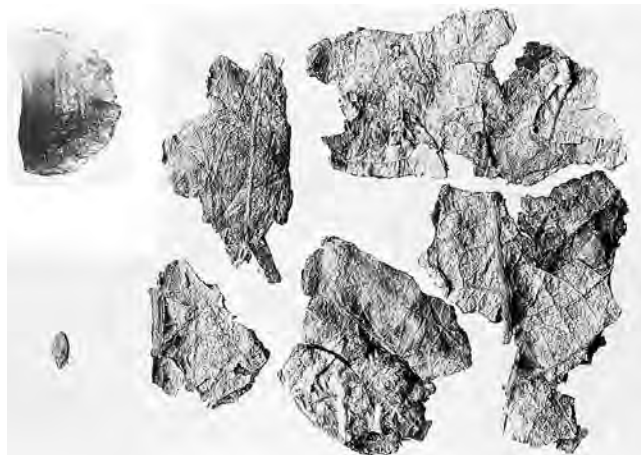
소장품 번호 : 본관12665

길이 2.3cm, 너비 3.4cm



도판 85. 고동의 아가미뚜껑(본관12665)

피뿔고둥(赤螺)의 아가미뚜껑이다. 아가미뚜껑은 패각의 입구를 덮어 안을 보호하는 것으로, 패각의 종류에 따라 재질이나 형태가 다르다. 피뿔고둥의 아가미뚜껑은 평면이 타원형에 가까우며 얇고 탄성이 있다. 석암리 205호, 채협총 등 낙랑고분에서 부장품으로 종종 발견된 바 있다. 떡갈나무 잎, 씨앗이 함께 출토된 것으로 보아 보고서에서는 떡갈나무 잎 위에 씨앗이나 피뿔고둥을 공물로 바쳤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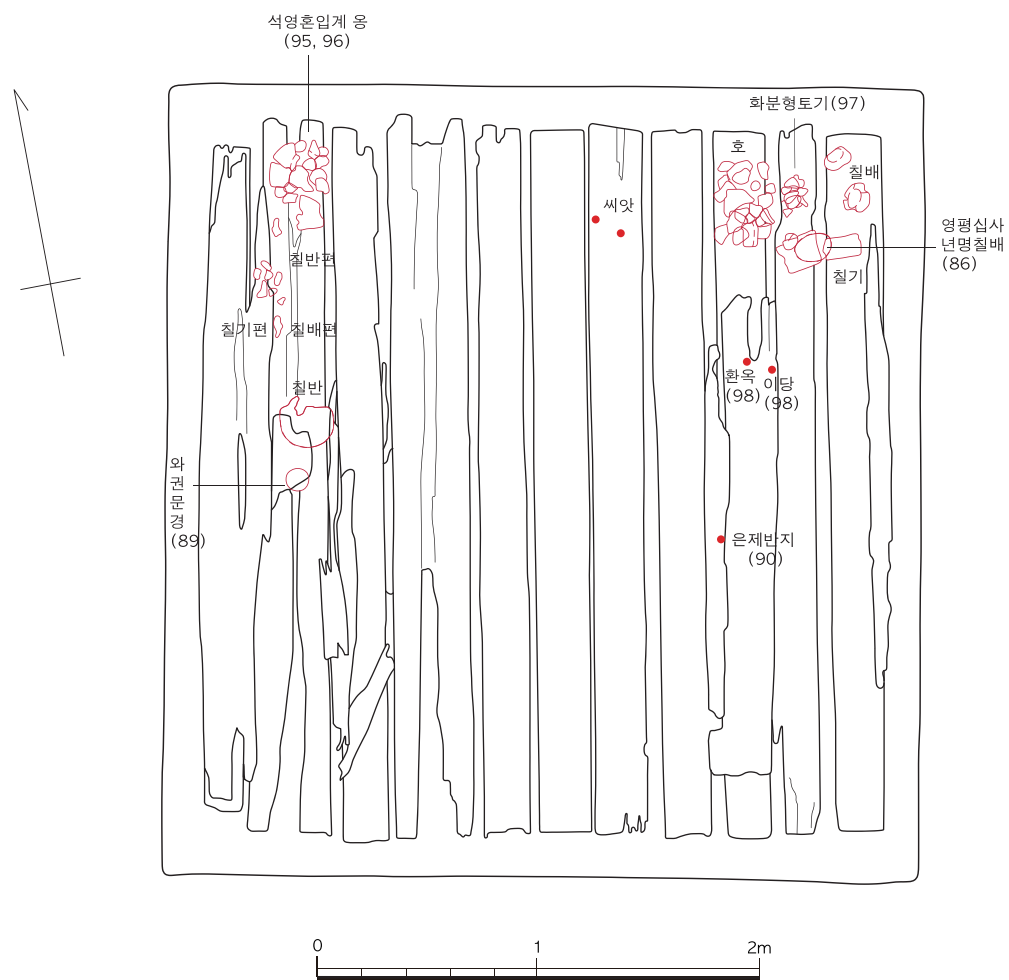


참고도판 46. 제3곽에서 출토된 고동의 아가미뚜껑과 떡갈나무 잎, 씨앗  
(보고서 도판 108-(2), (3))

#### 4. 21호분

21호분은 콘프로덕션 사택의 수도공사 중 우연히 발견되었다. 3개의 목관을 가진 목곽묘이나, 목곽 바닥을 제외한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부장품은 목관과 목곽 북벽 사이에 부장되었으나 대부분 도굴되었다. 서쪽 목관 안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와권문경(89) 및 칠반을 발견하였고, 그 북쪽에서 석영혼입계 옹(95, 96), 칠반·칠배 등의 칠기편을 확인하였다. 동쪽 목관 안에서는 은제반지(90), 이당과 환옥(98)이 한 점씩 출토하였고, 북쪽의 부장공간에서 영평십사년명칠배(86)를 비롯해 칠배, 화분형토기(97), 호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남아있지 않은 칠기 일부를 제외하면 총 13건 17점이 확인되었다.



참고도면 19. 21호분 평면도(보고서 도판 111 재편집)

## 1) 칠기

86.

영평십사년명칠배

永平十四年銘漆杯

-

소장품 번호 : 본관12680

잔존길이 17.8cm, 바닥크기 9.0×4.6cm



도판 86. 영평십사년명칠배(본관12680)





도판 86-1. 명문 세부

동쪽 목관과 목곽 북벽 사이에서 다른 칠기에 눌린 채 출토되었다. 2조각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를 합친 현재의 잔존 길이는 17.8cm이고, 바닥의 크기는 9.0×4.6cm이다. 목심저피제이며, 외면은 흑칠을 바르고 내면을 주칠을 바른 것으로 보인다. 문양은 없으나 바닥 가장자리를 따라 아래의 명문을 새겼다.

永[平十]四[年]. 蜀郡西工造. 乘輿夾[紵容一升]八合杯. 素工壽. 髹[髹]工封. 沘[漆]工常. 汭工長. 造工原. 護工掾順. 長周. 守丞惟. 掾羽. 令史方主.

영평 14년(71년) 축군 서공에서 제작한 승여협저 용량 1승 8홉 배. 소공 수, 장공 봉, 칠공 상, 월공 장, 조공 원, 호공연 순, 장 주, 수승 유, 연우, 영사 방이 주관.

\*[ ] 안의 글자는 일부 자획이 탈락된 글자 / ( ) 안의 글자는 추정 글자

명문은 예서隸書로 침각針刻했다. 내용은 제작연도-제작지-용도-재질-용량-기명-공정 담당자-감독관 순이다. ‘永平’은 후한 명제明帝(재위 57~75) 때 연호로 영평 14년은 71년이다. ‘蜀郡’은 한대 지방행정 단위인 군 가운데 하나로 오늘날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 및 그 인근 지역이다. ‘西工’은 축군 내 관영 수공업 공장이다. ‘乘輿’는 황실 소용을 의미하며 ‘俠紵’는 협저제, 즉 천을 바른 뒤 칠을 했다는 것이다. ‘一升八合’은 1승 8홉으로 해당 용기의 용량을 표시한 것이다. ‘杯’는 기명이다. 이하는 제작자를 공정에 따라 명기했다. ‘素工’은 바탕이 될 목기를 깎는 장인으로 추정되며 이름은 ‘壽’다. ‘髹工’은 목기 위에 생칠을 바르는 작업을 담당하며 이름은 ‘封’이다. ‘沘工’은 칠공漆工으로 칠 작업을 하는 장인이며 이름은 ‘常’이다. ‘汭工’은 학자에 따라 판독 및 해석에 차이가 있다. 왕중슈(王仲殊)는 ‘汭’을 ‘칠기 표면을 깔끔하게 다듬는 작업’으로 이해했고(王仲殊 1984), 세키노 다다시(關野貞)는 ‘彫’로 보고 조각 또는 문양을 넣는 작업이라고 해석했다(關野貞 1926). 하라다 요시토(原田淑人)는 ‘汭’로 판독하고 이 글자는 ‘浣’의 약자로 ‘浣’ 즉 세척의 의미로 새겼다고 주장했다(原田淑人 1926). 탕란(唐蘭)은 ‘浣’로 판독, ‘般’과 동일한 글자로 표면을 연마해 광택을 내는 작업으로 보았다(唐蘭 1980). 서공 제작 청동기 명문에도 ‘汭工’이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汭’은 연마 및 세척 등 후가공 작업의 일부였음은 분명하나 아직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汭工’의 이름은 ‘長’이다. ‘造工’은 조립을 담당하는 장인으로 이름은 ‘原’이다. ‘護工掾’은 군수가 파견한 감독관으로 공정과정의 감독, 물품의 검수와 명문 작성을 담당한다. 감독관을 먼저 기술한 전한 칠기의 경우, 장과 승 뒤에 위치하였으나<sup>19</sup> 전한 말 이후 장인의 바로 뒤로 이동했다. 다른 곳에서는 호공연 대신 호공졸사護工卒史가 나오기도 한다. 호공졸사는 군수가 파견한 관리였던 까닭에 장 앞에 두었다는 설과 직접 장인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장인과 감독관을 연결하는 위치로 이동했다는 설이 있다. 뒤로는 공관의 장관인 ‘長’ 이하 관리를 차례로 열거했다. 장의 이름은 ‘周’다. 차관은 ‘守丞’으로 이름은 ‘惟’다. ‘掾’은 실무관리로 이름은 ‘羽’다. ‘令史’는 문서 및 기록을 담당하는 관리로 이름은 ‘方’이다. 말미의 ‘主’는 이상이 주관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비슷한 시기의 칠기로 1939년 평양 정백리 200호분에서 출토된 이배가 있다. 여기에는 “永平十一年, 蜀郡西工造, 乘輿夾紵量一升八合杯, 素工武, 髹工戎, 上工翕, 汭工當, 造工大, 護工掾封, 長豐, 丞□, 掾羽, 令史疆主.”라는 명문이 있다. 영평 11년(68년)에 제작한 것이며, 오야리 21호분 출토품과 마찬가지로 축군 서공에서 제작한 승여협저칠기다. 관리 중 연掾의 이름이 우羽로 동일하다. 또한 앞에서 ‘髹工’으로 나왔던 ‘封’이 여기서는 공정과정을 검수하는 ‘護工掾’으로 나온다. 동일인인지 확정할 수 없지만, 숙련된 장인을 감독하는 하급관리로 발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sup>19</sup> 연대가 상이한 석암리 병분丙墳 출토 축군 서공 제작 칠기는 명문 내 호공졸사(연)의 위치가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漆杯: “始元二年(BC.85), 蜀西工, 長廣成, 丞何放, 護工卒史勝, 守令史毋夷, 當夫索喜, 佐勝, 髹工當, 畫工文造.”

漆盤: “永始元年(BC.16), 蜀郡西工造, 乘輿髹消畫紵黃鉞飯盤, 容一斗, 髹工廣, 上工廣, 銅鉞黃塗工政, 畫工年, 汭工威, 清工東, 造工林造, 護工卒史安, 長孝, 丞□, 掾據, 守令史通主.”

87.

칠배

漆杯

-

소장품 번호 : 본관12681

③ 잔존길이 10.2cm



도판 87. 칠배(본관1268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1호분에서는 영평십사년명칠배(86) 외에도 칠배 6점이 더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중 영평십사년 명칠배의 아래에서 출토된 3점은 목심저피제이며, 내면 주칠, 외면 흑칠을 하였다. 또 문양은 없으나 내면 바닥에서 명문이 발견되었다(①, ②, ③). ②와 ③은 흑칠(정제칠)을 이용해 비교적 굵게 썼고, ①은 그보다 획이 얇은 흑칠로 쓰여져 필체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①과 ②는 글자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모두 ‘高孝通’이라 적은 것으로 보인다. ‘高孝通’은 인명으로 보이며, 보고서는 소유자로 추정했으나 제작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판 87-1. 명문 세부(①, ②, ③)

⑦~⑨는 21호분에서 출토된 칠배 중 문양이 그려진 것이다. 대부분 결실되어 귀와 구연부 일부만 확인되었다. 목심저피제로 내면 주칠, 외면 흑칠을 하고, 외면과 귀에 주칠로 문양을 그렸다. 구연 바로 아래에는 얇은 선으로 2줄의 선을 두르고 와문을 연속적으로 그렸으며, 그 아래에는 굵은 선 3줄을 그리고 다시 여러 겹의 와문을 채워 넣었다. 문양의 대체적인 느낌은 칠기편(88)과 유사하다.



88.

칠기편

漆器片

-

소장품 번호 : 고적29093

① 잔존길이 6.8cm



도판 88. 칠기편(고적29093)

① ②

목심저피제로 내외면에 흑칠을 하고 주칠로 문양을 그렸다. 작은 편만 남아있으나, 위아래 선을 돌리고 그 사이에 와문을 그리거나, 여러 겹의 선을 뾰뚱하게 채워 문양을 그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에는 이 유물의 사진이 실려있지 않으나 칠막 뒤편에 '梧野里 二一號'라 목서가 쓰여있고, 보고서의 기술과 비교해보면 '칠반잔결'로 보고된 유물로 추정된다.

## 2) 금속기

89.

와권문경

渦圈文鏡

-

소장품 번호 : 본관12675

지름 9.7cm



도판 89. 와권문경(본관12675)



도면 56. 와권문경(본관12675)

와권문경渦圈文鏡으로 중앙에 반구형의 뉴가 있고, 뉴공은 반원형이다. 뉴좌와 주문대 사이에 원권대를 돌렸으며, 그 외곽에 4유乳를 사방에 배치하고 그 사이에 와상문을 두 개씩 넣었다. 4유와 와상문 사이에는 움직이는 듯하게 3-3-2개의 침선을 그려 넣었다. 와상문의 크기나 모양이 다른 것으로 보아 거푸집에 손으로 문양을 그린 만형법挽型法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곽에는 즐치문이 있고, 주연부에 거치문과 외주돌선이 있다. 후한경으로, 이와 유사한 와권문은 퇴화된 박국경에서 자주 확인된다.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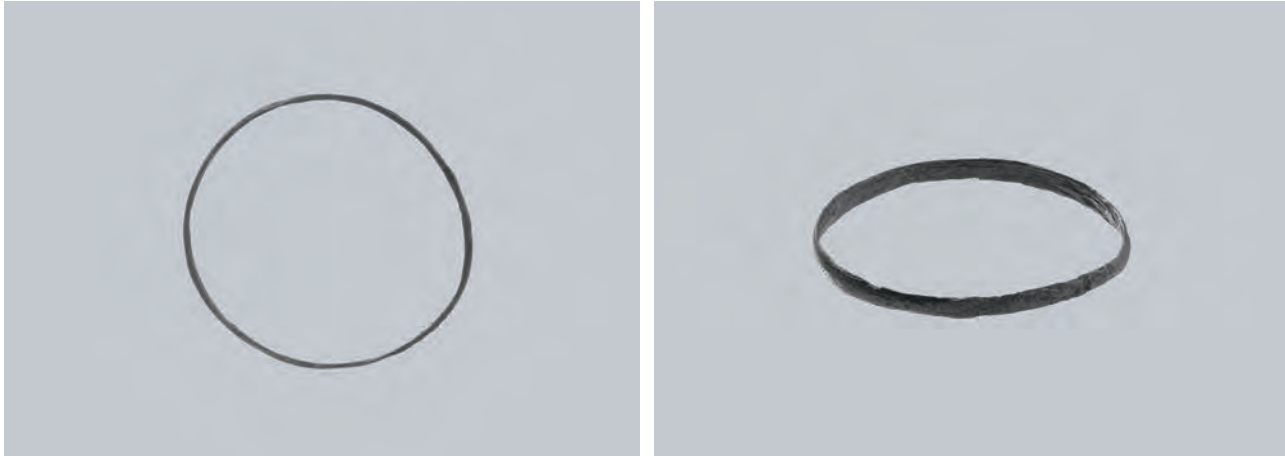
은제반지

銀製指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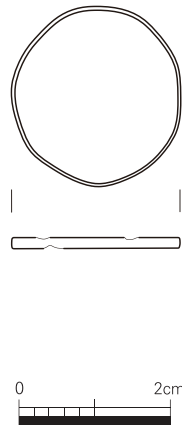
-

소장품 번호 : 본관12676

지름 2.2cm, 너비 0.15cm, 두께 0.05cm



도판 90. 은제반지(본관12676)



도면 57. 은제반지(본관12676)

가장 동쪽에 위치한 목관의 안에서 발견되었다. 출토 위치로 보아 피장자의 오른손에 끼워졌을 가능성이 있다. 매우 얇으며, 내면은 편평하고 외면은 둥글어 단면 반원형이다.



### 3) 토기

91.

평저호

平底壺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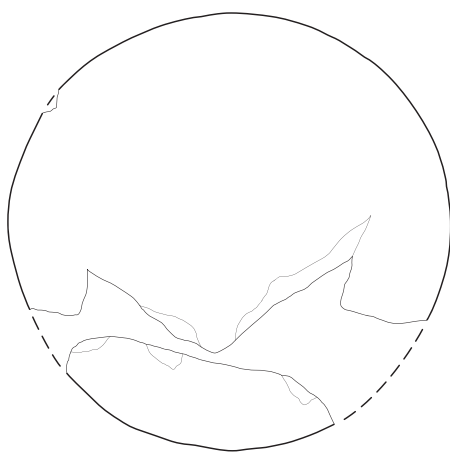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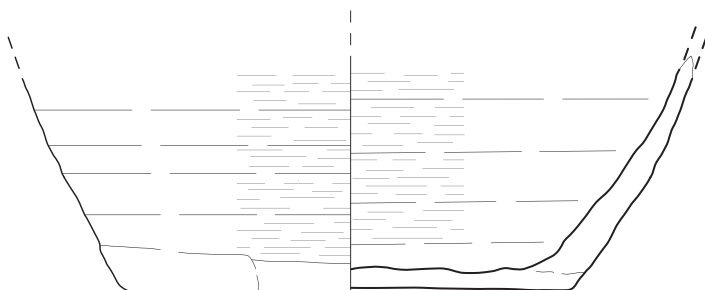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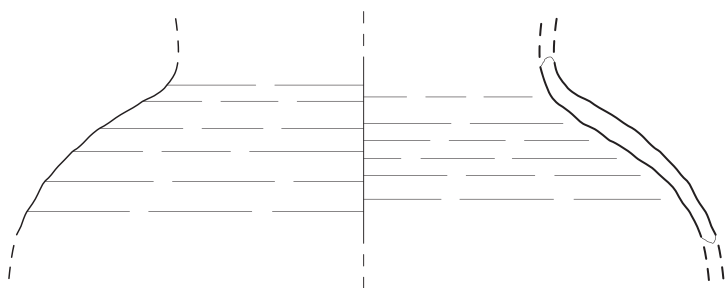
소장품 번호 : 본관12684

저경 11.8cm



①  
②  
③

도판 91. 평저호(본관12684, ① 견부, ② 동체부, ③ 저부)



도면 58. 평저호(본관12684))



도판 91-1. 저부 내면 세부

저부와 동체부 일부가 잔존한 평저호이다. 구연부가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기형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기고와 동체부 형태로 볼 때 평저단경호일 가능성이 있다. 내외면과 속심은 회색 색조를 띠는데, 부분적으로 남은 흔적으로 볼 때 외면에 흑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동최대경은 동체부 중위에 위치한다.

내·외면 표면 박리가 심한 편인데, 잔존하는 동체부 내·외면에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에 의한 요철면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특히 내저면에 동심원상의 물손질흔이 강하게 남아있다(도판 91-1). 단면에서 저부 바닥면과 동체부 접합 접합흔이 확인되며, 동체부와 저부 접합면은 정지깎기 조정하였다. 외저면에는 정지사절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92.

평저호

平底壺

-

소장품 번호 : 본관126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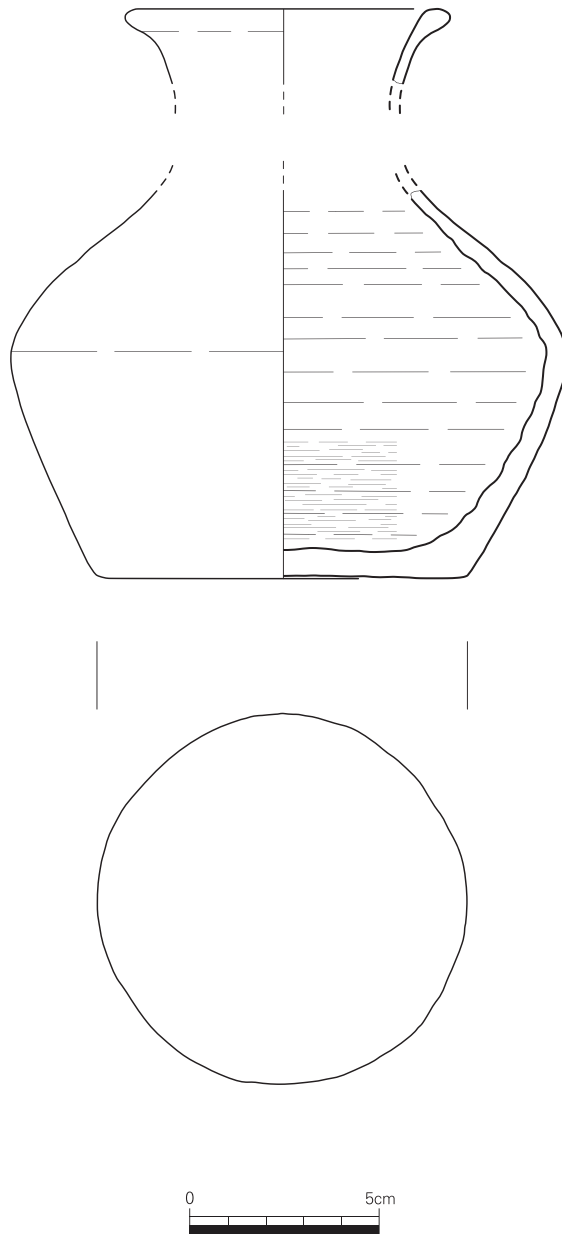
구경 8.0cm, 저경 9.8cm



①  
②  
③

도판 92. 평저호(본관12684, ① 구연부, ② 동체부, ③ 저부)





도면 59. 평저호(본관12684)

구연부 일부와 동체부, 저부가 남은 평저호이다. 동체부에서 견부로 꺾이는 정도와 좁은 경부 직경을 고려하면 평저장경호일 가능성이 있다. 동글게 처리된 구연단부에서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경부로 이어지고, 동체부 중위에 위치한 동최대경에서 단을 이루고 꺾이면서 저부로 이어진다.

외면의 표면 박리가 심해 제작기법과 관련한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동체부 내면에는 회전물손질에 의한 요철면이 남아있다. 외저면에도 사절흔과 같은 제작흔이 박리로 인해 남아있지 않다. 다만 동체부와 저부 경계면에 일정한 폭을 가진 단의 흔적이 있어 꺾기 조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93.

토기 구연부편

土器口緣部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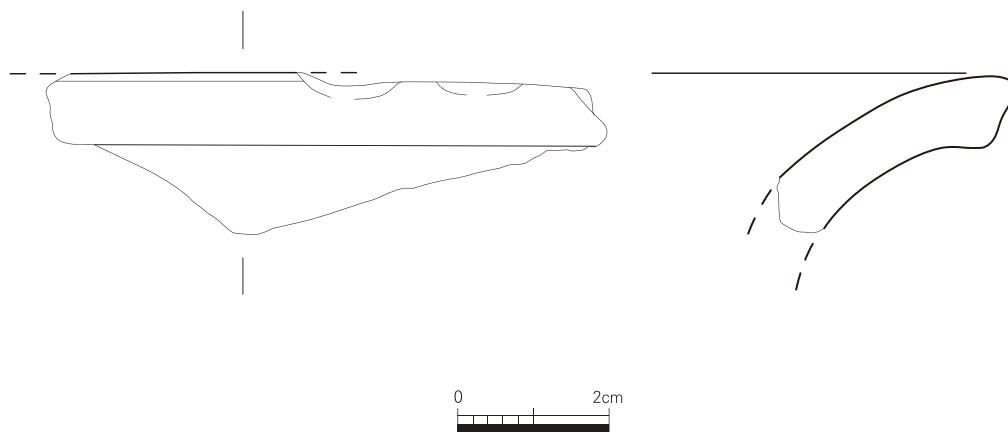
-

소장품 번호 : 본관12684

잔존높이 2.1cm



도판 93. 토기 구연부편(본관12684)



도면 60. 토기 구연부편(본관12684)

토기 구연부편이다. 외반도와 태토 등으로 볼 때 평저호 구연부편일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내외면 회색 색조이며, 니질계 태토로 제작되었다. 표면 박리가 심하여 제작기법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94.

석영혼입계 응

石英混入系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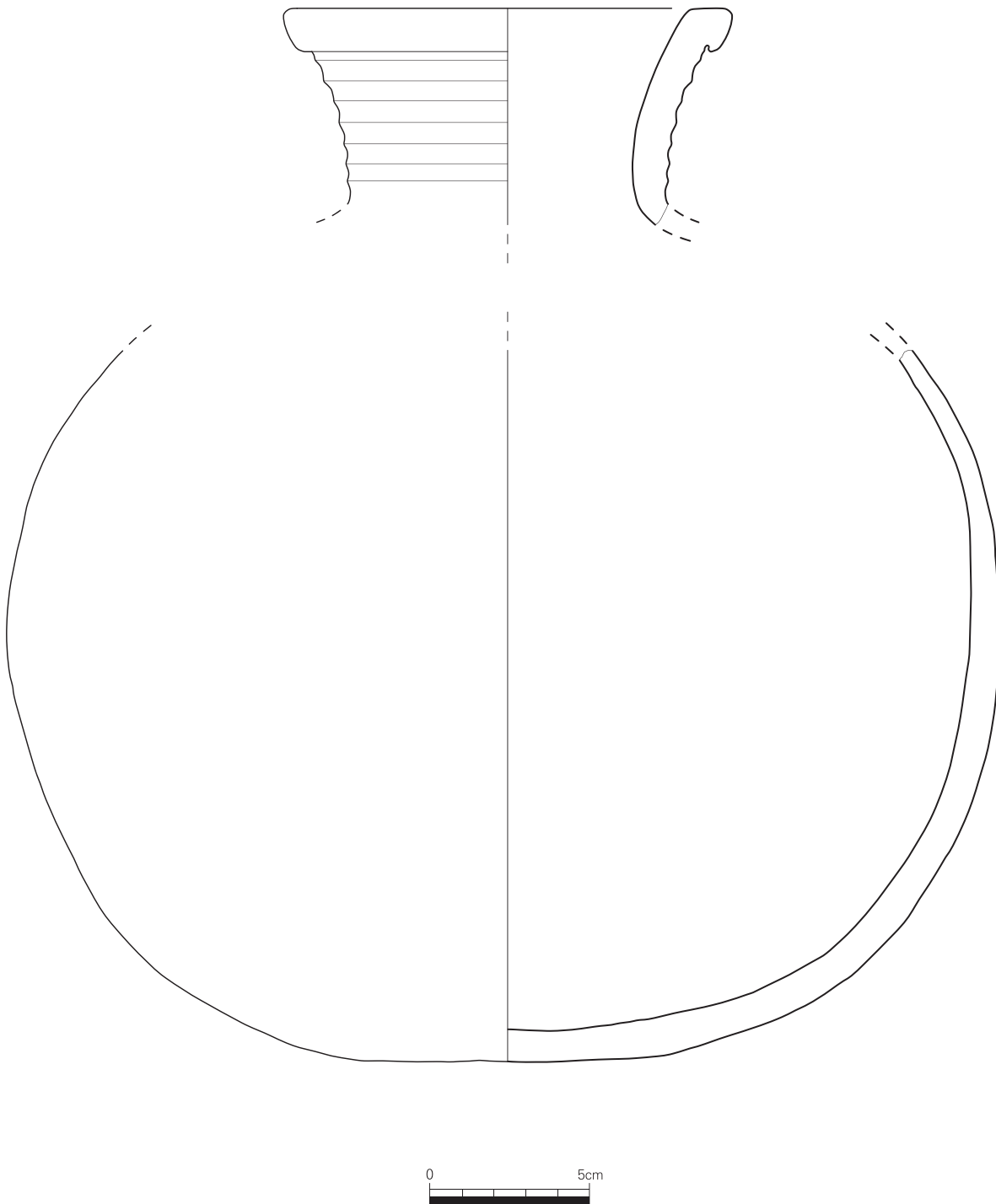
소장품 번호 : 본관12683

구경 13.6cm



도판 94. 석영혼입계 응(본관12683, ① 구연부, ② 동체부 및 저부)

①  
②



도면 61. 석영혼입계 웅(본관12683)





도판 94-1. 저부 세부

구연부 일부와 동체부, 저부가 잔존한 석영혼입계 용이다. 외면은 회백색, 내면과 속심은 적색 색조를 띤다. 굵고 거친 석사립 다량 혼입된 석영혼입계 태토로 제작되었다. 구연부는 좁고 외반하는 경부 아래로 구형의 동체부가 이어지는 형태이다. 구연단부 위부분은 너비 약 1.2cm 정도로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구연단부는 바깥으로 꺾여 말려 들어간 형태이다. 경부의 길이가 길며, 외면 최소 7조 이상의 돌대를 반복적으로 돌렸다. 동최대경은 동중위에 위치하며, 바닥은 원저인데 바닥 중앙 부분은 약간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내·외면 및 단면의 표면 마모가 심하여 제작흔을 자세하게 관찰할 수 없다. 외저면 전체에 희미한 타날흔이 남아있다. 저부와 동체부 경계면에는 올이 있는 끈으로 만든 토아리 위에 토기를 올려놓은 흔적이 있으며, 저부 중앙에는 희미한 승문타날흔이 남아있다(도판 94-1).

95.

석영혼입계 옹

石英混入系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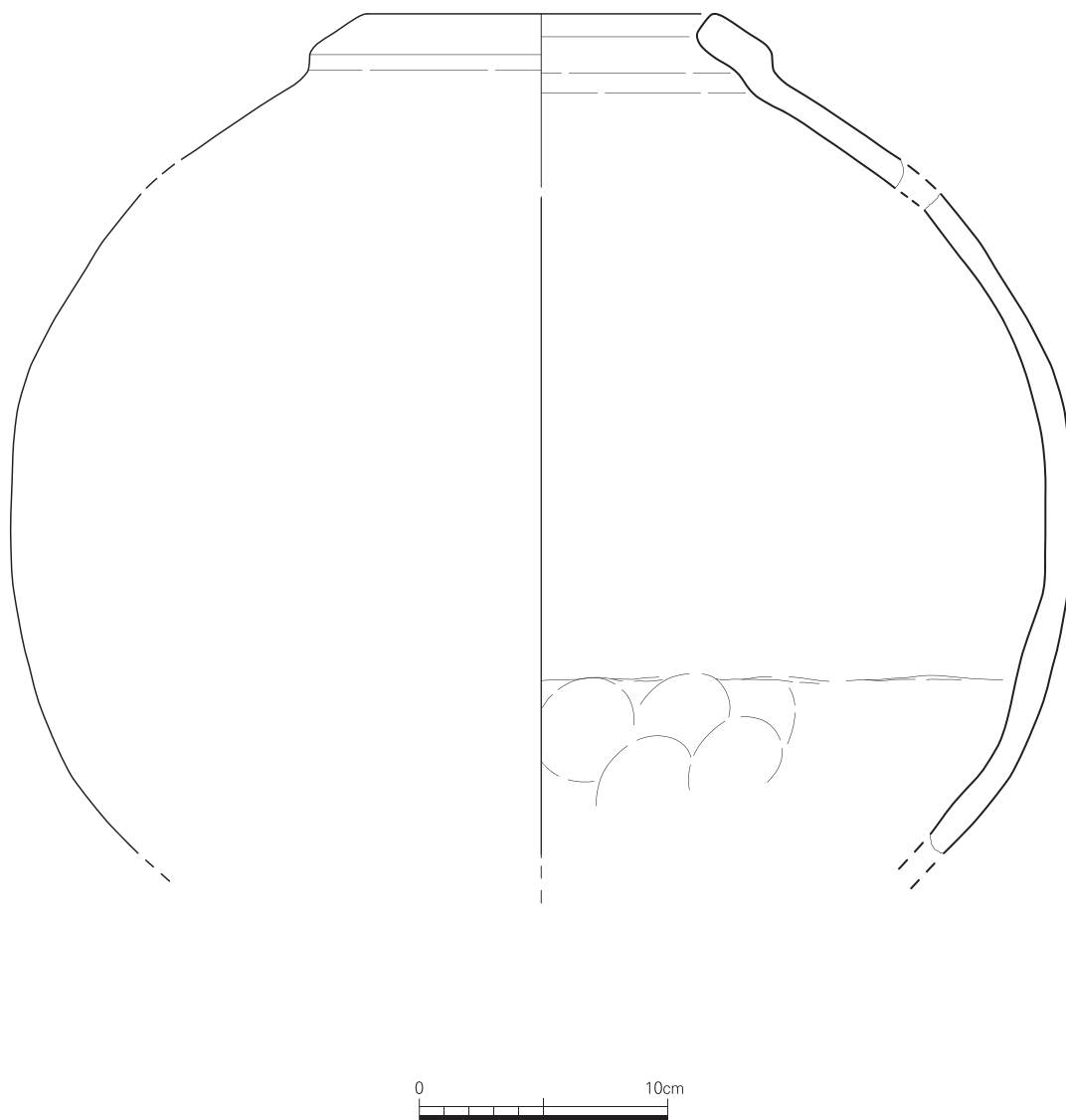
소장품 번호 : 본관12682

구경 14.1cm, 잔존높이 33.6cm



도판 95. 석영혼입계 옹(본관12682, ① 구연부, ② 동체부)

①  
②



도면 62. 석영혼입계 웅(본관12682)

제3목관과 목곽 벽 사이의 북쪽 공간에서 출토된 석영혼입계 웅이다.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았으나, 도상 복원 가능하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황색 색조를 띤다. 석사립이 많이 혼입된 석영혼입계 태토로 제작되었다. 구연부 단면이 “S”자형인 내만구연 웅이지만, 동일한 형태의 일반적인 토기에 비해 구연부 내·외면의 꺾임이 두드러지지 않으며, 전체적인 크기가 작다. 동체부의 단면 형태는 구형에 가까우며, 저부는 결실되어 정확한 양상을 확인할 수 없다. 표면 박리가 심하여, 제작흔이 거의 확인되지 않으나, 동체부 하단 내면에 무문의 원형 박자흔이 일부 확인된다.



96.

석영혼입계 웅

石英混入系甕

-

소장품 번호 : 본관12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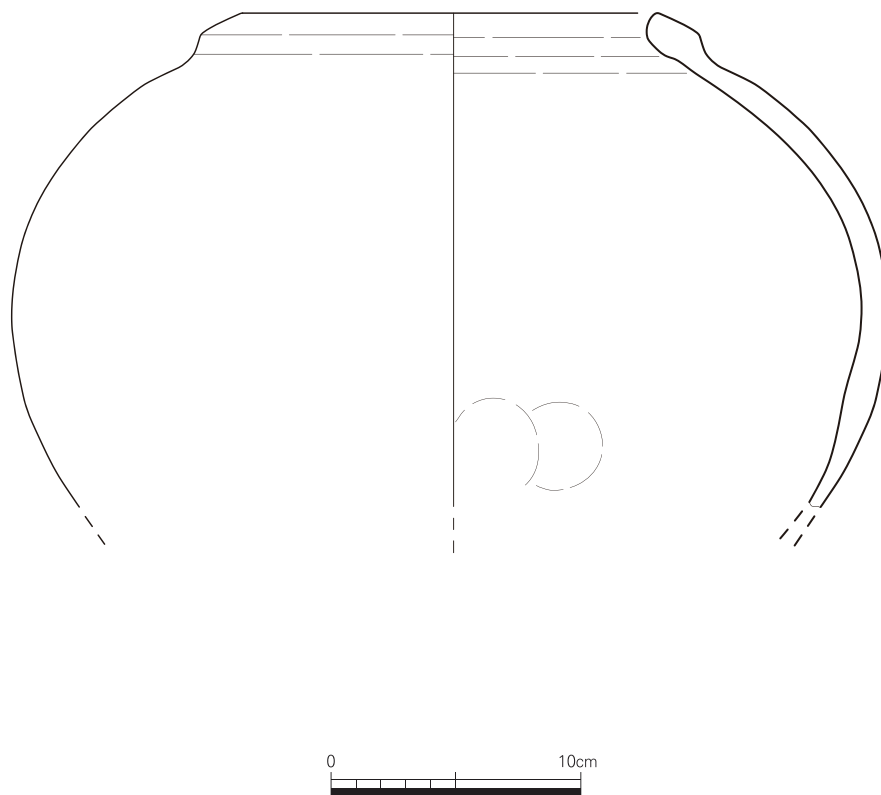
구경 16.5cm, 잔존높이 19.5cm



①  
②

도판 96. 석영혼입계 웅(본관12682, ① 구연부, ② 구연 및 동체부)





도면 63. 석영혼입계 옹(본관12682)

제3목관과 목곽 벽 사이의 북쪽 공간에서 출토된 석영혼입계 옹이다.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았으며, 전체적인 형태나 크기 등은 함께 출토된 석영혼입계 옹(95)과 거의 동일하다. 내외면 회황색을 띠며, 석립이 다량 섞인 석영혼입계 태토로 제작되었다. 구연부 단면이 “S”자형인 내만구연 옹이지만, 구연부 내면의 단은 두드러지지 않으며 거의 직선화 되었다. 동체부 단면형태는 종방향으로 눌린 편구형을 띤다. 표면 박리가 심해 제작기법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동체부 하위 내면에는 원형의 무문 내박자흔이 일부 확인된다.

97.

화분형토기

花盆形土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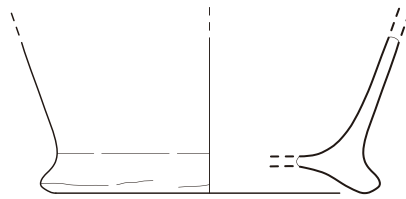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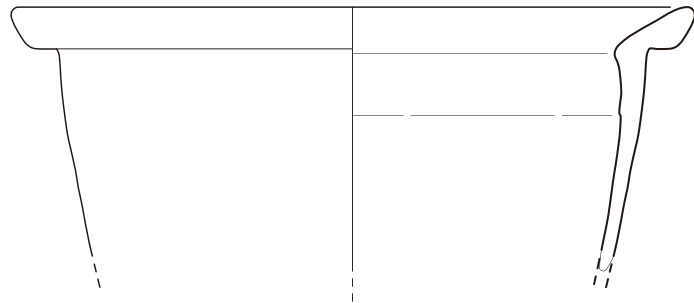
소장품 번호 : 본관12685

구경 17.8cm, 잔존높이 11.2cm



도판 97. 화분형토기(본관12685)

제1목관과 목곽 사이 북쪽 공간에서 출토된 화분형토기이다. 구연부와 저부 굽 일부가 남아 있으며, 도상으로 복원 가능하다. 내외면 적갈색 색조를 띠며, 사립이 다량 혼입된 활석혼입계 태토로 제작되었다. 밖으로 크게 꺾이는 짧은 구연부에서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동체부로 이어지며, 저부 바닥에는 굽이 달렸다. 표면 박리가 심하여 포목흔을 포함한 제작흔은 확인하기 어렵다.



도면 64. 화분형토기(본관12685)

#### 4) 구슬

98.

유리이당과 환옥

耳瑠, 丸玉

-

소장품 번호 : 본관12677, 126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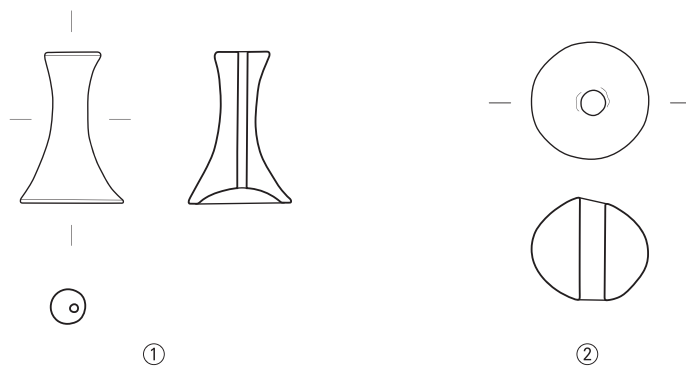
① 높이 2.2cm, 지름 0.8~1.5cm

② 높이 1.4cm, 지름 1.65cm



도판 98. 이당과 환옥(① 본관12677, ② 본관12678)

①  
②



도면 65. 이당과 환옥(① 본관12677, ② 본관12678)



동쪽 목관 안에서 출토되었다. ①은 남색의 이당으로 가운데가 잘록하며, 윗면은 편평하고, 아랫면은 오목하다. 지름 0.1cm 가량 중앙을 관통하는 구멍을 양쪽에서 뚫었다. 보고서에는 유리(玻璃) 재질로 추정하였으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유리질 광물로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흑요석으로 추정된다. ②는 청록색의 유리제환옥이다. 중앙에 지름 0.4cm의 구멍을 관통시켰다. 전체적으로 잔기공이 많고 균열도 확인된다.

이외에도 21호분에서는 아주까리(蓖麻)의 씨앗으로 추정되는 것이 출토되었으나 현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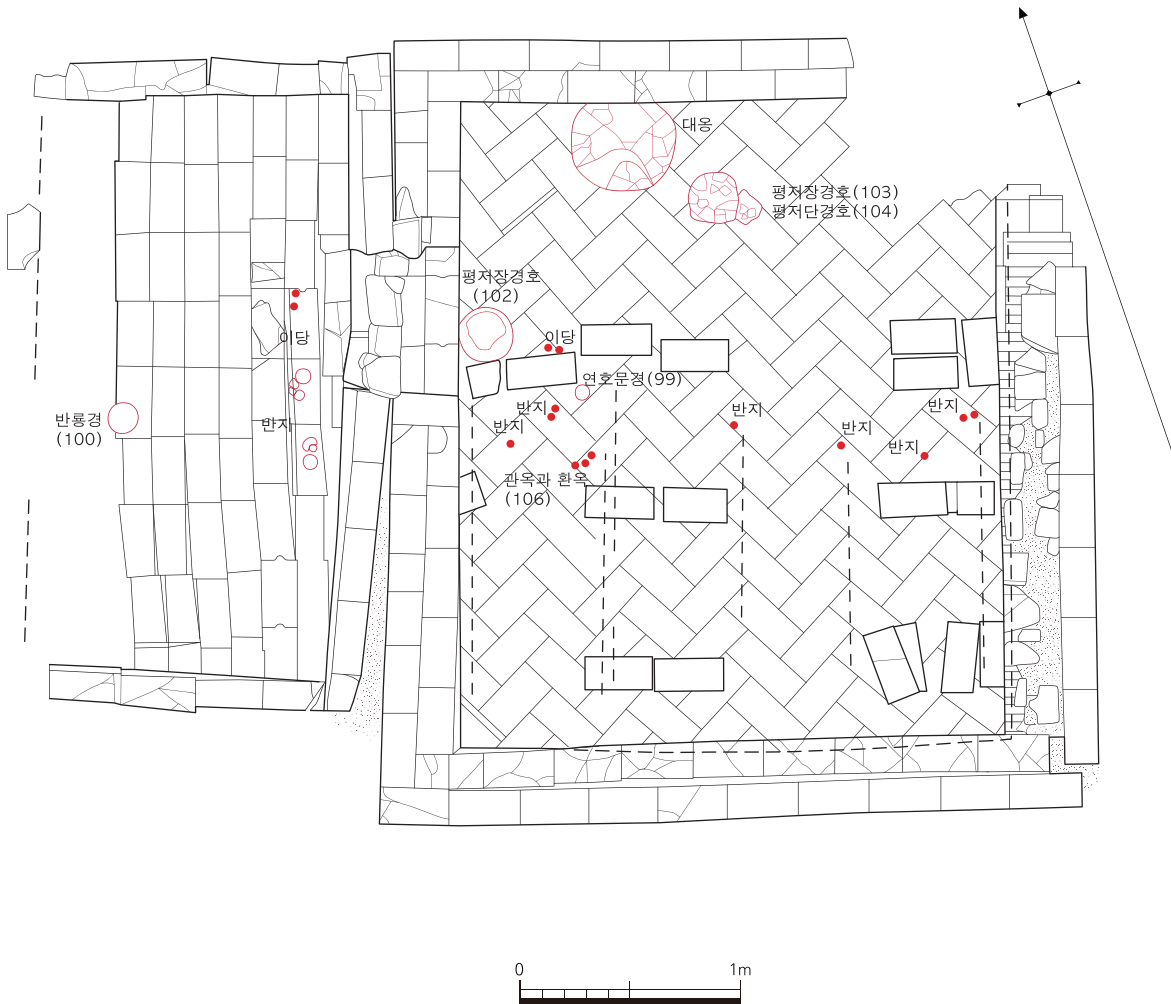
참고도판 47. 21호분에서 출토된 씨앗(건판26876)

## 5. 25호분

25호분은 1937년 오야리 채토장에서 발견된 전실묘이다. 주실 및 서쪽의 측실로 이루어진 2실묘이며, 측실 서벽은 결실되었다. 동경, 반지, 구슬, 토기 등 8건 26점이 출토되었으나 토기 1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실에는 총 3개의 목관이 부장되었다. 목관은 남벽 가까이 위치하여 목관과 북벽 사이의 공간이 비교적 넓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는 회백색 대웅과 평저장경호(103), 평저단경호(104)가 출토되었다. 또 주실과 측실을 연결하는 통로 앞에는 평저장경호(102)가 놓여있었다. 조사 전 도굴된 회백색의 원저호 1점도 이곳에 부장되었던 것이라고 한다. 서쪽 목관에서는 이당 한 쌍(105), 반지(101-②,③), 관옥과 환옥(106) 등의 장신구와 연호문경(99)이 부장되었다. 중앙 및 동쪽 목관에서는 은제반지가 각각 2점, 3점(101-④) 출토되었다.

측실에서는 통로 주변에서 이당과 부수식옥 한쌍(105), 은제반지 3점(101-①)이 발견되었고, 중앙부에 반룡경 1점(100)이 확인되었다.



## 1) 금속기

99.

연호문경  
連弧文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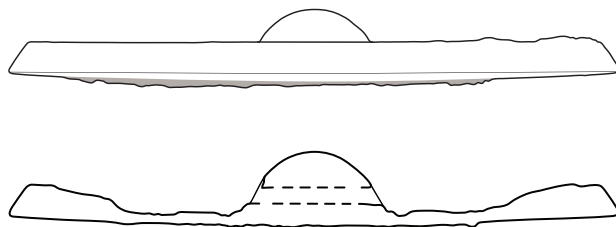
-

소장품 번호 : K347

지름 10.1cm



도판 99. 연호문경(K347)



 : 직물



도면 66. 연호문경(K347)

평양 오야리 18~21·25호분

주실 서쪽 목관에서 출토되었다. 배면에는 중앙에 반구형의紐가 있고,紐공은 원형이다.紐 주위에는 원형의 띠가 돌고 그 외곽으로 6개의 연호문이 그려져 있다. 연호문의 지름은紐좌의 지름과 동일하다. 그 바깥은 침선문 3조와 즐치문, 평연의 순으로 구성하였다. 앞·뒷면 모두 직물흔이 확인되어 원래 천에 싸여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직이 성근 마포 아래로 치밀한 비단이 확인되어 비단으로 싼 후 다시 마포로 싼음을 알 수 있다. 후한경으로紐 주변의 문양으로 보아 원좌圖座식에 속하는 것이다. 사각선문에 와문이 생략되어 퇴화된 것으로 연호문경 중에서는 늦은 시기에 속하는 것이다.



도판 99-1. 직물 세부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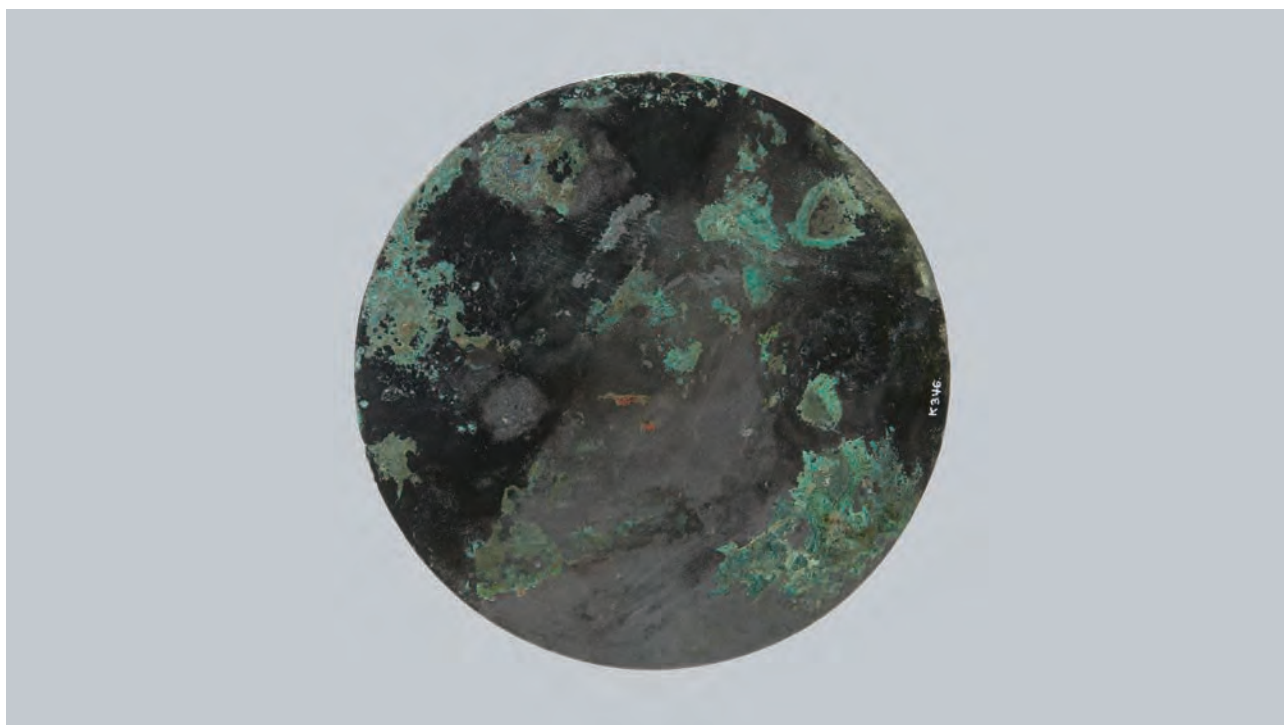
반룡경

盤龍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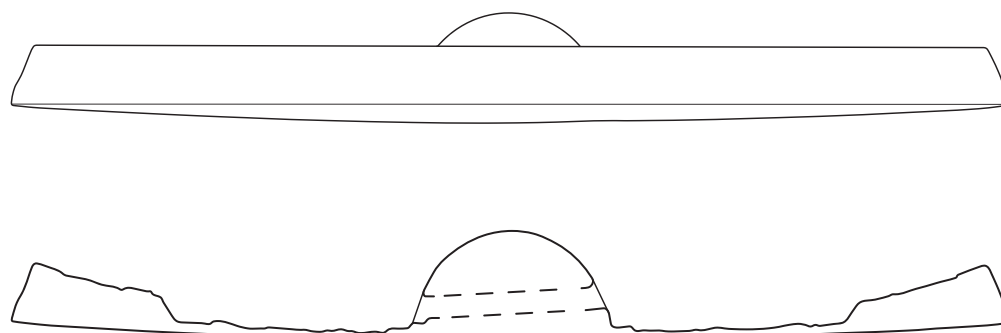
-

소장품 번호 : K346

지름 13.2cm



도판 100. 반룡경(K346)



도면 67. 반룡경(K346)



측실의 중앙에서 출토되었다. 배면 중앙에는 반구형의 뉴가 있고, 뉴공은 원형이다. 뉴 주위에는 원형의 띠가 돌고 거기에 겹쳐서 두 마리의 용이 시계반대 방향으로 돌며 대칭으로 표현되어 있다. 용은 머리에 외뿔이 달려 있고 양쪽으로 큰 갈퀴와 귀가 솟아 있다. 얼굴의 네모난 눈이 특징적이다. 몸통은 S자형으로 구부러져 배와 등의 비늘을 달리 표현하였다. 아마도 뱀의 비늘을 등에, 잉어의 비늘을 배에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발톱은 4조이다. 용과 용의 사이에는 운기문을 배치해 하늘을 나는 듯 표현하였다.

용문 외곽에는 명문대가 있으며, “王氏作竟 眞大巧(好) 上有山(仙)人 不知老 渴飲玉泉 汎(飢)食棗”으로 읽힌다. 그 뜻은 “왕씨가 만든 동경, 참으로 크고 좋다. 하늘에는 선인이 사는데, 늙지 않는다. 목이 마르면 옥천을 마시고, 대추를 먹는다”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 외곽에 즐치문대가 돌고 주연부로 이어져 거치문이 표현되어 있다. 주연 문양은 사방에 까마귀가 그려진 태양, 두꺼비가 그려진 달, 동전 앞면의 오수五銖, 글자가 없는 동전 뒷면을 배치하고 그 사이에 4신과 물고기 등을 새겨 넣었다. 후한경으로 유사한 것이 평양시 대동강구역에서 출토된 바 있다. 대동강구역 출토품은 눈이 원형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얼굴 양 옆의 돌기가 표현되어 있지 않은 등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외뿔을 가진 반룡이 서로 대칭되게 배치되어 있는 점에서 유사성이 보인다. 중국 본토에서 후한대에 그리 자주 보이는 도상은 아니다.



도판 100-1. RTI 이미지

101.

반지

指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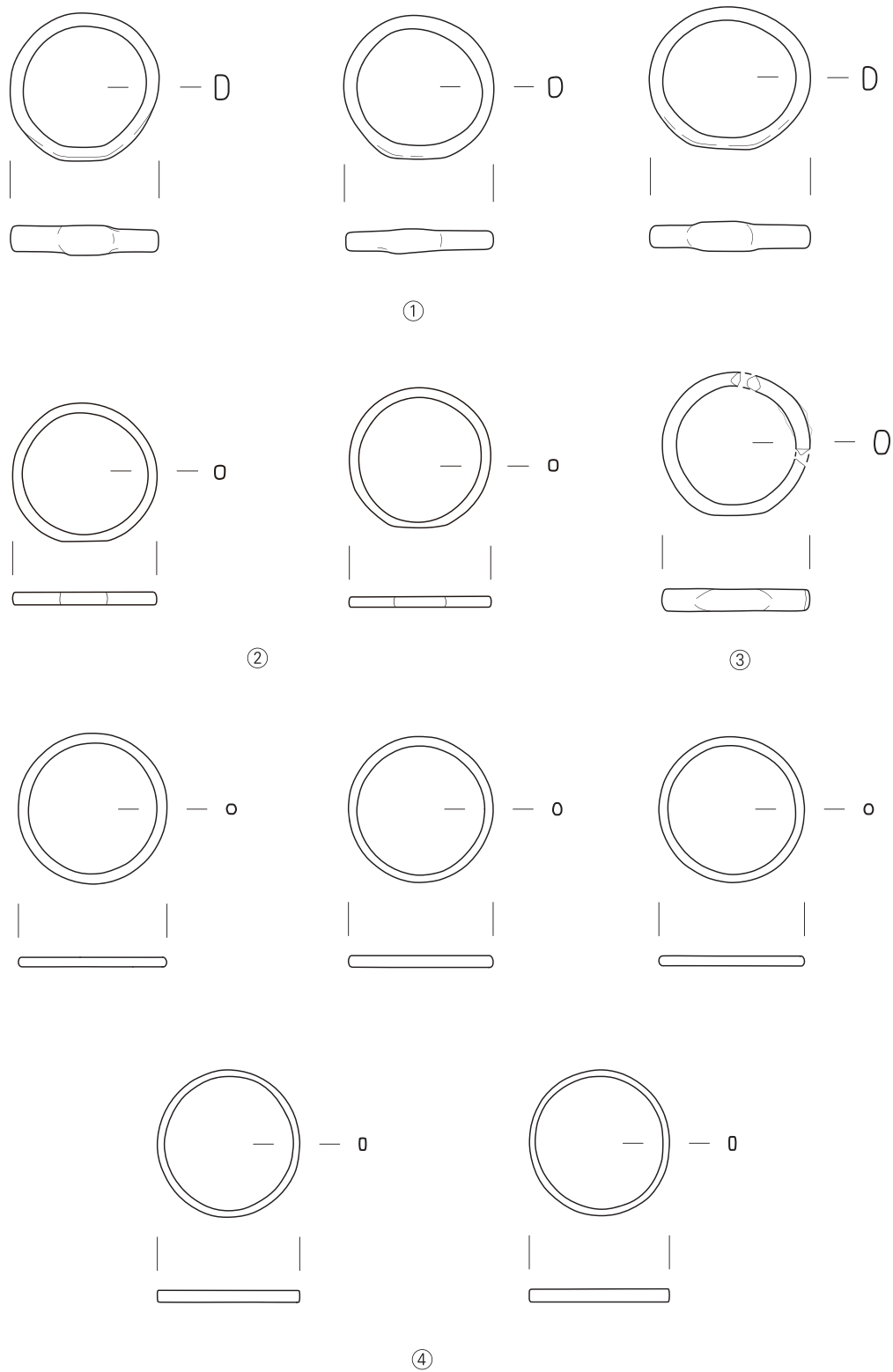
-

소장품 번호 : K349·351, 고적28392·28393

① 지름 2.2cm, 너비 0.3~0.5cm



도판 101. 반지(① K349, ② K351, ③ 고적28392, ④ 고적28393)



도면 68. 반지(① K349, ② K351, ③ 고적28392, ④ 고적28393)



25호분에는 모두 11점의 반지가 출토되었다. ①은 측실의 통로 주변에서 출토된 은제반지이다. 두께 0.2cm로 비교적 두꺼운 편이며, 한쪽을 편평하게 눌렀다. 내면은 편평하고 외면은 둥글어 단면 반원형에 가깝다. ②는 주실의 서쪽 목관에서 출토되었다. 은제로 ①과 거의 동일하나 너비와 두께가 다소 얇게 제작되었다. ③은 ②와 함께 주실 서쪽 목관에서 출토된 청동제 반지이다. ①, ②와 마찬가지로 한쪽을 눌러 편평하게 만들었다. 두께가 0.2cm로 비교적 두껍게 제작되었다. 2편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접합되지 않는다. ④는 주실에서 출토된 은제반지로, 도판의 상단 3점은 동쪽 목관에서, 하단의 2점은 중앙에서 출토되었다. ①~③과 달리 편평한 면 없이 전체적으로 둥글게 만들었다.

- ① 지름 2.2cm, 너비 0.3~0.4cm, 두께 0.2cm
- ② 지름 2.2cm, 너비 0.2cm, 두께 0.15cm
- ③ 지름 2.2cm, 너비 0.35cm, 두께 0.2cm
- ④ 지름 2.1~2.2cm, 너비 0.15~0.2cm, 두께 0.1~0.15cm

## 2) 토기

102.

평저장경호

平底長頸壺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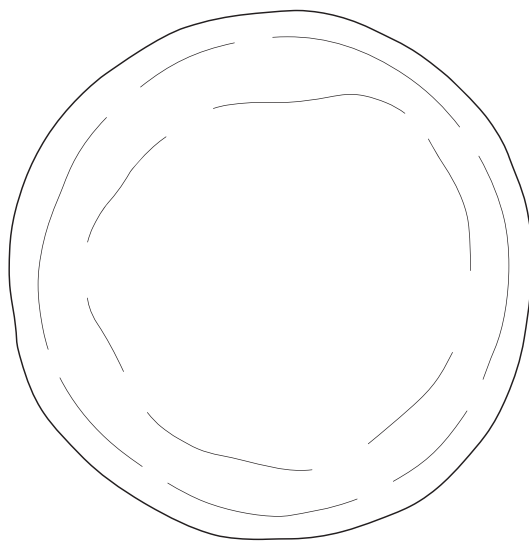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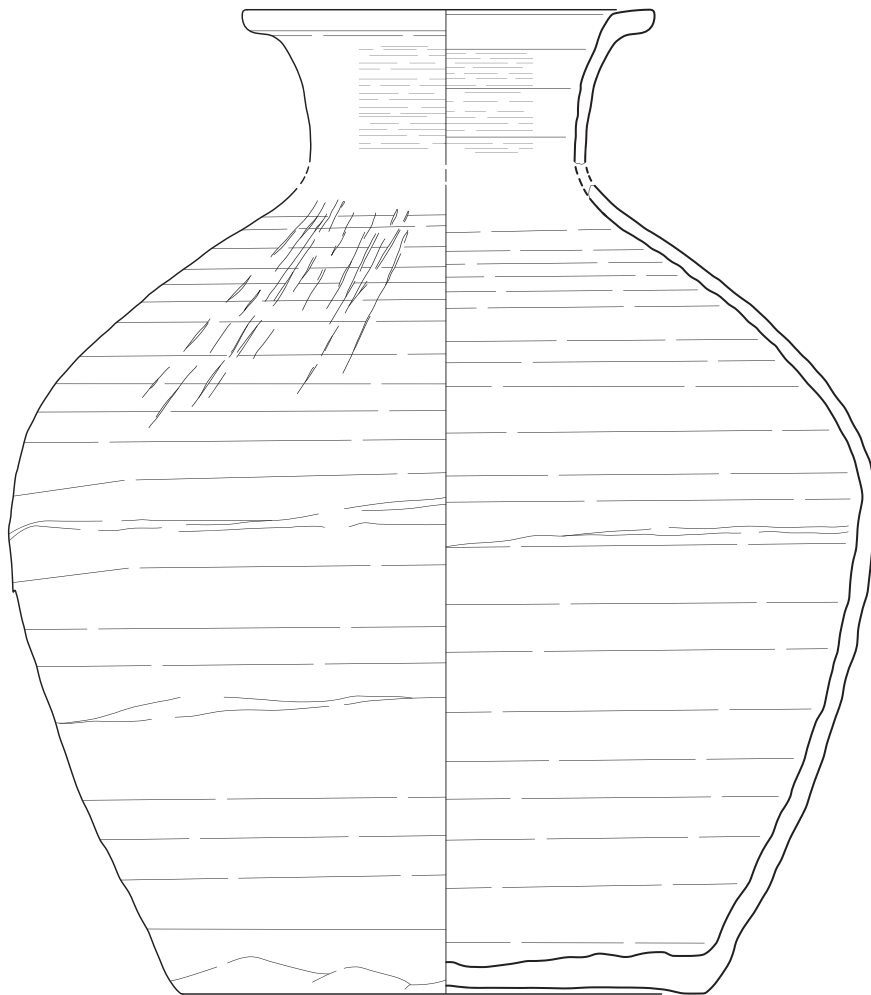
소장품 번호 : 고적18298

추정 높이 26.0cm, 구경 10.8cm, 저경 13.8cm



도판 102. 평저장경호(고적18298, ① 구연부, ② 동체부, ③ 저부)

①  
② | ③



도면 69. 평저장경호(고적18298)



도판 102-1. 견부 문양



도판 102-2. 저부 내면 바닥 세부

주실과 측실 통로 바로 앞에서 확인된 평저장경호이다. 정선된 니질계 태토로 만들어졌으며, 내외면 흑회색을 띠고 있다. 경부와 동체부 경계면부터 아래까지는 온전히 남아있으며, 구연부~경부편이 일부 남아있다. 구연단부는 수직에 가깝게 외반하며, 경부 상단에서부터 내면에 물손질에 의한 요철면이 잘 남아있다. 동체부 중상위에서 최대경을 이루며, 내·외면에 모두 회전물손질에 의한 요철면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동체부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요철면의 너비가 좁아진다. 동체부 외면은 마모가 심하여 표면조정 기법을 자세하게 관찰하기 어려우나, 내면에는 회전물손질에 의한 기형 및 기벽 조정흔이 잘 남아있다. 요철면 사이 사이에 경계면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좁은 면적을 가진 도구를 이용하여 회전물손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저부는 점토판을 따로 부착한 것으로 보이며, 저부 내면에는 정중앙을 중심을 동심원상의 회전물손질흔이 잘 남아있다. 저부 외면은 가장자리가 조금 돌출되어 있으며, 가장자리를 제외한 전면에 회전 사절흔이 있다. 동체부~저부 연결면 및 저부의 가장자리는 깎기 조정하였다. 정지깎기일 가능성이 높으나 표면 마모가 심하여 확실하지 않다.

동체부 외면에 일부 남아있는 흔적으로 볼 때 표면 전면에 짙은 색의 칠漆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표면 마모가 심하여 확실하지는 않지만 동체 상위 일부에는 표면의 문양으로 추정되는 종방향의 선이 여러 조 남아 있다(도판 102-1). 저부 내면에도 검은색의 물질이 일부 흡착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토기 내부에 어떤 물질이 담겨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03.

평저장경호

平底長頸壺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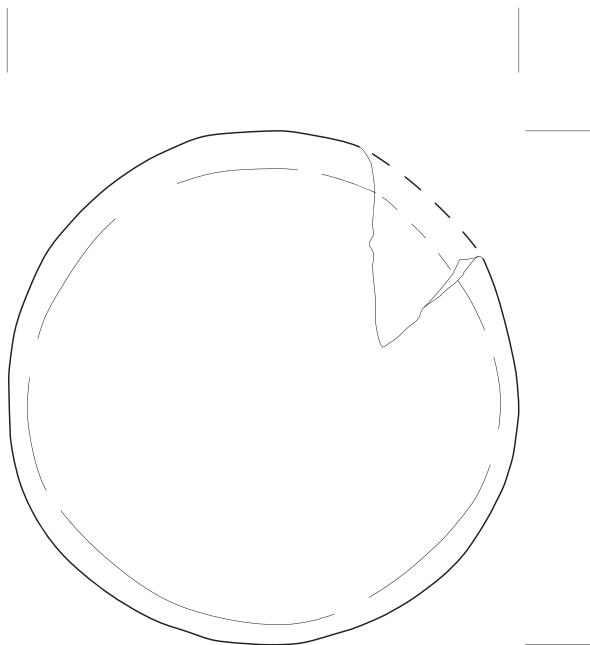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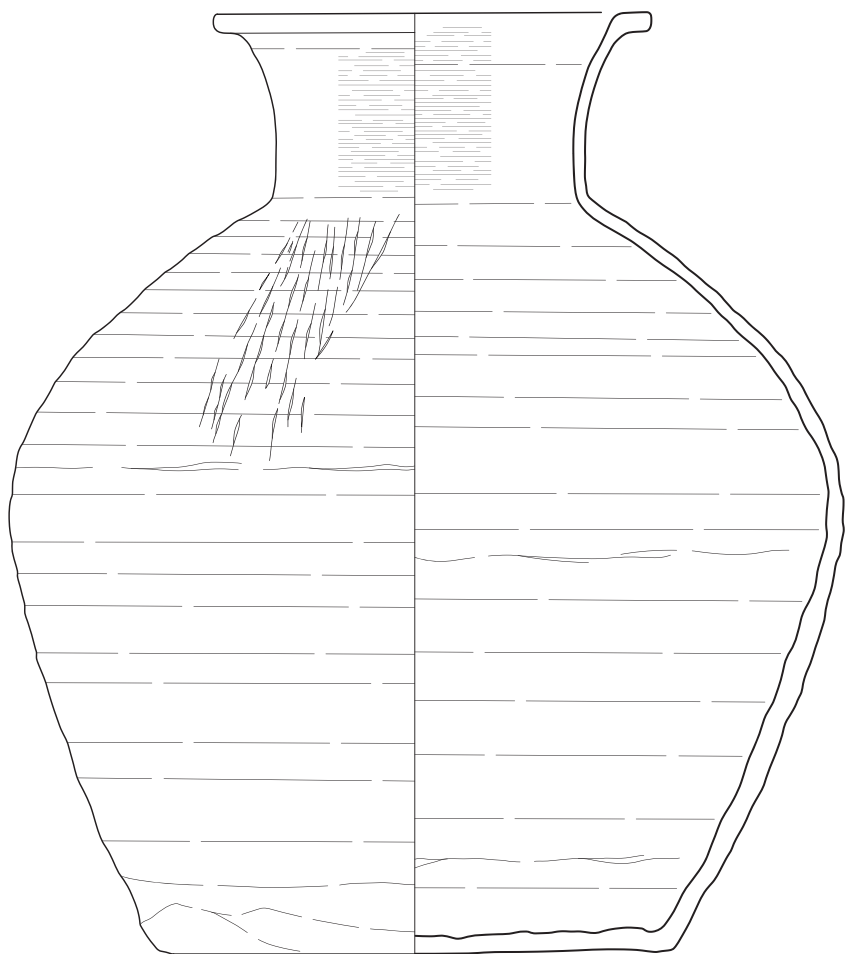
소장품 번호 : 고적22674

높이 24.8cm, 구경 11.4cm, 저경 13.4cm



도판 103. 평저장경호(고적226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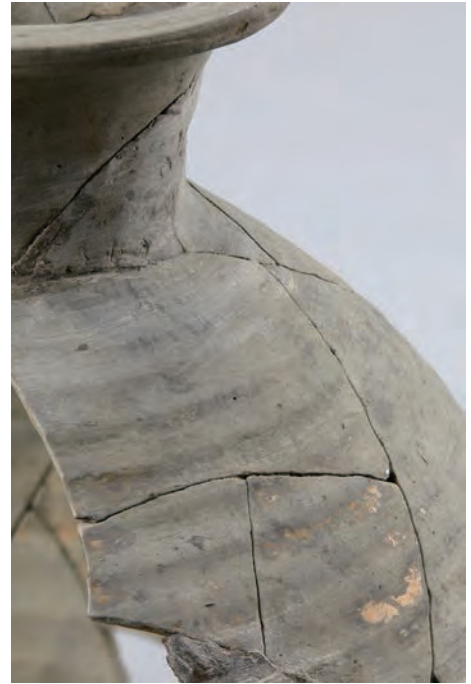




도면 70. 평저장경호(고적22674)



도판 103-1. 저부 내면 바닥 세부



도판 103-2. 건부 문양

주실 북쪽 공간에서 출토된 평저장경호이다. 102와 기형이 거의 유사하며, 크기는 조금 더 작다. 일제강점기 보고서에는 동체부 아랫부분만 보고되었으나, 구연부편까지 복원하여 기형과 기종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립이 약간 섞인 정선된 태토로 만들어졌으며, 내외면 모두 회색 색조이다. 수직에 가깝게 외반하는 경부에 이어 구연단부는 수직으로 완전히 꺾여 있다. 표면 마모가 심하여 확실하지 않으나, 경부 내외면에는 사선 방향의 타날 조정흔이 희미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타날조정 이후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여 미세한 요철면이 남아있다. 경부에서 꺾이며 동체부가 이어지는데, 동체 중상위에서 동최대경을 이룬다. 동체부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에 의한 요철면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이 토기 역시 동체부 하위에서 상위로 갈수록



참고도판 48. 평저장경호의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  
(보고서 도판 115)

요철면의 간격은 좁아진다. 동최대경 아랫부분의 동체부 내면에는 점토띠 접합흔이 남아있어 점토띠를 쌓아 성형한 후 회전물손질로 기형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저부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요철면이 동심원상으로 남아 있다(도판 103-1). 저부 외면에는 바닥면 조정흔이 남아있는데, 남아 있는 흔적으로 볼 때 토기를 정지 상태에서 실로떼기로 떼어낸 뒤 동체부~저부 연결면과 저부 바닥면 가장자리를 정지깎기로 조정하였다.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참고도판 48)으로 볼 때 이 토기 역시 기형조정이 모두 끝난 뒤 토기 표면에 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체부 상위 두 군데에 종방향으로 굵은 여러 조의 선이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토기의 두 군데에 등간격으로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네 군데에 표면 장식으로 선을 그었을 가능성이 높다(도판 103-2).

104.

평저단경호

平底短頸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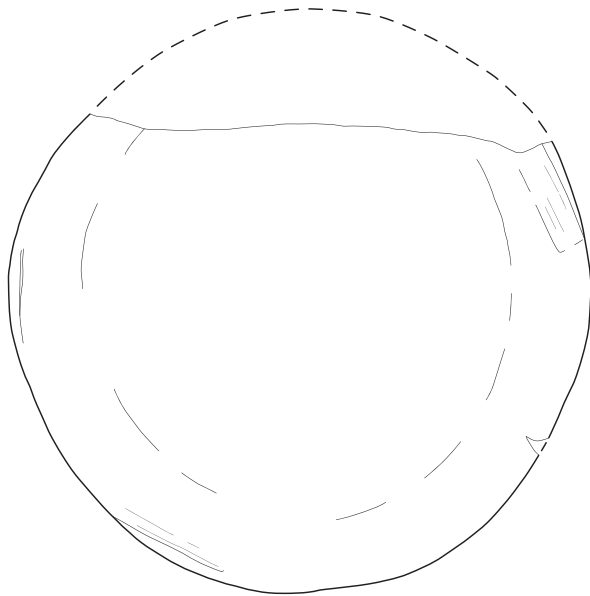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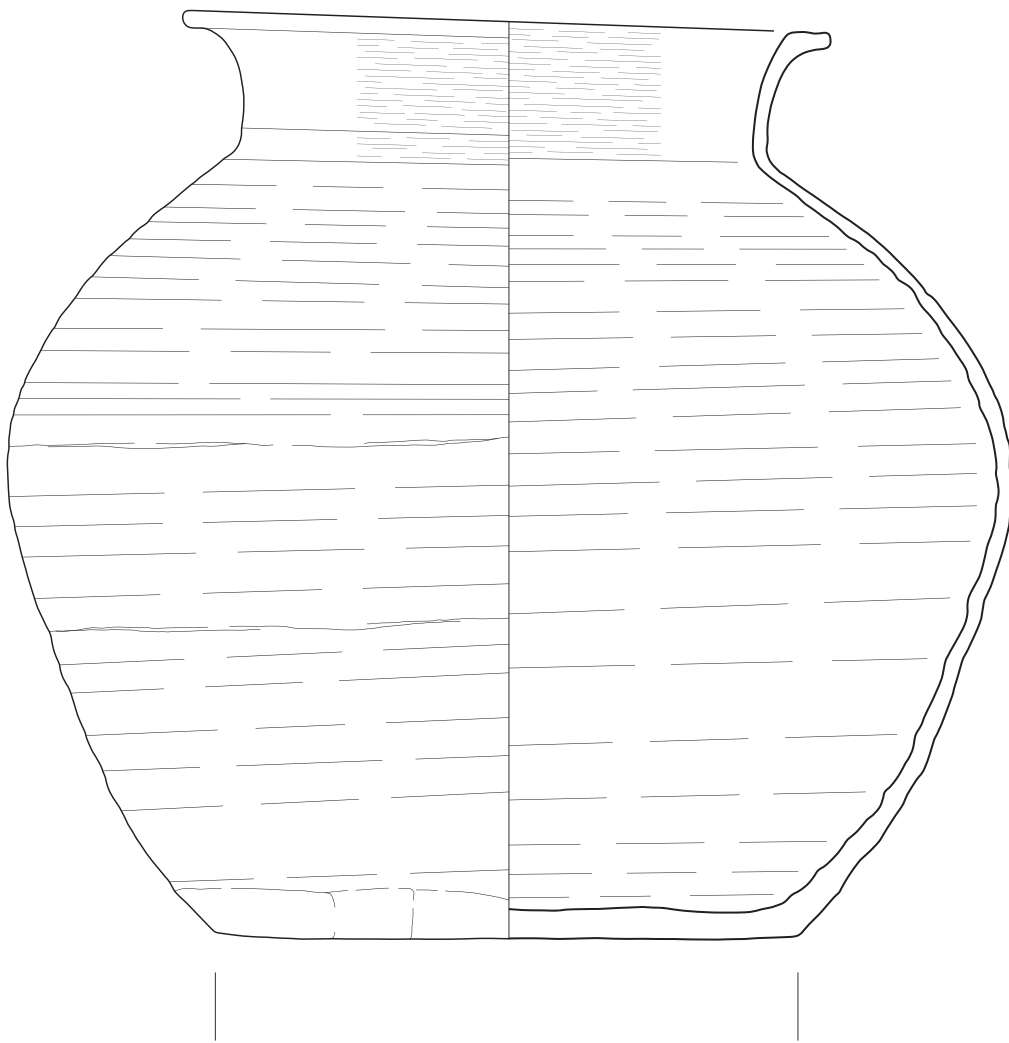
-

소장품 번호 : 고적22530

높이 24.2cm, 구경 17.0cm, 저경 15.4cm



도판 104. 평저단경호(고적22530)



도면 71. 평저단경호(고적22530)





도판 104-1. 외면 세부

사립이 약간 섞인 정선된 니질계 태토로 만든 평저단경호이다. 내외면 모두 흑회색, 속심은 회색이다. 표면 마모가 심하지만 일부 남은 흔적으로 볼 때 표면에 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구연단부는 수직으로 꺾여 외반하며, 1cm가량 편평하게 물손질하였다. 아래로 수직에 가깝게 직립하는 짧은 경부로 이어지며, 구연단부와 경부의 내외면에는 회전 물손질흔이 남아있다. 또한 경부에서 동체부로 이어지는 지점에는 동체부와 경부를 따로 제작한 후 접합한 흔적이 남아있다. 동체부는 부분적으로 결실되었으나 전체적인 기형을 확인할 수 있다. 동체부 중위에 동최대경이 위치하며, 내외면에 회전물손질에 의한 요철흔이 선명하게 남아있다(도판 104-1). 요철흔은 일정한 면을 이루고 있는데, 동최대경 윗부분에는 부분적으로 뾰족한 도구를 이용하여 돌린 것과 같은 침선이 3조가량 남아있다.

저부 내면에는 동심원상의 회전물손질흔이, 저부 외면에는 정지사절흔이 남아있다. 저부와 동체부 접합면 및 저부 외면의 가장자리는 정지깎기하였으며, 깎기 조정과 마모로 인하여 정지사절흔이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남아있다. 이 토기 역시 저부 내면에 탄화된 물질이 흡착된 흔적이 일부 남아있다.

이외에도 주실의 북벽 가까이에서 회백색이 대용이 출토되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 토기는 추정구경 19.0cm, 높이 45.0cm로, 바닥이 둥글고 동체는 구형球形에 가까우며 기벽이 두껍다고 한다. 또 구연부에 얇은 띠를 돌렸으나 거의 무경無頸에 가까운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보고서에 도면이나 사진이 실려있지 않아 유물을 확인할 수 없었다.

### 3) 구슬

105.

유리이당과 부수식옥

耳璫, 附隨飾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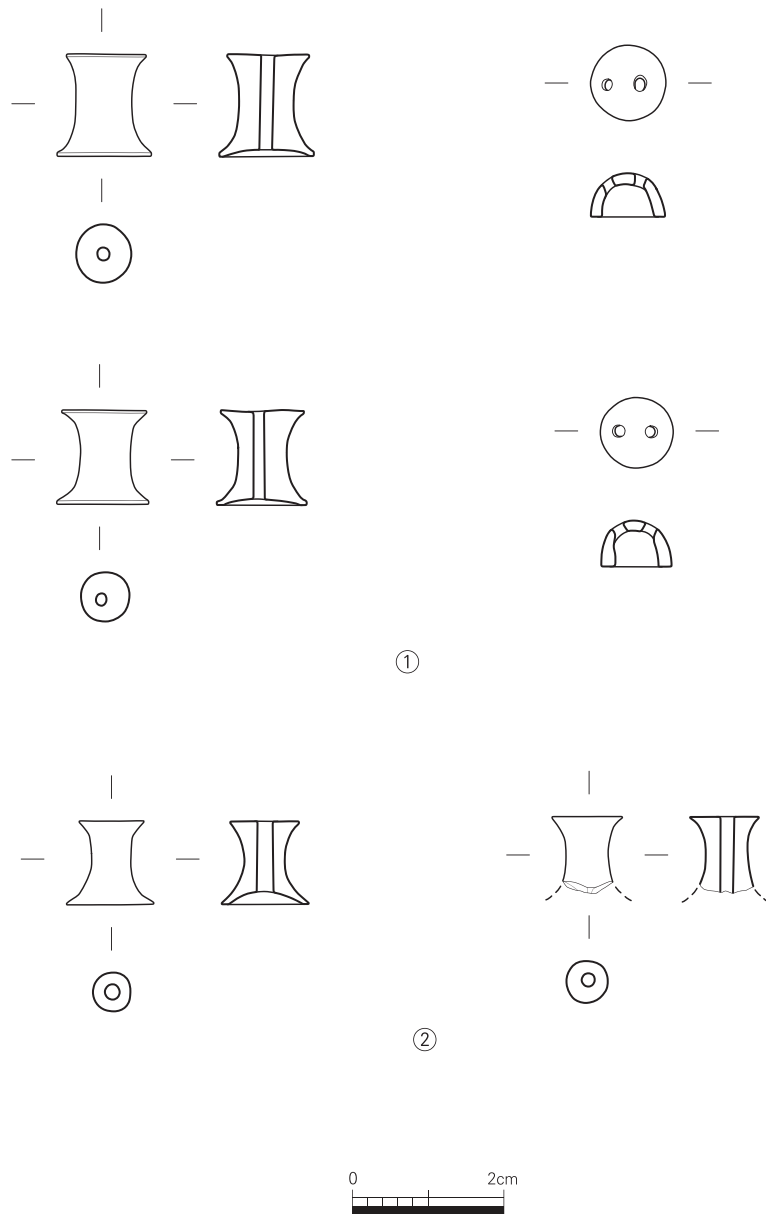
소장품 번호 : K348, K350

① (左) 이당: 길이 1.4cm, 지름 1.1~1.3cm / 부수식옥: 길이 0.6cm, 지름 1.0cm

② (左) 이당: 길이 1.1cm, 지름 0.9~1.2cm



도판 105. 이당과 부수식옥(① K348, ② K350)



도면 72. 이당과 부수식옥(① K348, ② K350)

제25호분에서는 주실과 측실에서 각각 이당 한 쌍이 출토되었다. ①은 측실의 통로 앞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당과 함께 반원형의 부수식옥이 확인되었다. 모두 유리제로 청색을 띤다. 이당 표면에는 유리를 금속 막대에 감아 만들어 생긴 가로 줄무늬가 남아있으며, 다소 균일하지 못하다. 반원형 부수식옥은 속이 빈 형태로 밖에서 안으로 2개의 구멍을 뚫었다. 표면이 균일하다. ②는 주실 서쪽 목관에서 발견된 밝은 청색의 유리옥이다. 한 점은 아랫면이 결실되었다. 윗면과 아랫면이 균일하지 못하다.

106.

마노관옥과 환옥

管玉, 丸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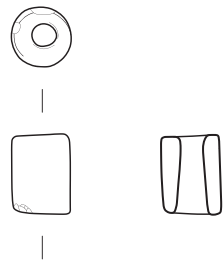
소장품 번호 : 고적28391

① 길이 1.0cm, 지름 0.7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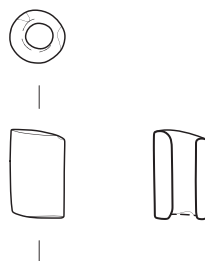


도판 106. 마노관옥과 환옥(고적28391, ①·② 관옥, ③ 환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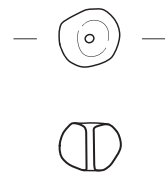
① ② ③



①



②



③



도면 73. 마노관옥과 환옥(고적28391, ①·② 관옥, ③ 환옥)

마노제 관옥 2점과 환옥 1점으로, 주실의 서쪽 목관에서 출토되었다. ①은 비교적 위아래가 편평하게 만들었으나 양 끝이 고르게 마무리 되지 못했다. ②는 양 끝을 사선으로 잘랐으며, 중앙의 구멍도 한쪽으로 치우쳐졌다. ①과 ② 모두 지름 0.3~0.4cm의 다소 큰 구멍을 중앙에 뚫었다. ③은 환옥이나 표면이 고르지 못하고 울퉁불퉁하다. 중앙에 지름 0.1cm의 구멍을 뚫었으며, 한쪽 면은 구멍 주변을 오목하게 파다.

① 길이 1.0cm, 지름 0.75cm

② 길이 1.2cm, 지름 0.7cm

③ 지름 0.65~0.8cm



## 6. 전傳 오야리 출토품

일제강점기의 낙랑고분은 정식 발굴조사 없이 발견 혹은 도굴된 경우가 매우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야리 일대도 마찬가지로 우메하라 고고자료 중에는 오야리 18~21·25호분 출토품 외에 토채장土採場(혹은 토취장土取場, 채토장採土場), 전기회사구내電氣会社構内 등으로 출토지가 기록된 것이 상당수 확인된다. 가장 수량이 많은 것은 동경이며, 동세銅洗·동렴銅盥·동복銅鍔 등의 청동기 및 칠기도 포함되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중에도 구입품 혹은 수집품 가운데 출토지가 평남 대동군 대동강면 오야리로 전해지는 것들이 있다. 이 유물들은 정확한 출토 위치와 맥락을 알 수 없지만, 다양한 낙랑유물을 소개하여 연구의 기초자료를 확대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도판 49. 오야리 채토장 출토 동경 관련 우메하라 고고자료

## 1) 금속기

107.

연호문경

連弧文鏡

-

소장품 번호 : 본관11448

지름 10.1cm, 두께 0.1~0.3cm



도판 107. 연호문경(본관11448)



도면 74. 연호문경(본관11448)

평안남도 대동군 선교면 오야리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0</sup>. 유물은 파손되어 일부가 결실되었지만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 있다. 중앙에는 반구형의紐가 있고,紐공은 원형이다.紐좌에는 기봉夔鳳문이 사방으로 배치되고 그 사이에 ‘長宜子孫’이라는 명문이 한 글자씩 배치되었을 것이나, ‘宜’자가 있던 부분은 깨어져 결실되었다. 이 명문은 ‘자손이 오래간다’는 의미이다. 그 바깥에 8개의 연호문이 있고 공백대와 평연으로 연결된다.紐좌의 문양으로 보아 편복좌蝙蝠座식에 속하는 것이다.

후한대의 연호문경이지만 원강元康 4년(294년)의 기년을 가진 중국 호남성 상덕진묘에서도 유사한 동경이 확인된 사례가 있다.

---

20 오야리 출토품으로 알려진 유물 가운데 1930년 1월 20일 입수품(분관11448~11451)은 출토지가 ‘平南 大同郡 船橋面 梧野里’로 등록되어 있다. 무진천을 경계로 오야리 동북쪽에는 선교리가 위치하는데, 선교리는 1914년 비석동·봉룡동·장림동을 합하여 신설된 것으로 대동강면에 속하며, 1930년대에 평양부 선교리로 바뀌었다. 따라서 ‘선교면’은 행정구역의 개편 등의 이유로 대동강면이 폐지되면서 일시적으로 혼선이 생겨 발생한 명칭으로 판단된다.



108.

연호문경

連弧文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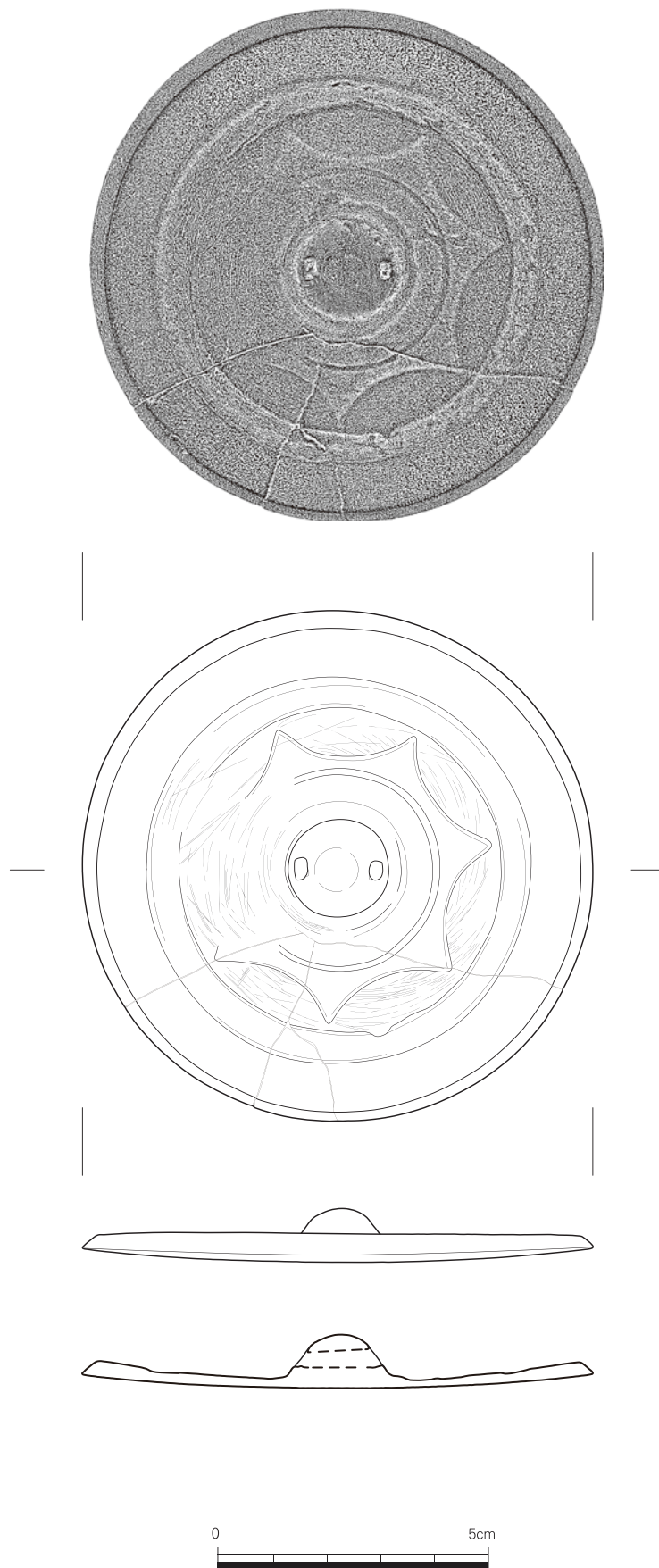
-

소장품 번호 : 본관12071

지름 9.4cm, 두께 0.1~0.3cm



도판 108. 연호문경(본관12071)



도면 75. 연호문경(본관12071)

평안남도 대동군 대동강면 오야리 토취장 출토품이다. 우메하라 고고자료에는 関口半 소장으로 적혀있으며 1931년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구입하였다.

동경 일부가 깨어졌지만 전체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에는 반구형의 뉴가 있고, 뉴공은 원형이다. 뉴좌는 돌선으로 구획하였으며, 그 바깥에 특이하게 7개의 연호문이 있고 공백대와 평연으로 연결된다. 연호문의 지름은 뉴좌를 구획한 돌선의 지름과 일치한다.

보통 연호문은 6, 8, 16 등 짝수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것은 7개인 점이 특이하다. 경주 탑동 1호묘에서 출토된 삼한경의 연호문도 7개의 연호를 가지고 있어 양자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연호를 중심으로 표면을 마모한 흔적이 잘 남아 있는데 특히 연호 2개는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문양대를 문지르는 행위는 다뉴세문경에서 자주 보이는 것이어서 의례 행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뉴좌의 문양으로 보아 원좌圓座식에 속하는 것으로 가장 마지막 형태이다. 후한경으로 동일한 7개의 연호를 가진 유사한 형태의 동경이 중국 허난성(河南省) 산현(陝縣)의 후한 후기묘에서도 출토된 사례가 알려져 있다.



참고도판 50. 연호문경(우메하라 고고자료 261)

109.

명대경

銘帶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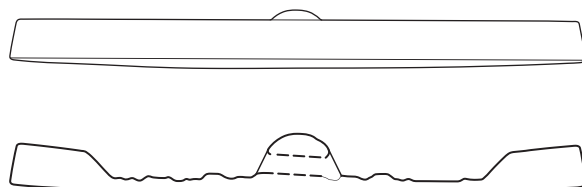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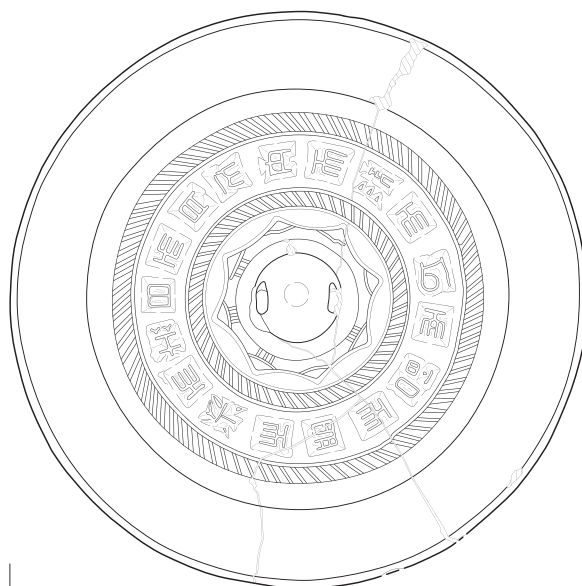
소장품 번호 : 본관13092

지름 9.5cm, 두께 0.2~0.7cm



도판 109. 명대경(본관13092)





도면 76. 명대경(본관13092)



평안남도 대동군 대동강면 오야리에서 출토되었다. 중앙에 반구형의紐가 있고, 그 바깥에 8개의 연호문으로紐좌를 돌렸다. 명문대 양쪽에는 즐치문을 배치하였다. 명문은 ‘內淸以昭明光夫日月不’로 각 글자 사이에 而자를 끼워 넣었는데 ‘夫日’와 ‘月不’ 사이에는 빠져있다. 원문과 뜻은 아래와 같다.

內淸質以昭明	안으로 바탕을 깨끗이 하여 밝으며
光輝象而夫日月	광휘는 해와 달을 본받는다.
心忽揚而願忠	마음은 홀연히 충심을 기원하는데,
然壅塞而不泄	가득하여 새지 않는다.

원래 마지막 문구는 然壅塞而不徹인데 徹가 泄로 변하였다. 이런 원인은 한 무제武帝의 이름과 연관시킬 수 있다. 한 무제가 기원전 141년에 황제로 즉위하면서 그의 이름인 劉徹의 徹자는 피휘避諱가 적용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비슷한 의미인 泄자로 바뀐 것이다.

명문 바깥에는 평연이 있다. 문양대의 폭이 주연의 폭보다 좁으며, 서체 등으로 보아 전한 말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110.

박국경

博局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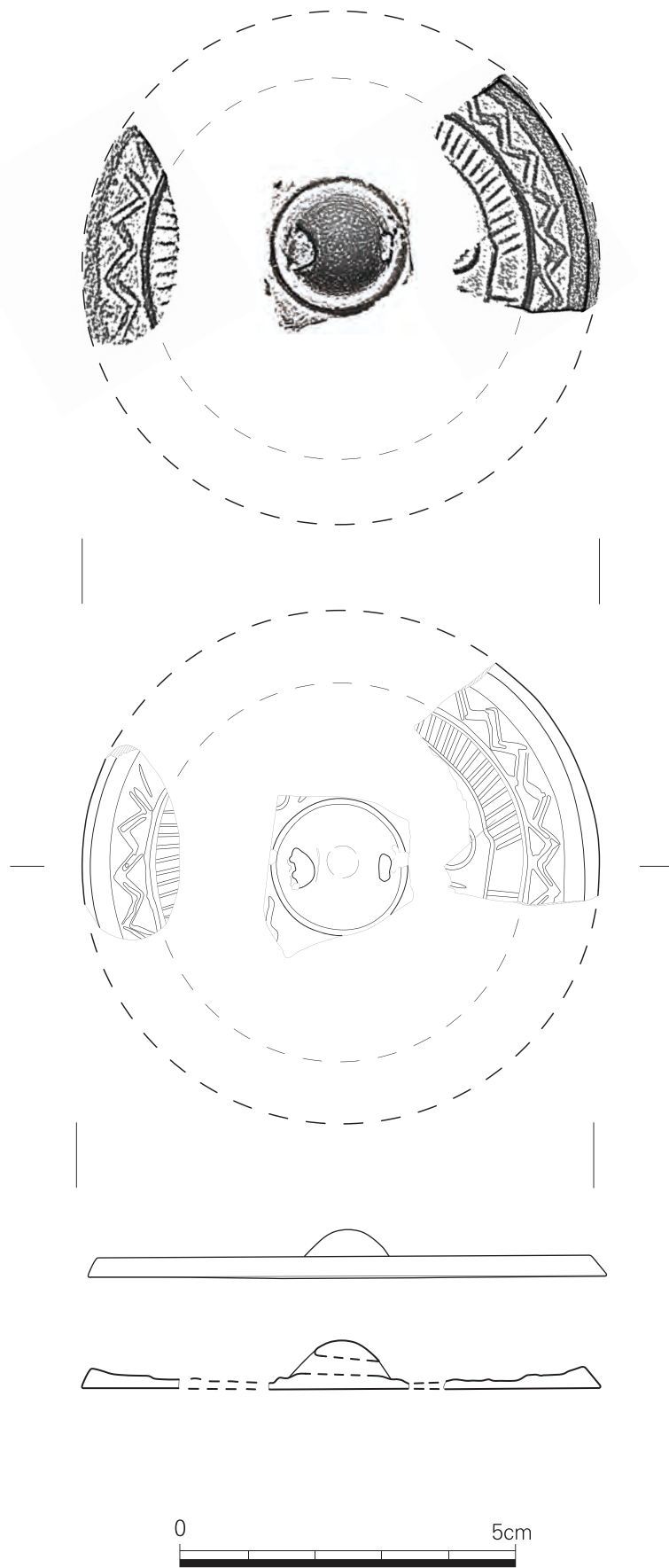
소장품 번호 : 본관13128

추정지름 7.7cm, 두께 0.1~0.3cm



도판 110. 박국경(본관13128)

평안남도 대동군 대동강면 오야리에서 출토되었다. 결실되어 전체의 1/3정도만 남아 있다. 뉴와 주연의 문양은 확인되나 주문양대의 형태는 명확히 알 수 없다. 중앙에 반구형의 뉴가 있고 뉴공은 반원형이다. 별도의 뉴좌 없이 주문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분명하지 않다. 그 바깥으로 즐치문대가 있고, 이중거치문이 새겨져 있다. 주연의 단면형태는 삼각형이다. 후한대의 문양이 간략화된 동경으로 추정된다.



도면 77. 박국경(본관13128)

111.

청동일산살꼭지

青銅蓋弓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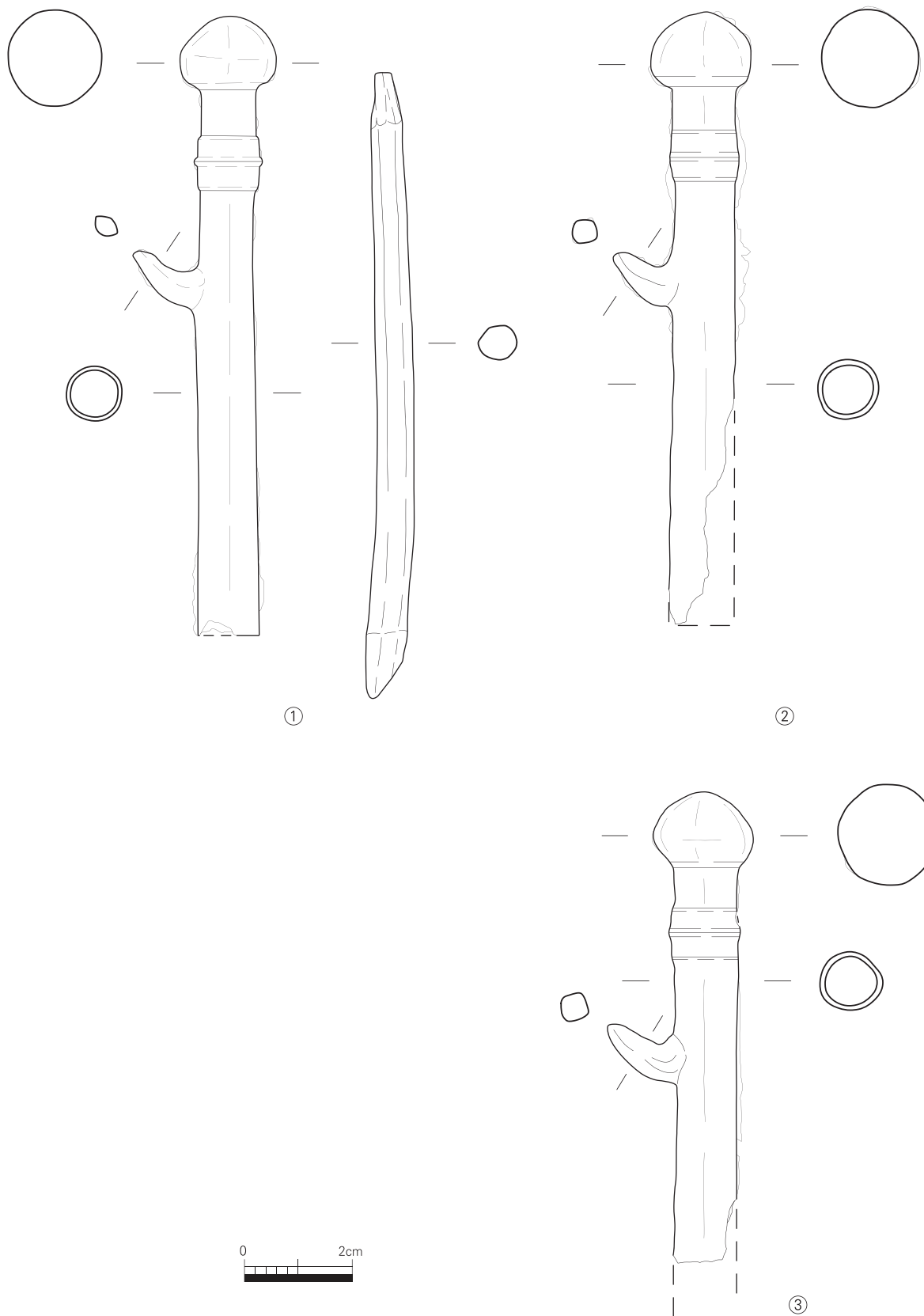
소장품 번호 : 본관13093, 13096

① 길이 11.5cm



도판 111. 청동일산살꼭지(① 본관13096, 그 외 본관13093)

평안남도 대동군 대동강면 오야리에서 출토된 청동일산살꼭지로 최소 8개체가 확인되었다. 머리는 가운데가 약간 솟았고, 그 아래로 속이 빈 원통형의 몸체가 이어진다. 머리에서 약 3.5cm 아래에 끝이 위로 솟은 갈고리가 달려있다. 머리와 갈고리 사이에는 너비 0.9cm의 띠를 두르고 중앙에 철선凸線을 돌려 장식하였다. ①의 몸통 안에는 나무로 만든 일산살대편이 남아있는데, 전체적으로 표면을 다듬고 끝 부분은 연필처럼 좁아지도록 깎았다. 잔존상태가 좋지 않지만 석암리 9호분 출토품과 유사한 형식으로 보인다.



도면 78. 청동일산살꼭지(① 본관13096, ②·③ 본관13093)



112.

청동웅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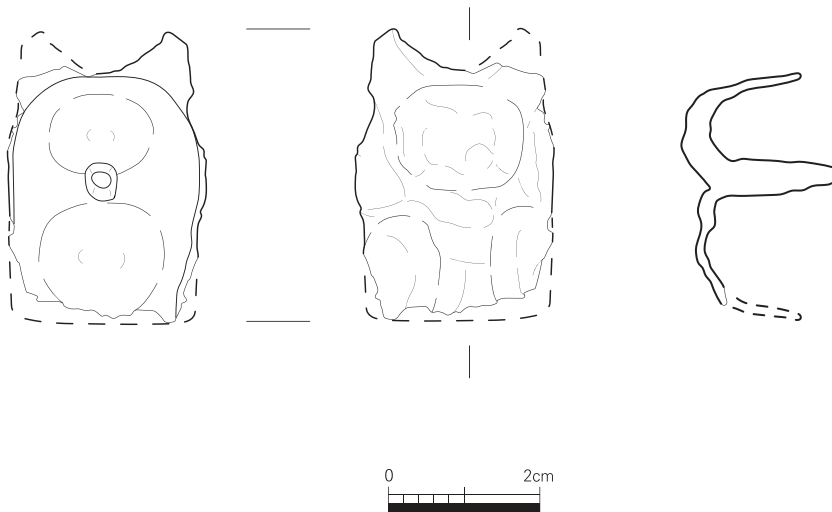
青銅熊脚

소장품 번호 : 본관13097

잔존길이 3.8cm, 너비 2.6cm



도판 112. 청동웅각(본관13097)



도면 79. 청동웅각(본관13097)

평안남도 대동군 대동강면 오야리에서 출토된 청동제 곰모양의 다리장식이다. 보존상태가 좋지 않아 다리 하단과 왼쪽 귀가 결실되었고, 녹도 심하게 엉겨있다. 하지만 뾰족한 귀와 앞으로 좁아지는 주둥이, 그리고 무릎을 구부린 모습은 확인 가능하다. 뒷면은 속이 비어있고, 중앙에 긴 못과 같은 것이 달려있어 철기나 목기에 이 장식을 박아 고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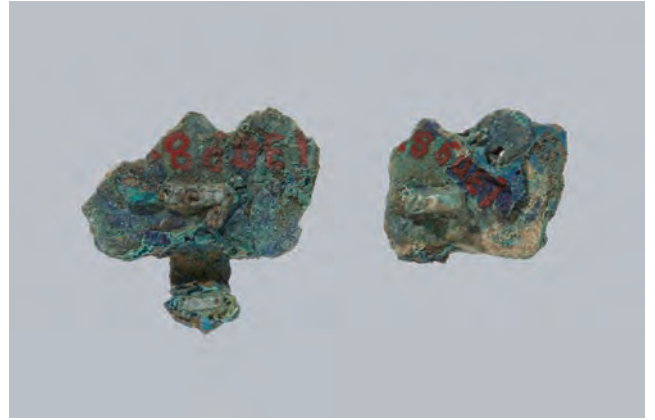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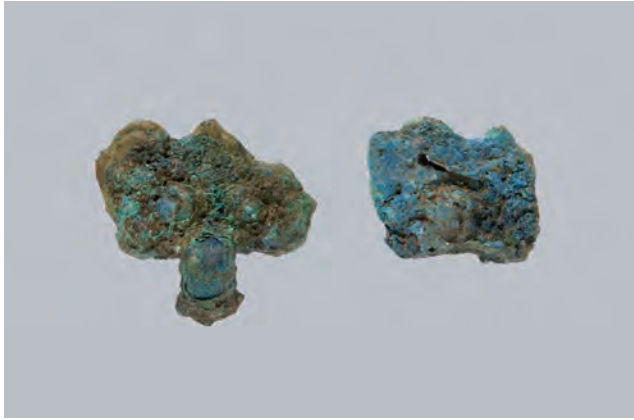
포수

鋪首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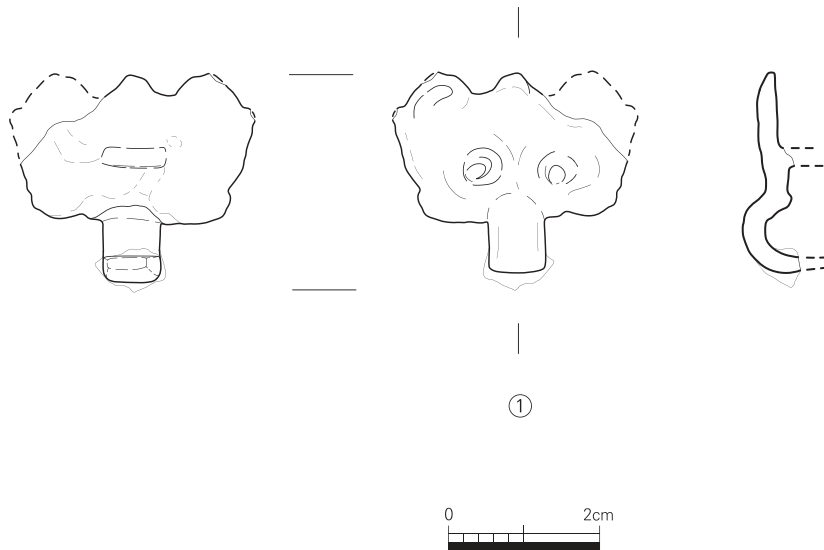
소장품 번호 : 본관13098

① 길이 2.9cm, 최대너비 3.0cm



도판 113. 포수(본관13098)

① ②



도면 80. 포수(본관13098)

평안남도 대동군 대동강면 오야리에서 출토된 포수鋪首다. 한대에는 청동기나 철기에 포수를 부착한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철기에 붙였던 것이다. ①은 왼쪽 귀 부분이 결실되었고 부식이 심하나 둥근 눈과 귀, 뿔 등 전체적인 형상은 확인 가능하다. 하단부에는 반원형의 고리걸이만 남아있다. 뒷면에는 포수를 철기에 부착하기 위한 긴 못과 같은 것이 정중앙 및 고리걸이 하단에 있었을 것이나 지금은 결실되었다. ②는 오른쪽 눈과 귀, 뿔만 확인될 뿐이나 ①과 비슷한 형태의 포수로 보인다.

114.

청동검파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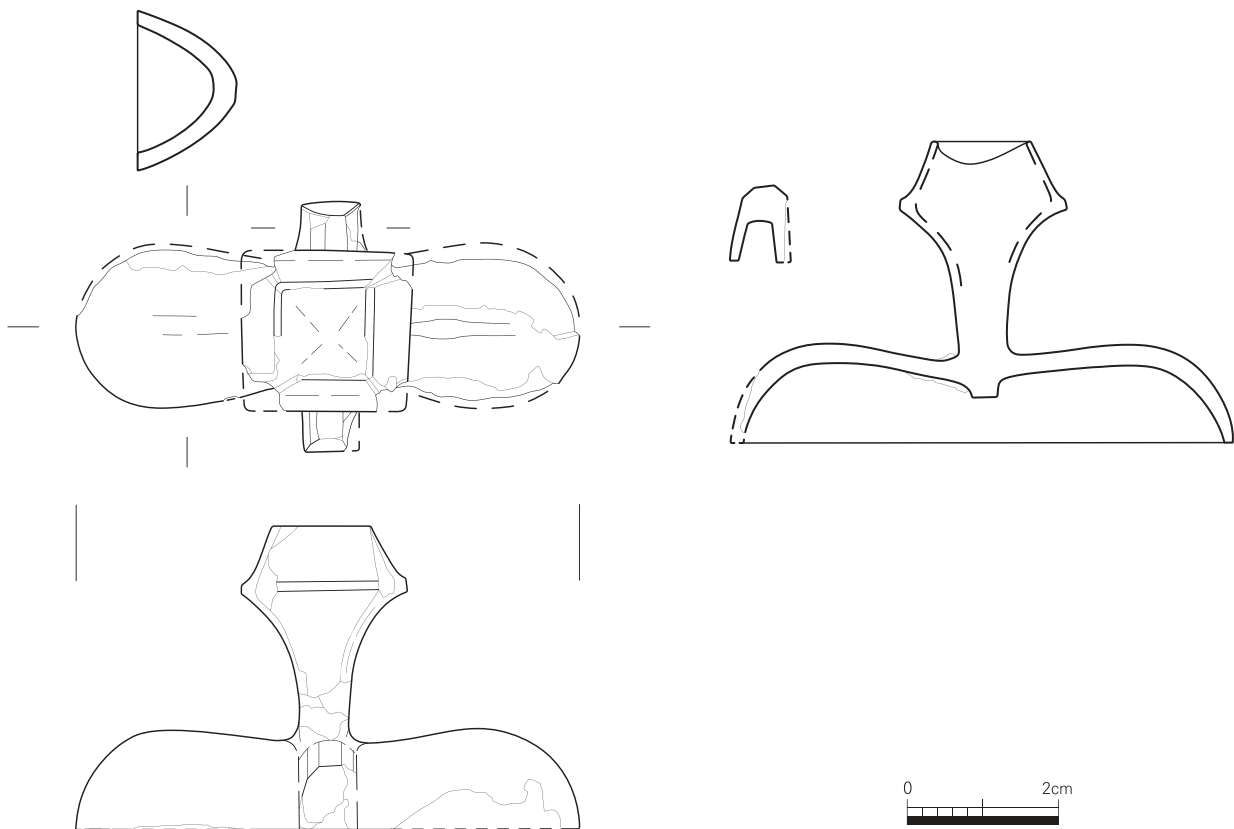
青銅劍把頭飾

소장품 번호 : 본관13015

높이 4.0cm, 너비 6.7cm



도판 114. 청동검파두식(본관13015)



도면 81. 청동검파두식(본관13015)

평안남도 대동군 대동강면 오야리 토취장 출토품이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검파두식으로 상부와 하부가 부러져 도상 복원하였다. 하부는 가운데가 약간 오목한 베개와 같은 형태이고, 중앙에 팔각의 입주가 달린 입주형 검파두식이다. 측면에는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고정 돌기가 튀어나와 있다. 입주형 검파두식은 한반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형식으로, 이 유물은 재지세력과 관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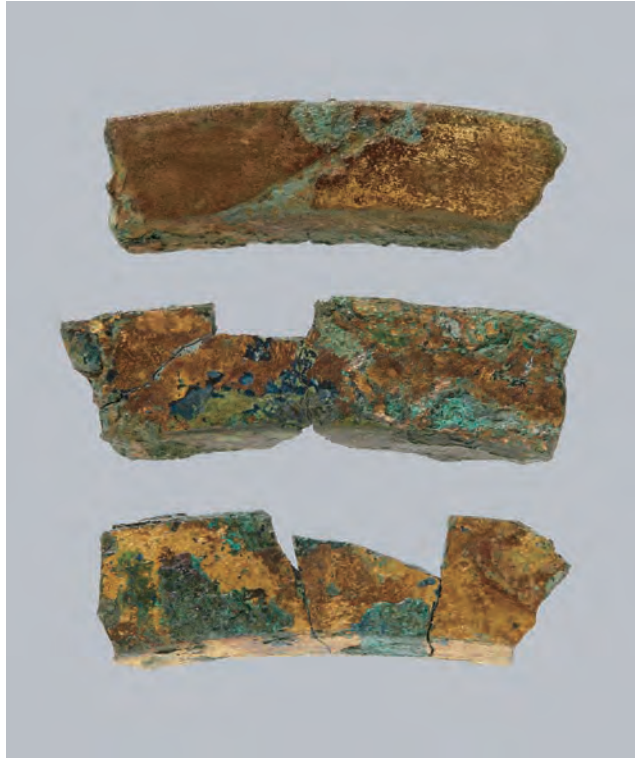
칠반장식금동테

漆盤裝飾金銅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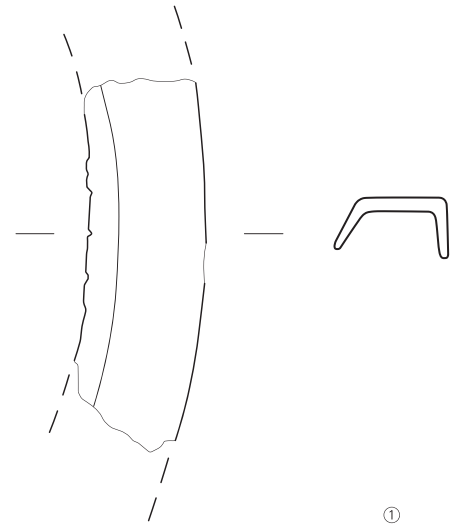
-

소장품 번호 : 본관13099

① 잔존길이 4.9cm, 윗면 너비 1.1cm, 높이 0.8cm



도판 115. 칠반장식금동테(본관13099)



①  
②  
③

도면 82. 칠반장식금동테(본관13099)

평안남도 대동군 대동강면 오야리에서 출토되었다. 여러 개의 작은 편으로 나뉘어 지름은 알 수 없으나 칠반의 구연에 덧씌운 금동제 테두리 장식이다. 한대에는 칠기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취약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구연이나 손잡이 등에 금속을 더해 보강한 구기釦器가 발달하였으며, 석암리 9호분, 정백리 24호분 등 낙랑 고분에서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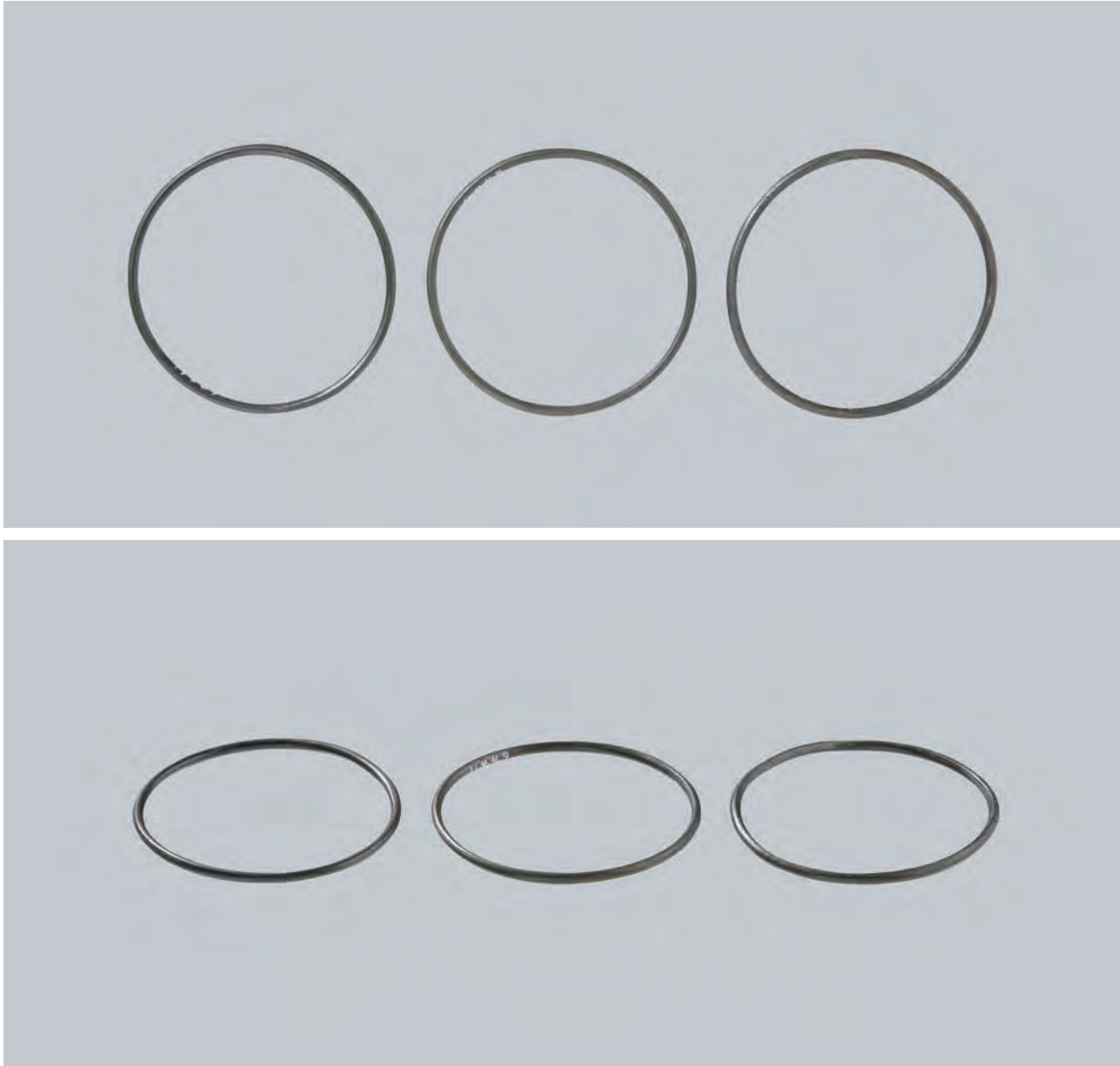
은제팔찌

銀製腕輪

-

소장품 번호 : 본관114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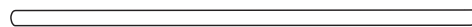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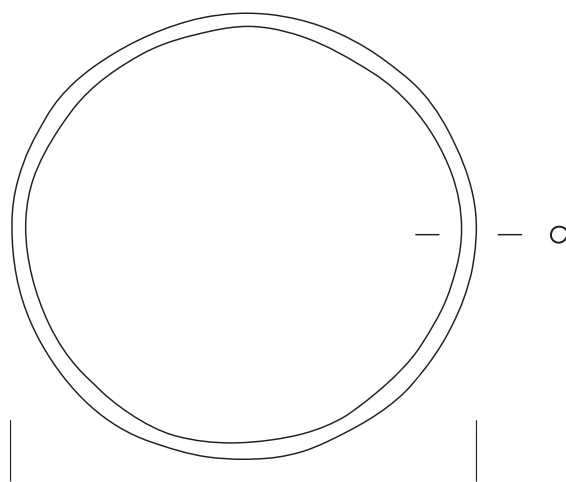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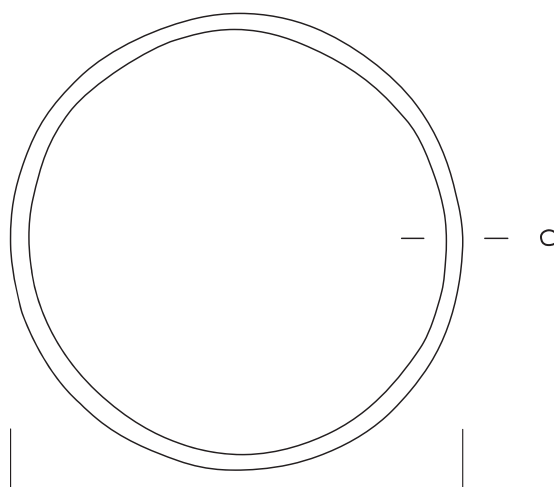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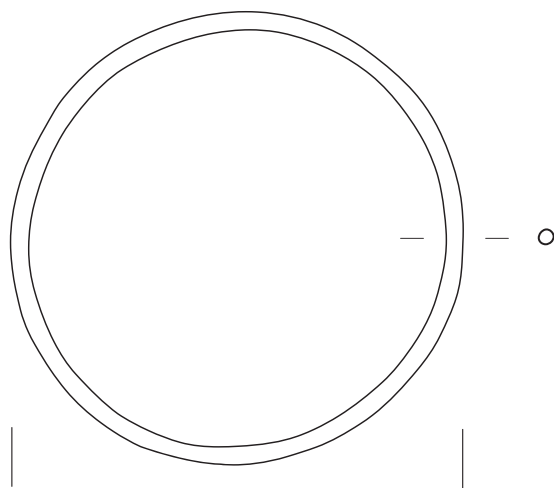
지름 6.0cm, 두께 0.2cm



도판 116. 은제팔찌(본관11449)

평안남도 대동군 선교면 오야리에서 출토된 은제팔찌이다. 단면 원형의 봉을 구부려 둥글게 만든 것으로 팔찌와 같은 장신구일 것이다. 3점 모두 크기와 형태가 동일하다.





도면 83. 은제팔찌(본관11449)

117.

은제반지

銀製指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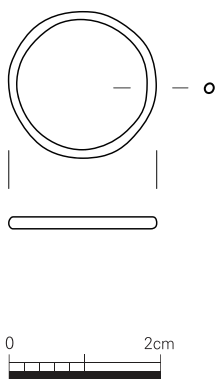
-

소장품 번호 : 본관11450

지름 2.0cm, 두께 0.15cm



도판 117. 은제반지(본관11450)



도면 84. 은제반지(본관11450)

평안남도 대동군 선교면 오야리에서 출토된 은제반지이다. 단면 원형의 가는 은제봉을 구부려 만든 것으로 별다른 장식 없이 가장 단순한 형태이다.

## 2) 토기 및 토제품

118.

평저단경호

平底短頸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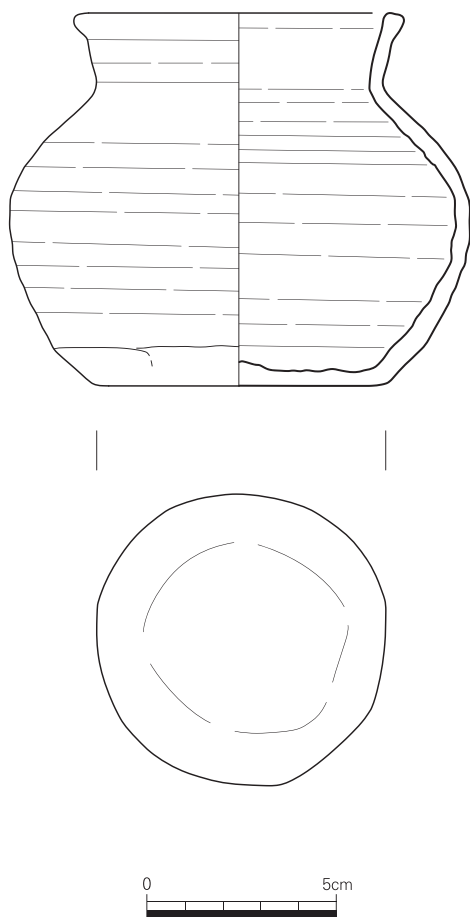
-

소장품 번호 : 본관10414

높이 9.9cm, 구경 8.6cm, 저경 7.6cm



도판 118. 평저단경호(본관10414)



도면 85. 평저단경호(본관10414)

평안남도 대동군 대동강면 오야리에서 출토된 평저단경호로, 구경에 비해 기고가 낮은 형태이다. 내·외면 회색을 띠며, 정선된 니질계 태토로 제작되었다. 짧게 직선상으로 외반하는 경부 위로 둥글게 처리된 구연단부가 약하게 돌출되어 있다. 동최대경은 동체부 중상위에 위치하며, 편평한 저부로 이어진다. 표면 박리가 심한데, 동체부 내외면에 회전물손질에 의한 요철면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동체부외 저부 접합면은 정지깎기 조정하였다. 외저면 역시 박리가 심하여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부에 남아있는 흔적으로 볼 때 회전 상태에서 실로 떼었을 가능성이 있다.

119.

평저단경호

平底短頸壺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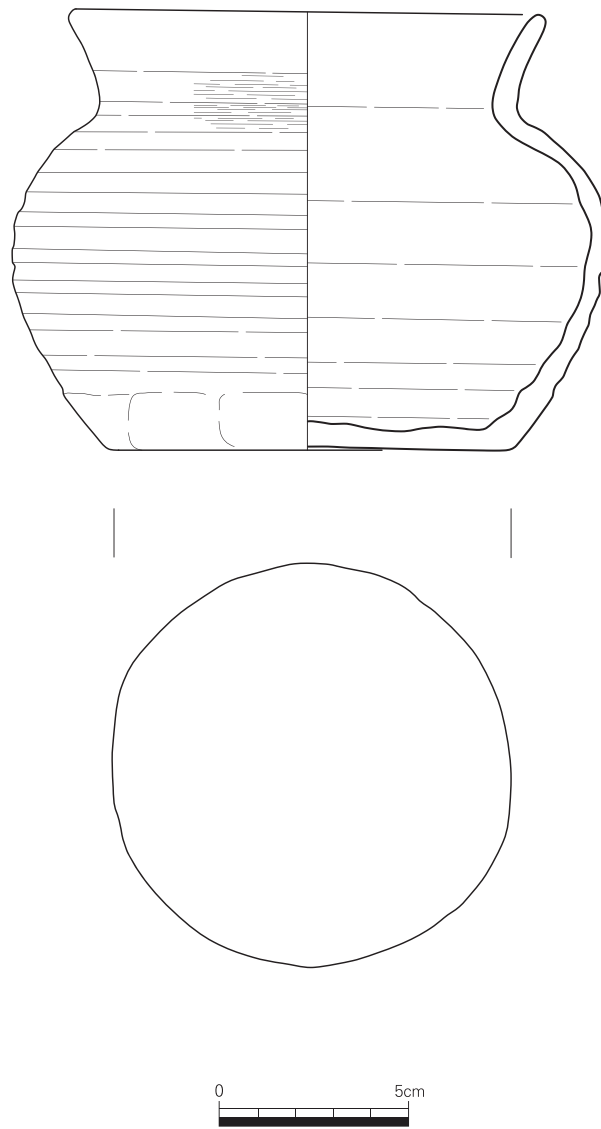
소장품 번호 : 본관12386

높이 11.6cm, 구경 12.4cm, 저경 10.6cm



도판 119. 평저단경호(본관12386)





도면 86. 평저단경호(본관12386)

평안남도 대동군 대동강면 오야리에서 출토된 평저단경호이다. 내외면 황갈색을 띠며, 정선된 니질계 태토로 제작되었다. 표면 박리가 심하나, 일부에 남은 흔적으로 볼 때 내·외부 표면에 적갈색 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짧게 외반하는 구연부에서 급격하게 꺾이며 동체부로 이어진다. 동최대경은 동체부 중상위에 위치하며, 편평한 저부로 이어진다. 동체부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에 의한 강한 요철면이 남아 있으며, 내저면에도 동심원상의 회전흔이 남아있다(도판 119-1). 동체부 하단의 저부 접합면과 외저면 테두리에는 정지 깎기흔이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있다. 외저면 역시 표면 박리가 심하여 정확하지는 않지만, 정지 상태에서 실로 떼었을 가능성이 있다.



도판 119-1. 내부 바닥 세부

120.

평저장경호

平底長頸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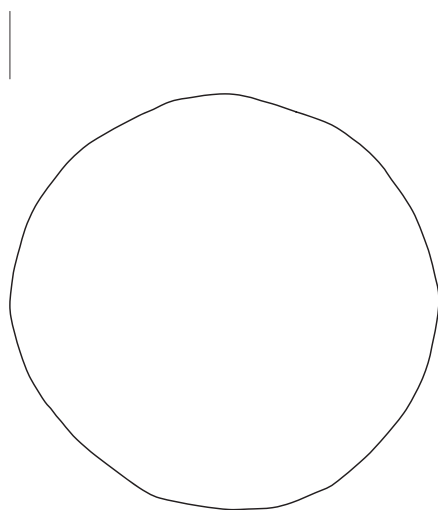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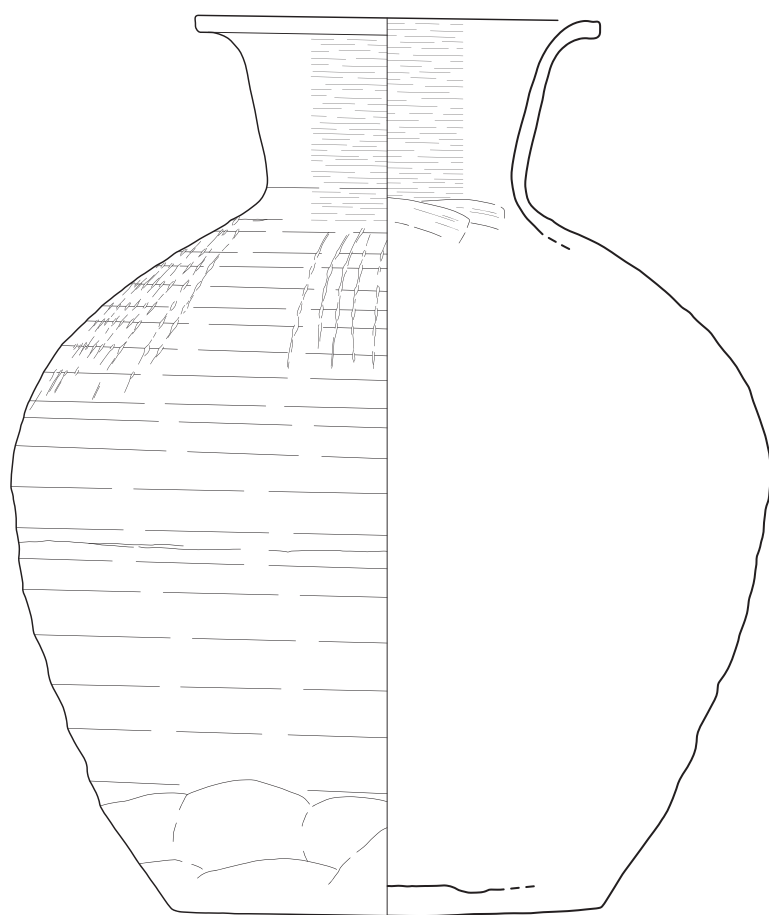
-

소장품 번호 : 본관13095

높이 23.8cm, 구경 10.6cm, 저경 11.4cm



도판 120. 평저장경호(본관13095)



도면 87. 평저장경호(본관13095)



도판 120-1. 견부 문양



도판 120-2. 경부 내면 세부

평안남도 대동군 대동강면 오아리에서 출토된 평저장경호이다. 내외면, 속심 회색 색조를 띠며, 정선된 니질계 태토로 제작되었다.

직선상으로 외반하는 경부 위로 크게 꺾이며 외반하는 구연단부가 이어진다. 동최대경은 동체부 중상위에 위치한다. 구연부와 경부, 동체부 모두 회전물손질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동체부 전체에는 회전물손질에 의한 요철면이 남아 있다. 대체로 동체부 하단으로 갈수록 요철면의 간격이 넓어지지만, 간격이 일정하지는 않다. 동체부

하단에는 정지 깎기흔이 2단으로 남아있다. 외저면에는 사절흔과 같은 제작흔이 확인되지 않는데, 표면 박리에 의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기형 조정이 모두 끝난 후 뾰족한 도구를 사용하여 견부에 종방향으로 밀집된 선을 그었다. 약 11개의 밀집된 선이 단위를 이루며,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어 문양의 효과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문된 것으로 보인다(도판 120-1).

121.

완

鉢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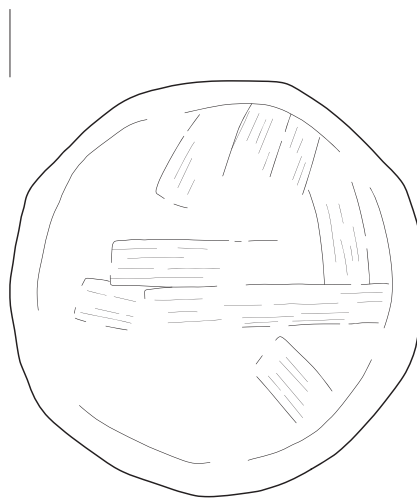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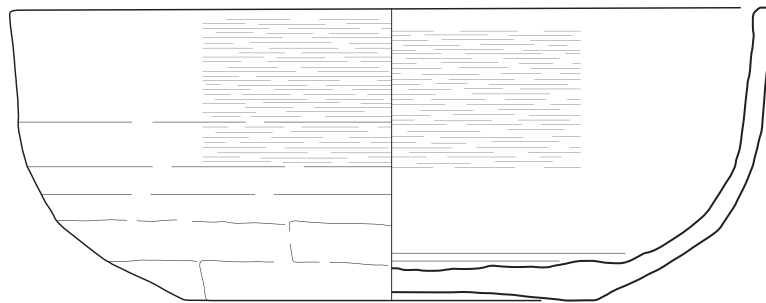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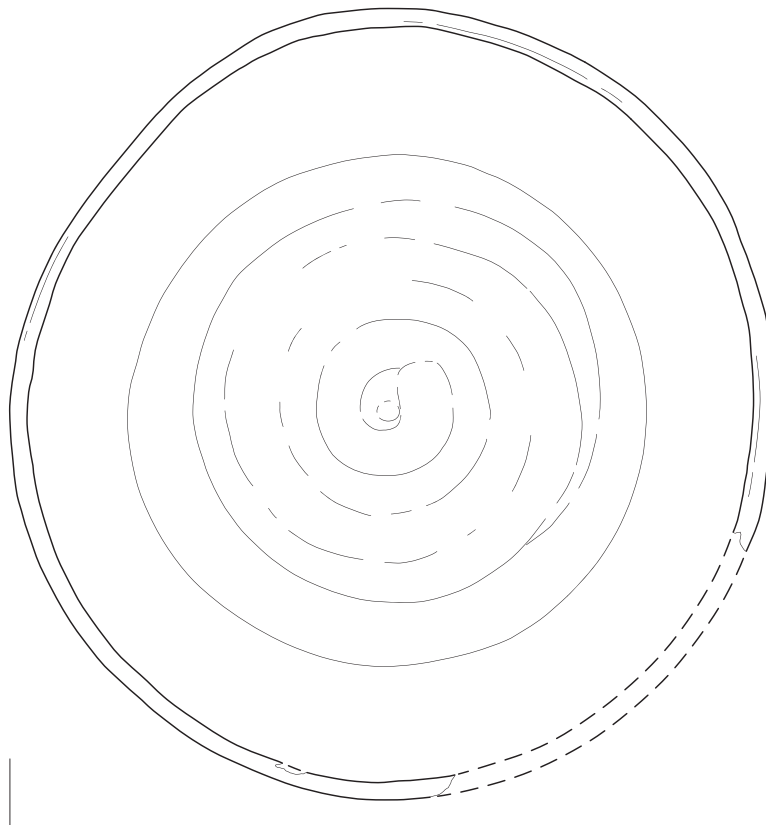
소장품 번호 : 본관11451

높이 7.8cm, 구경 20.1cm, 저경 11.0cm



도판 121. 완(본관11451)





도면 88. 완(본관11451)



도판 121-1. 내면

평안남도 대동군 선교면 오야리에서 출토된 완이다. 구연부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내·외면 회색 색조를 띠며, 정선된 니질계 태토로 제작되었다. 동글게 처리된 구연단부에서 저부까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이어진다. 표면 박리가 심하지만, 동체부 상단의 내·외면에 회전물손질흔이, 그리고 내저면에 회전물손질에 의한 동심원상의 회전흔이 약하게 남아있다. 동체부와 저부 접합면은 정지깎기 조정하였으며, 외저면에는 도구를 사용하여 여러 방향으로 정면한 흔적이 남아있다.

122.

토기편

土器片

-

소장품 번호 : 본관9627·9628

① 잔존높이 6.0cm, 구경 13.2cm

② 잔존높이 3.3cm

③ 잔존높이 8.3cm

④ 잔존높이 7.6cm, 구경 23.8cm

⑤ 잔존높이 8.0cm, 구경 23.4cm



도판 122. 토기편(①·④ 본관9627, ②·③·⑤ 본관9628)

① ② ③  
④ ⑤

평안남도 대동군 대동강면 오야리에서 출토된 토기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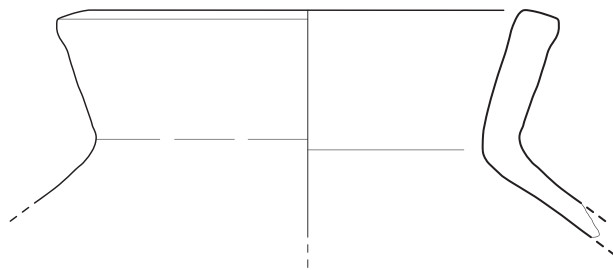
①: 직선상으로 짧게 외반하는 구연부가 있는 석영혼입계 옹으로 추정된다. 구연부 일부만 잔존하여 전체적인 기형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호에 가까운 기형으로 보인다. 내외면 회백색 색조를 띠며, 표면 박리가 심해 제작흔은 확인하기 어렵다.

②: 잔존 형태로 볼 때 저부에 굽이 달린 화분형토기 구연부편일 가능성이 높다. 내외면 적갈색 색조를 띠며, 활석혼입계 태토로 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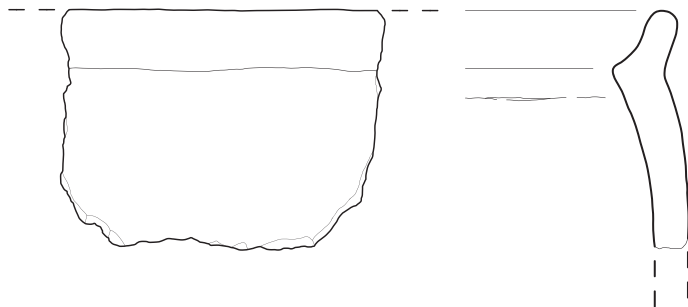
③: 평저호 동체부편으로 추정된다. 비교적 경질 소성되었으며, 내외면 회색 색조를 띤다. 정선된 니질계 태토로 제작되었다. 내·외면에 회전물손질에 의한 요철면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④: 석영혼입계 옹 구연부편이다. 내외면 회백색 색조를 띠며, 석영혼입계 태토로 제작되었다. 구연부 단면형태 장방형이며, 오목하게 들어가는 짧은 경부에서 팽만하는 동체부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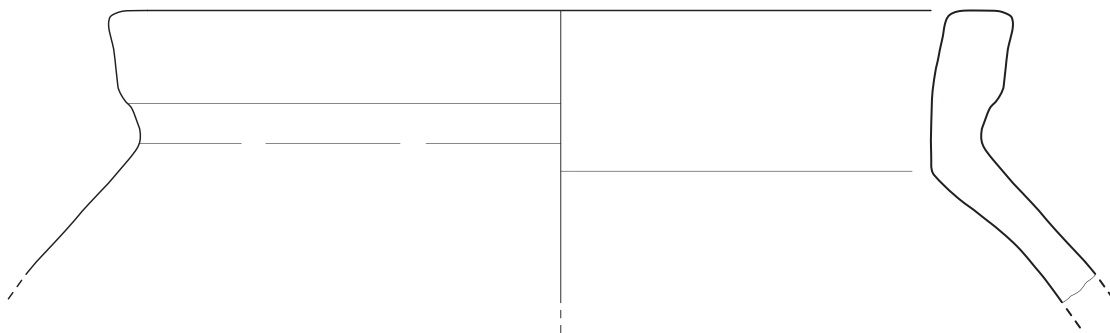
⑤: 타날문토기편으로, 구연부와 동체 상부 일부만 남아있다. 내외면 적갈색 색조를 띠며 니질계 태토로 제작되었다. 구연부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선명하게 남아있으며, 견부 내면에는 원형의 무문박자흔이 남아 있다. 견부에서 이어지는 동체부 상단의 외면에는 종방향의 승문타날이 시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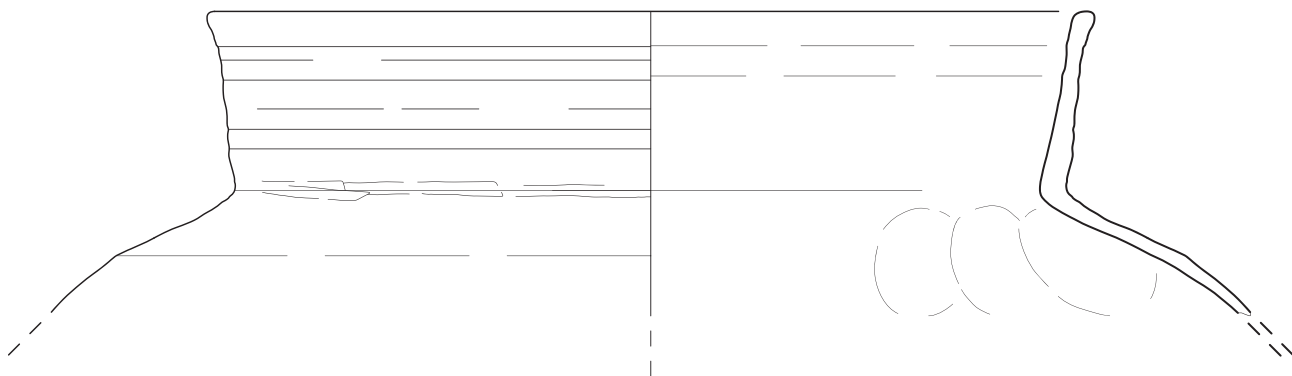
①



②



④



⑤



도면 89. 토기편(①·④ 본관9627, ②·⑤ 본관9628)

123.

기와편

瓦片

-

소장품 번호 : 본관9631·9632

① 잔존길이 8.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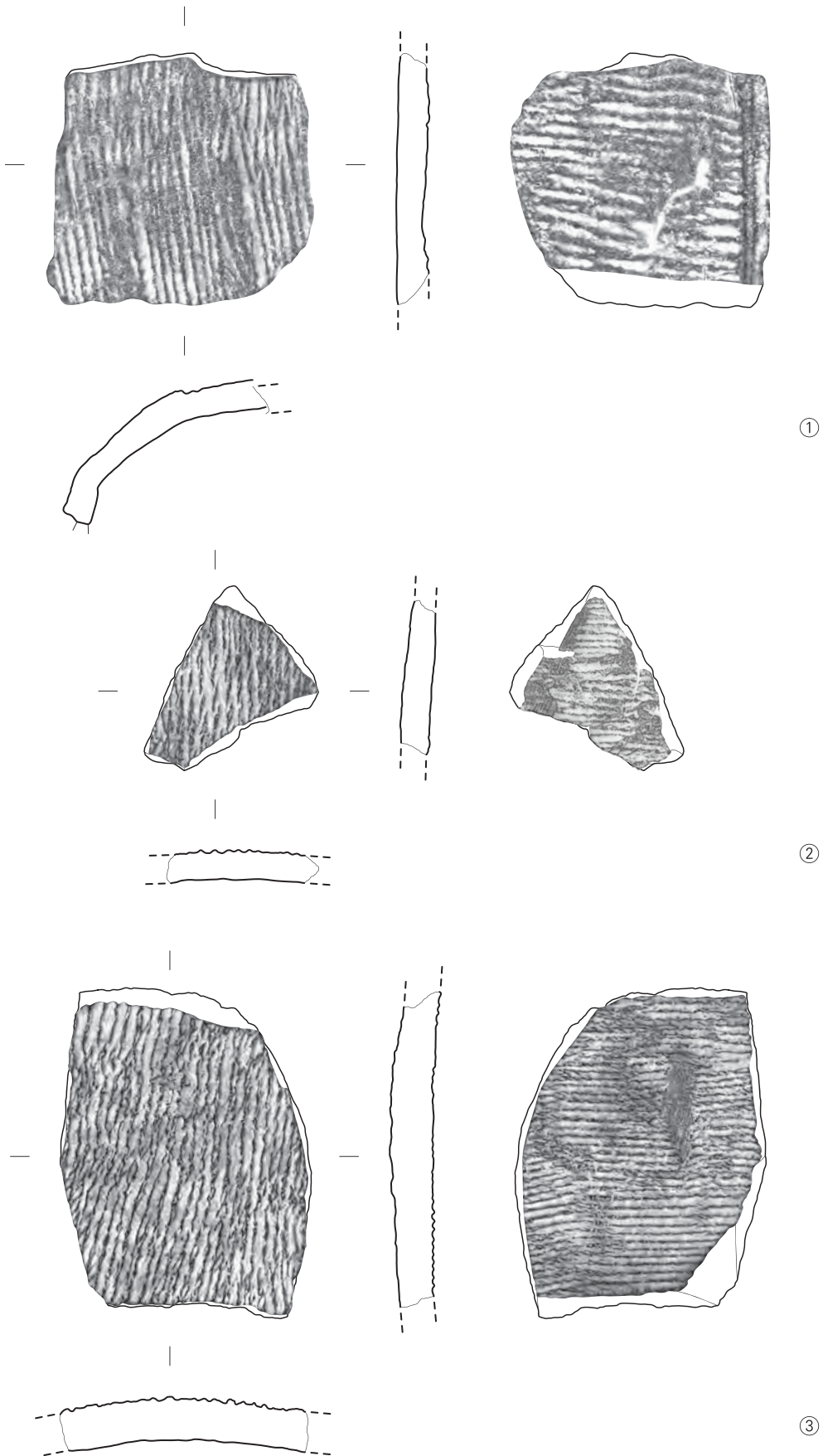


도판 123. 기와편(① 본관9631, ②·③ 본관9632)

① ② ③

평안남도 대동군 대동강면 오야리 연와토채장煉瓦土採場에서 확인되었다. 모두 점토피를 쌓아 성형한 것으로, 외면(凸面)에는 종방향의 승문 타날흔이, 내면(凹面)에는 횡방향의 승문 내박자흔이 남아있다. ①은 수키와로 한쪽 측면이 남아있어 분할면과 파면을 확인할 수 있다. ②와 ③은 편이 작아 기와의 종류는 구분하기 어려우나 내면에서 상하 문지른 흔적과 내박자 흔적이 잘 관찰된다.





도면 90. 기와편(① 본관9631, ②·③ 본관9632)

## 7. 참고품-오야리 22·23호분 출토품

1930년에 조사한 오야리 18~21호분 주변에는 22~24호분도 위치한다. 콘프로덕션 회사 사택의 수도공사 중 21호분의 북쪽에서는 벽돌을 사용한 무덤이, 서남쪽에서는 목곽묘가 발견되어 각각 22호분, 23호분이라 명명하였다. 이 두 고분은 이미 도굴되어 발굴조사가 진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 고분의 도굴 건에 관해 선교리 주재소를 방문하여 회수된 도난품 일부를 확인하였으며, 일부는 평양박물관이 소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22·23호분 출토품으로 확인한 유물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표 2. 오야리 22호분 및 23호분 출토 추정 유물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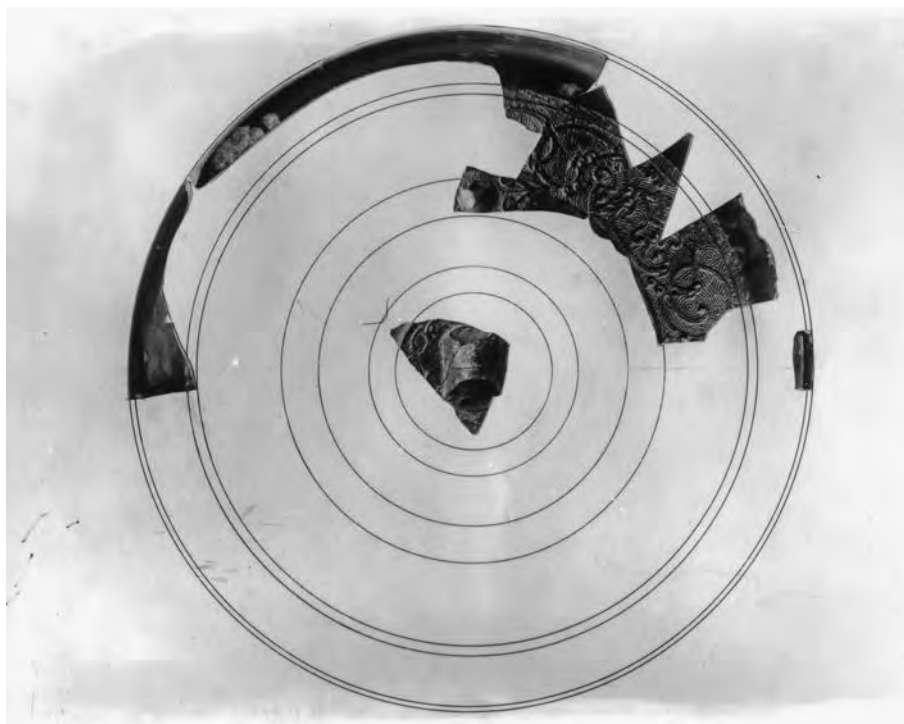
참고	유물명	보고서		비고
		유물명	수량	
1	세지문경(細地文鏡)	細線地文虬龍鏡殘缺	9	
2	박국경(博局鏡)	細線四神鏡殘缺	9	
3	동탁(銅鐸)	銅鐸	4	철설(鐵舌) 2점 포함
4	삿갓형동기(笠形銅器)	笠頭筒形銅製品	2	
5	을자형동기(乙字形銅器)	管形銅製品殘缺	1	목심, 모시(苧) 부착
6	권충형동기(拳銃形銅器)	柄頭樣銅製品殘缺	1	
7	칠기장식금동테(漆器裝飾金銅釘)	金銅覆輪殘缺	2	
8	화분형토기(花盆形土器)	陶盥	1	
9	평저장경호(平底長頸壺)	陶壺	1	

세지문경(참고 1)은 선교리 주재소에 회수된 2점과 평양박물관 소장 7점이 서로 접합되어 한 개체임을 확인하였다. 을자형동기(참고 5)는 오야리 조사를 진행한 칸다(神田)가 23호분의 매립 위치에서 채집한 것이다. 권충형동기(참고 6)는 쿠리하라(栗原) 소장품으로, 세지문경과 같은 때에 매매 시장에 나와 22호분 혹은 23호분 출토품으로 추정된다. 보고서에서는 평안남도 대동군 용악면 상리에서 동탁, 삿갓형동기, 을자형동기, 권충형동기가 공반한 예로 보아 오야리 23호분에도 일괄 부장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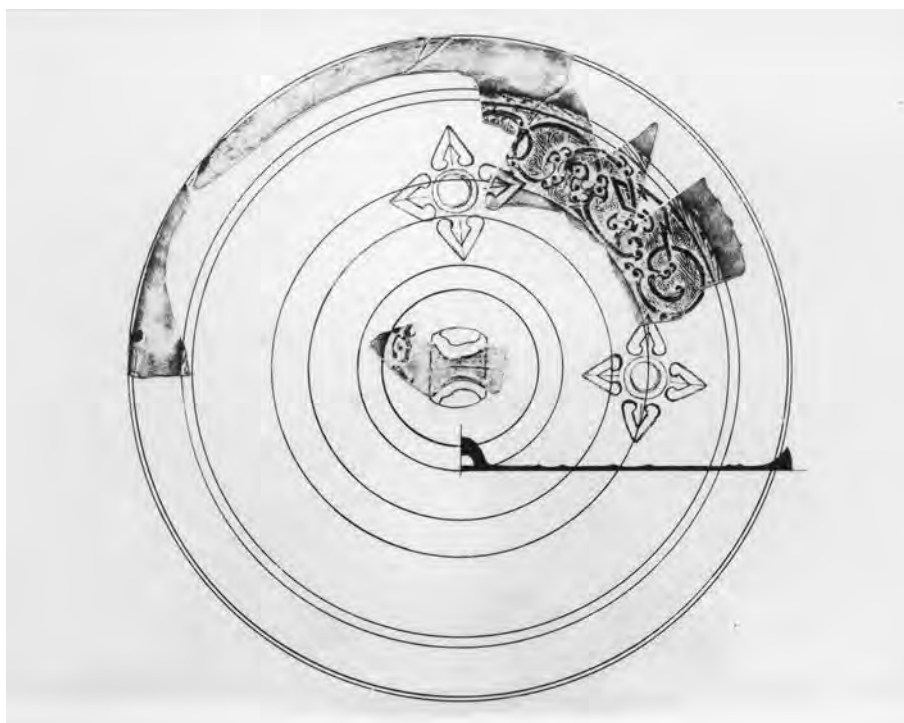
현재 이 유물들의 실물은 확인되지 않지만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사진과 함께 비교적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오야리 낙랑고분 관련 중요한 자료이기에 본 보고서에서도 참고품으로 간단히 보고하고자 한다.

참고 1.  
세지문경  
細地文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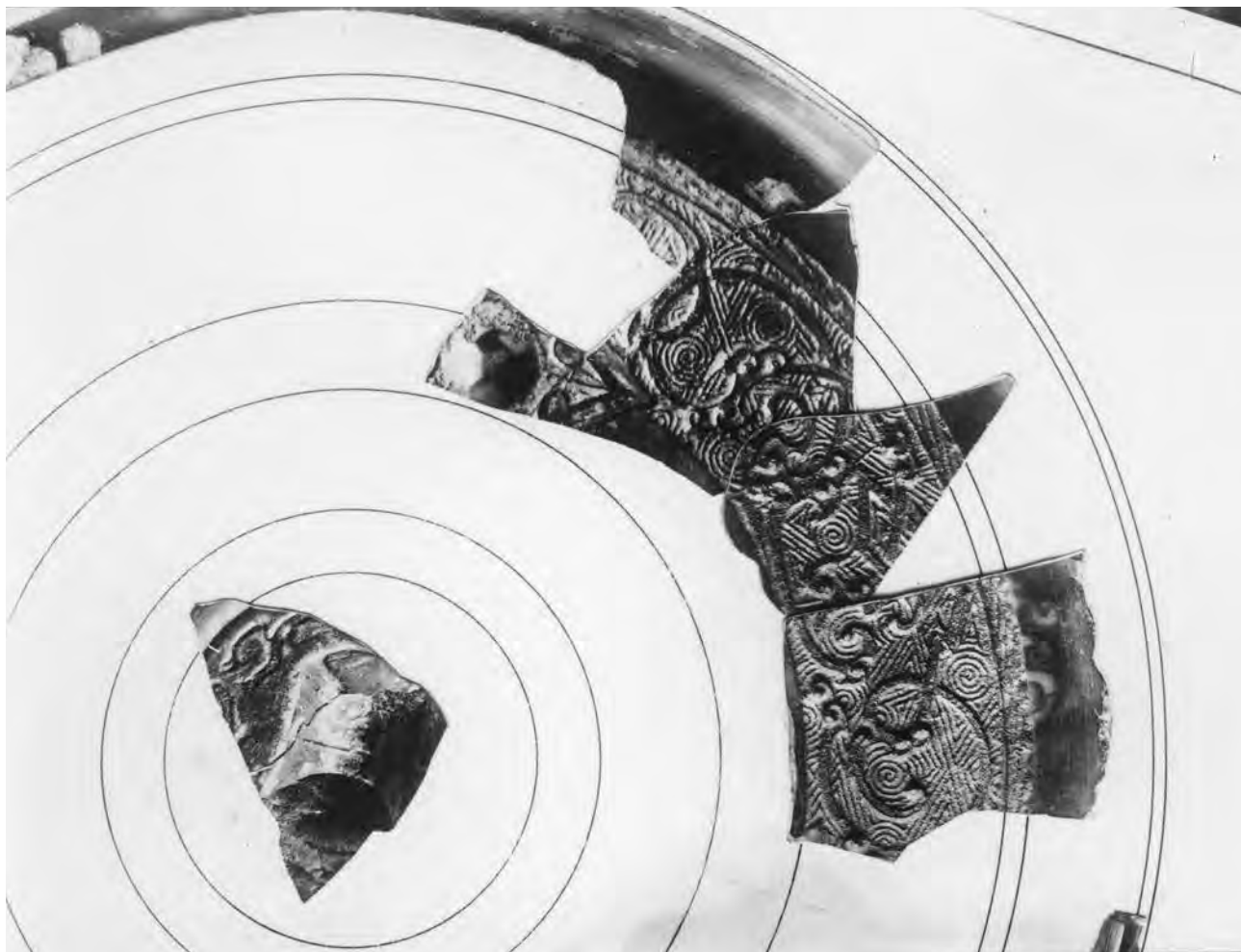
추정지름 22.1cm



참고도판 51. 세지문경(건판26608)



참고도면 21. 세지문경(건판26204)



참고도판 52. 세지문경의 문양 세부(건판26952)

유물은 파손되어 1/5정도 남아 있지만, 전체적인 형태를 추정할 수 있다. 중앙에는 삼현뉴三弦鈕가 있고, 사방으로 4개의 뉴가 있으며 그 주변을 다시 사방으로 변형된 꽃잎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뉴좌 안쪽에 신수로 생각되는 문양이 확인되며, 주문양대에는 변형된 용문을 주문, 와문 주위를 마름모 형태로 구획한 지문으로 배치하였다. 이러한 지문은 도장으로 찍어내는 방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세지문경의 주문에 비해 지문은 한정적으로 확인된다. 주연은 돌기연이다. 지름 22.1cm, 뉴 너비 2.3cm, 뉴 높이 1.1cm, 가장자리 두께 0.75cm이다.

이 동경은 추정지름 20cm가 넘는 대형의 전국시대 거울로 아마도 위만조선과 관련된 시기의 것으로 보인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러한 대형 동경은 중국 내에서도 제후왕 이상의 무덤에서 확인되며, 정치적 목적에 의해 분배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 2.

박국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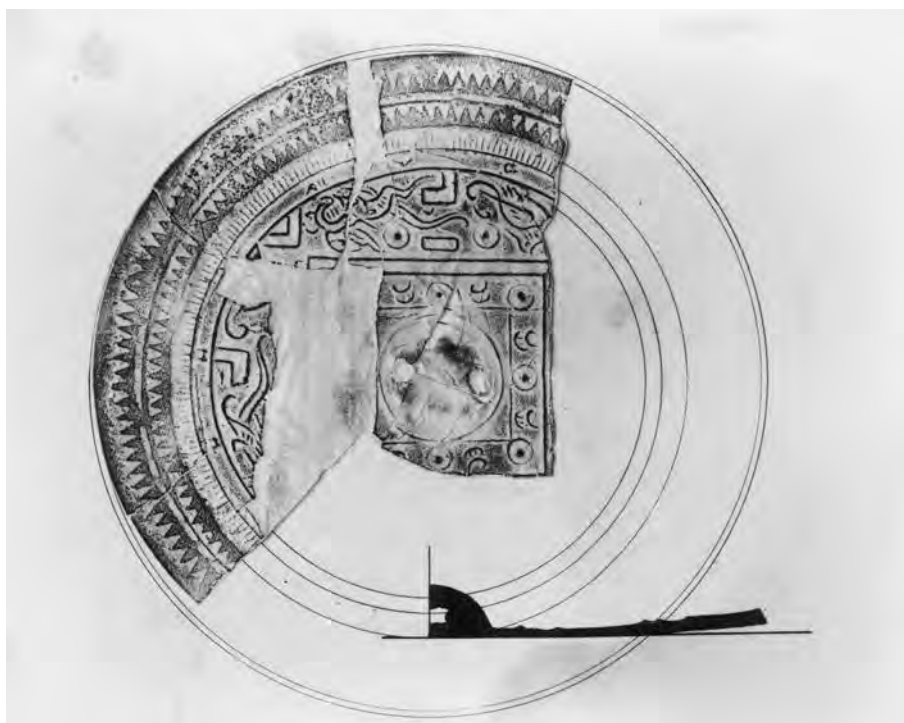
博局鏡

-

지름 16.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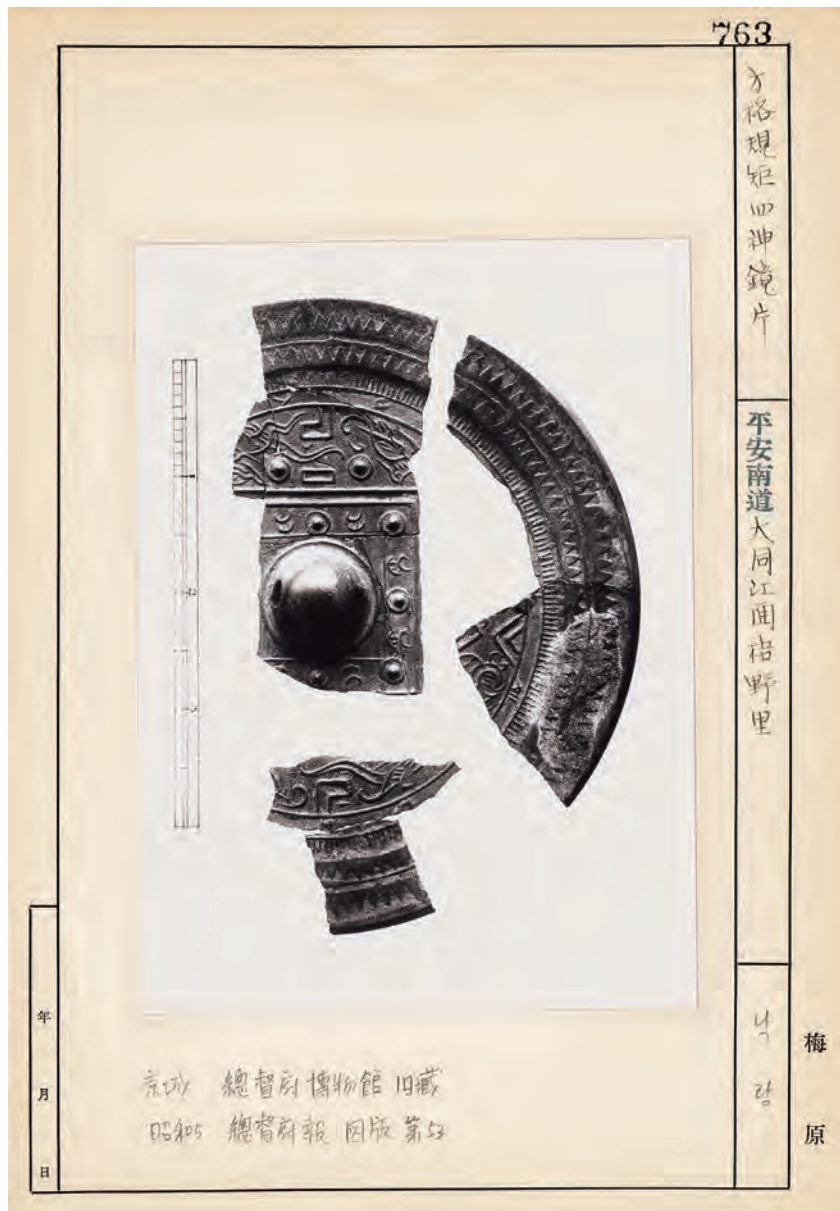


참고도판 53. 박국경(건판26171)



참고도면 22. 박국경(건판26604)





참고도판 54. 박국경(우메하라 고고자료 763)

유물은 파손되어 1/2정도 남아 있지만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 있다. 중앙에는 반구형의 뉴가 있고, 뉴공은 원형으로 보인다. 뉴좌는 방형인데 8방으로 소유小乳를 배치하고 그 사이에 문자를 모방한 문양을 새겨 넣었다. 여기에는 십이지를 방위에 맞추어 새겨 넣는 것이 일반적이다. 방형 뉴좌의 각 변 중앙에는 'T'자형의 문양을 새기고 양쪽에 각 하나씩 소유를 배치하였다. 'T'자 문양의 맞은편에는 역'L'자 문양을 새겼다. 그리고 방형뉴좌의 각 모서리에 대응하여 'V'자 문양을 배치하였다. 역'L'자와 'V'자 문양 사이에는 신수神獸를 배치하였는데 남아 있는 것은 새와 현무, 청룡으로 보인다. 문양대 바깥에는 명문대가 있는데 사진상으로는 판독이 쉽지 않다. 그리고 그 바깥으로 즐치문, 거치문-거치문이 배치되어 있다. 지름 16.2cm, 뉴 너비 2.7cm, 뉴 높이 1.3cm, 가장자리 두께 0.3cm이다.

박국경 중에서는 퇴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후한대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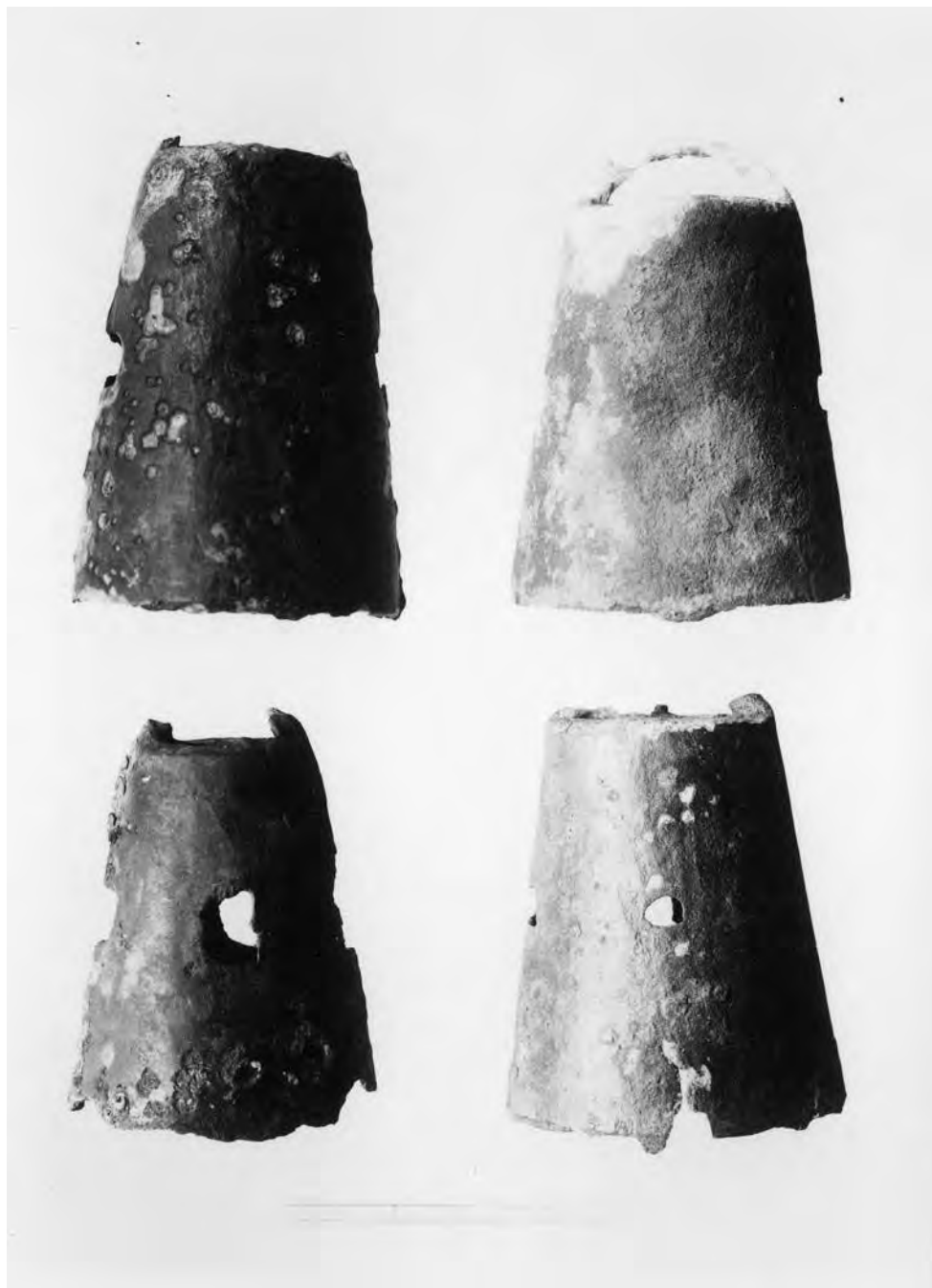
참고 3.

동탁

銅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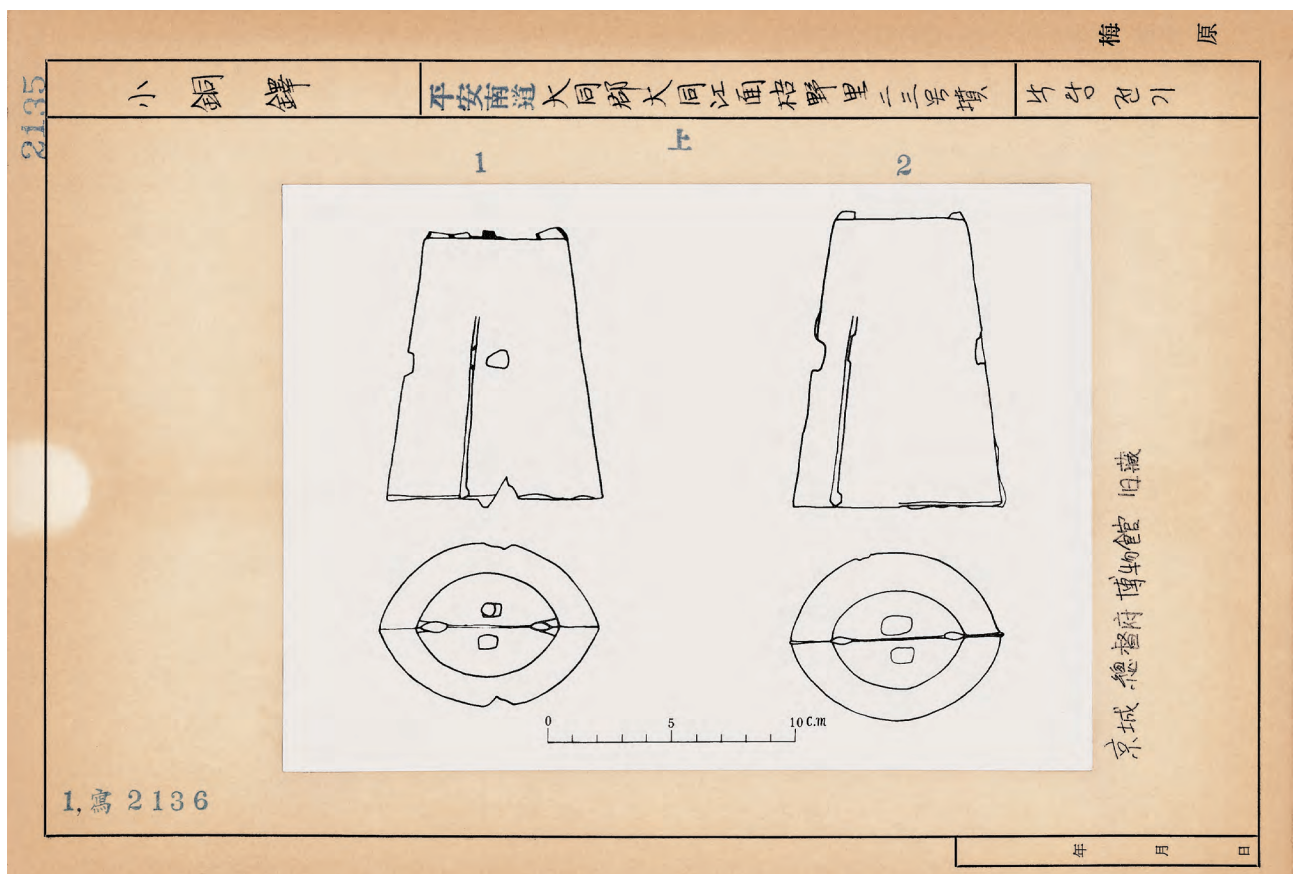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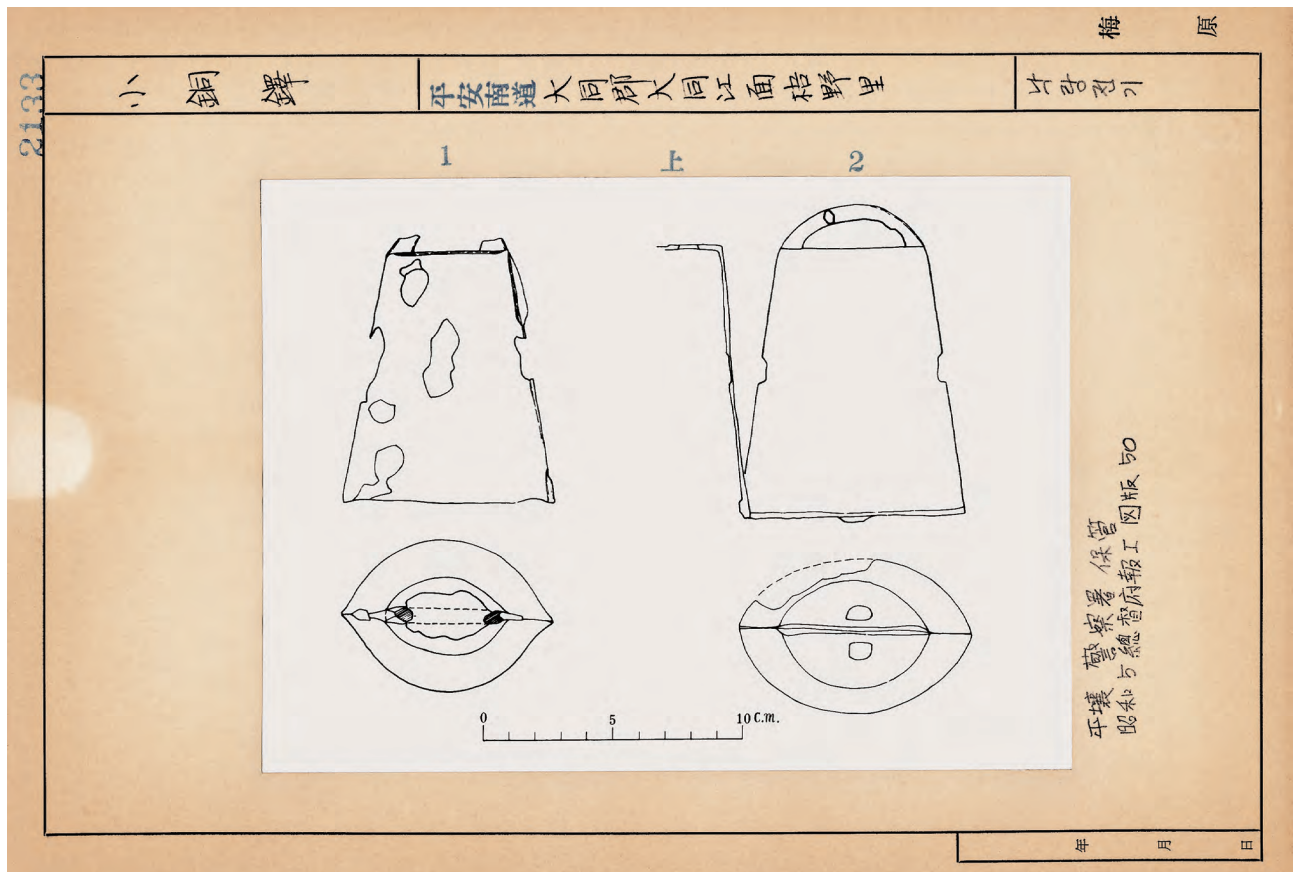
-

② 높이 13.8cm



① ②  
③ ④

참고도판 55. 동탁(건판26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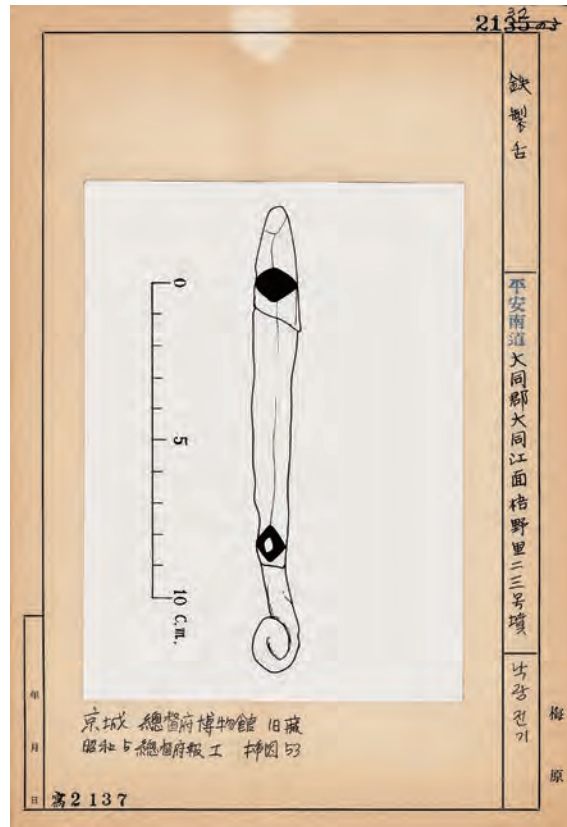
참고도면 23. 동탁(우메하라 고고자료 2133, 2135)



모두 4점으로, 3점은 뉴가 결실되었으나 동일한 형태이다. 평면 사다리꼴, 단면 행인杏仁형이다. 윗면에는 반원형의 뉴가 달려있고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 철설鐵舌을 매달 수 있게 하였으나 흔적만 남아있다. 철설은 2점이 별도로 확인되었는데, 긴 막대형이며 한쪽 끝은 뉴에 매달기 위해 둥글게 말려있다.



참고도판 56. 철설(건판26205)



참고도면 24. 철설(우메하라 고고자료 2132)

이 동탁은 분할틀을 이용하여 주조하였으며, 주조 후 가공하지 않아 그 흔적이 표면에 남아있다. 또 신부의 앞면 혹은 양 측면에는 동탁을 관통하는 방향의 구멍이 뚫려있는데, 이는 거푸집의 외형과 내형을 연결해 고정하는 흔적이다. 표면에는 비단으로 추정되는 직물도 남아있다(참고도판 57). 형태가 가장 잘 남아있는 ②는 높이 13.8cm이며 신부 높이 12.1cm, 뉴 높이 1.5cm이다.

우리나라의 동탁은 크기에 따라 9.0~15.0cm인 것과 5.0cm 미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오야리 출토 동탁은 전자에 속하며, 전자는 주로 세형동검 문화와 관계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평안남도 대동군 용악면 상리를 비롯하여 대전 괴정동, 경주 입실리 등에서 출토되었다.



참고도판 57. 동탁 ②(左: 건판26207, 右: 건판26603)

참고 4.

삿갓형동기

笠形銅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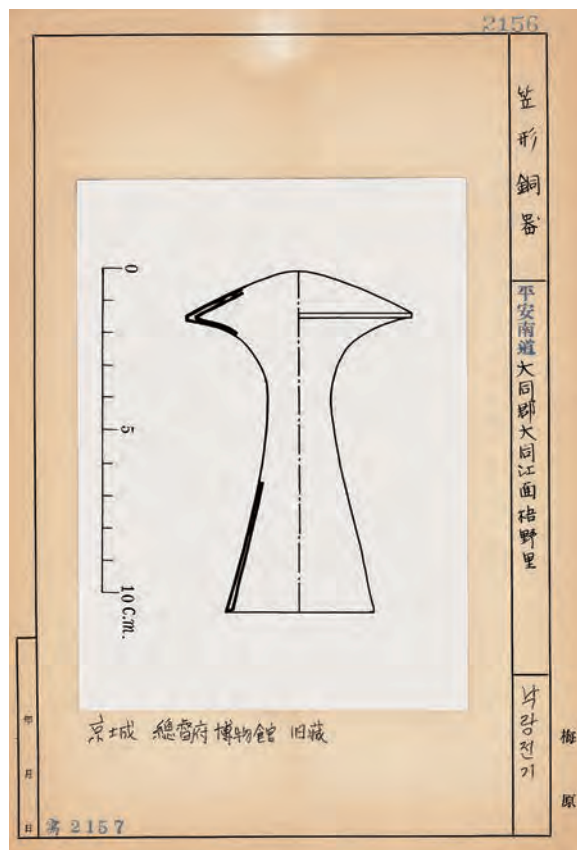
① 길이 10.8cm, 갓 지름 7.0cm, 몸통 하단 지름 4.5cm

② 잔존길이 10.5cm, 갓 지름 7.0cm



① ②

참고도판 58. 삿갓형동기(건판26202)



참고도면 25. 삿갓형동기(우메하라 고고자료 2156)

수레의 난간을 장식하는 수레 부속품의 하나로, 보고서에는 입두통형동제품으로 보고되었다. 총 2점 확인되었는데 형태는 동일하다. 위에는 삿갓모양 머리가, 아래에는 원통형의 몸이 달렸다. 삿갓형동기는 몸 가운데에 1~2줄의 테두리가 돌아가는 것과 테두리 없이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것으로 크게 구분되며, 이 삿갓형동기는 후자에 해당된다. 주조시 틀로 사용된 점토가 삿갓 안에 남아있다. 정백리 부조예군묘 등 평안남도 대동군 대동강면 일대에서 유사한 형태의 삿갓형동기가 출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 5, 6.

을자형동기와 권총형동기

乙字形銅器, 拳銃形銅器

-

을자형동기 잔존길이 7.1cm



참고도판 59. 을자형동기(건판26167 중)

을자형동기로, 직각으로 꺾이는 부분이 결실되었다. 내부에는 목심이 남아있고 뾰족하게 한쪽 끝을 자른 부분에 실이 얹혀있는데, 목심 전체에 실로 엮은 흔적이 있다고 한다. 단면 원형이며, 지름 1.7cm, 두께 0.15cm이다. 을자형동기는 삿갓형동기, 권총형동기와 함께 출토되어 수레부속구로 분류하나 용도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보고서에는 개인이 소장한 권총형동기 1점도 오야리 23호분 출토품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해당 유물의 사진이나 도면은 실려있지 않으나, 상리 출토품과 유사한 형태로 추정하였다.

참고 7.

칠기장식금동테

漆器裝飾金銅釦

-

구경 13.5cm



참고도판 60. 칠기장식금동테(건판26167 중)

칠기의 구연에 씌운 금동테이다. 녹이 심하나 표면의 도금이 선명하게 남아있고, 칠기는 부식되어 뒷면에 목질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단으로 되어 있으며, 너비 1.8cm, 두께 0.3cm로 비교적 두껍게 만들었다.

참고 8, 9.

화분형토기와 평저장경호

花盆形土器, 平底長頸壺

-

① 높이 16.1cm, 구경 15.9cm, 저경 6.8cm

② 높이 19.4cm, 구경 10.5cm, 저경 10.0cm



참고도판 61. 화분형토기와 평저장경호(건판26211)

① ②

①은 화분형토기로 내외면 암갈색을 띤다. 저부는 평저이고 위로 갈수록 기벽이 벌어지며, 구연은 너비 1.8cm 가량 수직으로 꺾였다. 내면 구연부터 바닥까지 틀 성형에 의한 포목흔이 잘 남아있다.

②는 평저장경호로 내외면 암청색을 띤다. 물레로 성형하여 표면 전체에 수평한 요철흔이 확인된다.



III

---



---

1. 평양 오야리 19호분 출토 칠기 및 목관의 칠 도막 분석	324
2. 평양 오야리 19호분 출토 목관의 수종 분석	338
3. 평양 오야리 고분 출토 금속기 분석	342
4. 평양 오야리 고분 출토 구슬 분석	352
5. 평양 오야리 18·19호분 출토 식물 분석	370
6. 평양 오야리 19호분 출토 식물유존체 분석	376

## 자연과학적 분석

# 평양 오야리 19호분 출토 칠기 및 목관의 칠 도막 분석

양석진, 김태하, 박진호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

## 1. 머리말

평양 오야리 19호분에서 출토된 칠기 및 목관 6건의 칠 도막 단면에 대해 현미경 관찰 및 SEM-EDS 분석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칠 도막의 층상 구조를 파악하고 제작 기법과 그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 2. 분석 대상 및 방법

본 조사에서는 칠기 4건, 목관 2건 등 총 6건의 유물을 대상으로 하였다(표 1). 보존처리 과정에서 수습한 칠편을 에폭시 수지로 진공 함침<sup>1</sup>하여 마운팅한 후 한쪽 면을 연마하였다. 연마한 시료면을 동종의 에폭시 수지를 사용하여 현미경용 슬라이드 글라스에 부착한 후 두께 30 $\mu$ m 이하의 단면 관찰용 시료를 제작하였다. 시료는 실체현미경(M205A, Leica, JPN)과 편광현미경(DMLP, Leica, JPN), 주사전자현미경(SEM, Crossbeam550, Carl Ziess Microscopy GmbH, DEU)을 활용하여 칠 도막을 조사하였다. 칠 도막에서 관찰되는 입자들에 대한 성분은 SEM-EDS(XFlaxh6130, Bruker Nano GmbH, DEU), 일부 옷칠 위에 표현된 문양의 성분은 P-XRF(ArtTAX, Bruker, DEU)로 분석하였다.

표 1. 칠 도막 분석 대상

No.	유물번호	소장품번호	유물명	유물사진	No.	유물번호	소장품번호	유물명	유물사진
1	28-①	본관12605	칠반		4	31	본관12610	범평명칠완	
2	29-①	본관12607	칠반 <sup>1</sup>		5	23	본관12639	제1목관	
3	29-②	본관12608	칠반		6	24	K63	제2목관 (뚜껑) 제2목관 (측면)	

1 칠반은 주칠이 사용된 부분과 주칠이 사용되지 않은 부분이 구분되어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주칠이 사용되지 않은 부분의 자연탈락된 시편을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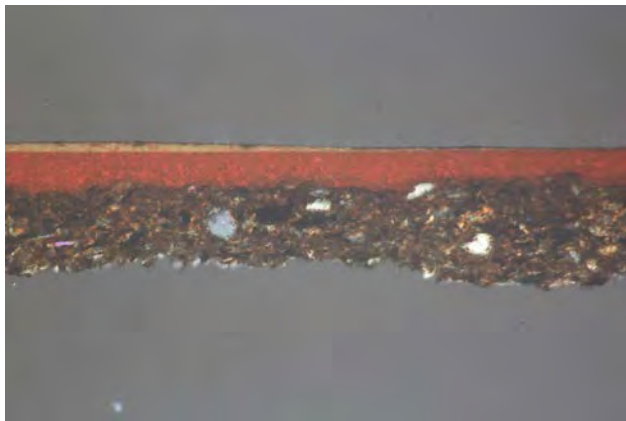
### 3. 분석 결과

#### 1) 칠반(28-①, 본관12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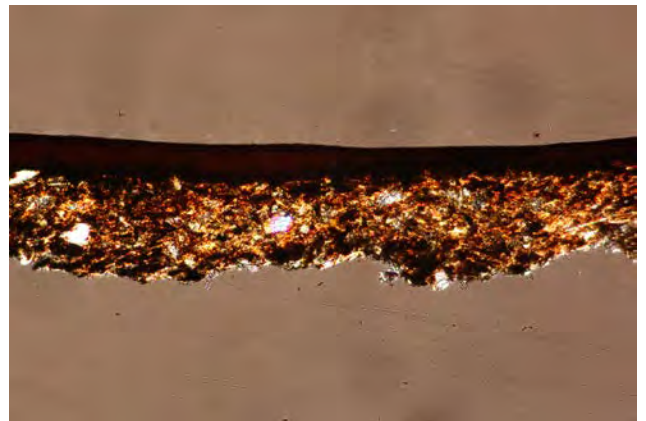
칠반의 칠 도막은 바탕칠층과 옷칠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적색의 옷칠층 위에는 문양을 그리는데 사용된 황색칠이 확인되었으며(도판 1), 바탕칠층에서 일부 다각형의 입자가 편광 하에서 발광하는 것이 관찰되어 광물 입자로 추정하였다(도판 2). 칠의 전체 두께는 약 211.4 $\mu\text{m}$ , 그중 옷칠층의 두께는 약 75.9 $\mu\text{m}$ 로 나타났다.

바탕칠층에서 관찰된 다각형의 광물성 입자를 SEM-EDS로 분석한 결과 알루미늄(Al)과 실리콘(Si) 등이 검출되어 광물성 재료인 토분과 옷칠을 혼합한 것으로 추정하였다(도판 3). 적색을 띠는 옷칠층에서는 수은(Hg)과 황(S)이 검출되어 진사辰砂(Cinnabar, HgS)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도판 4). 옷칠층의 최상층부에서 관찰된 황색층은 XRF 분석 결과 비소(As)와 황(S)이 검출되어 석황石黃(Orpiment, As<sub>2</sub>S<sub>3</sub>)을 섞은 옷칠로 문양을 그린 것으로 추정하였다(도판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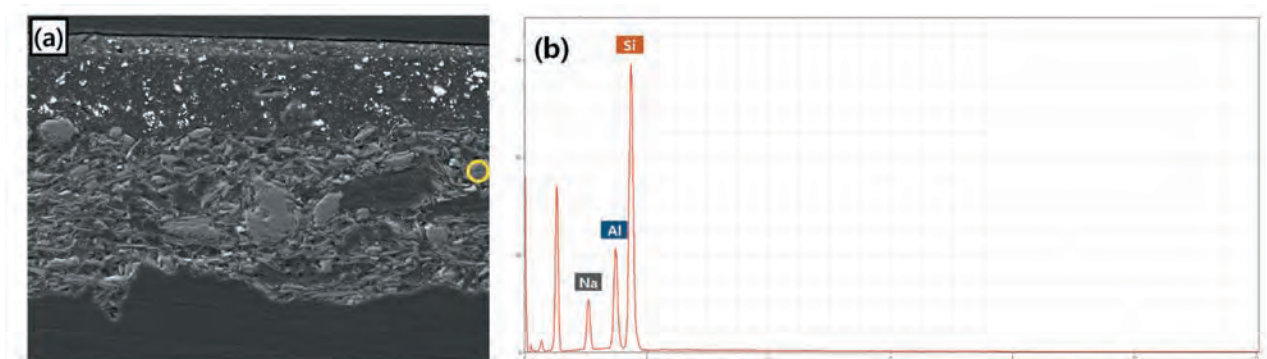
한편, 시료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칠편이 탈락된 유물의 표면에서 식물심이 확인되어 칠회반은 목심저피칠기木心苧被漆器 양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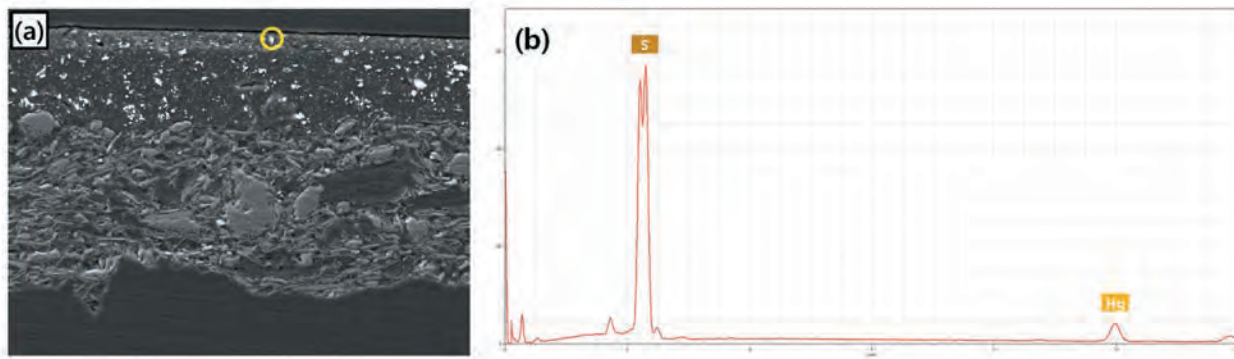
도판 1. 칠반(28-①)의 반사광 관찰 결과(×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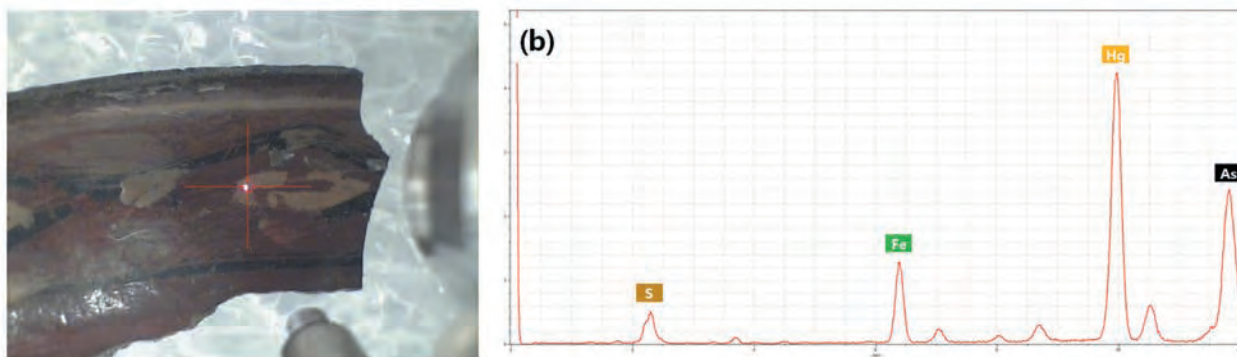
도판 2. 칠반(28-①)의 편광 관찰 결과(×100)



도판 3. 칠반(28-①) 바탕층 토분의 SEM-EDS 분석 결과 [(a): SEM image(×100), (b): EDS spectrum]



도판 4. 칠반(28-①) 옷칠층의 SEM-EDS 분석 결과 [(a): SEM image( $\times 100$ ), (b): EDS spectrum]



도판 5. 칠반(28-①) 문양의 XRF 분석 결과 [(a): XRF image, (b): XRF spectr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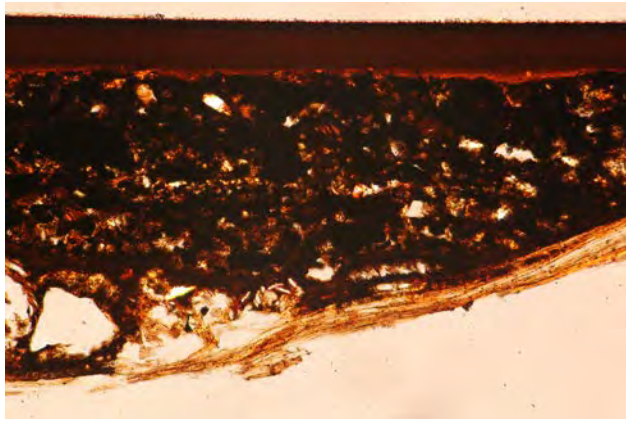
## 2) 칠반(29-①, 본관12607)

칠반의 칠 도막 단면은 크게 바탕칠층과 옷칠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직물심이 함께 확인되었다(도판 6). 바탕칠층은 치밀하게 형성되어 있었으며(도판 7), 칠 도막의 전체 두께는 약  $629.7\mu\text{m}$ , 그중 옷칠층의 두께는 약  $98.3\mu\text{m}$ 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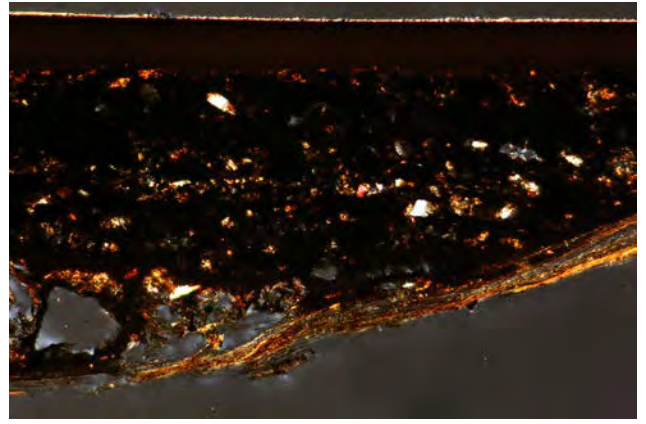
SEM-EDS 분석 결과 바탕칠층의 입자들에서 인(P), 칼슘(Ca), 실리콘 등이 확인되어 옷칠과 골분, 토분을 혼합하여 바탕칠을 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도판 8, 9), 옷칠층에서는 검출되는 원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옷칠만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칠반은 목심木心없이 직물심으로 태態를 만들고 그 위에 바탕칠과 옷칠을 올려 기물을 완성하는 협저칠기挾紵漆器 양식으로 제작한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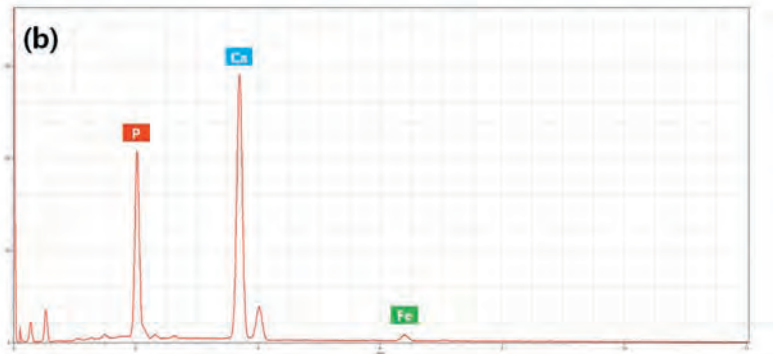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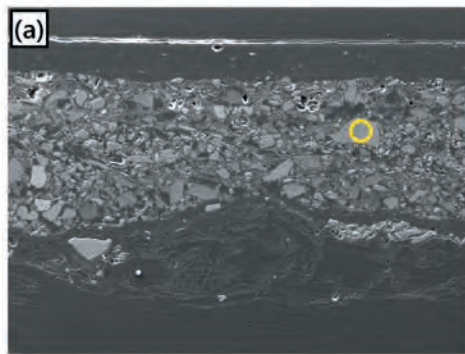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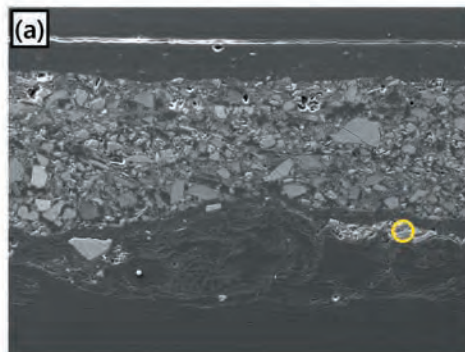
도판 6. 칠반(29-①)의 반사광 관찰 결과(×100)



도판 7. 칠반(29-①)의 편광 관찰 결과(×100)



도판 8. 칠반(29-①) 바탕층 골분의 SEM-EDS 분석 결과 [(a): SEM image(×100), (b): EDS spectrum]



도판 9. 칠반(29-①) 바탕층 토분의 SEM-EDS 분석 결과 [(a): SEM image(×100), (b): EDS spectrum]

### 3) 칠반(29-②, 본관12608)

칠반의 칠 도막 단면 관찰에서는 바탕칠층과 양면의 옷칠층 및 바탕칠층과 각 옷칠층 사이에서 중간층으로 보이는 칠층이 확인되었으며 목심은 관찰되지 않았다(도판 10, 11). 바탕칠층은 직물섬과 바탕칠을 약 9~10회 이상 교차로 쌓아올린 형태로 관찰되었다. 또한 옷칠층은 양면 모두 2~3차례에 걸쳐 칠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쪽면의 옷칠층은 적색을 띠고 있었다. 중간층에서는 본래 과립상 입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확인되었다(도판 12). 칠 도막의 전체 두께 약 4.0mm 중에서 내면의 옷칠층은 약 55.8 $\mu$ m, 외면의 옷칠층은 약 50.2 $\mu$ m로 확인되었다.



바탕칠층의 SEM-EDS 분석 결과 알루미늄, 실리콘, 포타슘(K), 칼슘, 철(Fe) 등의 원소들이 검출되어 토분과 옷칠을 혼합하여 바탕칠을 한 것으로 추정하였다(도판 13, 14). 옷칠층에서는 수은과 황이 검출되어 진사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도판 15). 중간층에서는 잔존 입자를 분석하여, 마그네슘, 알루미늄, 실리콘 등 다양한 원소를 확인하였으며(도판 16), 잔존 입자를 제외한 영역에서는 검출 원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고운 점토질의 광물 입자와 유기물을 섞어 올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유기물은 선행 연구(이용희 2009)에서 바탕칠층과 옷칠층 사이에 전분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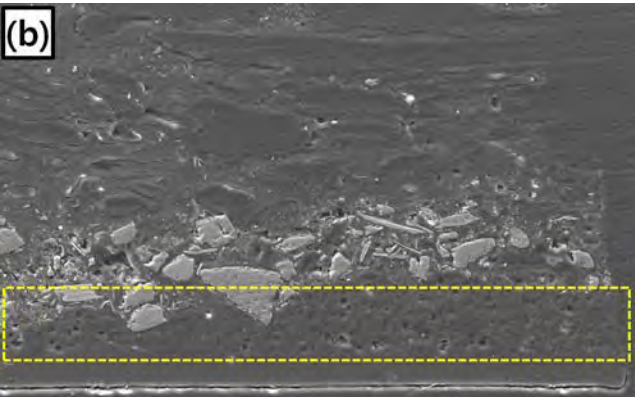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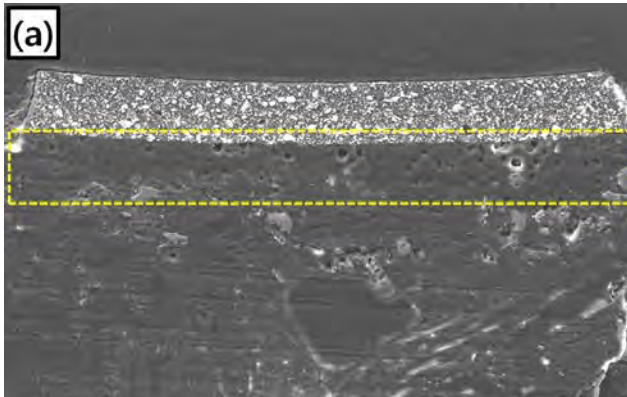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칠반은 목심 없이 직물심과 바탕칠을 번갈아 쌓아올려 제작한 헐저칠기인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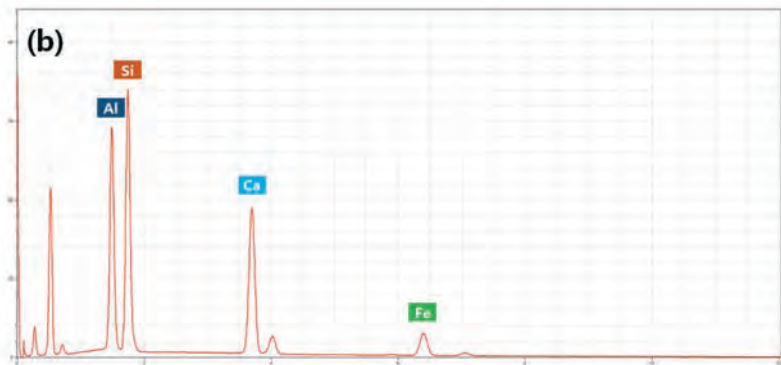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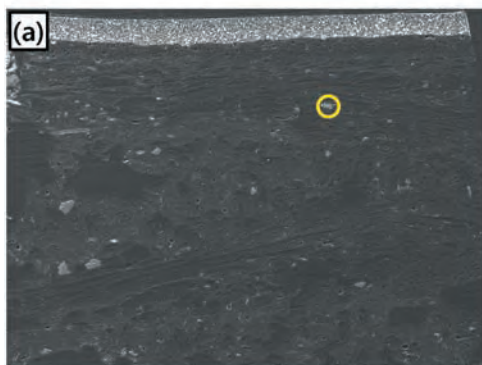
도판 10. 칠반(29-②)의 실체현미경 관찰 결과(×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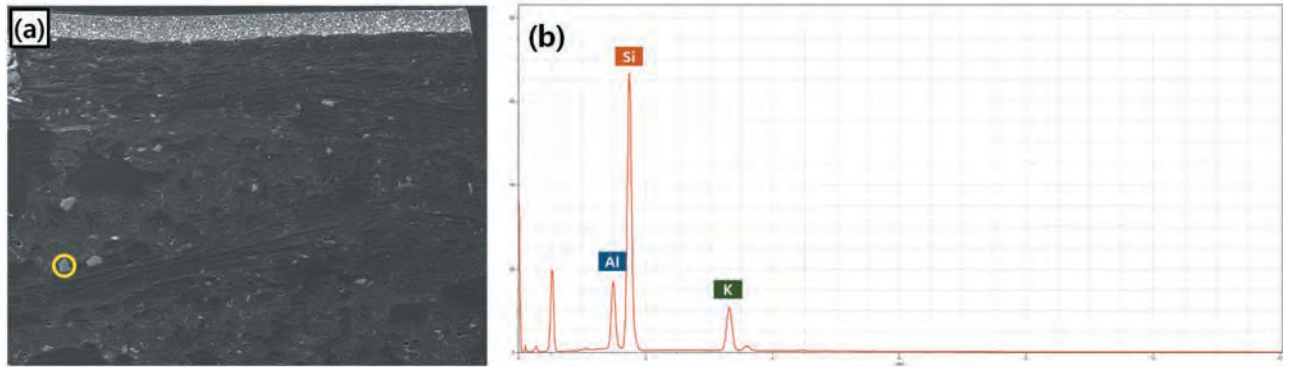
도판 11. 칠반(29-②)의 편광 관찰 결과(×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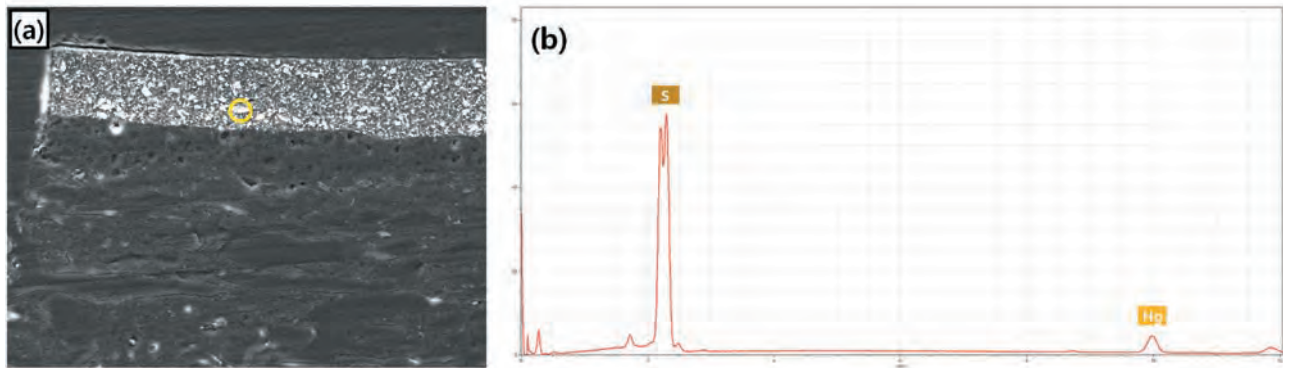
도판 12. 칠반(29-②) 중간층의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결과[(a): 내면 중간층, (b): 외면 중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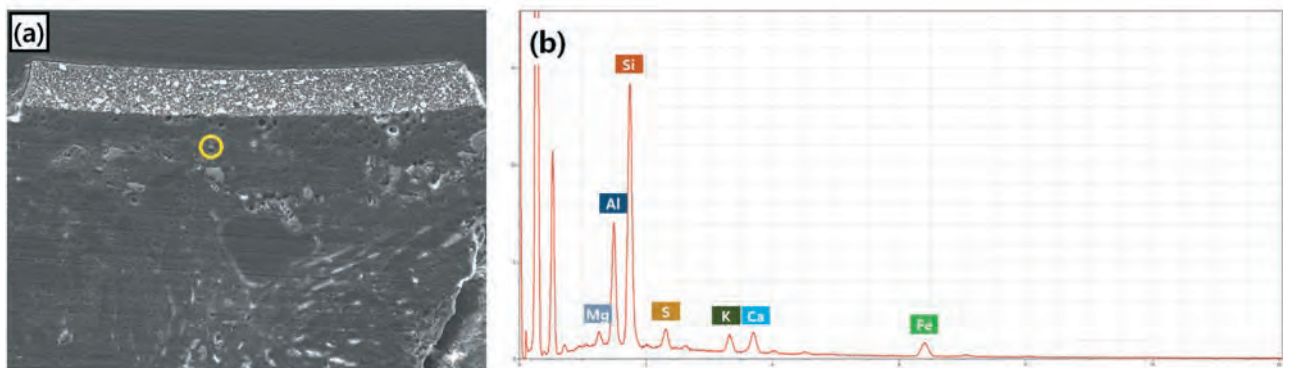
도판 13. 칠반(29-②) 바탕층 토분의 SEM-EDS 분석 결과 [(a): SEM image(×100), (b): EDS spectrum]



도판 14. 칠반(29-②) 바탕층 토분의 SEM-EDS 분석 결과 [(a): SEM image( $\times 100$ ), (b): EDS spectrum]



도판 15. 칠반(29-②) 옷칠층의 SEM-EDS 분석 결과 [(a): SEM image( $\times 300$ ), (b): EDS spectrum]



도판 16. 칠반(29-②) 중간층의 SEM-EDS 분석 결과 [(a): SEM image( $\times 300$ ), (b): EDS spectrum]

#### 4) 범평명칠완(31, 본관12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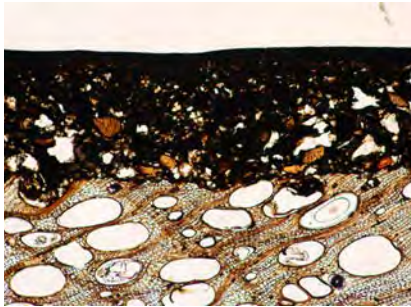
범평명칠완의 칠 도막 단면은 크게 바탕칠층과 옷칠층으로 구성되었으며, 직물섬 없이 목심에 바로 바탕칠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도판 17, 18). 또한 칠반(29-②)과 마찬가지로 바탕칠층과 옷칠층 사이의 중간층이 관찰되었다(도판 19). 적색의 옷칠층 위로는 약  $10\mu\text{m}$  두께의 황색 문양칠이 관찰되었다. 전체 칠 두께는 약  $636.4\mu\text{m}$ 이고 그중 옷칠층은 약  $59.2\mu\text{m}$ 로 확인되었다.

SEM-EDS 분석 결과 바탕칠에서는 인, 칼슘, 알루미늄, 실리콘 등이 검출되어 토분과 골분을 혼합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도판 20). 옷칠층의 입자에서는 수은과 황이 검출되어 진사를 사용했던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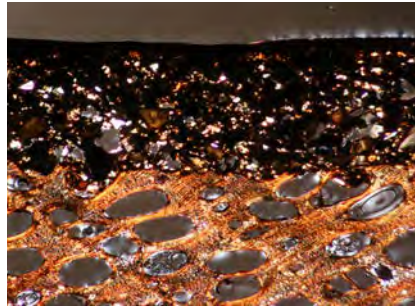


보이며(도판 21), 문양칠에서는 비소와 황이 검출되어 석황을 섞은 황칠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였다(도판 22). 중간층의 경우, 칠반(29-②)과 유사한 양상으로 관찰되어 잔존 입자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실리콘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고운 점토질의 광물성 입자와 유기물의 재료를 혼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도판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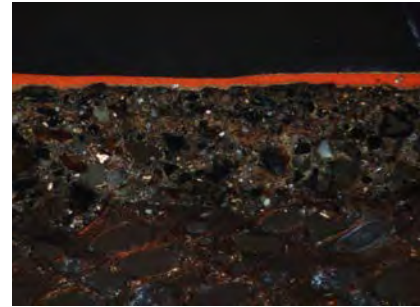
이상의 결과를 통해 분석대상은 목심 위에 직물심 없이 바탕칠을 바른 후 옷칠을 올려 만든 목심칠기 양식으로 제작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 칠완은 상단과 하단의 제작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분석을 진행하지 못한 상단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하였다고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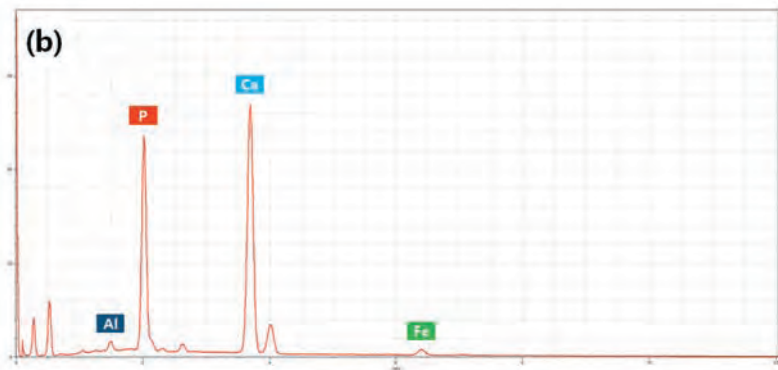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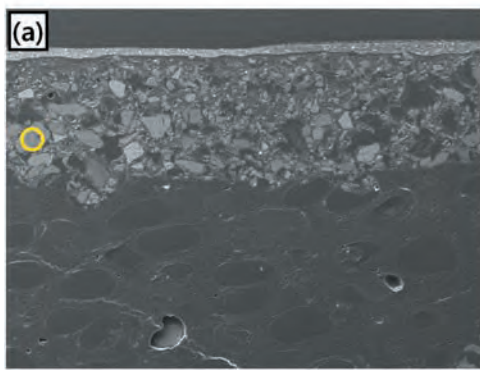
도판 17. 범평명칠완의 투과광 관찰 결과(×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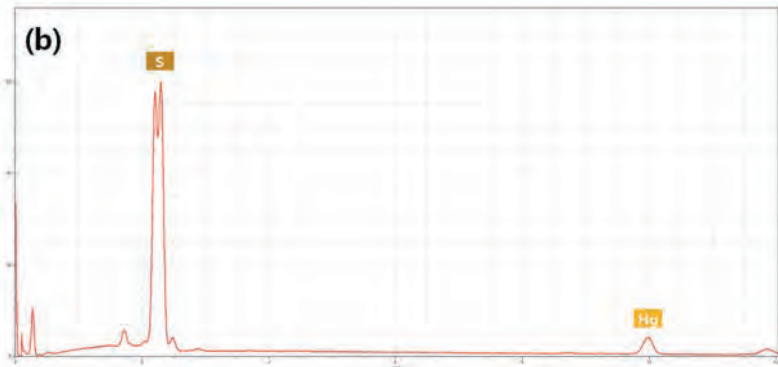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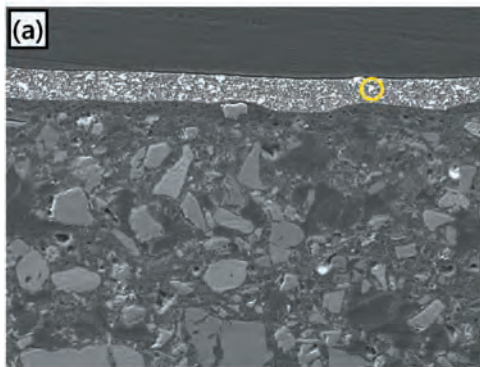
도판 18. 범평명칠완의 편광 관찰 결과(×50)



도판 19. 범평명칠완의 반사광 관찰 결과(×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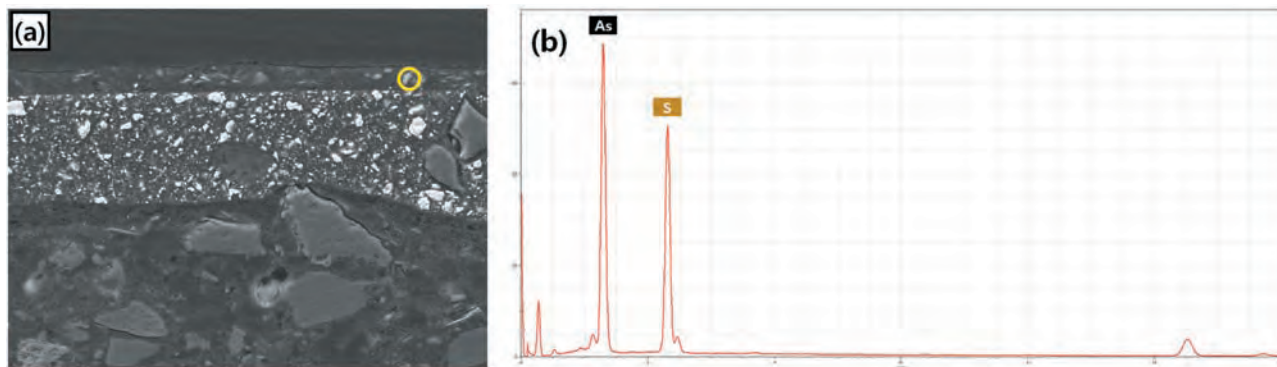


도판 20. 범평명칠완 바탕층 골분의 SEM-EDS 분석 결과 [(a): SEM image(×50), (b): EDS spectr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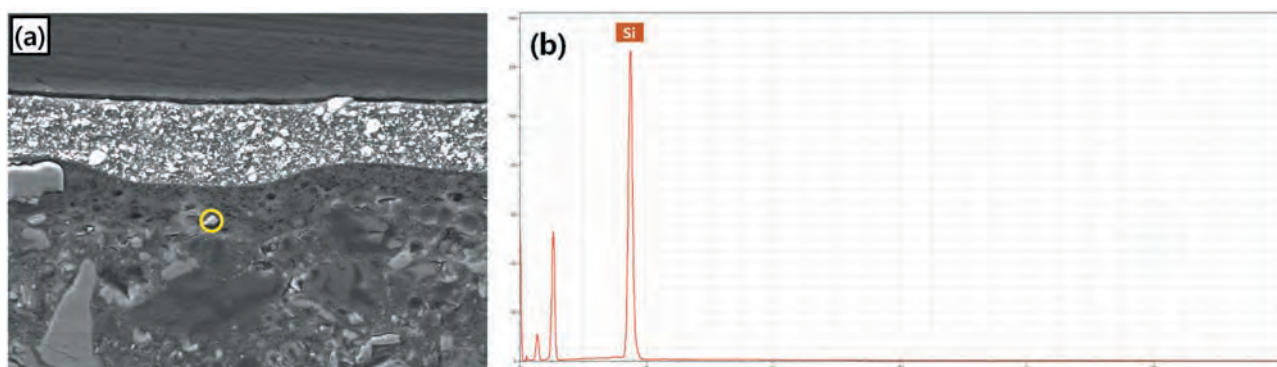


도판 21. 범평명칠완 옷칠층의 SEM-EDS 분석 결과 [(a): SEM image(×200), (b): EDS spectrum]

2 앞장에서는 이 칠완의 제작방식에 대해 저부와 기벽 중간까지는 나무를 깎아 만들고, 그 위부터 구연은 곡물曲物 수법이 사용된 것으로 기술하였다. 또 접합되지 않은 구연부면에서 직물심이 관찰되고 있어 윗부분은 목심저피칠기 양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판 22. 범평명칠완 문양층의 SEM-EDS 분석 결과 [(a): SEM image( $\times 500$ ), (b): EDS spectrum]



도판 23. 범평명칠완 중간층의 SEM-EDS 분석 결과 [(a): SEM image( $\times 500$ ), (b): EDS spectrum]

##### 5) 제1목관(23, 본관126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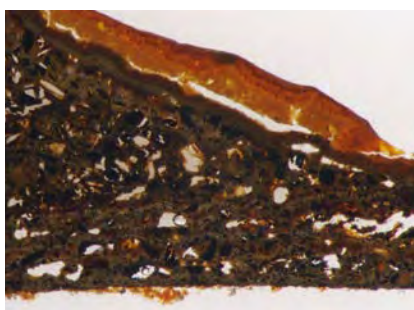
제1목관의 칠 도막은 목관의 장식칠편을 수습하여 조사하였다. 이 부분은 목관의 외면에 장식성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형태를 만들면서 칠을 올린 것으로 관찰된다(도판 24). 칠 도막은 크게 바탕칠층과 옷칠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두 층 사이에는 앞서 분석한 칠반(29-②), 범평명칠완(31)과 유사한 중간층이 확인되었다(도판 25, 26). 칠 도막의 두께는 가장 두꺼운 부분이 약 3.1mm, 얇은 부분이 약 0.5mm로 나타났다.

SEM-EDS 분석 결과 바탕칠층에서 확인되는 입자에서 인, 칼슘 등이 검출되어 골분이 혼합된 것을 확인하였다(도판 27). 옷칠층과 중간층에서는 검출되는 성분이 없었다(도판 28,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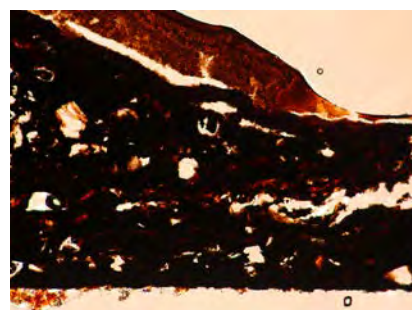
결과를 종합하면 제1목관은 목심 위에 바로 바탕칠을 바르고 그 위에 옷칠을 올린 목심칠기 양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도판 24. 제1목관의 실체현미경 관찰 결과( $\times 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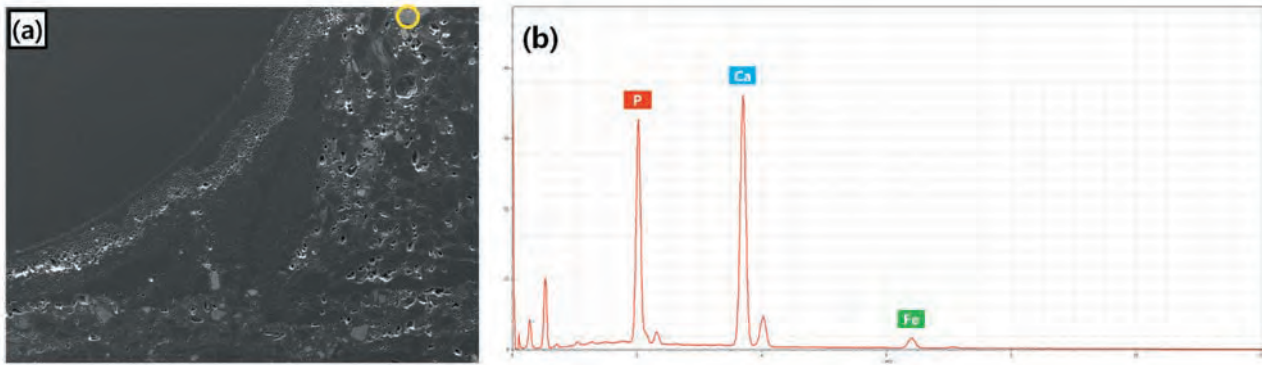


도판 25. 제1목관의 실체현미경 관찰 결과( $\times 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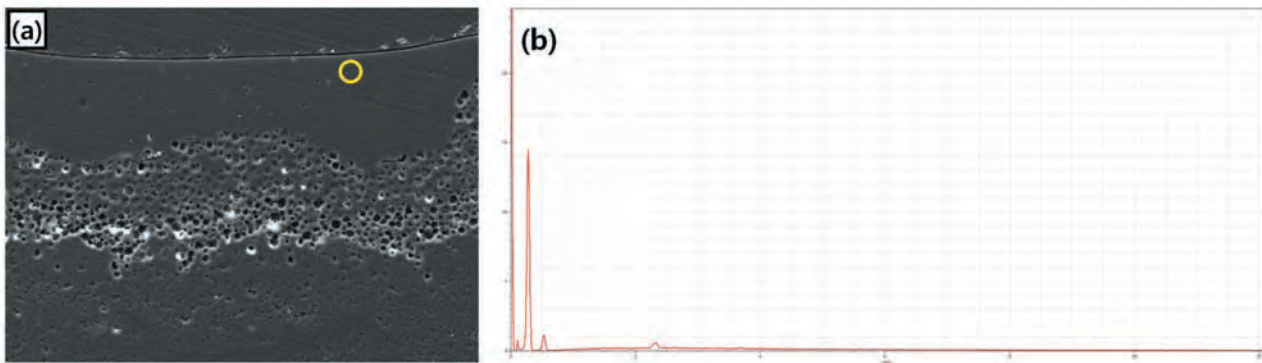


도판 26. 제1목관의 투과광 관찰 결과( $\times 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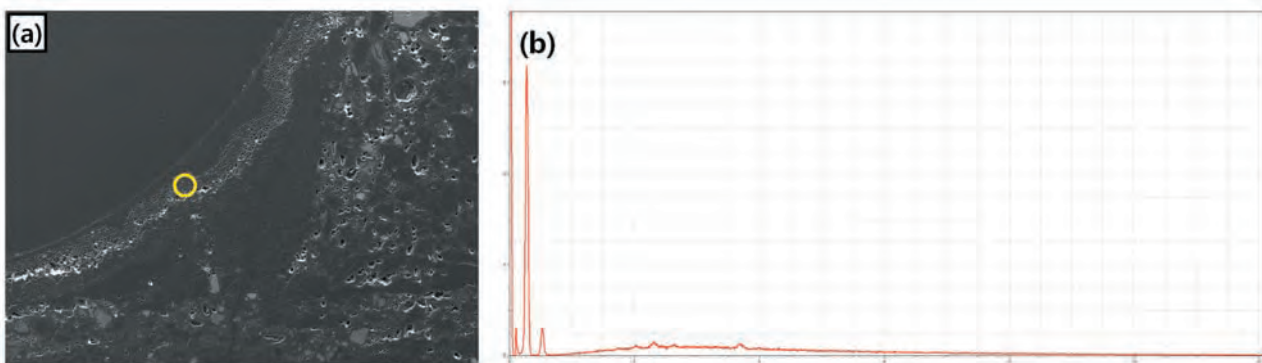




도판 27. 제1목관 바탕층 골분의 SEM-EDS 분석 결과 [(a): SEM image( $\times 50$ ), (b): EDS spectrum]



도판 28. 제1목관 옷칠층의 SEM-EDS 분석 결과 [(a): SEM image( $\times 200$ ), (b): EDS spectrum]



도판 29. 제2목관 중간층의 SEM-EDS 분석 결과 [(a): SEM image( $\times 50$ ), (b): EDS spectrum]

## 6) 제2목관(24, K63)

### ① 뚜껑

제2목관은 목관의 뚜껑 일부분이 목관에 고정된 형태로 출토되었으며 현존하는 출토 목관들 중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다.

제2목관 뚜껑의 칠 도막은 크게 바탕칠층과 옷칠층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도판 30). 바탕칠층이 비교적 두껍게 형성되어 바탕칠 작업을 여러 번 실시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현미경 관찰로 바탕칠의 형성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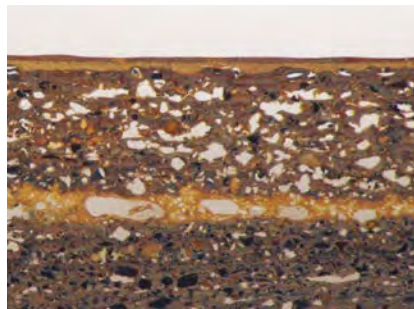


구분해보고자 하였으나 층의 경계가 모호하고 평활도가 높지 않아 구분이 쉽지 않았다(도판 31, 32). 제1목관과 마찬가지로 제2목관 뚜껑에서도 바탕칠층과 옷칠층 사이에서 점토질의 광물 입자로 추정되는 과립상 결정으로 구성된 황색 중간층이 관찰되었으며, 입자들 중 대부분은 이탈하고 일부만 잔존해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도판 33-a). 칠 도막의 최대 두께는 약 2.9mm였으며, 옷칠층의 두께는 약 32.1 $\mu$ m로 칠의 전체 두께에 비해 비교적 얇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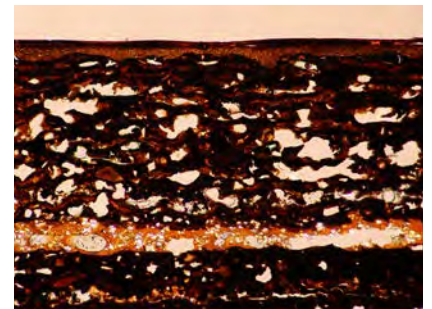
바탕칠층의 영역이 넓어 여러 부위에 대해 SEM-EDS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 칼슘, 철 등의 성분이 검출되었다(도판 33, 34). 따라서 목관의 뚜껑은 골분과 옷칠을 혼합하여 만든 골회를 여러 차례 쌓아 칠면을 두껍게 만든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중간층에서 관찰되는 입자를 분석한 결과 인, 칼슘, 알루미늄, 실리콘, 철 등이 검출되었으며(도판 35), 입자가 탈락된 부위에서는 특정 원소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골분 및 광물성 입자를 유기물과 혼합하여 바탕칠 위에 올렸을 것으로 생각된다(도판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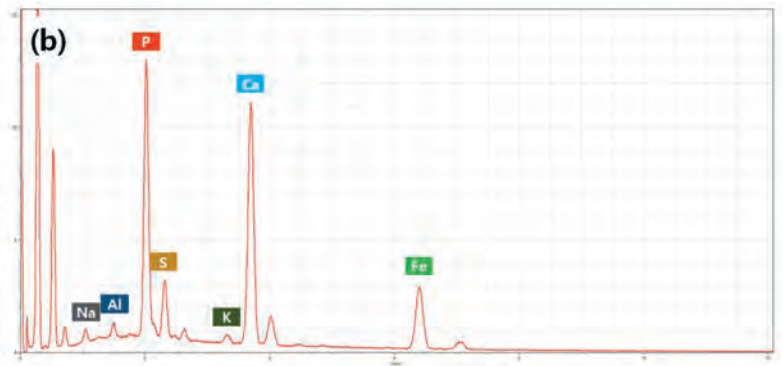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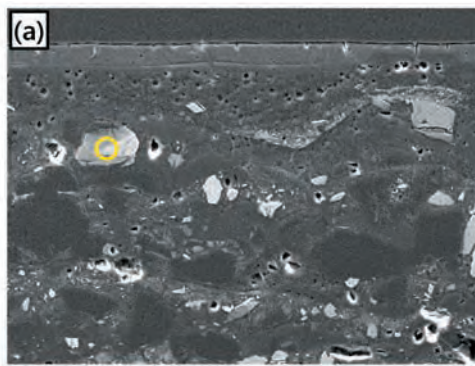
도판 30. 제2목관 뚜껑의 실체현미경 관찰 결과(×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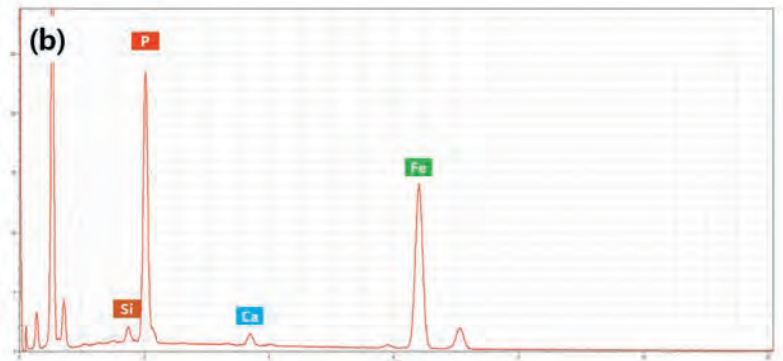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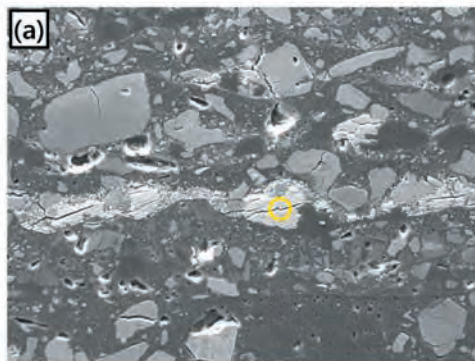
도판 31. 제2목관 뚜껑의 실체현미경 관찰 결과(×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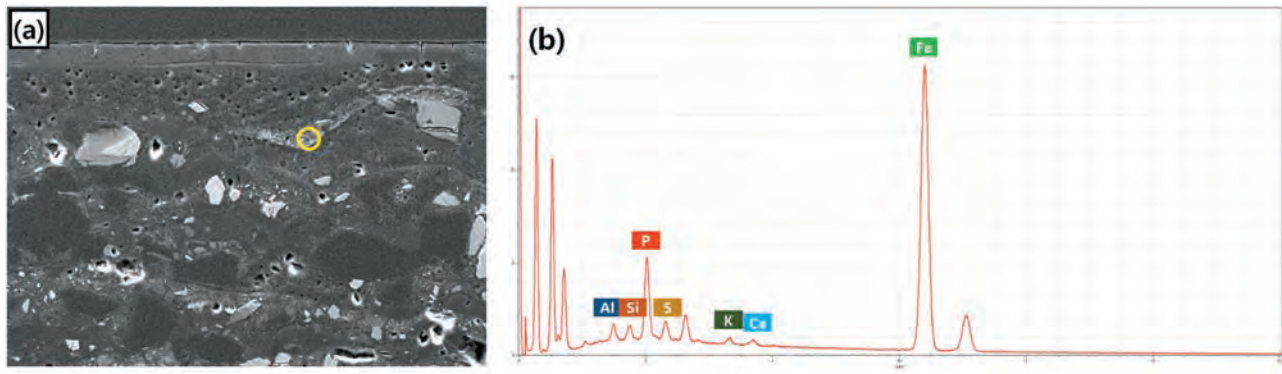
도판 32. 제2목관 뚜껑의 투과광 관찰 결과(×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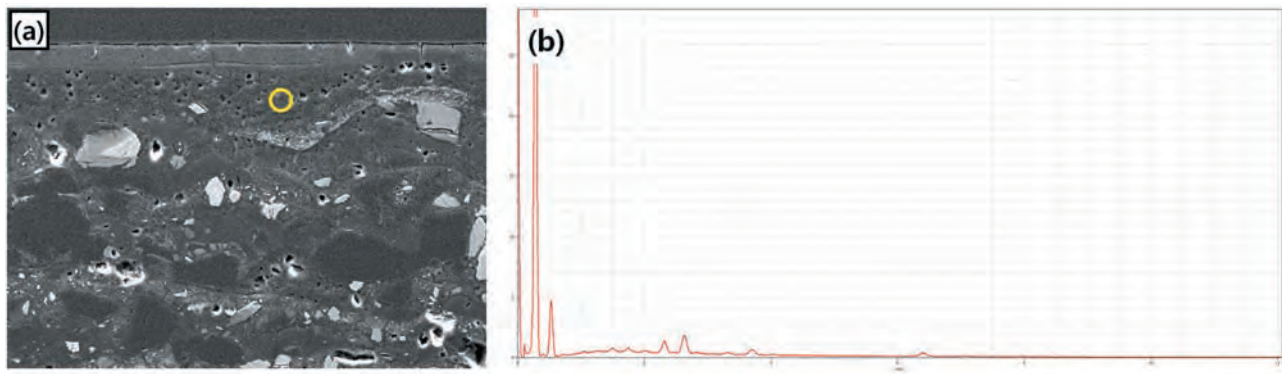
도판 33. 제2목관 뚜껑의 바탕층 골분의 SEM-EDS 분석 결과 [(a): SEM image(×200), (b): EDS spectrum]



도판 34. 제2목관 뚜껑의 바탕층 골분의 SEM-EDS 분석 결과 [(a): SEM image(×200), (b): EDS spectrum]



도판 35. 제2목관 뚜껑의 황색 중간층의 SEM-EDS 분석 결과 [(a): SEM image(×200), (b): EDS spectrum]



도판 36. 제2목관 뚜껑의 황색 중간층의 SEM-EDS 분석 결과 [(a): SEM image(×200), (b): EDS spectr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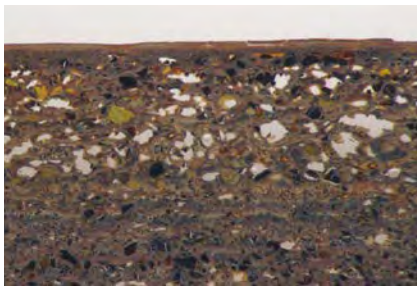
## ② 측면

제2목관 측면의 칠 도막 구조는 뚜껑과 유사하게 바탕칠층, 중간층, 옷칠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도판 37). 또한 뚜껑과 마찬가지로 바탕칠층을 수차례 반복하여 쌓아 올린 것으로 추정되나 층의 경계가 모호하고 평활도가 낮은 모습으로 관찰되었다(도판 38, 39). 칠 도막 전체 두께는 약 2.2mm이고, 그중 옷칠층의 두께는 약 44.1 $\mu$ m로 뚜껑의 칠 도막 두께와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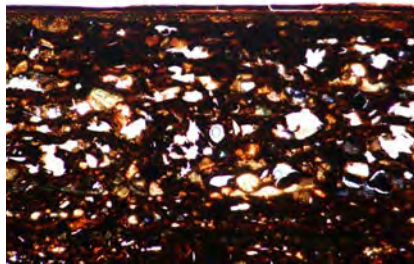
바탕칠층에서 확인되는 흑색, 갈색, 녹색 등의 입자에서 인, 칼슘, 철 등이 검출되었으며(도판 40~42), 옷칠층에서는 검출 성분이 나타나지 않았다(도판 43). 이를 통해 바탕칠층은 골분과 옷칠을 섞어 만든 골회칠을 바른 후, 정제한 옷칠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였다. 중간층의 과립상 결정들은 제1목관과 제2목관 뚜껑의 중간층과 달리 대부분 이탈되지 않고 치밀하게 밀집되어 있었으며, SEM-EDS로 성분 분석한 결과 인, 철, 칼슘 등이 검출되어 골분과 유기물의 혼합물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도판 44).



도판 37. 제2목관 측면의 실체현미경 관찰 결과(×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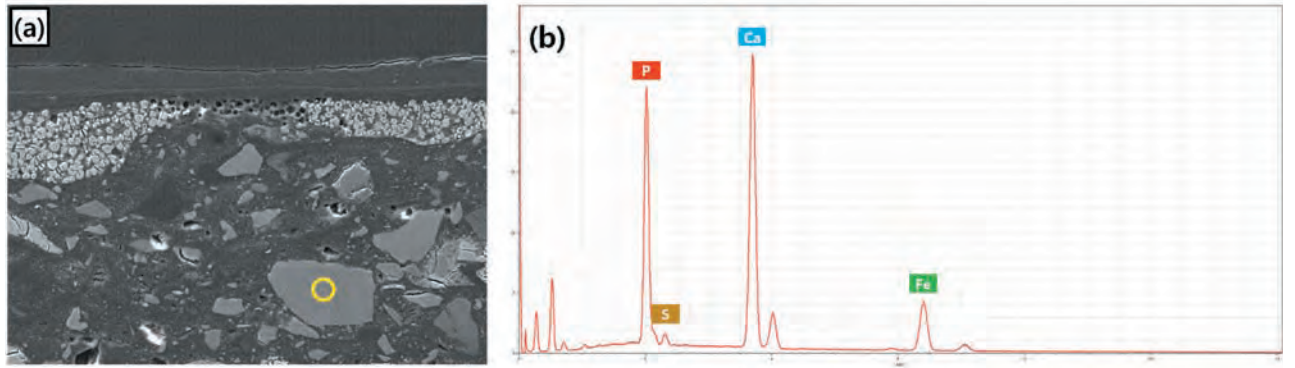


도판 38. 제2목관 측면의 실체현미경 관찰 결과(×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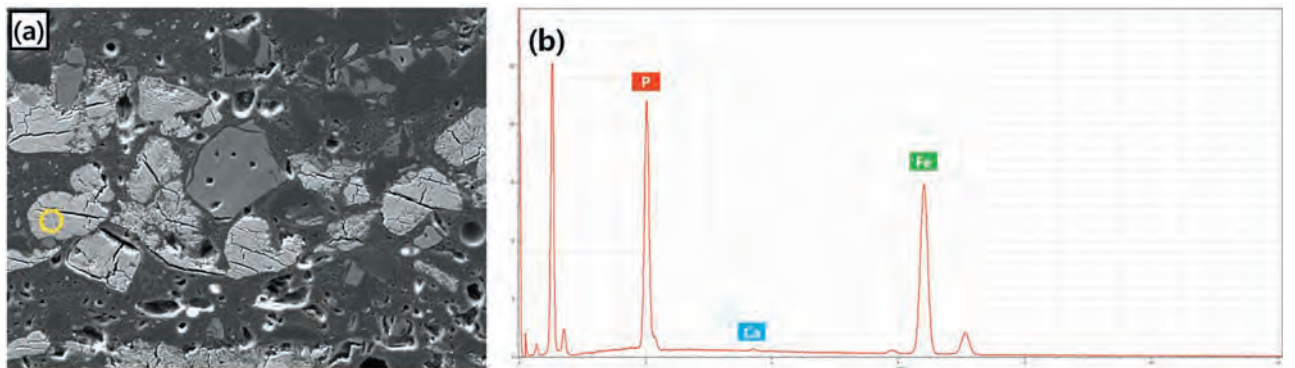


도판 39. 제2목관 측면의 투과광 관찰 결과(×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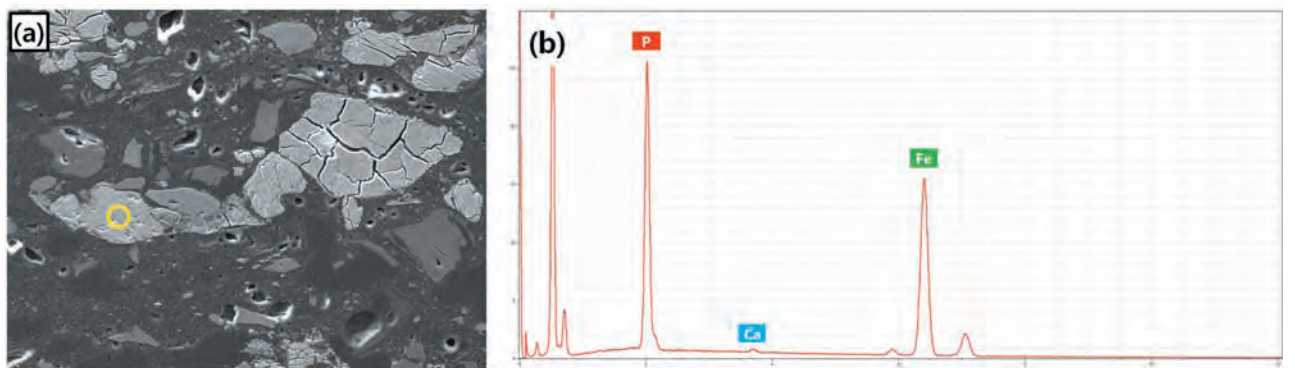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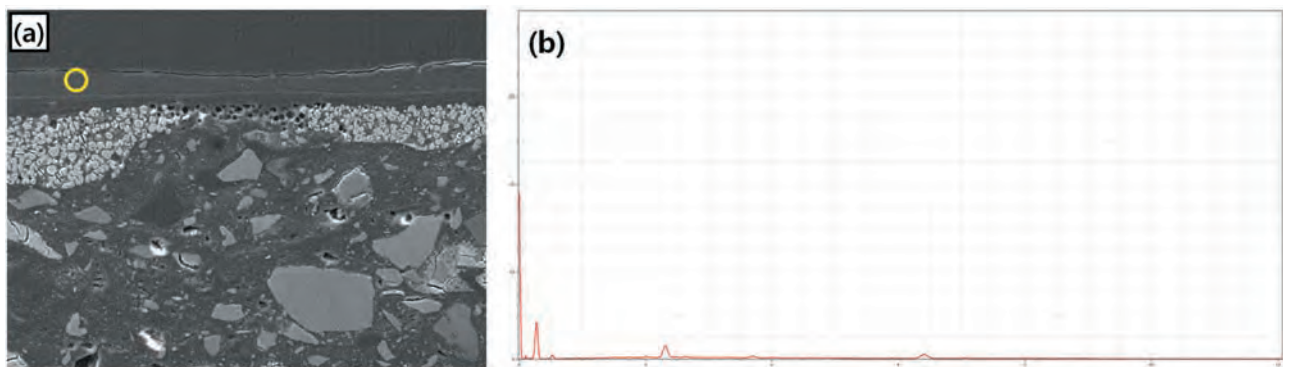
도판 40. 제2목관 측면 바탕층 골분(흑색)의 SEM-EDS 분석 결과 [(a): SEM image( $\times 200$ ), (b): EDS spectr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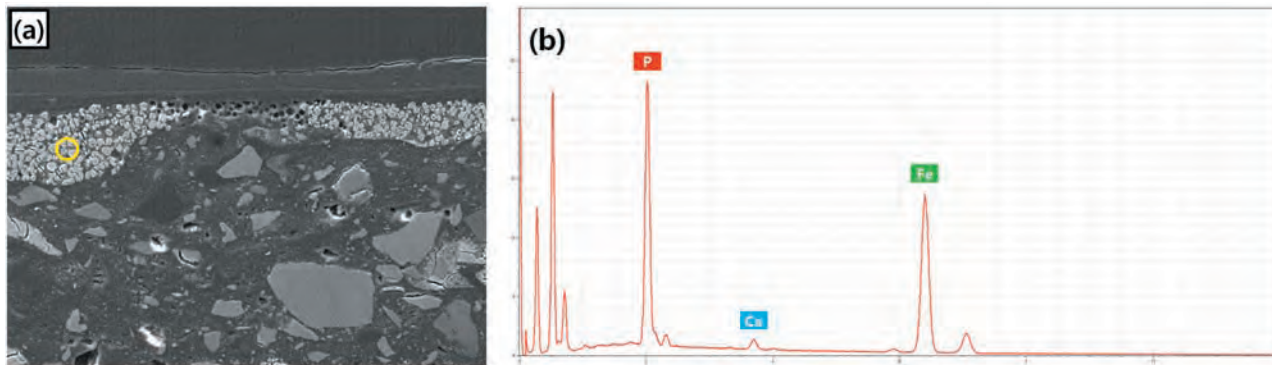
도판 41. 제2목관 측면 바탕층 골분(갈색)의 SEM-EDS 분석 결과 [(a): SEM image( $\times 200$ ), (b): EDS spectrum]



도판 42. 제2목관 측면 바탕층 골분(녹색)의 SEM-EDS 분석 결과 [(a): SEM image( $\times 200$ ), (b): EDS spectrum]



도판 43. 제2목관 측면 옷칠층의 SEM-EDS 분석 결과 [(a): SEM image( $\times 200$ ), (b): EDS spectrum]



도판 44. 제2목관 측면 황색 중간층의 SEM-EDS 분석 결과 [(a): SEM image(×200), (b): EDS spectrum]

#### 4.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평양 오야리 19호분 출토 칠기 4건과 목관 2건 등 총 6건 7점의 칠 도막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낙랑고분에서 출토되는 칠기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대부분 바탕칠층에서 골분 또는 골분 및 복합 재료와 식물심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칠반(28-①) 및 칠반(29-②)을 제외한 모든 칠 도막의 바탕칠층에서 골분으로 추정되는 입자가 확인되었으며, 이를 SEM-EDS 분석하여 바탕칠층에 골분 및 광물성 재료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작기법으로는 목심에 바로 바탕칠을 하고 옷칠을 하는 목심칠기와 목심에 직물을 바르고 바탕칠을 바른 후 옷칠을 하는 목심저피칠기, 목심이 없이 식물심과 바탕칠을 겹겹이 쌓아 올린 후 옷칠을 하는 협저칠기의 사례가 확인되었다. 주칠은 모든 분석대상 칠기에서 사용되었으며 다른 낙랑고분 출토 칠기의 주칠과 마찬가지로 적색 안료인 진사가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목관의 경우에는 칠기의 칠 도막에서 관찰되는 양상과 조금 다르게 관찰되었다. 칠 구조가 크게 바탕칠층과 옷칠층으로 형성된 모습은 유사하였으나, 칠기에 비해 목관의 바탕칠층 두께가 상대적으로 두껍게 관찰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현미경 관찰을 통해 바탕칠의 층간 경계를 구분하여 도포횟수를 추정해보고자 하였으나 경계가 모호하고 평활도가 낮아 구분에 어려움이 있었다. 칠 도막 관찰을 통해 확인한 목관의 제작기법은 목관의 구조를 이루는 목심에 바로 바탕칠을 하고 옷칠을 올리는 목심칠기법으로 제작된 것을 확인하였다. 제2목관의 경우 목관에 뚜껑을 덮은 후 칠을 바른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옷칠 작업이 완료된 후 결합한 것으로 추측하였다.

본 연구에서 충분한 결과를 얻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지만 고분에서 출토된 목관의 사례로는 드물게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어 추후 낙랑 목관 연구 자료로서 충분한 의미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협저칠기법으로 제작된 칠반(29-②)의 중간층 관찰에서 확인된 과립상 입자의 유기물의 추정은 선행 연구(이용희, 2009)를 통해 전분 사용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으므로 추후 이를 참고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 참고문헌

- 김경수·유혜선·이용희, 2003, 「낙랑칠기의 칠기법 조사(1)」, 『박물관보존과학』 4.  
김수철·이광희, 2008, 「칠 기법 규명을 위한 칠도막의 현미경 관찰」, 『목재공학』 36.  
김수철·이용희·이효선, 2004, 「출토 칠기의 칠기법 조사」, 제20회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이용희, 2009, 「다호리유적 출토 칠기유물의 칠기법 특징 연구」, 『고고학지』 특집호.



# 평양 오야리 19호분 출토 목관의 수종 분석

양석진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

## 1. 머리말

본고는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사업의 『평양 오야리 18~21·25호분-유물편』 보고서 발간의 일환으로 평양 오야리 19호분 출토 목관의 수종樹種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수종 분석은 양석진(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이 담당하였다.

인류와 역사를 함께한 수목樹木은 생태학적으로 그 종류에 따라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이 따로 있다. 따라서 목질 문화재의 수종을 알게 되는 것은 당시 생활상과 자연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어 선조들이 어떠한 목재를 어떻게 이용하였는지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각 지역마다 특수한 목재를 사용하였고 그러한 목재는 교역의 수단으로도 이용되었기 때문에 목질 문화재의 수종에 대한 분석과 해석은 문화재의 학술적 가치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조사이며, 보존과학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 2. 분석대상 및 방법

분석 대상품은 평양 오야리 19호분에서 출토된 목관으로, 4건 4점이다. 목관의 관재와 뚜껑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제3목관은 관재와 나비장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표 1). 분석대상의 시료는 오랜 시간 건조되어 매우 단단한 상태이다.

목재의 해부학적 식별은 목재 내부의 세포의 형태와 배열을 근거로 이루어지며, 목재의 삼단면(횡·방사·접선단면)에서 그 특징을 정확히 관찰할 수 있다. 목관의 각 부재로부터 얻어진 시료에서 삼단면의 박편을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목재의 현미경 표본을 제작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1) 파라핀(paraffin) 포매법과 2) PEG(Polyethylene glycol) 포매법 3) 에폭시 포매법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포매는 영어로는 embedding이라고 하며 목재 시편의 조직 관찰을 위하여 조직 편을 잘라낼 때 조직의 밀도차가 없이 균등하게 하여 자르기 편한 상태로 만드는 조작이다. 영구 표본은 포매된 시편을 얇게 편으로 잘라 제작한다. 하지만 단단한 시편은 포매법 보다는 조직을 연하게 처리한 후 직접 절편을 만들어 영구 표본을 제작한다.

이번 분석 시료의 상태는 매우 단단하여 별도의 강화처리 없이 조직을 연하게 처리한 후 분석에 이용하였다. 각 시료로부터 스테인리스 날을 이용한 핸드섹션과 텅스텐 날과 마이크로톰(SM2010R, Leica, JPN)을

이용한 기계색선을 병행하여 박편을 채취하였다. 박편으로부터 프레파라트를 제작하였으며, 봉입제로는 글리세린수용액(50%)을 사용하였다.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 DMLP, Leica, JPN)으로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표 1. 수종 분석 대상

제1목관(본관12639)	제2목관(K63)	제3목관(본관12639)	제4목관(본관12639)
			

### 3. 분석결과

횡단면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세포로 축방향가도관, 방사조직으로 침엽수재임을 알 수 있다. 수직 수지구와 축방향 유세포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사각형 내지는 다각형을 이루는 가도관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방사조직이 방사방향으로 분포하고 있다. 개개의 연륜 내에는 조재와 만재의 이행이 완만하였으며 두터운 연륜부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

방사단면에서는 가도관의 축방향의 다면이 관찰되며 내벽에는 불규칙하고 경사가 급한 나선비후螺旋肥厚가 수없이 관찰된다. 가도관 내에 유연벽공은 1열이며, 수평벽은 두껍고, 가도관과 방사조직이 교차하는 부분에는 분야벽공分野壁孔이 존재하며, 창문모양을 하고 있는 창상벽공을 관찰할 수 있다. 직교분야벽공은 편백형으로 보통 2개씩 분포한다. 방사단면에서 방사가도관은 없고 방사조직은 방사유세포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접선단면에서는 방사조직의 횡단면이 관찰되며 방사조직은 단열만 관찰되었다.

이상의 조직학적인 특징으로 평양 오야리 19호분에서 출토된 목관의 관재와 뚜껑, 나비장의 분석 결과 주목朱木과의 주목(*Taxus cuspidata* S. et Z.)으로 식별할 수 있다. 주목의 나무껍질은 붉은 색이고 심재도 유달리 붉어 ‘주목’이란 이름이 붙었다. 주목은 중국, 일본의 홋카이도·혼슈·시코쿠·규슈 지방에 분포하는 수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추운 곳에서 자라며, 표고 700~2,500m의 고산에서 자생하는 상록침엽교목으로 수고 17m, 직경 1m까지 달한다. 내한력耐寒力과 내음력耐陰力이 뛰어나며 토심이 좋고 습윤하고 비옥한 곳에서 잘 자란다. 조밀하게 나있는 진한 녹색의 잎과 가을의 붉은 열매가 아름다운 나무이다. 목재의 용도는 조각재, 공예재, 가구재, 건축용재로 사용되고 열매는 독이 있어 먹으면 설사를 하나 잎은 한약재로 쓰인다. 출토유물에서 식별된 예는 공주 무령왕릉에서 나온 목재편과 왕의 두침, 월성해자 출토 목간 2점에서 확인된 예가 있다.



표 2. 평양 오아리 19호분 목관 조직의 광학현미경 사진

	횡단면	접선단면	방사단면
제1목관 뚜껑			
제1목관 관재			
제2목관 뚜껑			
제2목관 관재			
제3목관 관재			
제3목관 나비장			
제4목관 뚜껑			
제4목관 관재			



---

## 참고문헌

-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 2019, 『보존과 복원의 세계-나전칠기』, 꿈과놀다.
- 박상진·이원용·이화영, 1987, 『목재조직과 식별』, 향문사.
- 박상진, 2004, 『역사가 새겨진 나무이야기』, 김영사.
- 박원규·김문성, 2008, 「충북 영동 성산 배씨 문중 목관의 연륜연대 분석」, 『호서고고학』 18, 호서고고학회.
- 박원규·최종국·김요정, 2006, 「남양주 호평유적 출토 관재의 수종식별 및 연륜연대 분석」, 『보존과학회지』 18,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 박원규·윤두형·박수현, 2006, 「전주 마전유적 출토 목관재의 수종식별 및 연륜연대 분석」, 『목재공학』 34, 한국목재공학회.
- 엄영근, 2015, 『Wood Anatomy of Korean Species』, Media wood.
- 이원용, 1997, 『한국산 목재의 조직구조-주사전자현미경도설』, 향문사.
- 이창복, 1986, 『신고 수목학』, 향문사.
- \_\_\_\_\_, 2003a, 『원색대한식물도감 I』, 향문사.
- \_\_\_\_\_, 2003b, 『원색대한식물도감 II』, 향문사.
- 이필우, 1994, 『한국산 목재의 구조-현미경적 해부』, 정민사.
- \_\_\_\_\_, 1997a, 『한국산 목재의 성질과 용도 I』, 서울대학교 출판부.
- \_\_\_\_\_, 1997b, 『한국산 목재의 성질과 용도 II』, 서울대학교 출판부.
- (사)한국목재공학회, 2020, 『목재해부학』, (주)미디어우드.

# 평양 오야리 고분 출토 금속기 분석

고수린, 박진호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

## 1. 머리말

국립중앙박물관은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사업의 일환으로 평양 오야리 고분을 재조사하게 되었다. 평양 오야리 고분은 현재 북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발굴 당시 제작된 보고서와 고분에서 발굴된 유물을 통해서 그 시대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국립중앙박물관 2021: 12). 본고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평양 오야리 고분 출토품 중 금속제 유물의 성분을 비파괴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 2. 분석 대상 및 분석 방법

### 1) 분석 대상

본고의 분석 대상품은 총 27점이다. 형태와 재질에 따라서 청동거울 6건 6점과 은제 장신구 7건 21점으로 나눌 수 있다. 분석대상 및 위치는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 평양 오아리 고분 출토 금속기 분석대상 및 위치

연번	유물번호	소장품번호	유물명	수량	분석위치
1	48	본관12627	화문대신수경	1	
2	89	본관12675	와권문경	1	
3	99	K347	연호문경	1	
4	100	K346	반룡경	1	
5	107	본관11448	연호문경	1	
6	108	본관12071	연호문경	1	

연번	유물번호	소장품번호	유물명	수량	분석위치
7	60	본관12648	반지	6	
8		본관12649		4	
9	77	본관12669	은제반지	4	
10	90	본관12676	은제반지	1	
11	101	K351	은제반지	2	
12	116	본관11449	은제팔찌	3	
13	117	본관11450	은제반지	1	
합 계			13건 27점		

## 2) 분석 방법

이동형 마이크로 엑스선형광분석기( $\mu$ XRF)를 사용하여 유물의 표면 성분을 비파괴로 조사하였다. 금속유물의 표면과 내부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체현미경(Leica M205-A, Germany)과 컴퓨터단층촬영을 사용하였다. 이때 사용한 분석 기기 및 조건은 [표 2, 표 3]과 같다. 정량분석은 CTIF사(프랑스)에서 제조한 L3, MBH사(영국)에서 제조한 31xMNB3, 32xSN2, 32xLB11, 91xS40PR2, 93xS30APR2, NIST사(미국)의 SRM1762, ERM사(미국)에서 제조한 EB506, EB507, EB508을 사용했으며(표 4), Bruker사(한국본사)의 순도 100%의 순물질인 Fe100, Cu100, Zn100, Sn100, Pb100, Ag100, Au100도 함께 사용하여 각 원소별 검량곡선을 작성 후 100%로 표준화하였다.

표 2. 엑스선형광분석 조건

분석 기기	분석 기기명	분석 조건				
		구분	전압	전류	시간	콜리메이터
이동형 X-선 형광분석기	$\mu$ XRF: Spectrometer ARTAX, Bruker Nano GmbH, Germany	청동	50kV	0.7mA	200s	0.65mm
		은	50kV	0.7mA	200s	0.65mm

표 3. 컴퓨터단층촬영 조건

분석 기기	분석 기기명	분석 조건		
컴퓨터 단층촬영	FF20CT, YXLON International X-ray GmbH, Germany	전압	전류	모드
		120kV	40 $\mu$ A	NANO

표 4. 정량분석에 사용된 표준규격의 성분 조성

연번	시료 명칭	검출원소(wt%)										
		Mn	Fe	Ni	Cu	Zn	As	Ag	Sn	Sb	Pb	Au
1	Lation L3	0.205	0.36	0.90	62.30	32.75	-	-	1.50	-	1.02	-
2	31X MNB3	3.2	1.2	0.33	-	26	0.01	0.01	0.45	0.01	0.48	-
3	32X SN2	0.004	0.033	0.102	82.7	1.24	-	-	13.58	0.099	1.93	-
4	32X LB11	0.0020	0.036	0.672	76.97	0.306	0.088	0.0121	11.01	0.109	10.56	-
5	91X S40PR2	-	0.0096	0.0050	0.085	0.0275	0.010	0.086	40.68	0.596	58.34	-
6	93X S30APR2	-	0.0026	0.042	0.062	0.028	0.0178	0.049	30.68	1.80	67.11	-
7	SRM 1762	2.00	94.09	1.15	-	0.120	0.018	-	-	-	-	-
8	EB506	-	-	-	35.65	1.891	-	3.90	-	-	-	58.56
9	EB507	-	-	4.99	14.69	2.107	-	3.02	-	-	-	75.10
10	EB508	-	-	-	-	-	-	24.88	-	-	-	75.12

3. 분석 결과 및 고찰

1) 청동거울

청동거울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제작되었으며, 기원 전 문명을 대표하는 유물이다(강승남 1990: 34-38). 청동거울은 빛을 반사하거나 대상을 비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동 합금에서는 주석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표면의 반사율이 좋아진다. 하지만 이를 위해 주석의 함량을 높일수록 취성이 생겨서 제작 후 거푸집에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깨지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윤용현·조남철 2012: 420). 청동거울을 제작할 때 합금 비율과 제작기술은 시대별로 다르지만 현재까지 조사되어온 유물들이나 문헌상의 기록들을 참고하였을 때 구리는 60~80wt%, 주석은 15~30wt% 정도이며 납은 미량~15wt%의 범위에서 제작된다(유혜선 2009: 112-131, 황진주 2011: 167).

청동거울은 배면과 경면을 나누어서 분석위치를 선정하였다. 평양 오야리 고분 출토 청동거울 6점을 비파괴분석하고 정량한 결과 값을 [표 5]에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 양면에 약간의 함량 차이가 보이긴 했으나 경면의 주석함유량이 배면에 비해 눈에 띄는 만큼 높게 검출된 경우는 보이지 않았다. 6점의 청동거울은 모두 구리(Cu)-주석(Sn)의 청동 합금에 납(Pb)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는 비파괴 표면 분석 값으로 금속 소지 값으로 보기는 힘들다<sup>1</sup>. 따라서 이 결과 값을 이용하여 성분조성을 알아내거나 그에 따른 제작기법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표 5. 평양 오야리 고분 출토 청동거울의 XRF 분석 결과

연번	유물번호	소장품번호	유물명	분석위치	검출 결과(wt%)									추정 재질
					Cu	Sn	Pb	Fe	As	Zn	Ni	Mn	Sb	
1	48	본관12627	화문대 신수경	1 배면	59.01	34.62	4.34	1.07	0.05	0.28	0.27	0.01	0.35	청동
				2 배면	50.46	41.35	5.66	1.60	0.06	0.26	0.20	0.02	0.39	
				3 배면	41.60	50.89	4.23	1.97	0.32	0.36	0.16	0.02	0.45	
				4 배면	52.19	39.53	5.70	1.55	0.09	0.30	0.22	0.02	0.40	
				5 경면	57.18	32.05	5.71	4.17	0.07	0.27	0.21	0.02	0.32	
				6 경면	60.00	34.43	3.54	1.07	0.05	0.29	0.27	0.02	0.32	
				7 경면	55.32	34.71	4.55	4.36	0.13	0.32	0.22	0.01	0.37	
				8 경면	53.06	35.17	5.02	5.71	0.13	0.29	0.21	0.03	0.37	
2	89	본관12675	와권문경	1 배면	36.79	56.93	3.38	2.11	0.07	0.14	0.16	0.01	0.40	청동
				2 배면	33.50	60.23	3.40	2.01	0.05	0.14	0.16	0.00	0.50	
				3 경면	24.71	66.37	6.03	2.10	0.05	0.10	0.14	0.02	0.49	
				4 경면	26.09	66.33	4.74	2.04	0.05	0.10	0.14	0.00	0.51	

1 무덤에서 출토된 금속제품들은 표면이 녹으로 덮여있는 경우가 많다. 금속은 종류에 따라 이온화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청동 합금의 경우 주석이나 납이 더 빠르게 녹이 슬어 표면에 피막을 형성하여 유물의 소지층을 덮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매장 청동유물의 표면에서는 주석이나 납, 혹은 매장 된 토양에서 오염된 성분 등이 구리보다 더 높은 함량으로 검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금속 소지의 성분과는 차이를 보인다.

연번	유물번호	소장품번호	유물명	분석위치		검출 결과(wt%)									추정 재질
						Cu	Sn	Pb	Fe	As	Zn	Ni	Mn	Sb	
3	99	K347	연호문경	1	배면	51.37	41.45	6.27	0.18	0.07	0.23	0.22	0.01	0.19	청동
				2	배면	48.06	44.47	6.46	0.27	0.08	0.23	0.21	0.02	0.22	
				3	배면	50.47	41.64	6.87	0.22	0.08	0.23	0.24	0.02	0.22	
				4	경면	51.67	42.31	5.06	0.17	0.06	0.23	0.23	0.03	0.23	
				5	경면	48.24	45.97	4.77	0.22	0.07	0.21	0.21	0.02	0.29	
4	100	K346	반룡경	1	배면	49.90	42.65	6.16	0.33	0.25	0.33	0.19	0.05	0.15	청동
				2	경면	49.47	43.24	6.09	0.46	0.20	0.21	0.18	0.00	0.15	
				3	경면	45.93	46.21	6.56	0.55	0.23	0.19	0.16	0.03	0.14	
5	107	본관11448	연호문경	1	배면	36.85	56.47	5.04	0.17	0.21	0.14	0.25	0.01	0.87	청동
				2	배면	45.82	49.94	2.74	0.10	0.17	0.14	0.20	0.07	0.82	
				3	배면	37.86	55.49	5.06	0.14	0.23	0.10	0.18	0.01	0.94	
				4	경면	48.48	47.65	2.41	0.07	0.14	0.14	0.22	0.01	0.87	
				5	경면	48.63	47.32	2.65	0.07	0.15	0.15	0.22	0.01	0.78	
				6	경면	46.69	49.72	2.15	0.09	0.13	0.14	0.22	0.04	0.82	
6	108	본관12071	연호문경	1	배면	16.11	72.73	9.11	0.61	0.31	0.04	0.08	0.01	0.99	청동
				2	배면	12.28	74.37	11.10	0.64	0.39	0.03	0.08	0.00	1.11	
				3	배면	14.43	72.33	11.04	0.54	0.37	0.04	0.09	0.01	1.16	
				4	배면	12.26	75.04	10.64	0.58	0.30	0.04	0.08	0.01	1.05	
				5	경면	25.88	64.30	7.47	0.82	0.30	0.07	0.15	0.01	1.00	
				6	경면	24.30	63.70	9.51	0.86	0.36	0.06	0.14	0.02	1.04	
				7	경면	18.51	68.97	10.00	0.86	0.39	0.05	0.11	0.00	1.11	

## 2) 은제 장신구

평양 오야리 고분에서 출토된 은제 장신구 7건 21점에 대하여 엑스선형광분석기로 표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은제팔찌 3점, 은제반지 15점, 청동합금반지 3점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는 [표 6, 표 7]에 정리하였다.

은제반지(77-②)는 순은으로 제작하였으며, 표면 중간부에서는 금(Au)이 검출되어 금띠를 덧대어 두른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6, 77-②-3)<sup>2</sup>. 은제반지의 제작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미경으로 표면을 조사하였고(도판 1, 도판 2) 컴퓨터단층촬영으로 내부 구조를 관찰하였다<sup>3</sup>. 반지 본체의 가운데에는 밀도가 더 높은 금속으로 띠를 덧댄 것이 확인되었다(도판 3). 반지의 측면에서는 은반지 본체에 홈을 내어 가운데에 금띠를 두른 것이 보인다(도판 4). 반지(60-③)는 은이 주성분이며 구리, 주석, 납 등이 함께 검출되었다(표 7, 60-③). 하지만 출토 유물의 특성 상 제작 당시에 은과 구리 등을 함께 사용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반지(60-⑤, ⑥, ⑩)는 청동 합금으로 제작한 반지로 추정된다.

<sup>2</sup> 은 녹이 상단에 덮여있어서 금의 존재 여부만을 확인하였고 정량분석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sup>3</sup> 컴퓨터단층촬영은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 양석진 학예연구사가 진행하였다.



표 6. 평양 오야리 고분 출토 은제 장신구의 XRF 분석 결과

연번	유물번호	소장품번호	유물명	분석위치		검출 결과(wt%)			추정재질
						Ag	Au	Cu	
1	60	본관12648	반지	①	1	97.75	1.15	1.10	순은
					2	97.26	1.38	1.36	
					3	98.17	0.99	0.83	
					4	95.64	1.89	1.91	
				②	1	96.55	0.28	0.46	순은
					2	98.09	0.39	0.90	
					3	99.20	0.63	0.17	
				④	1	99.09	0.43	0.47	순은
					2	98.59	0.43	0.97	
2		본관12649	반지	⑦	1	97.17	0.93	1.90	순은
					2	97.07	0.98	1.95	
					3	96.71	1.40	1.90	
				⑧	1	98.99	0.72	0.28	순은
					2	99.49	0.38	0.13	
					3	99.11	0.61	0.28	
				⑨	1	98.74	0.91	0.34	순은
					2	98.91	0.83	0.26	
				3	77	본관12669	은제반지	①	1
2	99.67	0.26	0.07						
3	99.20	0.66	0.14						
②	1	99.30	0.56					0.15	순은
	2	99.33	0.50					0.17	
	3	29.57	70.34					0.09	금띠
③	1	99.18	0.39					0.43	순은
	2	99.01	0.58					0.41	
④	1	99.97	0.02					0.02	순은
	2	99.96	0.03					0.02	
4	90	본관12676	은제반지	1		99.74	0.10	0.16	순은
				2		99.72	0.12	0.16	
				3		99.71	0.13	0.16	
5	101	K351	은제반지	①	1	99.42	0.21	0.37	순은
					2	99.22	0.21	0.57	
					3	99.41	0.22	0.37	
				②	1	99.46	0.18	0.36	순은
					2	99.48	0.18	0.34	
					3	99.36	0.19	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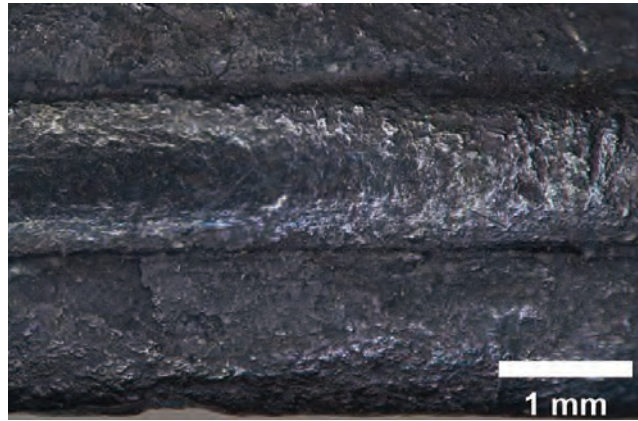
연번	유물번호	소장품번호	유물명	분석위치	검출 결과(wt%)			추정재질	
					Ag	Au	Cu		
6	116	본관11449	은제팔찌	①	1	99.33	0.33	0.34	순은
					2	99.34	0.28	0.38	
					3	99.30	0.33	0.36	
				②	1	99.43	0.31	0.25	순은
					2	99.50	0.28	0.22	
					3	99.54	0.26	0.20	
				③	1	99.22	0.33	0.45	순은
					2	99.41	0.27	0.31	
					3	99.07	0.34	0.58	
7	117	본관11450	은제반지	1	99.15	0.44	0.41	순은	
				2	99.23	0.48	0.30		
				3	98.60	1.12	0.28		

표 7. 평양 오야리 고분 출토 은제, 청동제 반지의 XRF 분석 결과

연번	유물번호	소장품번호	분석위치		Ag	Au	Cu	Sn	Pb	Fe	As	Zn	Ni	Mn	Sb	비고
1	60	본관12648	㉓	1	85.12	0.75	5.24	4.25	4.52	0.07	0.00	0.01	0.04	0.02	0.00	은
				2	73.20	1.15	12.93	5.00	7.37	0.21	0.00	0.06	0.05	0.01	0.03	
				3	80.75	1.05	7.68	3.48	6.80	0.16	0.00	0.02	0.04	0.02	0.02	
2		본관12648	㉕	1	-	-	60.00	5.50	32.66	0.54	0.00	0.21	0.18	0.01	0.90	청동
				2	-	-	93.91	3.60	0.86	0.39	0.00	0.31	0.27	0.00	0.66	
				3	-	-	80.58	13.31	2.53	1.11	0.00	0.28	0.16	0.12	1.91	
3		본관12648	㉖	1	5.90	0.03	55.67	30.78	2.56	1.87	0.00	0.21	0.15	0.07	2.77	청동
4				본관12649	㉙	1	-	-	55.22	4.68	38.24	0.77	0.00	0.15	0.18	0.01
		2	-			-	47.71	5.72	44.95	0.70	0.00	0.13	0.15	0.00	0.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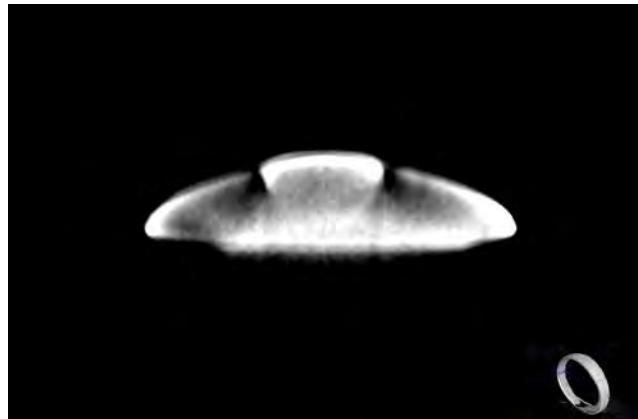
도판 1. 은제반지(77-②)의 표면 조사(x10)



도판 2. 은제반지(77-②)의 표면 조사(x30)



도판 3. 은제반지(77-②)의 컴퓨터단층촬영



도판 4. 은제반지(77-②)의 측면

#### 4. 결론

평양 오야리 고분 출토 금속제 유물 29점의 표면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청동거울 6점은 구리-주석의 청동 합금에 납이 일부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은제 장신구 21점은 분석 결과 은팔찌 3점과 은반지 15점, 청동반지 3점으로 확인된다.
3. 은제반지(77-②)는 은으로 제작하였고 표면의 중간에는 금띠를 덧대었다.
4. 반지(60-③)는 표면에서 은(Ag) 이외에도 구리, 주석, 납 등이 함께 검출되었다.

출토 유물의 특성상 표면이 부식되어 녹으로 덮여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성분조성 값을 구하기는 힘들었다. 향후 보존처리 등을 통하여 금이 간 조각의 측면과 같이 노출된 금속의 소지 면을 추가로 조사한다면 보다 정확한 정량 값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낙랑시기 제작된 금속제 유물의 연구로 당시 유물들의 재료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강승남, 1990, 「우리나라 고대 청동가공 기술에 관한 연구」, 『조선 고고연구』 제3호.
- 국립중앙박물관, 2021, 『평양 오야리 18~21·25호분 - 유구편』.
- 유혜선, 2009, 「국보 제141호 다뉴세문경 성분조성에 관한 연구」, 『다뉴세문경 종합조사연구』.
- 윤용현·조남철, 2012, 「청동잔무늬거울의 복원제작기술과 과학적 분석」, 『보존과학회지』 Vol.28.
- 황진주, 2011, 「한국 청동거울에 대한 미세조직 및 성분조성의 비교 연구」, 『보존과학연구』 Vol.32.

# 평양 오야리 고분 출토 구슬 분석

고수린, 박진호, 이수진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

## 1. 머리말

국립중앙박물관은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사업의 일환으로 북한 지역에 위치하는 낙랑 유적지 중 황해도 봉산 양동리 고분, 평양 정백리 고분, 석암리 고분에 이어 네 번째로 평양 오야리 고분을 재조사하게 되었다(국립중앙박물관 2021: 12). 확인된 26기의 고분 중 출토유물을 파악할 수 있던 고분은 18~21, 25호분의 5기 정도였다. 오야리 18~21호분은 1935년 조선총독부, 25호분은 1938년 조선고적연구회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국립중앙박물관 2021: 16). 본고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평양 오야리 고분 출토품 중 구슬류의 유물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 2. 분석 대상 및 분석 방법

### 1) 분석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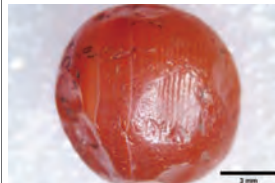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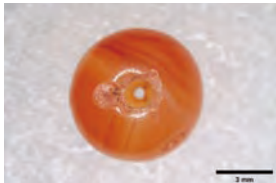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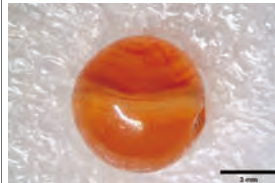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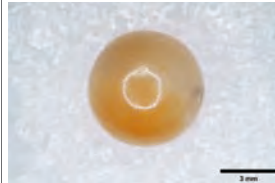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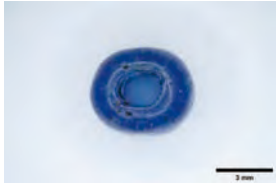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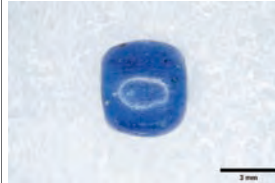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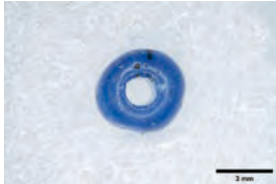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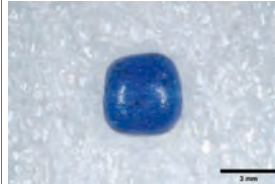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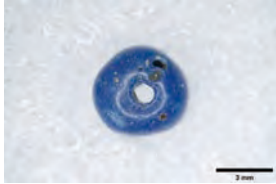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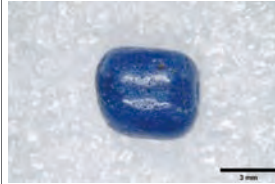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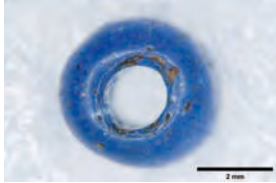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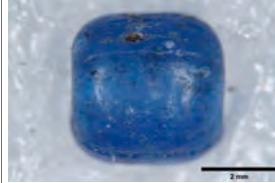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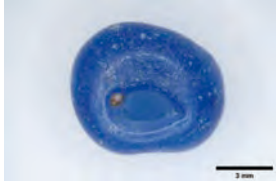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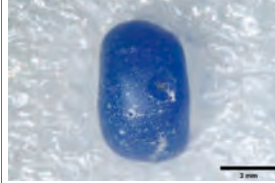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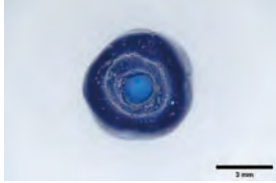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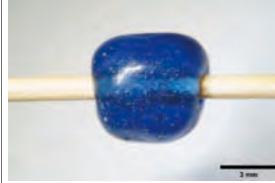
본고의 분석 대상품은 총 53점이다. 평양 오야리 고분에서는 부장자의 위계를 짐작할 수 있는 수정, 홍옥수 등으로 제작한 다면옥과 유리양형옥, 유리제소옥, 이당 등 다양한 형태와 재질의 구슬이 출토되었다. 색상은 감청색, 연녹색, 청록색, 자색, 황갈색, 백색, 주홍색, 투명 등으로 다양하다.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구슬은 원형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과학적 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석 대상 및 특징은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 분석 대상 평양 오야리 고분 출토 구슬

연번	유물번호	소장품번호	색상	현미경 사진		특징
1	21-①	본관12361	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2.649</li> <li>• 제작방법: 형태가공 후 투공</li> <li>• 특징: 양쪽에서 투공</li> <li>• 추정재질: 수정</li> </ul>
2	21-②		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2.647</li> <li>• 제작방법: 형태가공 후 투공</li> <li>• 특징: 양쪽에서 투공</li> <li>• 추정재질: 수정</li> </ul>
3	21-③		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2.642</li> <li>• 제작방법: 형태가공 후 투공</li> <li>• 특징: 양쪽에서 투공</li> <li>• 추정재질: 수정</li> </ul>
4	64-a	본관12644	황갈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2.662</li> <li>• 제작방법: Drawn기법 추정</li> <li>• 특징: 연한 갈색 바탕에 짙은 갈색줄, 길이방향 기포</li> </ul>
5	64-b		연녹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방법: Drawn기법 추정</li> <li>• 특징: 길이방향 황색알갱이</li> <li>• 추정재질: 알칼리유리</li> </ul>
6	64-c		연녹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2.329</li> <li>• 제작방법: Drawn기법 추정</li> <li>• 특징: 길이방향 황색알갱이</li> <li>• 추정재질: 알칼리유리</li> </ul>
7	64-d		연녹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방법: Drawn기법 추정</li> <li>• 특징: 길이방향 황색알갱이</li> <li>• 추정재질: 알칼리유리</li> </ul>
8	64-e		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2.551</li> <li>• 제작방법: Drawn기법 추정</li> <li>• 특징: 단면에 백색 알갱이, 길이방향 기포</li> <li>• 추정재질: 알칼리(포타쉬)유리</li> </ul>
9	64-f		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2.424</li> <li>• 제작방법: Drawn기법 추정</li> <li>• 특징: 단면에 백색 알갱이, 길이방향 기포</li> <li>• 추정재질: 알칼리유리</li> </ul>

연번	유물번호	소장품번호	색상	현미경 사진		특징
10	64-g	본관12644	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2.246</li> <li>• 제작방법: Drawn기법 추정</li> <li>• 특징: 단면에 백색 알갱이, 길이방향 기포</li> <li>• 추정재질: 알칼리(포타쉬)유리</li> </ul>
11	64-h		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1.996</li> <li>• 제작방법: Drawn기법 추정</li> <li>• 특징: 길이방향 기포</li> <li>• 추정재질: 알칼리유리</li> </ul>
12	64-i		감청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2.340</li> <li>• 제작방법: Drawn기법 추정</li> <li>• 특징: 길이방향 풍화흔과 기포</li> <li>• 추정재질: 알칼리(포타쉬)유리</li> </ul>
13	64-j		감청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2.325</li> <li>• 제작방법: Drawn기법 추정</li> <li>• 특징: 길이방향 풍화흔과 기포</li> <li>• 추정재질: 알칼리유리</li> </ul>
14	64-k		감청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2.341</li> <li>• 제작방법: Drawn기법 추정</li> <li>• 특징: 길이방향의 기포</li> <li>• 추정재질: 알칼리유리</li> </ul>
15	64-l		밝은 감청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2.306</li> <li>• 제작방법: Drawn기법 추정</li> <li>• 특징: 단면에 알갱이 관찰, 길이방향 기포</li> <li>• 추정재질: 알칼리유리</li> </ul>
16	64-m		감청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2.483</li> <li>• 제작방법: Drawn기법 추정</li> <li>• 특징: 길이방향 풍화흔과 기포</li> <li>• 추정재질: 알칼리유리</li> </ul>
17	64-n		감청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2.492</li> <li>• 제작방법: Drawn기법 추정</li> <li>• 특징: 길이방향의 백색줄무늬</li> <li>• 추정재질: 알칼리(소다)유리</li> </ul>
18	64-o		감청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2.473</li> <li>• 제작방법: Drawn기법 추정</li> <li>• 특징: 길이방향의 풍화흔</li> <li>• 추정재질: 알칼리(소다)유리</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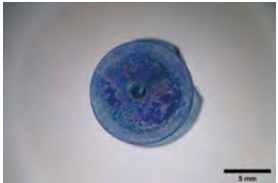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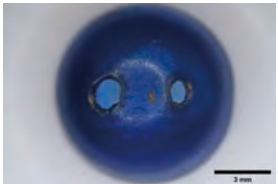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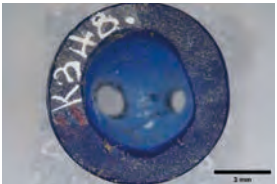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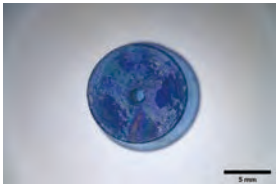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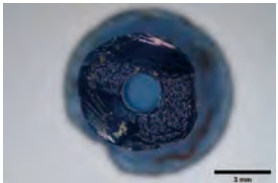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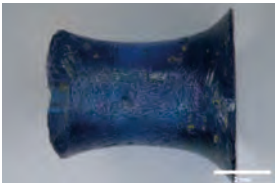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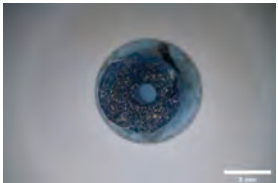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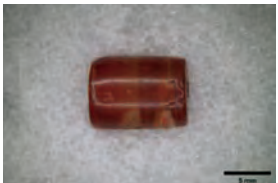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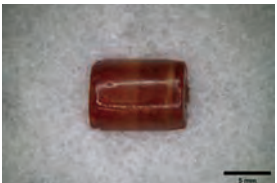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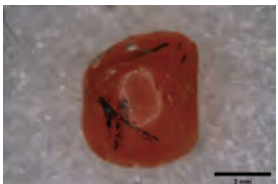

연번	유물번호	소장품번호	색상	현미경 사진		특징
19	65-a	본관12645	주홍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2.588</li> <li>• 제작방법: 형태가공 후 투공</li> <li>• 추정재질: 홍옥수</li> </ul>
20	65-b		주홍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2.583</li> <li>• 제작방법: 형태가공 후 투공</li> <li>• 추정재질: 홍옥수</li> </ul>
21	65-c		주홍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2.496</li> <li>• 제작방법: 형태가공 후 투공</li> <li>• 추정재질: 홍옥수</li> </ul>
22	65-d		감청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2.329</li> <li>• 제작방법: Drawn기법 추정</li> <li>• 특징: 길이방향 기포</li> <li>• 추정재질: 알칼리(포타쉬)유리</li> </ul>
23	65-e		감청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2.273</li> <li>• 제작방법: Drawn기법 추정</li> <li>• 특징: 길이방향 기포와 검은 줄무늬</li> <li>• 추정재질: 알칼리유리</li> </ul>
24	65-f		감청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2.208</li> <li>• 제작방법: Drawn기법 추정</li> <li>• 특징: 길이방향 풍화흔과 기포</li> <li>• 추정재질: 알칼리(포타쉬)유리</li> </ul>
25	65-g		감청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2.385</li> <li>• 제작방법: Drawn기법 추정</li> <li>• 특징: 길이방향 풍화흔과 기포</li> <li>• 추정재질: 알칼리유리</li> </ul>
26	78-a	본관12660	밝은 감청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2.343</li> <li>• 제작방법: Drawn기법 추정</li> <li>• 특징: 길이방향 기포, 표면에 유리 깨짐</li> <li>• 추정재질: 알칼리유리</li> </ul>
27	78-b		감청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2.329</li> <li>• 제작방법: Drawn기법 추정</li> <li>• 특징: 길이방향 풍화흔</li> <li>• 추정재질: 알칼리(소다)유리</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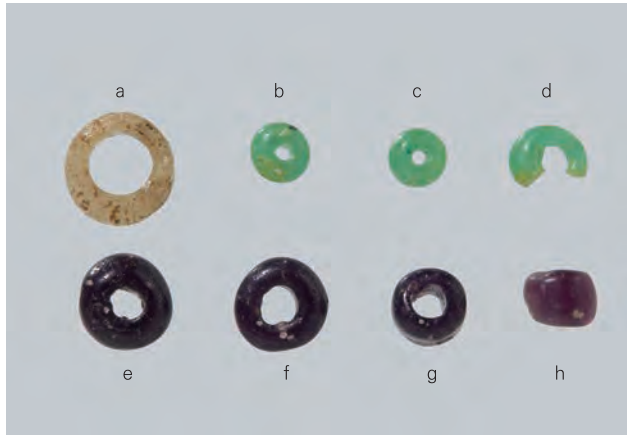


연번	유물번호	소장품번호	색상	현미경 사진		특징
28	78-c	본관12660	백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2.995</li> <li>• 제작방법: Wound기법 추정</li> <li>• 특징: 표면에 가로방향 기포</li> <li>• 추정재질: 알칼리(소다)유리</li> </ul>
29	78-d		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방법: Drawn기법 추정</li> <li>• 특징: 길이방향 기포</li> <li>• 추정재질: 알칼리(소다)유리</li> </ul>
30	78-e		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2.139</li> <li>• 제작방법: Drawn기법 추정</li> <li>• 특징: 길이방향의 기포</li> <li>• 추정재질: 알칼리유리</li> </ul>
31	78-f		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방법: Drawn기법 추정</li> <li>• 특징: 길이방향의 기포</li> <li>• 추정재질: 알칼리유리</li> </ul>
32	78-g		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2.196</li> <li>• 제작방법: Drawn기법 추정</li> <li>• 특징: 길이방향의 기포</li> <li>• 추정재질: 알칼리유리</li> </ul>
33	78-h		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1.996</li> <li>• 제작방법: Drawn기법 추정</li> <li>• 특징: 길이방향의 기포</li> <li>• 추정재질: 알칼리유리</li> </ul>
34	78-i		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방법: Drawn기법 추정</li> <li>• 특징: 길이방향의 기포</li> <li>• 추정재질: 알칼리유리</li> </ul>
35	78-j		감청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2.458</li> <li>• 제작방법: Drawn기법 추정</li> <li>• 특징: 사선방향 기포, 한쪽 단면이 매끄럽지 않게 잘림</li> <li>• 추정재질: 알칼리(소다)유리</li> </ul>
36	78-k		감청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2.484</li> <li>• 제작방법: 추정 불가</li> <li>• 특징: 원형을 알기 힘들</li> <li>• 추정재질: 알칼리(소다)유리</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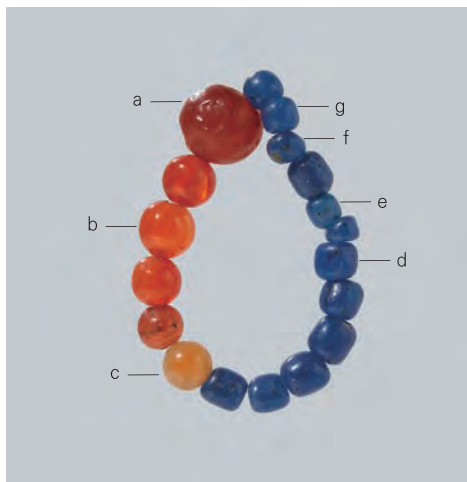
연번	유물번호	소장품번호	색상	현미경 사진		특징
37	78-l	본관12660	감청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2.396</li> <li>• 제작방법: Drawn기법 추정</li> <li>• 특징: 길이방향의 기포</li> <li>• 추정재질: 알칼리(소다)유리</li> </ul>
38	78-m		감청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2.121</li> <li>• 제작방법: 추정 불가</li> <li>• 특징: 원형을 알기 힘들</li> <li>• 추정재질: 알칼리(소다)유리</li> </ul>
39	78-n		청록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2.450</li> <li>• 제작방법: Drawn기법 추정</li> <li>• 특징: 길이방향의 기포</li> <li>• 추정재질: 알칼리(소다)유리</li> </ul>
40	79-①	본관12668	청록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3.807</li> <li>• 제작방법: Mould기법 추정</li> <li>• 특징: 수형, 표면 풍화</li> <li>• 추정재질: 납바륨유리</li> </ul>
41	79-②		주홍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2.418</li> <li>• 제작방법: 형태가공 후 투공</li> <li>• 특징: 양쪽에서 투공</li> <li>• 추정재질: 홍옥수</li> </ul>
42	79-③		주홍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2.580</li> <li>• 제작방법: 형태가공 후 투공</li> <li>• 특징: 양쪽에서 투공</li> <li>• 추정재질: 홍옥수</li> </ul>
43	98-①	본관12677	감청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2.402</li> <li>• 제작방법: 형태가공 후 투공</li> <li>• 특징: 양쪽에서 투공</li> <li>• 추정재질: 흑요석</li> </ul>
44	98-②	본관12678	청록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3.729</li> <li>• 제작방법: Wound기법 추정</li> <li>• 특징: 표면 풍화</li> <li>• 추정재질: 납바륨유리</li> </ul>
45	105-①-a	K348	감청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2.488</li> <li>• 제작방법: Mould기법 추정</li> <li>• 특징: 구멍 근처 기포</li> <li>• 추정재질: 알칼리유리</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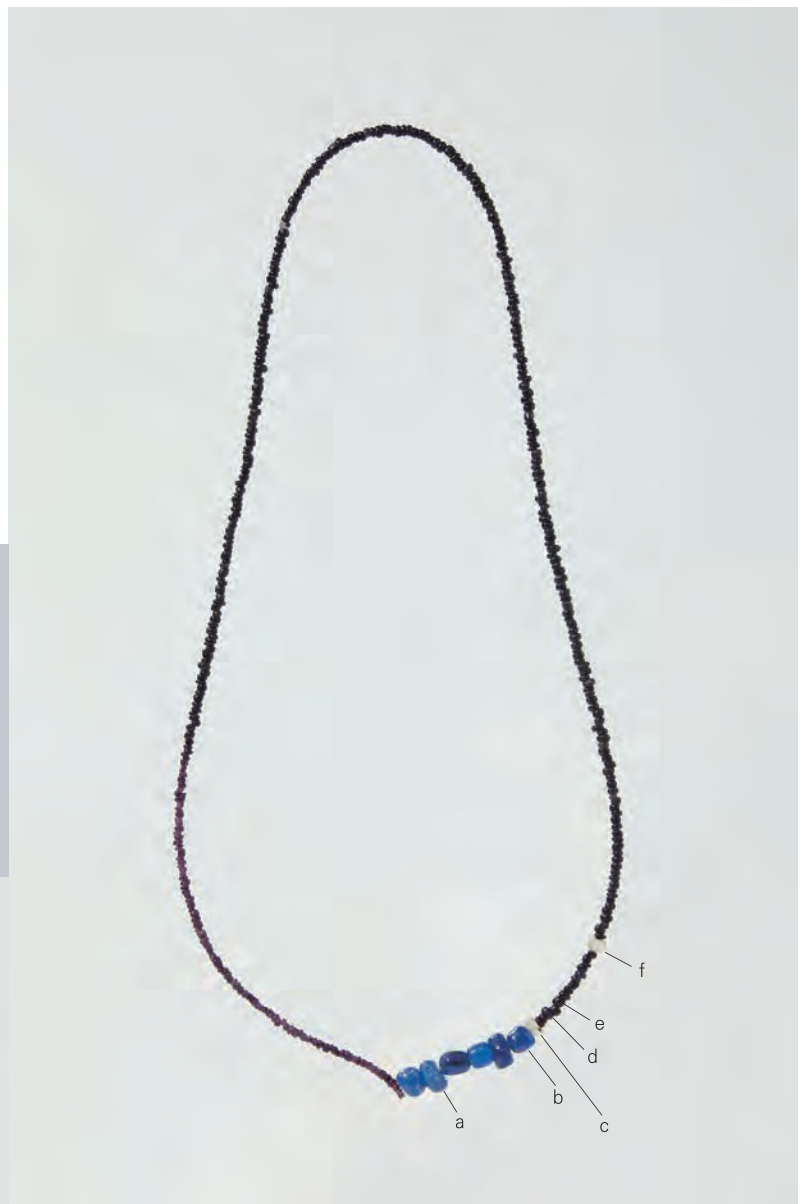
연번	유물번호	소장품번호	색상	현미경 사진		특징
46	105-①-b	K348	감청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3.359</li> <li>• 제작방법: Wound기법 추정</li> <li>• 특징: 표면 가로줄무늬, 풍화</li> <li>• 추정재질: 납바륨유리</li> </ul>
47	105-①-c		감청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2.487</li> <li>• 제작방법: Mould기법 추정</li> <li>• 특징: 구멍 근처 기포</li> <li>• 추정재질: 알칼리유리</li> </ul>
48	105-①-d		감청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3.394</li> <li>• 제작방법: Wound기법 추정</li> <li>• 특징: 표면 가로줄무늬, 풍화</li> <li>• 추정재질: 납바륨유리</li> </ul>
49	105-②-a	K350	감청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3.225</li> <li>• 제작방법: Wound기법 추정</li> <li>• 특징: 표면 가로줄무늬, 풍화</li> <li>• 추정재질: 납바륨유리</li> </ul>
50	105-②-b		감청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3.194</li> <li>• 제작방법: Wound기법 추정</li> <li>• 특징: 표면 가로줄무늬, 풍화</li> <li>• 추정재질: 납바륨유리</li> </ul>
51	106-①	고적28391	주홍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2.493</li> <li>• 제작방법: 형태가공 후 투공</li> <li>• 특징: 한쪽에서 투공</li> <li>• 추정재질: 홍옥수</li> </ul>
52	106-②		주홍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2.473</li> <li>• 제작방법: 형태가공 후 투공</li> <li>• 특징: 한쪽에서 투공</li> <li>• 추정재질: 홍옥수</li> </ul>
53	106-③		주홍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2.472</li> <li>• 제작방법: 형태가공 후 투공</li> <li>• 특징: 낚시줄과 구슬이 접착제로 고정됨</li> <li>• 추정재질: 홍옥수</li> </ul>



① 유리소옥(64, 본관12644)



② 마노환옥과 유리소옥(65, 본관12645)



③ 유리소옥(78, 본관12660)

도판 1. 분석대상 구슬의 세부번호

2) 분석 방법

(1) 미세구조 및 제작기법 관찰

유리구슬의 미세구조 및 제작기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체현미경(Leica, M205-A, Germany)을 이용하여 표면 상태, 내부 기포 등 가시적 특성을 관찰하였다. 관찰은 5~30배율로 실시하였다.

컴퓨터단층촬영(nanoCT)을 사용하여 다면옥의 투공을 확인하였다. 분석 조건은 [표 2]와 같다.

표 2. CT촬영 조건

분석 기기	분석 기기명	분석 조건		
컴퓨터단층촬영	FF20CT, YXLON International X-ray GmbH, Germany	전압	전류	모드
		120kV	40μA	NANO

(2) 비중 및 굴절을 측정

구슬의 물리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대략적인 성분 조성(알칼리유리 또는 납유리, 납바륨유리)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중을 측정하였다. 비중을 측정할 수 있는 디지털저울(PR503, Mettler Toledo, Korea, Ltd.)과 비중계를 이용하였다. 먼저 공기 중의 무게(W1)를 측정한 뒤 증류수 속에 유리구슬을 침적시킨 상태에서 다시 무게(W2)를 측정하였다. 비중은 비중 계산식[비중={W1/(W1-W2)}×S(액체비중)]에 대입하여 계산하였다.

굴절률은 각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다. 굴절률을 확인할 수 있는 굴절계(A.KRÜSS Optronic GmbH, Germany)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 성분 조성 분석

분석 대상품의 성분 조성은 이동형 엑스선형광분석기(XRF)와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FE-SEM)에 부착되어있는 에너지분산형분광분석기(EDS)를 이용하여 비파괴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일부는 부서져 파편들이 일괄 수습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다. 원형을 알 수 없는 파편들 중 감청색 구슬 2점(78-l, m)과 청록색 구슬 1점(78-n)은 에폭시 수지로 진공 함침하여 마운팅(mounting)하고 다이아몬드 연마판, 다이아몬드 현탁액(9, 6, 3, 1μm), 실리카 현탁액(0.02μm)으로 연마하였다. 마운팅한 시료는 분석을 위하여 에칭처리하지 않았다. 이때 분석 조건은 [표 3]과 같다. 정량 분석은 NIST(미국)에서 제조한 표준규격 620, 1411, 1831과 JRC(벨기에)에서 제조한 126A를 사용하여(표 4) 각 원소별 검량곡선을 작성한 뒤 100wt%로 표준화하였다.

표 3. XRF, SEM-EDS 분석 조건

분석 기기	분석 기기명	분석 조건			
이동형 엑스선형광분석기	μXRF Spectrometer ARTAX, Bruker Nano GmbH, Germany	전압	전류	시간	콜리메이터
		30kV	500μA	100초	0.65mm
주사전자현미경 부착 에너지분산형 분광분석기	SEM: Crossbeam550, Carl Zeiss Microscopy GmbH, Germany EDS: XFlash6/30, Bruker Nano GmbH, Germany	전압	모드	시간	
		20kV	SE	300초	

표 4. 정량분석에 사용된 표준규격의 성분 조성

연번	제조사	명칭	검출원소(wt%)											
			SiO <sub>2</sub>	Na <sub>2</sub> O	Al <sub>2</sub> O <sub>3</sub>	BaO	ZnO	K <sub>2</sub> O	CaO	MgO	Fe <sub>2</sub> O <sub>3</sub>	FeO	TiO <sub>2</sub>	PbO
1	NIST	620	72.08	14.39	1.80	-	-	0.41	7.11	3.69	0.04	-	0.02	-
2		1411	58.04	10.14	5.68	5.00	3.85	2.97	2.18	0.33	0.05	-	0.02	-
3		1831	73.08	13.32	1.21	-	-	0.33	8.20	3.51	0.089	0.04	0.02	-
4	JRC	126A	57.80	3.57	0.13	1.05	1.01	9.99	1.03	0.51	0.01	-	-	23.98

#### 4) 결정 구조 분석

유리 이외의 구슬들은 엑스선회절분석기(XRD)를 이용하여 비파괴로 광물의 격자 구조를 확인하였다. 분석은 회절각도  $30^{\circ} < 2\theta < 75^{\circ}$  범위를  $15^{\circ}$  간격으로 4회에 걸쳐 회당 300초로 측정하였다. 분석 조건은 [표 5]와 같다.

표 5. XRD 분석 조건

분석 기기	분석 기기명	분석 조건		
엑스선회절분석기	XRD: D8 Discover, Bruker Nano GmbH, Germany	전압	전류	시간
		40kV	40mA	300

### 3. 분석 결과

#### 1) 구슬의 미세구조

평양 오야리 고분 출토 구슬의 표면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표 1]에 정리하였다. 분석대상 53점은 원형의 형태와 크기를 추정할 수 있는 유물들이 대부분이었다. 현미경 관찰을 통해서 구슬의 내·외부에서 기포 혹은 입자의 방향이 길게 늘어진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투명한 다면육의 경우 현미경 사진을 통해서도 투공 흔적을 관찰할 수 있다.

#### 2) 비중값에 의한 계통 분류

평양 오야리 고분 출토 구슬의 비중을 측정하고 [표 1]에 정리하였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고대 유리는 알칼리유리  $2.3 \pm 0.2$ , 납유리  $4.0 \pm 0.3$ , 납바륨유리  $5.0 \pm 0.5$ 로 조성에 따라 비중값이 다르다(유혜선·윤은영·이해순 2009: 120-213, 이인숙 1999: 53). 오야리 고분 출토 구슬의 비중값은 1.996~3.807로 다양한데 성분 조성 분석에 앞서 비중값을 측정하여 비파괴조사로 종류를 구분해 볼 수 있었다. 납유리나 납바륨유리의 경우 표면 풍화정도에 따라 문헌상의 비중값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부 소옥은 크기가 너무 작아 무게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 경우 비중 측정을 생략하였다.

3) 표면 성분 조성

평양 오야리 고분 출토 유리구슬 41점에 대해 성분 조성 분석을 수행하고 성분 조성에 따른 구슬의 추정 재질을 [표 1]에, 단면 분석을 진행한 3점의 결과를 [표 6]에 정리하였다. 감청색 및 청록색 유리 3점은 마운팅하여 풍화되지 않은 단면을 분석하였고 나머지 38점은 표면 풍화층을 분석하였다. 고대 유리 중 납바륨유리는 알칼리유리에 비해서 표면 풍화가 더욱 잘 일어난다. 또한 출토 유리의 경우 표면이 풍화되면서 포타쉬와 소듐 등 알칼리 성분은 빠져나가 실리카 성분이 주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표면과 제작 당시 사용했던 원재료의 성분과는 큰 차이가 있다(김규호 2001: 31-32). 평양 오야리 고분 출토 유리구슬 중에는 6점의 납바륨유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표면 분석만으로는 정량분석에 어려움이 있어 결과 값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6. 평양 오야리 고분 출토 유리구슬의 성분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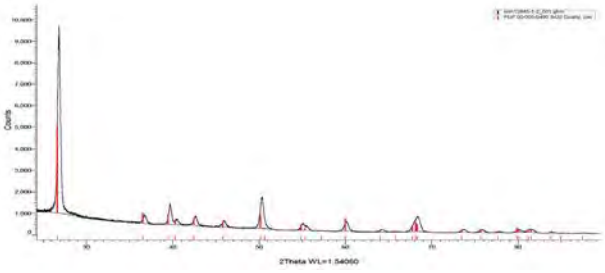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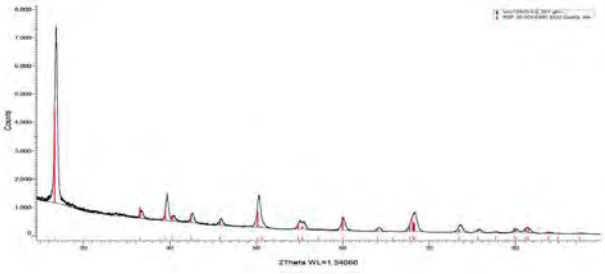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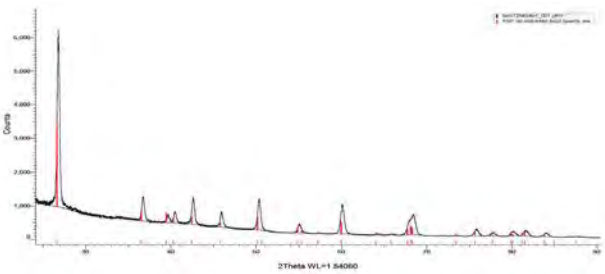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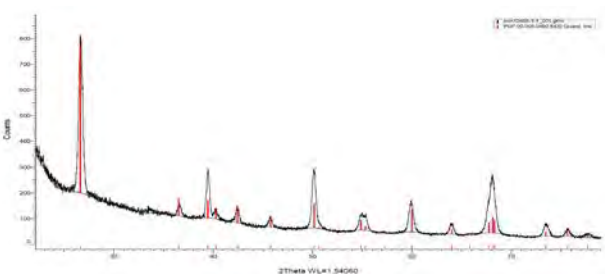
연번	유물번호	검출 원소(wt%)									비고
		SiO <sub>2</sub>	Na <sub>2</sub> O	K <sub>2</sub> O	CaO	Al <sub>2</sub> O <sub>3</sub>	MgO	Fe <sub>2</sub> O <sub>3</sub>	PbO	BaO	
1	78- l	65.85	20.23	1.81	6.22	3.00	1.92	0.97	0.01	0.00	단면 분석
		65.54	20.39	1.91	6.18	3.06	1.91	0.99	0.00	0.00	
		65.80	20.19	1.90	6.20	3.07	1.89	0.93	0.03	0.00	
	평균	65.73	20.27	1.87	6.20	3.04	1.91	0.96	0.01	0.00	
	표준편차	0.16	0.11	0.05	0.02	0.04	0.02	0.04	0.01	0.00	
2	78-m	72.40	18.38	0.43	5.77	1.90	0.56	0.53	0.02	0.00	단면 분석
		70.75	20.10	0.45	5.78	1.84	0.54	0.53	0.01	0.00	
		71.50	19.05	0.50	5.82	1.93	0.50	0.56	0.00	0.13	
	평균	71.55	19.18	0.46	5.79	1.89	0.54	0.54	0.01	0.04	
	표준편차	0.82	0.87	0.04	0.02	0.04	0.03	0.02	0.01	0.08	
3	78-n	64.73	22.09	2.19	2.68	7.14	0.27	0.91	0.00	0.00	단면 분석
		64.99	21.70	2.18	2.66	7.18	0.33	0.96	0.00	0.00	
		65.33	21.49	2.16	2.63	7.18	0.27	0.91	0.02	0.00	
	평균	65.02	21.76	2.18	2.66	7.17	0.29	0.93	0.01	0.00	
	표준편차	0.30	0.30	0.01	0.02	0.02	0.03	0.03	0.01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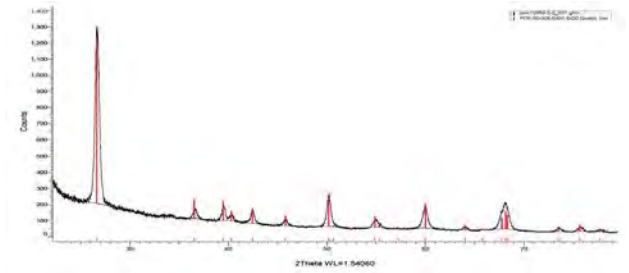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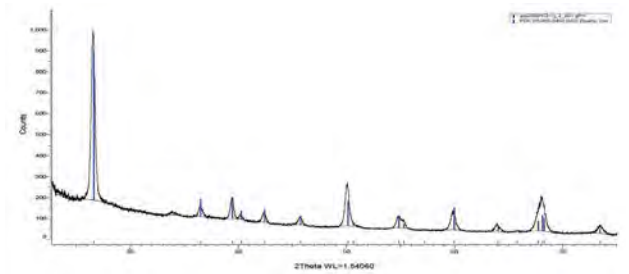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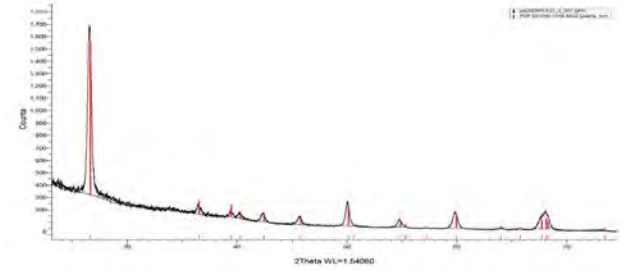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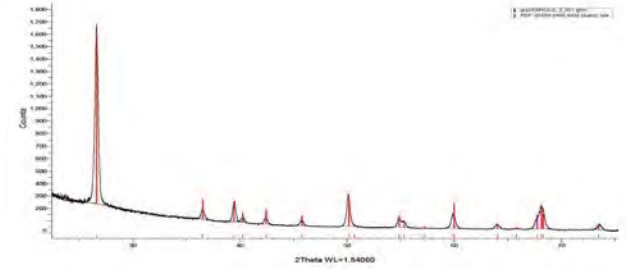


#### 4) 결정 구조에 의한 분류

평양 오야리 고분 출토 구슬 중 광물로 제작한 12점에 대해 엑스선형광분석기로 주성분원소를 검출하였고 엑스선회절분석기로 결정 구조를 동정하였다(표 7). 21의 3점은 단결정(Single crystal)이며 수정(Quartz)으로 보인다. 65(a, b, c) 3점과 79(②, ③) 2점, 106(①~③) 3점은 주홍색 계열로 쿼츠(Quartz)가 동정되며 홍옥수(Carnelian)로 추정된다. 광물은 엑스선회절분석(XRD)에서 대부분 결정구조가 동정된다. 하지만 이당(98-①)은 비정질(Amorphous)로 조사되었다. 비중(표 1)과 주성분원소, 컴퓨터투과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화산분출로 생성되는 유리질 광물인 흑요석(Obsidian)으로 추정된다.

표 7. 평양 오야리 고분 출토 다면옥의 XRD 분석 결과

연번	유물번호	주성분원소	결정 구조	추정재질
1	21-①	Si	Single	수정
2	21-②	Si	Single	수정
3	21-③	Si	Single	수정
4	65-a	Si		Quartz 홍옥수
5	65-b	Si		Quartz 홍옥수
6	65-c	Si		Quartz 홍옥수
7	79-②	Si		Quartz 홍옥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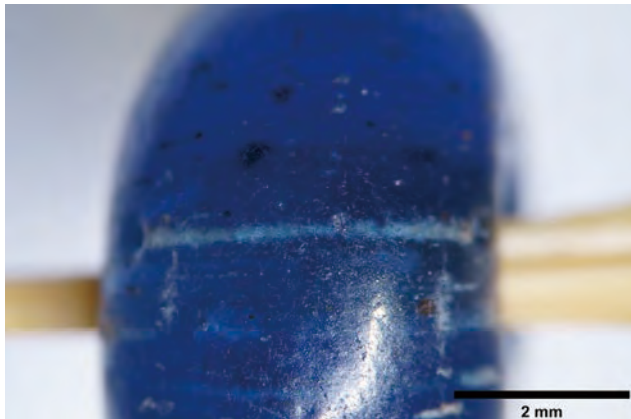
연번	유물번호	주성분원소	결정 구조	추정재질
8	79-③	Si		Quartz 홍옥수
9	98-①	Si, Al, Mg, Na	Amorphous	흑요석
10	106-①	Si		Quartz 홍옥수
11	106-②	Si		Quartz 홍옥수
12	106-③	Si		Quartz 홍옥수

## 4.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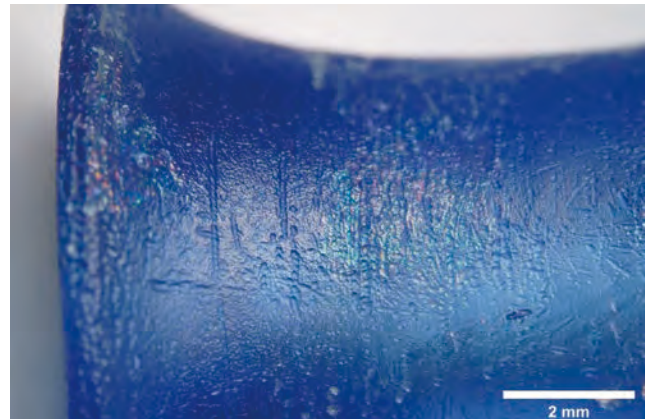
### 1) 제작 기법

고대 유리구슬은 금속막대에 용융된 유리를 묻히고 길게 잡아 늘려 유리관 상태로 만든 다음 적당한 크기로 잘라 만드는 Drawn기법, 용융된 유리를 금속막대에 감아 말아서 만드는 Wound기법, 주형틀에 용융된 유리를 부어서 제작하는 Mould기법으로 구분된다. Drawn기법으로 제작한 유리는 구슬의 구멍과 같은 방향으로 기포나 줄이 나란히 배열된다. Wound기법으로 제작한 유리는 표면에 가로줄이 있거나 가로 방향으로 늘어진 기포가 관찰되며 감은 흔적이 보이는 경우도 있다(김주홍 2006: 34-46, 유혜선·윤은영·이해순 2009: 129).

평양 오야리 고분에서 출토된 유리구슬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제작 기법 역시 다양하다. 대부분의 환형의 소옥들은 구멍과 나란한 방향의 기포들이 관찰되어 Drawn기법으로 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도판 2-1). 환옥(98-②)과 이당(105-①-b·d, 105-②-a·b)은 현미경으로 표면을 관찰하였을 때 가로 줄무늬가 확인되어 Wound기법으로 제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도판 2-2). 양형옥(79-①)과 부수식옥(105-①-a·c)은 주형틀을 사용한 Mould기법으로 추정된다.



1. Drawn기법으로 제작된 유리소옥(64-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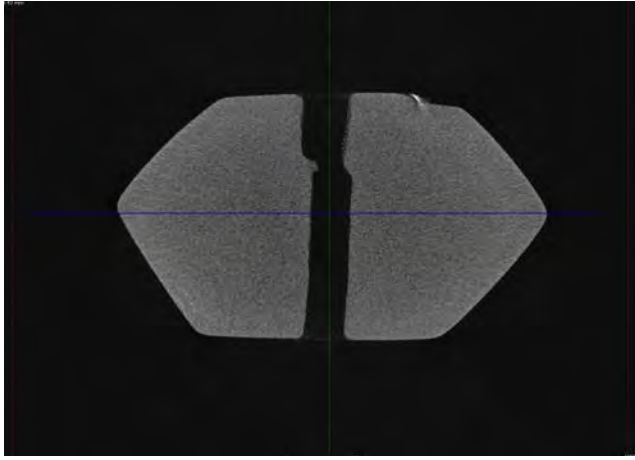


2. Wound기법으로 제작된 이당(105-①-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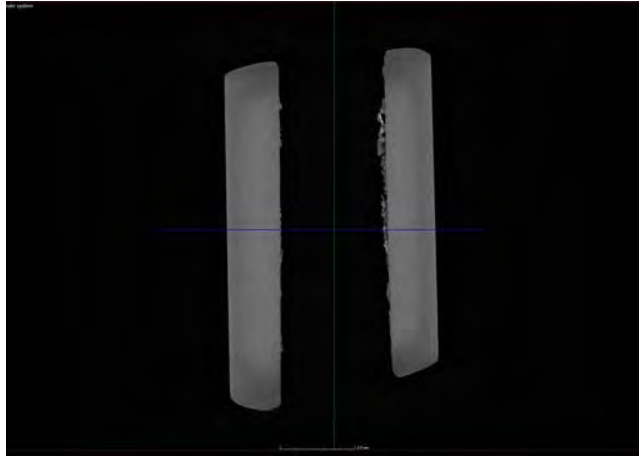
도판 2. 평양 오야리 고분 출토 유리옥의 기포방향으로 확인하는 제작기법

광물을 재료로 제작한 다면옥, 관옥 등의 구슬들은 표면을 가공한 뒤 도구를 사용하여 투공하는 경우가 많다. 컴퓨터단층촬영으로 이 구슬들의 투공 방향을 관찰하였다<sup>1</sup>. 수정으로 제작된 다면옥(21-②)은 투명하여 현미경 조사로도 투공 흔적이 관찰된다. 컴퓨터단층촬영 이미지로 양방향에서 두께가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투공한 것을 확인했다(도판 3-1). 홍옥수로 제작된 다면옥(79-②)과 가지형옥(79-③) 역시 서로 다른 두께의 도구로 양방향에서 구멍을 만들었다. 관옥과 환옥(106)은 한 번에 구멍을 투공하였다(도판 3-2). 엑스선회절분석 결과 비정질로 분류되었던 이당(98-①)은 컴퓨터단층촬영결과 구슬 내부에 기포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으며 일부 유리화되지 못한 광물들의 결정(구슬 내부의 백색 반점)이 확인되었다(도판 3-3). 또한 양방향에서 여러 번 나누어 투공한 것이 관찰된다(도판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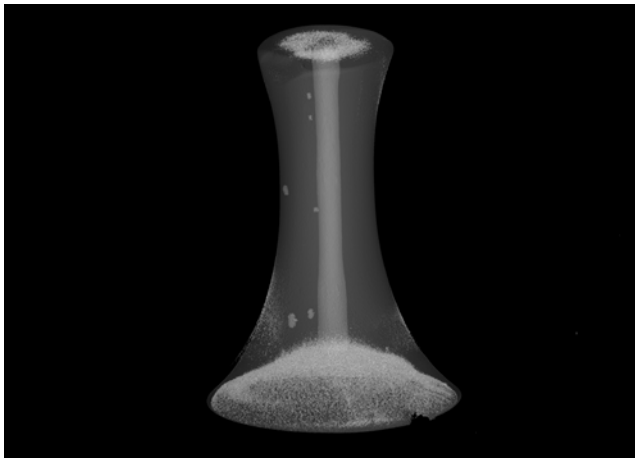
1 nanoCT 조사는 국립부여박물관 학예연구실 박학수 실장과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 양석진 학예연구사가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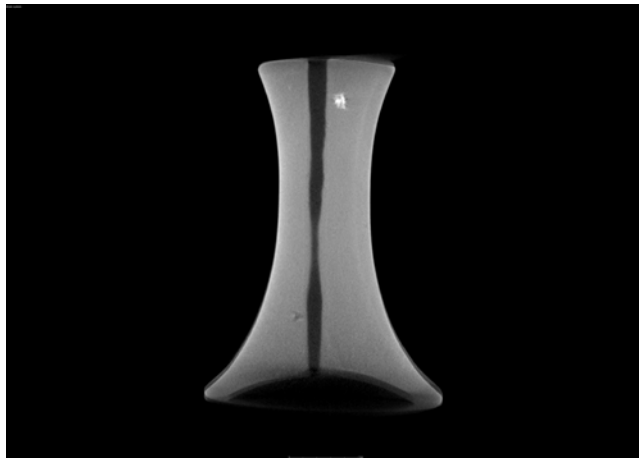
1. 표면가공 후 양방향으로 투공한 다면옥(21-②)



2. 표면가공으로 한 방향에서 투공한 관옥(106-②)



3. 이당(98-①) 내부의 광물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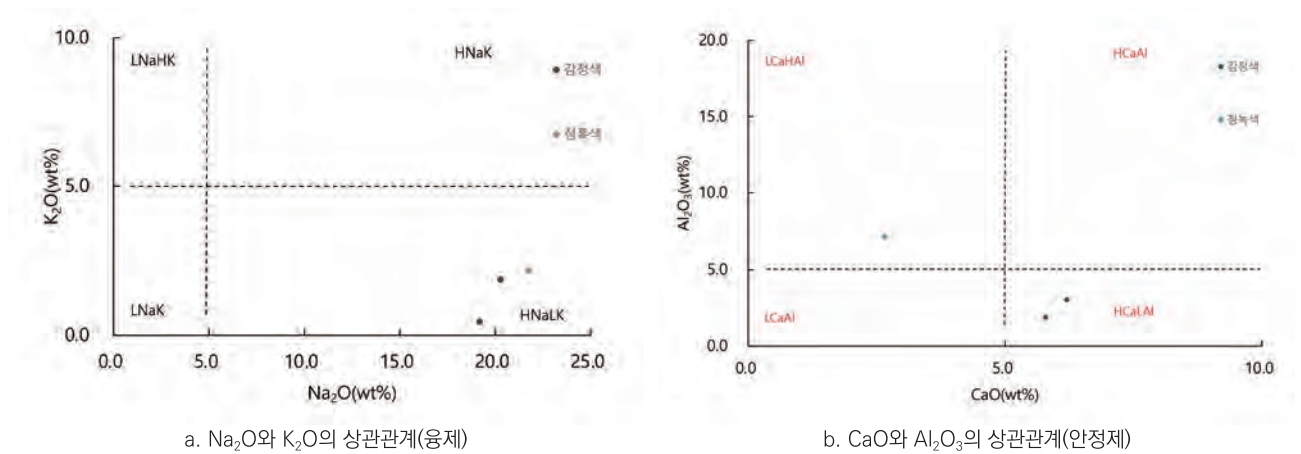
4. 이당(98-①)의 양방향 투공흔적

도판 3. 평양 오야리 고분 출토 구슬의 나노CT 조사 이미지

## 2. 성분 조성상 분류

고대 유리는 용제에 따라 납유리군(Lead glass group)과 알칼리유리군(Alkali glass group)으로 구분된다. 그중 알칼리유리군은 용제의 종류에 따라서 포타쉬유리군(Potash glass group), 소다유리군(Soda glass group), 알칼리혼합유리군(Mixed Alkali glass group)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분류된 유리군은 안정제인 산화칼슘( $\text{CaO}$ )과 산화알루미늄( $\text{Al}_2\text{O}_3$ )의 함유량(5wt%기준)에 따라 다시 LCA(Low  $\text{CaO}$ ,  $\text{Al}_2\text{O}_3$ ), LCHA(Low  $\text{CaO}$ , High  $\text{Al}_2\text{O}_3$ ), HCLA(High  $\text{CaO}$ , Low  $\text{Al}_2\text{O}_3$ ), HCA(High  $\text{CaO}$ ,  $\text{Al}_2\text{O}_3$ )로 세분된다(김규호 2001: 46, 김규호 2012: 209-219, 김규호·김나영·김은아 2021: 286-297, 이인숙 1990: 23·33-34).

평양 오야리 유리 구슬 중 파손된 3점의 유리를 마운팅하여 단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용제에 의한 구분으로는 감청색 유리 2점(78-l·m) 및 청록색 유리 1점(78-n) 모두 소듐 함량이 높은 소다유리로 구분되었다. 안정제에 따라서는 감청색유리는 칼슘의 함량이 높은 HCLA, 청록색은 알루미늄이 높은 LCHA계열로 세분되었다.



도판 4. 평양 오야리 고분 출토 유리구슬의 성분 조성상 분류

## 5. 맺음말

평양 오야리 고분에서 출토된 구슬 54점에 대해 미세구조 관찰, 비중 측정, 표면 성분 조성 분석, 결정구조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1) 제작 기법

53점 중 30점의 유리구슬은 표면이나 구멍 내부에서 길이 방향의 줄이나 기포가 확인되어 Drawn기법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소옥(78-c) 1점, 환옥(98-②) 1점과 이당 4점 등 총 6점은 표면에 가로 줄이 확인되어 Wound기법으로 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양형옥(79-①), 부수식옥(105-①-a·c) 3점은 거푸집에 유리를 부어 만든 Mould기법으로 제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광물로 제작한 구슬은 표면을 가공한 후 투공하였는데 nanoCT 조사 결과를 검토하였을 때 106의 3점을 제외한 나머지 8점은 투공 방향이 다른 것으로 보아 양쪽에서 구멍을 뚫어서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 2) 성분 조성

평양 오야리 고분 출토 유리구슬 42점 중 대부분의 유리들이 표면층의 풍화로 인하여 미분류로 분류되었다. 계통분류가 가능한 유리들 중 표면을 분석한 15점은 용제에서 포타쉬유리 6점, 소다유리 9점으로, 안정제에서 모두 LCHA계열로 분류 되었다. 색상별로는 자색의 포타쉬유리 2점, 소다유리 1점, 감청색의 포타쉬유리 3점, 소다유리 8점으로 색상에 따른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았다. 단면을 분석한 3점은 HCLA계열의 감청색 소다유리 2점과 LCHA계열의 청록색 소다유리 1점으로 세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평양 오야리 고분 출토 구슬에 대하여 제작 기법 조사, 성분 조성 분석 등을 진행하였다. 유리옥은 표면 및 단면 분석을 통해 용재와 안정제에 따라 구슬의 계통을 분류하였다. 단면 분석을 통하여 감청색 및 청록색계열 소옥의 성분 조성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었다. 향후 다른 낙랑고분들에서 출토된 유리옥들의 추가 연구를 통하여 한반도에서 제작된 유리의 분류에 의미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양 오야리 고분 출토 구슬에 대하여 제작 기법 조사, 성분 조성 분석 등을 진행하였다. 다면옥은 결정구조 동정으로 재질을 추정하였는데 비정질인 이당(98-①)의 경우 컴퓨터단층촬영과 비중측정, 표면성분 조사 등을 통하여 흑요석으로 추정되었다. 낙랑지역 고분 출토 구슬 중 해당 유물과 비슷한 형태와 재질로 보이는 유물들이 확인되는 만큼 추후 이 재질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한다면 낙랑시기의 지역간 교역 및 제작 기술 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참고문헌

- 국립중앙박물관, 2021, 『평양 오야리 18~21·25호분-유구편』.
- 김규호, 2001, 「한국에서 출토된 고대유리의 고고화학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2012, 「한국 고대유리의 화학 조성에 따른 역사적 변천」, 『2012 기획특별전 양동리, 가야를 보다』, 국립김해박물관.
- 김규호 · 김나영 · 김은아, 2021, 「한국 출토 고대유리의 고고 화학적 특징」, 『특별전시: 오색영릉 한국 고대 유리와 신라』, 국립경주박물관.
- 김주홍, 2006, 「고대 유리옥 제작기술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혜선·윤은영·이해순, 2009, 「구슬류 분석-현미경관찰 및 비중측정을 중심으로-」, 『불국사 석가탑 유물4- 보존처리·분석』, 국립중앙박물관·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 이인숙, 1990, 「한국 고대유리의 고고화학적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1999, 「고대유리연구에 있어서의 과학적 접근 방법」, 『한국선사고고학보』 6.

# 평양 오야리 18·19호분 출토 직물 분석

박승원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

## 1. 머리말

고고 유적에서 발견되는 직물류들은 금속이나 토기 등 비교적 단단하고 오래 보존되는 모체의 한 부분에 완전히 밀착된 상태이거나 직물류로 분류된 흙덩어리 상태로 수분을 함유한 채 보호되어 발견된다. 대체로 작은 조각으로 발견되는 고대 직물 자료는 대부분이 연소·부패·충해를 받기 쉬운 천연 유기질로 되어 있어 자연적인 손상이 쉽고 취급이나 보관이 어려우며 한번 손상되면 그 원형을 회복하기 힘들다(박승원 2011: 158). 발견된 직물편은 공기와 접하며 경화되고 약한 부분은 추가 손상이 진행되므로 다루는데 있어서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평양 오야리 고분에서 발견된 직물류는 모두 작은 직물편으로 부서진 상태이다. 제직 방법이 같은 유형별로 분류 과정이 진행되었고, 분류번호 2개의 대상품에 대해 4가지 유형의 제직특성이 확인되었다. 다음에서 각 유형에 따른 성격을 간단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 2. 분석 대상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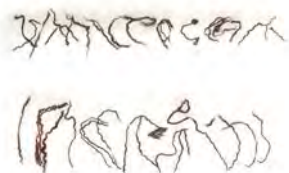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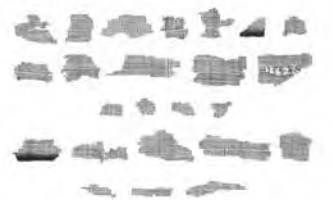





### 1) 분석 대상

분석 대상은 오야리 18호분 출토 실(22)과 19호분 출토 직물(51)이다(표 1). 실(22)은 직물이 아닌 섬유의 상태로 여러 개의 섬유 가닥과 섬유 다발이 뭉쳐있는 모습이다. 직물(51)은 발견 상태에 따라 4개의 소변호로 분류되며 3종류의 직물 유형이 확인된다.

### 2) 분석 방법

보존처리를 통해 직물의 원형을 회복한 후 직물의 크기, 두께, 밀도, 무늬, 색상 등 기본 성격을 조사하였다. 직물의 제직 특성은 현미경 조사(Leica M80, Germany)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통직물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명명하였다.

표 1. 분석대상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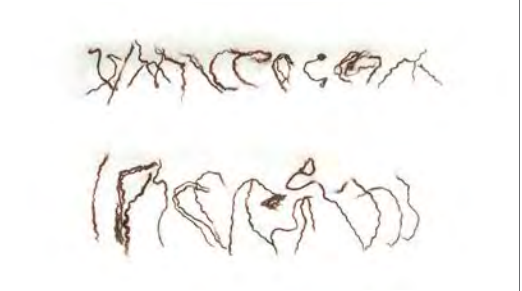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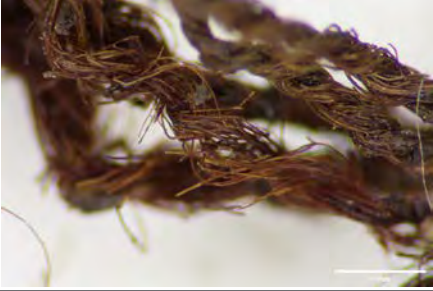
유물번호	유물명	소장품 번호	사진	비고
22	실	본관12379	① 	
			② 	
51	직물	본관12626	1-① 	
			1-② 	
			1-③ 	
			2 	
			3 	
			4 	

3. 분석 결과

1) 실(22, 본관12379)

여러 개의 섬유 가닥과 섬유 다발이 뭉쳐있는 모습이다. 섬유의 색상은 황색, 홍색, 갈색으로 실의 꼬임은 오른쪽꼬임(右撚絲, S꼬임)이며, 여러 가닥의 섬유가 황색 펠트 조각과 연결되어 풀어지고 끊어진 모습이다.

표 2. 실(22)의 현미경 조직 확대 모습

소장품번호	유물	현미경 사진
본관12379-①		
본관12379-②		

2) 직물(51, 본관12626)

① 칠사漆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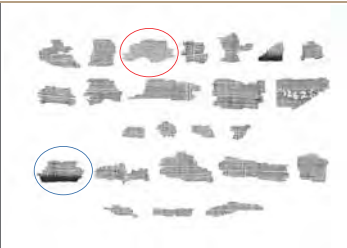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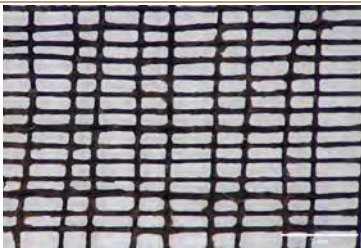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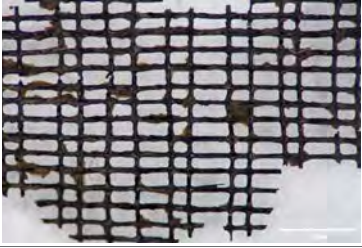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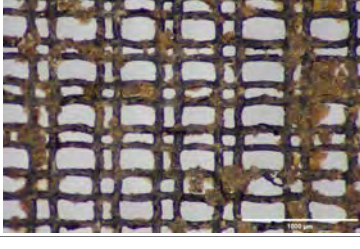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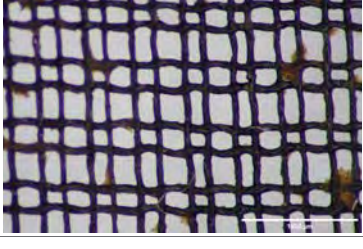
평안남도 평양 부근 1-2세기 유적에서 확인되는 칠사는 얇고 소하며 가벼운 직물로 분류된다(심연옥 2011: 140-141). 아주 성기게 제직된 평직물의 표면에 흑색의 칠을 도포하여 색상이 검고 뽀뽀하게 된 것이다.<sup>1</sup> 문헌 중의 ‘오사모烏紗帽<sup>2</sup>’ 등이 이런 검은 칠사로 만든 관冠을 말하는 것으로 모자의 용도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모자사帽子紗라고도 한다(심연옥 1998: 90).

직물 중 여러 점의 조각으로 발견된 칠사는 평조직으로 성기게 제직된 직물의 표면에 칠을 한 직물이다. 직물은 경위사 비슷한 굵기의 가는 실을 사용하였고, 위사의 밀도는 균일하고 경사의 밀도는 경사 두 올과 다음 두 올 사이에 간격을 두어 제직되었다. 밀도는 12×24(경사×위사/1cm), 올 굵기는 평균 0.14mm이다. 식서는 직물 끝에 남아 있으며 너비는 2.9mm이고, 위사 밀도는 바탕 조직과 동일하나 경사가 조밀하게 짜여졌다. 표면 칠로 인해 부드러운 직물이 뽀뽀하게 되어 외형은 유지되었으나 전체적인 직물의 강도가 약하여 부러지기도 쉽다. 작은 조각들로 남아 있어서 원형을 알 수 없고 문헌 기록에서와 같이 모자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1 중국에서는 이와 같은 평직물을 방공사方空紗라고 하는데, 사조직은 원래 경사꼬임이 있는 직물조직의 명명이지만 중국에서는 평조직이라도 흰히 비치게 제직되었을 때 ‘사紗’라고 한다(민길자 2000: 87-88).  
2 三國史記 卷 第三十三 雜志 第二 色服



표 3. 철사의 현미경 조직 확대 모습

소장품번호	유물	현미경 사진(○)	현미경 사진(○)
본관12626-1-①			
본관12626-1-②			
본관12626-1-③			
본관12626-2			

## ② 엮음직물

엮음직물은 직기를 이용한 직조에 의해서 짜여진 기직물機織物이 아닌, 손이나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여 엮거나 엮어서 구성된 섬유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다양한 엮음직물이 사용되었는데, 고대 사선꼬임엮음으로 짜여진 엮음직물은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리纒’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평양 석암리와 채협총에서 1-2세기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리 중에는 철을 도포하여 뽀뽀하게 만들어 모자의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심연옥 2002: 61-62). 사선꼬임엮음직물은 다수의 실을 일정한 방법에 따라 사선으로 교차시키며 뽀뽀나 엮어서 만든다.<sup>3</sup>

3 엮어서 짜는 방법에 따라 사선으로 엮여지는 사선꼬임엮음(Oblique twining), 사선으로만 엮어서 짜여지는 사선엮음(Braid), 위사가 경사를 꼬아가며 짜여지는 위사꼬임엮음(Weft twining) 등 종류가 다양하다(심연옥 2002: 61).

표 4. 엮음직물의 현미경 조직 확대 모습

소장품번호	유물	현미경 사진(○)
본관12626-3		

③ 평견직물

바닥조직은 평직으로 하고 무늬가 없이 제직된 평견직물이다. 평견직물은 경위사 밀도의 차이나 실의 꼬임에 따라 변화를 준다. 경위사 모두 비교적 균일한 굵기의 실을 사용하였고 밀도는 30×50(경사×위사/1cm)이다. 경사의 올 굵기는 평균 0.2mm, 위사의 올 굵기는 평균 0.14mm인데 경사와 위사 사이에 올 간격이 있어서 성기고 유연하게 느껴진다. 실은 꼬임이 거의 없는 무연사無撚絲이다. 색상은 흑색에 가깝게 변색되었다.

표 5. 평견직물의 현미경 조직 확대 모습

소장품번호	유물	현미경 사진
본관12626-4		

4. 맺음말

평양 오야리 18·19호분에서 발견된 직물류는 모두 4가지 유형이다. 평안남도 평양 부근 1-2세기 유적에서 확인되는 칠사, 엮음직물, 평견직물이 있고, 펠트와 연결되어 풀어지고 끊어진 다색의 섬유 가닥이 확인된다. 칠사와 엮음직물은 손상된 작은 편으로 남아 있어 복식 종류의 원형 확인은 어려우나 기록을 통해 관의 재료로 판단되며, 평견직물은 의복 등의 재료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

## 참고문헌

三國史記

민길자, 2000, 『한국 전통 직물사 연구』, 서울: 한림원.

박승원, 2011, 「직물유물의 과학적 보존」, 『고대직물』, 국립부여박물관, 서울: 씨티파트너.

심연옥, 1998, 『중국의 역대직물』, 서울: 한림원.

\_\_\_\_\_, 2002, 『한국직물 오천년』, 서울: 고대직물연구소.

\_\_\_\_\_, 2011, 「한국 古代직물의 역사와 종류」, 『고대직물』, 국립부여박물관, 서울: 씨티파트너.

# 평양 오야리 19호분 출토 식물유존체 분석

이희경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 1. 머리말

평양 오야리 19호분은 1930년대에 조사된 낙랑의 목곽분으로 칠기, 목기 등 부패하기 쉬운 유물들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출토되었으며, 그 중에는 견과류나 과실류의 핵과 같은 식물유존체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식물유존체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수습된 후 다른 유물들과 마찬가지로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보관되다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되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의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사업’으로 오야리 고분이 재조사되는 과정에서 식물유존체의 분석 또한 진행되었다. 식물유존체의 출토 상황에 대해서는 『昭和五年度古蹟調査報告 第一冊-平安南道 大同郡 大同江面 梧野里古墳 調査報告』(朝鮮總督府 1935, 이하 쇼와 5년 보고서)에 기록이 남겨져 있으며,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식민 지배를 위한 기초사업으로 제작한 유리건판 사진에서도 그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국립중앙박물관 2021)(도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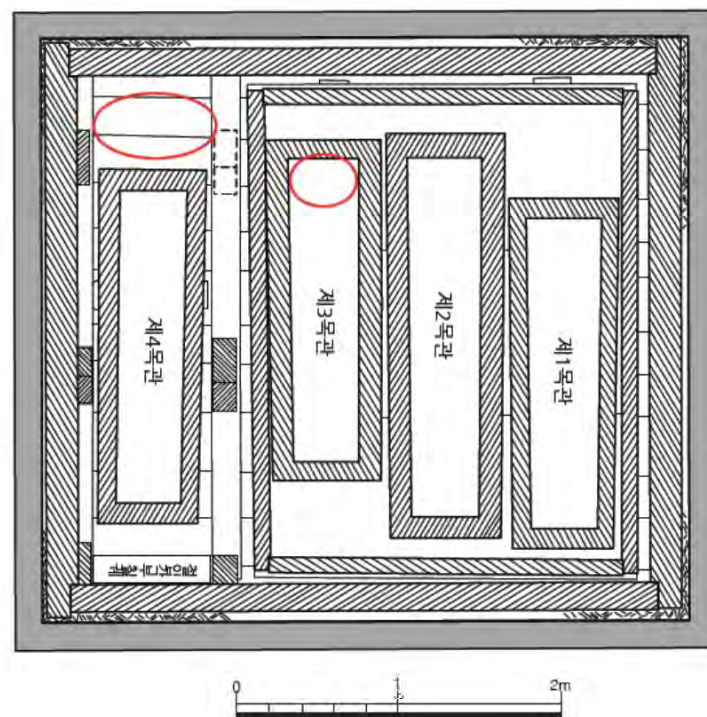
도판 1. 오야리 19호분 출토 식물유존체 유리건판 사진(건판10331)



이 글은 오야리 19호분에서 출토된 식물유존체의 분석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어떠한 종이 얼마나 출토되었는지 파악한 후에 그 의미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식물유존체는 유리건판 사진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본래 형태를 유지하며 잘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부장 식물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고자 형태적 특징을 토대로 동정한 후에 수량을 파악하였으며, 재배 여부나 품종을 추정하고자 일부 완형 종자를 대상으로 크기를 측정하여 다른 유적에서 출토된 자료들과 비교하였다.

## 2. 식물유존체 분석 결과

19호분의 식물유존체는 무덤 내부에서 확인된 4개의 목관 가운데 제3목관(25)의 아래에 위치한 두씨작명마각부칠안(27)의 위와 주변, 그리고 제4목관과 목곽 북벽 사이에서 발견되었으며(도판 2), 쇼와 5년 보고서에 발견 상황에 대한 기록이 다음과 같이 간략히 남겨져 있다.



도판 2. 식물유존체 출토 지점(붉은색 표시)

“제3목관의 아래에서 출토된 두씨작명마각부칠안의 위에 복숭아씨 3개·밤 6개(현재 일반적으로 평양밤이라고 칭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불명 씨앗 6개가 있었고, 또 칠안 위의 칠렴漆盥 잔편에 밤 3개가 붙어 있었으며, 칠안 부근에서 밤 1개·칠반漆盤의 내부에서 밤 1개·복숭아씨 3개, 그리고 제4목관과 목곽 북벽 사이에서 밤 2개가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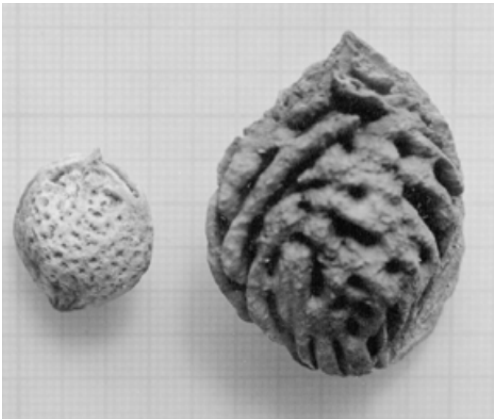
즉 19호분에서는 3종류의 식물유존체 25점이 발굴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번 분석에서는 복숭아 씨 6개와 밤 12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밤은 13개가 아닌 12개로, 불명 씨앗은 6개가 아닌 7개로 파악되었는데, 불명 씨앗의 경우 파손 상태라 수량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불명 씨앗은 산사나무 종자로 동정되었으며, 모든 식물유존체는 건조에 의해 보존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오야리 19호분에서 출토된 식물유존체의 목록과 수량은 [표 1]과 같다.

표 1. 오야리 19호분 출토 식물유존체

유물번호	소장품번호	식물유존체	학명	수량	보존 상태
53-①	본관12623	복숭아	<i>Prunus persic</i> L.	6	건조, 원형
53-②	본관12624	밤나무屬	<i>Castanea</i> sp.	12	건조, 원형 6, 파손 6
53-③	본관12625	산사나무	<i>Crataegus pinnatifida</i> Bunge	7	건조, 원형 6, 파손 1

### 1) 복숭아 핵(53-①, 본관12623)

복숭아는 벚나무속屬(*Prunus*)에 속하는 식물로 한반도의 고고학 유적에서 출토된 식물유존체 가운데 매실, 살구 등이 또한 이 범주에 속하며, 단단하고 평평한 타원형의 핵을 공통된 특징으로 한다. 복숭아·매실·살구의 핵은 표면 구조상 차이를 보이는데, 매실의 핵은 표면에 요점凹點이 많고, 살구 핵은 측면의 날개 같은 돌기와 표면의 요점이 없으나 거칠고 망목網目이 있으며, 복숭아 핵은 특유의 돌기가 존재한다(안승모 2015)(도판 3). 오야리 19호분에서 출토된 식물유존체의 경우 복숭아 특유의 돌기가 뚜렷하게 확인되어 복숭아로 동정할 수 있었다(도판 4).



도판 3. 현생 매실과 복숭아 핵 (안승모 2015: 도 2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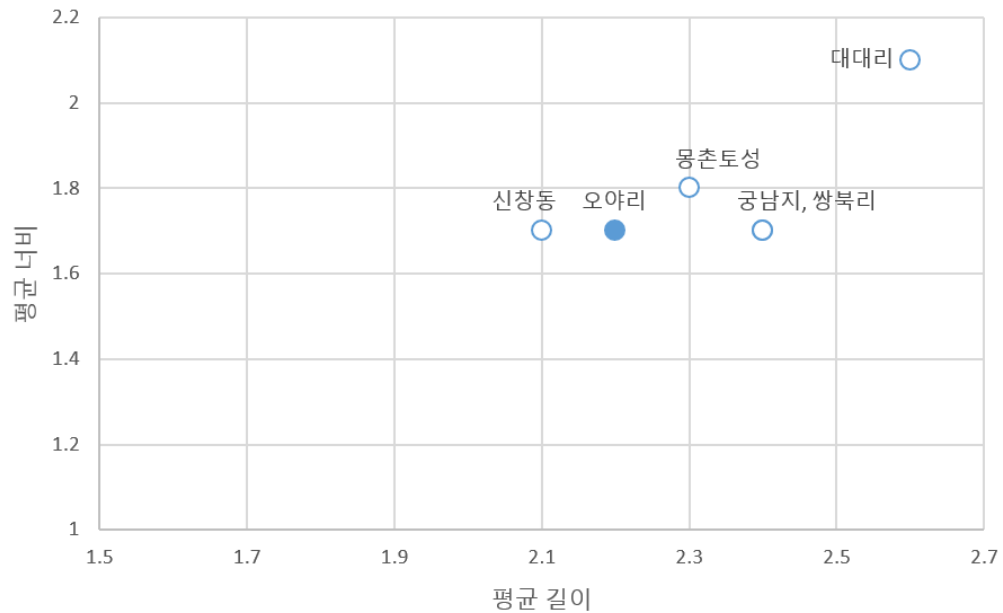
도판 4. 오야리 19호분 출토 복숭아 핵

복숭아 핵은 총 6개로 모두 완형으로 확인되었으며, 건조된 상태로 보존되고 탄화와 같은 다른 작용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복숭아를 부장하였으나 과육 부분은 부패하고 단단한 핵만이 보존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핵의 형태는 끝이 뾰족한 타원형으로 현생 복숭아 핵과 차이가 관찰되지 않으나, 크기는 길이 2.1~2.3cm, 너비 1.4~1.9cm, 두께 1.2~1.6cm로(표 2), 현재의 복숭아 핵이 대부분 길이 5cm인 점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작은 편에 속한다. 한반도 고대 유적에서 출토된 복숭아 핵들과 비교하면 유사한 편이지만 다소 차이가 관찰되는데(도판 5)<sup>1</sup>, 초기철기시대 유적인 신창동 출토 핵보다는 다소 크고 몽촌토성·궁남지·대대리 등 삼국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핵보다는 작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복숭아의 재배종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동정 기준은 아직까지 모호하지만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크기 변화가 거의 없으며(안승모 2015) 중국에서는 4천년 전 무렵부터 재배가 보편화된 것으로 논의되므로(Zheng 2014) 오야리 고분에서 출토된 것 역시 재배종 복숭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표 2. 오야리 19호분 출토 복숭아 핵의 크기

순번	길이	너비	두께	순번	길이	너비	두께
1	2.3	1.8	1.5	4	2.1	1.5	1.2
2	2.3	1.8	1.6	56	2.1	1.4	1.2
3	2.1	1.6	1.2	6	2.1	1.9	1.2



도판 5. 한반도 유적 출토 복숭아 핵 크기 비교

1 10개 이상의 핵이 출토된 유적들의 평균치를 비교하였으며, 계측치는 안승모의 2015년 논문에서 제시된 것을 참조하였다.

## 2) 밤 과피(53-②, 본관12624)

밤 과피는 12개가 확인되었다. 6개는 완형이나 나머지 6개는 일부분이 결실되었다. 흑색으로 식용 부위는 부패하고 건조에 의해 비교적 단단한 과피만 보존된 것으로 판단된다(도판 6). 건조로 보존되는 과정에서 형태가 변형되었으나 대략의 형태와 질감을 토대로 밤으로 동정할 수 있었다.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보존된 2개체의 크기를 측정한 결과 길이와 너비가 각각 1.7cm·1.8cm, 1.9cm·2cm로 측정되었다. 이는 길이 2.5~4cm인 현생 밤에 비하여 작은 크기이다. 다른 고고학 유적에서 출토된 것과 비교하면 백제 시대 유적인 부여 궁남지에서 출토된 것이 길이 2.3cm, 너비 3.1cm(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1), 쌍북리에서 출토된 것이 길이 3.3cm, 너비 3.4cm로(이희경 2011) 역시 오야리 19호분에서 출토된 밤이 작은 편이다. 건조에 의해 수분이 빠지면서 크기가 작아졌을 수 있지만, 품종 차이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쇼와 5년 보고서에는 ‘평양밤’이라 칭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라 기록되어 있는데, 평양밤나무는 약밤나무(*Castanea mollissima* Blume)를 이르는 것으로 원산지가 중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밤나무 열매에 비해 열매가 작고 단단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남부지역에서 특히 많이 자라는 밤나무(*Castanea crenata*)와 다르게 경기 이북에서 잘 자라므로(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오야리 19호분에서 출토된 작은 크기의 밤 역시 쇼와 5년 보고서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약밤일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도판 6. 오야리 19호분 출토 밤 과피

### 3) 산사나무 씨앗(53-③, 본관12625)

쇼와 5년 보고서에 불명 씨앗으로 보고된 것으로, 총 7개가 확인되었다. 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종자 한 면에서 1~2개의 골이 뚜렷하게 관찰되어 이러한 특징을 토대로 산사나무 씨앗으로 동정할 수 있었다(도판 7). 본래 황갈색의 종자이나 색이 변화하여 흑색에 가까운 상태로 보존되었으며, 6립은 완형, 1립은 파손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길이는 0.5cm 정도로 계측되었는데, 0.6~0.7cm 정도 되는 현생 종자에 비해 작은 것으로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크기가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산사나무는 일본, 중국, 극동 러시아 지역에 분포하며 한반도에서는 함경남·북도에서 강원도, 경기도 북부 및 경상북도까지 분포한다. 산지에서 자라며 밭이나 개간지에서도 생육이 좋아(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www.nature.go.kr](http://www.nature.go.kr)), 오야리 낙랑고분이 위치한 평양 지역에서도 쉽게 획득할 수 있었던 자원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대에는 과실 그대로 섭취하거나 말려서 한약재로 이용하며 과실주로 담가 먹기도 하여(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고대에도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고고학 유적에서의 출토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워 용도를 짐작하기 쉽지 않다. 다만 오야리 19호분에서는 종자가 발견되었고 함께 발견된 식물들이 모두 가공 없이 그대로 섭취 가능한 것들이므로 유사하게 과실 그 자체를 공헌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판 7. 오야리 19호분 출토 산사나무 씨앗

### 3. 맺음말

식물은 일상적으로 중요한 식량 자원일 뿐만 아니라 의례에서도 중요하게 사용되어, 매장 의례 과정에서도 공헌물로 사용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을 수 있다. 하지만 무덤 유구에서 식물유존체가 출토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편인데, 이는 한반도의 경우 대체로 탄화나 수침에 의해서만 식물유존체가 보존될 수 있고, 무덤 유구의 경우 이러한 보존 환경이 조성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 신라 등 고대 정치체의 무덤에서 식물유존체가 출토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낙랑고분의 경우에는 평양 남정리, 석암리, 정백동 등 여러 유적에서 식물유존체가 확인된 바 있다. 비교적 한랭 건조한 환경이 보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오야리 19호분 또한 평양 지역의 낙랑고분 중 하나로, 이번 분석을 통해 세 종류의 식물유존체를 동정할 수 있었다. 식물유존체는 복숭아의 핵, 산사나무 종자, 밤 과피로 파악되었으며, 매장 의례 과정에서 부장된 것으로 쇼와 5년 보고서에서는 피장자에게 바쳐진 흔적으로 추정하였다.

오야리 19호분에서 발견된 식물들은 모두 단단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 비교적 보존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여러 식물이 부장되었지만 세 종류만 보존되어 남겨졌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다른 낙랑고분에서 출토된 식물유존체를 보면 앵도, 대추와 같은 과실류뿐만 아니라 조, 기장과 같은 곡물이 확인되고(표 3), 중국 본토의 마왕퇴와 같은 한나라 무덤에서도 곡물이 발견되어 문헌 기록과 고고학적 증거를 토대로 고대 중국인들이 오곡을 공헌하는 경향이 있었음이 논의되기도 한다(Jiang et al. 2021). 이러한 점에서 오야리 19호분에도 곡물과 같은 다른 식물들이 부장되었지만 보존되지 못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구, 대추, 매실과 같이 중국 고대에 주로 이용되면서(Shen an Li 2021) 단단한 조직을 남길 수 있는 다른 식물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양한 견과류와 과실류 중에서는 복숭아와 밤과 같은 일부 종이 선택적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표 3. 낙랑고분 출토 식물유존체(안승모 2013 참조)

유적	식물유존체	유적	식물유존체
남정리 116호	맥류, 조, 복숭아, 밤	정백동 2호	복숭아
석암리 201호	복숭아	정백동 37호	기장
석암리 205호	복숭아, 밤, 대추, 앵도	정백동 19호	복숭아
용추동 목곽묘	기장	정백동 7호	복숭아

오야리 19호분에서 출토된 복숭아와 밤은 다른 낙랑고분에서도 발견된 사례가 있어, 복숭아는 남정리 116호, 석암리 201·205호, 정백동 2·7·19호 등 다수의 유구에서 출토되었으며, 밤의 경우에는 남정리 116호분과 석암리 205호분에서 확인되었다. 이 두 종류의 식물유존체는 낙랑에서 부장 식물로 선호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빈번하게 출토되는 복숭아의 경우에는 낙랑고분뿐만 아니라 신라, 가야 등 여러 고분에서도 출토되어 부장 식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대 중국에서 복사나무는 선과 또는 악귀를 쫓는 주술적인 나무로 신성시되었는데, 이러한 상징적 의미로 인해 주요 부장 식물로 선택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안승모 2015). 게다가 복숭아의 경우 중국에서 오랫동안 재배되던 중요한 식물이고 평양 지역에서도 잘 자랄 수 있으며 밤 또한 그러하여,<sup>2</sup> 낙랑고분의 부장 식물로 선택된 것으로 생각된다.

2 밤의 경우 재배 기원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중국에서는 적어도 3000년 이상 재배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hen and Li 2021).



한편 산사나무 종자는 출토 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현재 빈번하게 이용되는 종자가 아니어서 인식도가 낮아 동정이 어려웠을 수 있다. 하지만 부장 식물로 거의 이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기존에 낙랑고분에서 출토되는 식물들이 모두 재배종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재배 여부가 부장 식물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낙랑고분에서 출토된 식물유존체는 낙랑고분의 부장 양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견과류 및 과실류의 무덤 부장과 재배 양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낙랑고분의 복숭아와 밤 부장의 영향을 받아 한반도에서도 이러한 식물들의 부장이 이루어지고 재배가 본격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안승모 2012, 2015). 낙랑고분에서는 여러 종류의 식물유존체가 출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식물 고고학적 분석 과정을 거친 자료는 많지 않은데, 고분 1기에 불과하지만 이번 분석을 통해 낙랑고분 출토 식물유존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이후 낙랑고분의 식물 부장과 수목 식물의 이용 연구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 참고문헌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1, 『궁남지 II』.
- 국립중앙박물관, 2021, 『평양 오야리 18~21·25호분-유구편』, 日帝强占期 資料調査 報告 41輯.
- 안승모, 2012, 「식물유체로 본 선사·고대 견과류 이용의 변화」, 『湖南考古學報』 40.
- \_\_\_\_\_, 2013, 「식물유체로 본 시대별 작물조성의 변천」, 『농업의 고고학』, 사회평론.
- \_\_\_\_\_, 2015, 「고고학으로 본 복숭아 재배와 의례적 기능」, 『馬韓·百濟文化』 26.
- 이희경, 2011, 「부여 쌍북리 280-5번지 창고신축부지 문화유적 출토 식물유존체」, 『扶餘 雙北里 280-5 遺蹟』, 백제문화재연구원.
- Shen, H. and X Li., 2021, From extensive collection to intensive cultivation, the role of fruits and nuts in subsistence economy on Chinese Loess Plateau, *Archaeological and Anthropological Sciences* 13(4).
- Jiang, H., J. Yang, T. Liang, Z. Zhang, S. Wang, X. Qi, and P. Sheng, 2021, Palaeoethnobotanical analysis of plant remains discovered in the graveyard of the Haihun Marquis, Nanchang, China, *Vegetation History and Archaeobotany* 30(1).
- Zheng, Y., G. W. Crawford and X. Chen, 2014, Archaeological evidence for peach(*Prunus persica*) cultivation and domestication in China, *PLoS ONE* 9(9).

IV

---

맺음말

## IV. 맺음말

본 보고서는 평양 낙랑구역의 동북쪽에 위치한 오야리 고분 출토품 재조사 보고서이다. 주 보고 대상은 일제강점기에 발굴조사된 18~21·25호분이며, 오야리 출토품으로 전해지는 일부 소장품을 포함한다. 또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지만, 오야리 22·23호분 출토품으로 보고된 유물에 대해서도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평양 오야리 18~21·25호분은 공사로 우연히 발견된 낙랑고분으로, 조사 당시 이미 도굴된 상태였다. 특히 18호분은 대부분의 관재가 묘광 밖으로 꺼내진 상태였고 부장품은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19~21호분은 그보다 상황이 좋았다고는 하나 목곽과 목관이 이미 파손되어 내부가 교란되었고, 25호분 역시 일부 유물이 도굴된 채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야리 19호분에는 거의 완전한 형태의 목관 4점이 남아있었고, 목용·목마·구장수·절입각부칠괘·칠안 등 다양한 목칠기가 출토되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출토된 토기나 동경, 장신구 등도 낙랑고분 연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평양 오야리 낙랑고분에서는 칠기, 목기, 청동기, 토기, 구슬 등 다양한 재질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출토 위치는 크게 목관 안 그리고 목관과 목곽 사이로 구분된다. 목관 안에서는 피장자의 머리나 허리 주변에서 주로 반지나 구슬 같은 장신구류가 출토되어 부장 당시 피장자가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동경이나 구슬 등이 담겨진 상태로 피장자의 주변에 칠갑이나 칠렴이 놓여있었다. 목관 밖에서 유물이 주로 부장되는 위치는 목관과 목곽 사이의 공간이다. 18~21호분은 목관의 장축 방향이 남북으로 놓여있었으며, 목관은 목곽의 남벽 가까이에 두고 목관과 목곽 북벽 사이의 공간에 토기, 칠기 등을 부장하였다. 칠기의 경우 칠안 위에 칠배, 칠반 등의 칠기 식기와 토기가 올려져 있었으며, 여기에서 복숭아씨나 밤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공물을 바친 제사 의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19호분에서는 목관 위에 구장수나 목용 등을 올려둔 것으로 추정된다.

오야리 낙랑고분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것은 칠기로 18~21호분에서 출토되었다. 주로 칠반, 칠완, 칠배, 칠렴, 칠안 등 한나라에서도 자주 보이는 기종들이다. 목심칠기, 목심저피칠기, 협저칠기가 모두 확인되었으며, 하나의 칠기에 두 가지 제작 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한 경우도 있다. 바탕칠은 주로 흑칠과 주칠 2가지로 칠하였고 무문양의 비중이 높긴 하지만 일부 세밀한 문양을 그려 넣은 것도 출토되었다. 문양은 흑칠, 주칠, 황칠, 녹칠 등의 다양한 색칠을 이용하여 새, 용, 신선 등을 그리거나 각종 기하학적 도형을 반복하여 채워 넣었는데 가는 붓을 이용해 섬세하게 그려 넣었다. 하지만 금·은·금동·구슬 등을 표면에 양감鑲嵌하거나 구연이나 손잡이에 금속장식을 더한 구기鉤器는 보이지 않았고, 송곳으로 새긴 경우도 드물게 확인되었다. 일부 칠기에는 명문도 남아있었다. 21호분에서 출토된 영평십사년명칠배는 저부 가장자리를 따라 글자를 새겼고, 그 외는 바닥의 내외면에 흑칠이나 주칠로 글자를 적었다. 명문의 내용은 주로 칠기의 제작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영평십사년명칠배에는 칠기의 제작연도, 제작지, 용도, 재질, 제작자 등이 순서대로 적혀있는데, 이러한 명문은 한대칠기에서 종종 확인되며, 대형 칠기공방의 전문적인 분업을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 또 ‘李氏作’, ‘杜氏作’과 같은 명문에 보이는 ‘~氏’에 대해 공방의 주인, 제작자, 구매자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며, 이러한 칠기는 사영공방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傅舉有 1997: 41-43).

토기는 모든 고분에서 고르게 출토되어 고분의 축조시기 추정이나 비교에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주로 목관과 목곽 사이의 부장공간에서 발견되었으며, 석영혼입계 옹과 화분형토기, 원저단경호, 평저단경호, 평저장경호 등 다양한 기종이 출토되었다. 18호분에서는 낙랑토성 자료로만 알려져 있던 견부가 꺾인 타날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호분은 목곽마다 소형 원저단경호, 평저단경호, 원저단경호, 석영혼입계 옹이 대체로 조합을 이루며 확인되었다. 평저단경호의 기형이나 저부 접합 상태, 화분형토기의 단면 장방형 구연부 형태 등을 볼 때 기원전 1세기 후반으로 편년이 가능하다. 특히 20호분에서는 고분에서 출토 예가 적은 동체부 전체에 승문타날된 대형 원저단경호가 출토되었으며, 대형 원저단경호와 동일한 제작기법으로 제작된 소형 원저단경호(70, 80)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21호분에서 출토된 평저장경호는 기원후 1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정백리 8호분 출토품과 거의 동일하여 이와 공반한 기년명 자료(영평십사년명칠배)의 연대와 부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21호분에서는 돌대가 있는 긴 경부의 석영혼입계 옹(94)과 일반적으로 대형으로 제작되는 내만 구연 석영혼입계 옹과 달리 소형으로 제작된 석영혼입계 옹(95, 96)이 출토되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다양한 기형과 크기의 석영혼입계 옹이 존재할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전실묘인 25호분에서는 강한 회전력을 이용하여 제작한 평저단경호와 평저장경호가 출토되었다. 경부가 길어지고 크게 꺾이는 구연단부와 전체적인 기형, 사절흔이 뚜렷하게 남은 외저면 등의 특징으로 볼 때 기원후 2~3세기로 편년이 가능하다.

금속기의 종류는 다양하지 못하다. 가장 수량이 많은 것은 반지류로 20·21·25분에서 여러 점이 출토되었다. 얇은 은판을 접어 비교적 폭이 넓은 것, 안쪽은 편평하고 바깥은 둥근 단면 반원형인 것, 두께가 비교적 두껍고 한쪽 면을 편평하게 누른 것 등 형태에 따라 세분이 가능하다. 대부분은 은으로 만들었으나 일부 청동제도 확인된다. 동경은 19·21호분에서 1점, 25호분에서 2점 출토되었는데 모두 후한경으로 추정된다. 청동기가 가장 많이 확인된 고분은 18호분으로 청동분, 일산살꼭지, 노기 고정쇠 및 철제 차축두가 출토되었다. 한편 22·23호분 출토품으로 추정되는 유물 가운데 샷갓형동기, 을자형동기, 권총형동기, 동탁은 대동강면 상리 부장품과 유사하며 세지문경은 전국시대의 것으로, 22·23호분은 오야리 고분 중 비교적 이른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목관 안에서는 구슬 등 장신구도 다수 출토되었다. 특히 20호분에서는 제1곽과 제3곽에서 수백 점의 유리소옥이 출토되었고, 다면옥·가지형옥·양형옥·환옥·조옥 등의 구슬과 대모제 장식 등 다양한 장신구가 발견되었다. 또 한나라에서 유행한 장구 모양의 이당도 여러 점 확인되었다.

목곽묘인 18~21호분은 조사 당시 묘광 안에서 목곽이나 목관이 확인되었으나, 현재 전하는 것은 오야리 19호분에서 출토된 목관 4점뿐이다. 모두 주목으로 길이 200~220cm, 너비와 높이 60~72cm 내외이고, 앞에서 뒤로 갈수록 너비가 다소 좁아지며 높이도 약간 낮아지는 형태이다. 뚜껑은 목관보다 앞뒤로 길며 윗면을 아랫면보다 넓게 만들었다. 낙랑은 고분 축조시 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와 나무를 이음맞춤하여 만든 것이 특징이며, 목관도 동일하게 제작되었다. 목관의 각 면은 2매의 긴 목판을 장부맞춤하고 앞뒤로 나비장 3~4개를 넣어 만들었다. 측판은 바닥판 위에 올려 나비장으로 고정하였고, 단측면과 장측면도 장부맞춤하였다. 목관과 뚜껑의 접합면은 요철로 깎아 물리게 만들고 칠을 발라 고정한 것으로 보이며, 목관과 뚜껑의 측면 사이에도 나비장을 넣었는데 한쪽은 3개, 다른 쪽은 2개인 예가 많았다.

이와 같이 19호분의 목관 4점은 기본적으로 거의 동일한 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표면 장식이나 재료의 측면에서 제2목관은 길이가 250cm 내외로 다른 목관에 비해 크고, 더 두꺼운 목판을 이용해 제작하였다. 또 목관 외면에 흑칠은 물론 내부에도 주칠을 두껍게 발랐고, 측면에는 금동사염좌장식이나



금동물뱀이모양장식을 달아 매우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따라서 제2목관의 피장자가 이 무덤의 주피장자였을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오야리 낙랑고분 5기 중 25호분은 전실묘이며, 그 외는 목곽묘이다. 18호분은 대체로 한 변 3.5m 내외의 정사각형 목곽 안에 2개의 칸막이를 만들어 3점의 목관을 설치하였다. 19호분은 이중 목곽 밖을 벽돌로 감싼 형태이다. 외곽의 크기는 3.0×3.5m이고, 내부에 칸막이를 설치한 후 다시 내곽을 설치하고 그 안에 목관 3점을 부장하였다. 내곽 밖에도 목관 1점을 추가하여 총 4점이다. 20호분에서는 총 3점의 목관이 확인되었고, 목곽마다 목관을 1점씩 안치하였다. 목곽의 크기는 1.0×3.0m 내외이다. 21호분에서는 3.0~3.2m의 방형 목곽 내에 목관 3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로 볼 때 오야리 일대에서는 한 변의 길이가 3.0m 내외인 중소형의 목곽묘가 주로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조사한 출토품의 특징과 일제강점기의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오야리 낙랑고분의 축조 시기는 몇 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다. 먼저 가장 이른 단계의 것은 22·23호분으로, 차마구와 동탁 등의 조합은 이 지역의 재지세력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며, 세지문경은 한나라 이전에 유행한 동경으로 22·23호분의 축조시기가 낙랑 설치 이전으로 올라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 다음은 20호분으로 토기의 형식으로 볼 때 기원전 1세기 후반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8호분에서는 일부 차마구가 확인되었고 노기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20호분과 비슷한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21호분은 영평십사년명칠배의 기년명을 근거로 하면 1세기 후반이나 그 이후에 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호분에서 출토된 화문대신수경은 중국 강남지역에서 제작된 거울로 2세기 후반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또 칠기나 목기 등에서 채협총 출토품과 일부 유사한 점도 보인다. 목곽 밖으로 전벽을 두른 고분 축조 방식으로 볼 때 이미 전실묘가 출현하여 공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19호분은 오야리 목곽묘 가운데 가장 늦은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2세기 후반을 상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실묘인 25호분에서는 경부가 길어지고 구연단부가 크게 꺾이는 형태의 평저장경호가 출토되는 등 토기의 형식으로 볼 때 2~3세기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석암리나 정백리에 비해 오야리는 낙랑고분의 수가 적고 조밀하지 못하며 대부분 규모가 작은 중소형의 고분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 조사된 오야리 18~21·25호분의 예를 보면 오야리에서는 낙랑 전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고분이 축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출토품으로 볼 때 재지세력에 의해 조성된 고분도 있으며, 이것이 낙랑고분들과 하나의 무덤군을 이루었던 것은 낙랑의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주변 다른 지역의 낙랑고분 연구성과가 축척된다면 비교연구를 통해 평양 낙랑고분의 지역성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초록

본 보고서는 평양 낙랑구역의 동북쪽에 위치한 오야리 낙랑고분 출토품에 대한 재조사 보고서이다. 조사 대상은 일제강점기에 발굴조사된 18~21·25호분이며, 오야리 출토품으로 전해지는 일부 소장품도 포함한다. 또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지만, 오야리 22·23호분 출토품으로 보고된 유물에 대해서도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오야리 낙랑고분에서는 칠기, 목기, 청동기, 토기, 구슬 등 다양한 재질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칠기로 모든 목곽묘에서 확인되었다. 칠반, 칠완, 칠배 등 한대 칠기에서 자주 보이는 식기나 용기류의 기종이 대부분이고 칠안, 칠궤도 출토되었다. 바탕 재료를 기준으로 목심칠기, 목심저피칠기, 협저칠기가 모두 확인되었다. 바탕칠은 흑칠과 주칠 2종류로 칠하였고, 문양은 다양한 색칠을 이용하여 세밀하게 그려 넣었다. 칠기 그릇의 바닥이나 칠안의 뒷면에서 확인되는 명문은 주로 칠기의 제작자와 관련된 내용이며, 제작 시기나 제작지 등을 기록한 것도 있다.

금속기는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다. 가장 수량이 많은 것은 반지로 주로 은이나 청동으로 만들었다. 동경은 19호분과 21호분에서 각각 1점, 25호분에서 2점 출토되었는데 모두 후한대의 것이다. 18호분에서는 청동일산살꼭지, 노기 부속구 등과 청동용기가 확인되었다. 22·23호분에서는 샷갓형동기, 을자형동기, 권총형동기, 동탁 및 세지문경이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토기는 석영혼입계 옹, 화분형토기, 원저단경호, 평저단경호, 평저장경호 등 다양한 기종이 출토되었다. 20호분에서는 목곽마다 5점 내외의 토기가 부장되었으며, 대체로 기원전 1세기 후반으로 편년된다. 25호분에는 주로 평저장경호가 확인되었는데 경부가 길어지고 구연단부가 크게 꺾이는 형식으로 2~3세기에 제작되었을 것이다.

목관 내에서는 구슬이 다수 출토되었다. 특히 20호분에서는 수백 점의 유리소옥을 비롯하여 양형옥, 가지형옥, 다면옥, 환옥 등 다양한 종류의 구슬이 부장되었다. 또한 각종 씨앗이나 떡갈나무 잎, 고동의 야가미뚜껑 등은 공헌물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오야리 18~21호분에서는 목곽과 목관 부재가 조사되었으며, 그 중 19호분의 목관 4점은 보존 상태가 매우 좋다. 평면 장방형이며 뚜껑은 윗면이 아랫면보다 넓게 만들어졌다. 목관은 편평한 목관을 장부맞춤과 나비장을 이용하여 결구하였다. 모두 외면에 흑칠을 발랐으며 제2목관은 내면에 주칠도 하였다. 또 제2목관은 금동사엽좌장식과 금동물맴이모양장식을 붙여 표면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19호분의 주관은 제2목관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오야리 낙랑고분은 18~21호분이 목곽묘이고 25호분은 전실묘이다. 목곽묘는 한 변의 길이가 3m 내외인 중소형목곽묘이다. 출토품으로 볼 때 가장 이른 시기에 축조된 것은 차마구와 동탁 등이 출토된 것으로 보고된 22·23호분으로 낙랑 설치 이전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0호분은 토기의 형식으로 볼 때 기원전 1세기 후반으로 보이며, 차마구와 노기가 출토된 18호분도 비슷한 시기의 고분으로 추정된다. 21호분은 칠배의 기년명을 근거로 1세기 후반에 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호분에서 출토된 화문대신수경은 2세기 후반부터 제작된 거울로, 19호분의 상한을 보여준다. 전실묘인 25호분은 토기의 형식상 2~3세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평양 오야리 낙랑고분은 석암리나 정백리에 비해 수가 적고 조밀하지 못하며 대부분 중소형으로 규모가 작지만 낙랑 전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또 낙랑 이전 재지세력에 의해 조성된 고분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주변 다른 지역의 낙랑고분에 대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비교 연구한다면 오야리 일대 낙랑고분의 지역성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Abstract

This report presents the results of the re-examination of artifacts unearthed from the Oya-ri tombs, located in the northeast section of Pyeongyang City's Nangnang District. The artifacts comprise finds from the excavation of Oya-ri Tombs No. 18 to 21 and No. 25, which took place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as well as a number of artifacts in the National Museum's collection that have been attributed to the Oya-ri tombs. In addition, a review was undertaken of the artifacts from Oya-ri Tombs No. 22 and 23 (which are not part of the National Museum's collection) based on previously published reports.

Artifacts of various materials, such as lacquerware, objects made of wood or bronze, pottery, and beads were excavated from the Oya-ri Nangnang tombs. Lacquerware was the most frequently discovered artifact type; lacquerware artifacts were present within all wooden cists. The majority of the lacquerware objects consisted of servingware or food containers, such as lacquerware platters, bowls, and cups (which are the ubiquitous types of Han Dynasty lacquerware), but lacquerware desks and small tables were also present. The lacquerware artifacts had been produced using a wide range of manufacturing techniques, such as the use of an inner wooden structure, an inner wooden structure covered with fabric, and an inner burlap structure. Two types of lacquer were used to cover the inner structure: black lacquer and red lacquer. Both types of lacquer were used to produce elaborate decorations. Inscriptions located at the base of lacquerware vessels and containers or at the backside of lacquerware tables mainly contain information on the craftsperson responsible for the object's manufacture; in some cases, the date and location of manufacture are also provided.

The types of metal objects are not widely varied. The most frequently found metal object is the ring, which was made of silver or bronze. As for bronze mirrors, Tombs No. 19 and 21 yielded a single mirror each, whereas two mirrors were found in Tomb No. 25. All of the bronze mirrors date to the Later Han period. Tomb No. 18 was also found to contain the end-fittings of bronze parasol ribs, a crossbow fitting, and a bronze vessel. Tombs No. 22 and 23 are reported to have yielded conical, 'Z'-shaped, and pistol-shaped bronze objects, bronze bells, and a bronze mirror fragment decorated with animal motifs.

A wide range of ceramic vessels were excavated from the Nangnang tombs, including large jars with quartz inclusions, flowerpot-shaped vessels, short-necked and flat-based jars, and long-necked and flat-based jars. Each of the wooden cists of Tomb No. 20 contained around five ceramic vessels that broadly date to around the late 1st century BCE. Tomb No. 25 was found to contain mostly long-necked and flat-based jars; the elongated nature of the necks and the marked angle of the edge of the vessel rim indicate that the vessels were manufactured at around the 2nd to 3rd centuries CE.

A large amount of beads were retrieved from the wooden cists. In particular, Tomb No. 20



yielded hundreds of small glass beads, as well as wide range of differently shaped beads, including a sheep-shaped bead, an aubergine-shaped bead, multifaceted beads and globular beads. In addition, seeds and fruit pits, oak leaves, and a conch operculum were also discovered at the Oya-ri Nangnang tombs, which may be associated with funerary offerings.

The construction materials of the wooden cists and wooden coffins were recovered from Oya-ri Tombs No. 18 to 21, of which the materials from four wooden coffins from Tomb No. 19 were found to be in good condition. The coffin pieces are rectangular in shape and in the case of the pieces forming the coffin cover, the upper part is wider than the lower part. The coffin pieces were made by connecting wooden planks using dovetail joinery and bow tie inlays. The outer surfaces of the wooden coffin pieces were all covered with black lacquer and in the case of Coffin No. 2, the inner surface was covered with red lacquer. The surface of this coffin was also elaborately decorated with glit-bronze four pointed leaf decorations and whirligig beetle decorations. This suggests that the owner of the tomb was likely buried in Coffin No. 19.

The Oya-ri tombs that were investigated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are Tombs No. 18 to 21, which are wooden cist tombs, and Tomb No. 25, which is a brick chamber tomb. The wooden cist tombs are middle to small-sized, measuring around 3 meters in length. The artifacts found within indicate that Tombs No. 22 and 23 – the earliest of the tombs to have been constructed and which yielded chariot fittings and bronze bells – may have been constructed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the Nangnang Commandery. Tomb No. 20 can be dated to the late 1st century BCE, based on the stylistic analysis of the pottery; it is likely that this tomb is contemporaneous to Tomb No. 18, which yielded horse and chariot trappings and a crossbow part. The construction of Tomb No. 21 can be dated to the late 1st century CE, based on the dates appearing in the inscription located on the base of a lacquer cup from the tomb. The bronze mirror with a band of zoomorphic patterns from Tomb No. 19 is dated to the late 2nd century CE, which indicates that this is the earliest possible date for Tomb No. 19's construction. As for Tomb No. 25, which is a brick chamber tomb, typological analysis of potteries suggests that it was likely constructed around the 2nd to 3rd century CE.

The Oya-ri Nangnang tombs are smaller in number and less densely concentrated than the tombs of Seokam-ri and Jeongbaek-ri, and they are mostly middle to small sized. However, the Oya-ri tombs were continuously constructed throughout the entire period of Nangnang's existence. In addition, some of the tombs at Oya-ri appear to have been used by the indigenous elite. It is hoped that the accumulation of research results on neighboring Nangnang tombs will allow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Oya-ri tombs in the future. This will help shed light on the regionality of Nangnang tombs.

# 참고문헌

## [국문]

### 〈단행본〉

국립중앙박물관, 2001a, 『樂浪』, 특별전 도록.

\_\_\_\_\_, 2001b, 『鳳山 養洞里 埽室墓』, 일제강점기 자료조사 보고 2집.

\_\_\_\_\_, 2002, 『平壤 貞柏里 8·13號墳』, 일제강점기 자료조사 보고 3집.

\_\_\_\_\_, 2018, 『평양 석암리 9호분』, 일제강점기 자료조사 보고 30집.

\_\_\_\_\_, 2021a, 『평양 오아리 18~21·25호분-유구편』, 일제강점기 자료조사 보고 41집.

\_\_\_\_\_, 2021b, 『漆 아시아를 칠하다』, 특별전 도록.

오영찬, 2006, 『낙랑군 연구』, 사계절.

高久健二, 1995, 『樂浪古墳文化 研究』, 학연문화사.

王培新(오영찬 역), 2007, 『중국 고고학에서 본 낙랑고분』, 진인진.

### 〈논문〉

이강미, 1992, 「樂浪古墳出土 漆器에 對한 一考察」, 『한국상고사학보』 제11호.

이나경, 2022, 「일제강점기 낙랑고분 출토 토기의 재검토」, 국립박물관 소장 일제강점기 자료의 공개와 활용 학술대회 발표문.

이용희, 2010, 「韓國 古代漆器의 技法 研究」,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인성, 2002, 「樂浪文化の考古学的研究」, 東京大学大学院 博士學位論文.

\_\_\_\_\_, 2003a, 「樂浪土城 출토 土器」, 『동아시아에서의 낙랑』, 제5회 한국고대사학회 하계세미나.

\_\_\_\_\_, 2003b, 「樂浪円筒形土器の性格」, 『東京大學文學部考古學研究室研究紀要』 18, 東京.

\_\_\_\_\_, 2004a, 「樂浪土城의 土器」, 『한국고대사연구』 34.

\_\_\_\_\_, 2004b, 「樂浪土城의 「滑石混入系」土器와 그 年代」, 『百濟研究』 40.

\_\_\_\_\_, 2005, 「낙랑토기 및 평기와의 제작기법」, 『낙랑의 고고학』, 제33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회요지.

\_\_\_\_\_, 2014, 「낙랑군의 토기문화」, 『낙랑고고학개론』,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18.

包永超, 2018, 「樂浪 木槨墓의 棺槨制度 연구」, 『고고학』 17-3호.

## [일문]

關野貞, 1926, 『樂浪郡時代の遺迹』, 朝鮮總督府古跡調査特別報告 第4冊.

樂浪漢墓刊行會, 1974, 『第一冊 - 大正十三年度發掘調査報告』.

內藤虎次郎, 1926, 「樂浪遺迹出土의 漆器銘文」, 『藝文』 17-1.

原田淑人, 1926, 「樂浪出土漆器의 銘文中に見ゆる工に就いて」, 『史學雜誌』 37-8.

朝鮮古蹟研究會, 1934, 『樂浪彩篋塚』.

\_\_\_\_\_, 1935, 『樂浪王光墓』.

\_\_\_\_\_, 1938, 『昭和十二年度古跡調査報告』.

朝鮮總督府, 1915, 『朝鮮古蹟圖譜 第一冊 - 樂浪郡及帶方郡時代』.

\_\_\_\_\_, 1927, 「樂浪郡時代の遺蹟-本文」, 古蹟調査特別報告 第四冊.

\_\_\_\_\_, 1935, 『昭和五年度古蹟調査報告 第一冊 - 平安南道大同郡大同江面梧野里古墳調査報告』.

佐藤武敏, 1958, 「中国古代の漆器工業」, 『人文研究』 9-11.

樋田豊郎 編, 2012, 『樂浪漆器：東アジアの文化をつなぐ漢の漆工品』.

#### [중문]

廣西壯族自治區文物工作隊, 1985, 「廣西貴縣北郊漢墓」, 『考古』 1985-3.

唐蘭, 1980, 「長沙馬王堆漢軼侯妻辛追墓出土隨藏遺冊考釋」, 『文史』 10.

傅舉有, 1997, 「中國漆器的巔峰時代-漢代漆工藝美術綜」, 『中國漆器全集-漢』, 中國漆器全集編輯委員會.

宋治民, 1979, 「汉代铭刻所见职官小记」, 『考古』 5.

王仲殊, 1984, 『漢代考古學概說』, 中華書局.

容庚, 1926, 「樂浪出土漆器銘文考」, 『北大國學月刊』 1-1(10).

\_\_\_\_\_, 1931, 『秦漢金文錄』, 漢金文錄 卷5 .

李正光, 2002, 『汉代漆器圖案集』, 北京: 文物出版社.

洪湖革命歷史博物館, 1987, 「湖北洪湖縣出土漢代銅鏡」, 『考古』 1987-11.

日帝强占期 資料調査 報告 42輯

## 평양 오야리 18~21·25호분 – 유물편

TOMB NO.18~21·25 AT OYA-RI IN PYEONGYANG

### 기획

김상태, 양성혁, 최정아

### 총괄 및 편집

최정아

### 진행

최정아, 정수빈, 정수진

### 실측 및 제도

정수빈, 정수진

### 3D 스캔 및 제도

(주)기록하는 사람들

### 보존처리 및 분석

유혜선, 양석진, 박영만, 김태하

곽홍인, 박승원, 황진영

김미도리, 김현정, 최기은, 권미혜, 박지혜

노지현, 고수린, 박진호, 이수진

황현성, 나아영

### 원고

(본문) 최정아, 이나경, 이양수, 이태희, 양성혁

(분석) 양석진, 고수린, 박승원, 김태하, 이희경

###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

04383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www.museum.go.kr

National Museum of Korea

137 Seobinggoro, Yongsangu, Seoul, Republic of Korea

04383

www.museum.go.kr

### 디자인·인쇄

계문사

03041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길 41

T 02 725 5216 F 02 738 9571

gaemunsa@daum.net

### 인쇄일

2022년 12월 16일

### 발행일

2022년 12월 20일

### ISBN

978-89-8164-254-9 93910

© 2022 국립중앙박물관

이 책의 저작권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담긴 모든 내용과 자료는 국립중앙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22 National Museum of Korea

All right reserved.

All Contents and relevant materials in this book can be used with the permiss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9 788981 642549

ISBN 978-89-8164-254-9

비매품